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김지경 · 서정아 · 송현주



보고서 표지 디자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보고서 디자인 콘테스트』의 당선 작품을 카카오톡 이모티콘 작가(작가명 모지)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실사한 것입니다.

*당선작 프롬프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 청소년들을 지지하는 어른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문화, 기후변화, 인공지능, 미디어, 권리”

AI 디자인_ 곽진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행정원)

실사 디자인_ 변지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

연구보고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실태

책임연구원_김지경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서정아 선임연구위원, 송현주 H통계연구소 대표

연구보조원_윤현솔 연구원

보고서를 펴내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OECD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금융교육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날들에 금융웰빙이 내 삶의 질에 그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기에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부터 금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고자 금융위원회가 매년 금융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과 현실의 금융생활 실체에 기반한 금융교육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부재이다.

이와 같은 현실의 문제는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계기이자 배경이 되었다. 연구를 통해 전국의 초·중·고생을 대표하는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과 현실의 금융생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였다. 나아가 실증분석을 통해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제한된 예산 및 시간, 그리고 연구 인력의 여건하에서 작성된 보고서로서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는 한계는 있겠으나, 본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 근거 기반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을 탄탄하게 해 나가는데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가까이 자신의 시간과 지식 및 경험을 나누어주신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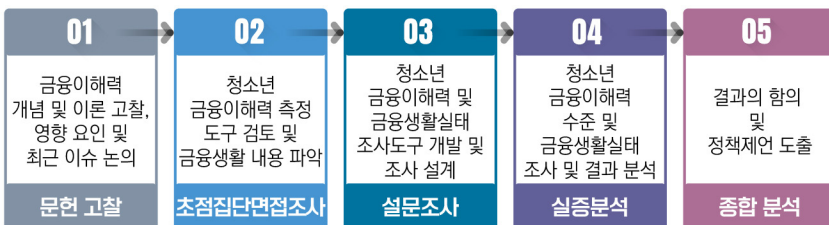
연구 요약

■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금융교육이 하나의 사회안전망으로 인식될 만큼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하에서, 금융교육을 비롯한 청소년 금융생활에 대한 지원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할 공신력 있는 자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고, 동시에 일상에서의 금융생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실증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방법

-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차적 통합방법설계(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의 틀을 기본으로 주요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단계적으로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진행
- 금융이해력 개념 및 이론의 고찰을 시작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금융 이슈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 실태 측정을 위한 도구 마련을 위해 기존 측정 도구의 검토 및 초점집단면접조사(FGI)의 실시, 전국 초·중·고생 표본조사를 통한 설문자료 수집 및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실증분석과 결론 도출



주요 연구결과

-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생 8,758명(초등 2,870명, 중등 3,041명, 고등 2,847명)대상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조사자료 수집·분석
-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 검증, 학교급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을 두 가지 분석모델(Robust OLS Model, Quantile Regression Model)로 분석
- 단계적으로 진행된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실증분석		주요 발견
기초 통계 분석	주요 발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고, 현재 소비에 대한 선호 강함. 2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67.2점)는 전체 평균(66.5점) 및 20대 청년(65.8점)보다 높은 수준임. 3 금융지식 중 초등학생은 금융회사의 성격과 기능, 중·고등학생은 복리 이해 점수가 가장 낮음. 4 금융이해력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공통 특성은 학년과 부모학력(초등 및 중등),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과 부모의 학력(중·고생)임. 5 금융생활실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공통 특성은 용돈 저축여부, 직접 가입한 예/적금 유무, 부모의 금융교육 수준, 금융정보활동 경험 유무, 돈에 대한 행동적 차원의 인식, 부정적 돈 사용 태도임.
실증모델 분석 I Robust OLS	주요 발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고생 모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총 4가지(+ 영향 : 용돈 저축, 부모의 금융교육 총 점수, 돈에 대한 행동차원 인식 점수, - 영향: 부정적 돈 사용 태도 및 인식 점수)임. 2 초·중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a)학년과 b)학교 금융교육 경험임. 3 중·고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a)주관적 학업성취 수준, b)정기적으로 받는 용돈, c) 내 명의 체크카드만 사용, d)선불충전방식 청소년전용카드 사용, e)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임. 4 고교생의 경우 특성화고(-), 관련 교과목 금융교육 활동수업 경험(+), 용돈 외 아르바이트, 부모일 도움, 가진 것 판매/거래 경험의 수입활동(+)이 동일 학교급 내 금융이해력 수준의 격차 요인임. 5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는 초등학생은 a)돈에 대한 행동차원의 인식 점수와 b)부모의 금융교육 총 점수, 중학생의 경우 a)돈에 대한 행동차원의 인식 점수와 b)스스로 정보를 찾아보는 활동, 고등학생은 a)스스로 정보를 찾아보는 활동과 b)정기적인 용돈 점수의 순임.
실증모델 분석 II Quantile Regression	주요 발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고생 금융이해력 3개 분위 모두에서 영향력을 갖는 공통 요인은 2가지로, 돈에 대한 행동차원 인식 점수(+)와 부정적 돈 사용 태도 점수(-)임. 2 성별(-)과 학교 금융교육 경험(+)(은 초·중생의 50%와 하위 10% 분위에서만 영향력이 나타남. 3 중·고생의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 용돈 외 수입활동으로 가진 것 판매/거래, 내 체크카드만 사용, 선불충전방식 카드 사용, 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은 50%이상 영향(+)을 미침. 4 특성화고(-)와 돈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점수(+), 정기적인 용돈(+), 관련 교과목 활동수업 형태의 학교 금융교육 경험(+)(은 고교생의 금융이해력 수준 모든 분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실증결과에 대한 이론 및 정책 측면의 함의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청소년 금융교육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세 가지 정책추진 방향과 이에 대응하는 실행전략을 추진 방향별로 도출하였음.
- 정책 목표 달성 및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총 9개의 과제 발굴

정책목표

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을 통한 생애 금융웰빙 실현의 역량 강화

정책 추진방향

추진방향 01

정책 추진
기반의 강화

추진방향 02

초·중·고생 발달특성 및
생활 밀착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추진방향 03

동일 학교급 내
금융이해력
격차 완화

추진전략

01
추진전략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의
강화 및 실행 협력 체계
범위 확대

02
추진전략

교육대상 범위 확대 및
초·중·고 맞춤형 정책
수단·도구 연계 활용

03
추진전략

취약 가정, 지역,
특성화고 대상 금융교육
우선 지원 확대 및 강화

추진과제

추진과제
01

1. 국가승인통계로서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실시
2. 청소년기 금융이해력과 20대 청년기 금융웰빙 수준과의 연계성 체계적 모니터링
3. 금융교육 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과제
02

4. 학교 및 지역, 직장과 연계한 초·중·고생 학부모 금융교육 추진
5. 초·중·고생 특성 및 금융이해력 수준을 고려한 교육방법 재구성
6. 금융서비스 연계 틈새 금융교육 제도 마련

추진과제
03

7.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연계 금융교육 실시 및 종사자 금융교육 실시
8. 특성화고 교고생 생활 밀착형 금융교육강화 및 집중 지원
9. 중소도시 및 읍/면/도서 지역 청소년 금융교육 채널 다양화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실태

연구보고23-기본0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	7
1) 대상 범주의 설정	7
2) 내용 및 방법 구성의 기본 설계	7
3) 단계별 주요 내용 및 방법	9
3. 추진 체계 및 절차	14
1) 연구 추진체계	14
2) 연구 추진절차	15

II. 개념 및 이론적 관점, 그리고 정책 동향과 이슈 논의

1. 금융이해력 개념 및 정의	19
1) 금융이해력 개념	19
2. 금융이해력 이론적 관점	24
1) 금융이해력 설명 이론	24
2) 청소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27

3. 그 간 정책 대응의 흐름 및 최근 동향	37
1) 금융교육관련 법률 및 입법 동향	37
2) 금융교육 정책 수립 동향	42

III.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 실태 문항 작성 및 개발

1.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의 검토	49
1) 주요 측정도구의 개발 및 발전 동향	49
2) 주요 금융이해력 측정도구의 구성 내용	53
2. 청소년 금융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FGI	61
1)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실시 목적 및 과정	61
2)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구성	62
3) 초점집단면접조사(FGI) 내용 및 방법	66
4)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주요 결과	69
3. 소결	86

IV.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분석	91
1) 조사 추진 및 표본 구성	91
2) 조사 내용 구성 및 문항 개발	93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02
4) 응답자 특성 분석	104
2.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실태 분석	108
1) 금융이해력 수준	108
2) 금융생활 실태	130
3)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 비교 ..	147
3. 소결: 결과의 함의 및 실증모델 분석의 방향	159

V.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요인 실증 모델 분석

1. 실증분석 모델의 구성	165
1) 실증분석 모델의 선정	165
2) 분석 변수의 기초 통계량	174
2.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요인 분석 : Robust OLS 모델 ..	198
1)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198
2) 중학생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206

3)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213
3. 분위별 영향요인 분석: Quantile Regression 모델 ...	222
1) 금융이해력 3개 분위 점수 비교	222
2) 학교급별 금융이해력 3개 분위별 영향 요인	224
4. 소결 : 주요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39

VI. 종합논의 및 정책 제언

1. 주요 결과의 요약	245
1) 연구 추진과정의 요약	245
2) 실증결과의 주요 발견	248
2. 주요 결과의 함의 및 정책개입의 방향	255
1) 주요 결과의 함의	255
2) 정책 개입의 방향	261
3. 실증결과에 기초한 정책제언	265
1) 정책 목표 및 방향의 설정	265
2) 세 가지 정책전략과 추진과제의 구성	266
3)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268

참고문헌	283
-------------------	------------

부록	295
-----------------	------------

표 목차

표 I-1. 초점집단면접조사 방법	10
표 I-2. 실태조사 표본 개요	11
표 I-3. 자문회의 추진 내용	13
표 I-4. 정책실무협의회 추진 내용	13
표 II-1. 금융웰빙과 금융역량의 구성	21
표 II-2. 금융웰빙의 4가지 구성항목	23
표 II-3. 청소년 전용 카드 사례 분석	34
표 II-4. 금융교육 근거 법률 조항 : 금융소비자보호법	38
표 II-5. 금융교육 근거 법률 조항 : 경제교육지원법	39
표 II-6. 지자체 금융교육관련 조례 제정 현황	40
표 II-7. 금융교육관련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	41
표 II-8. 금융교육관련 주요 정책 동향	43
표 III-1. 미국 금융교육 표준체계의 주요 내용 구성	53
표 III-2. 미국경제교육협회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의 주요 내용 구성	54
표 III-3. OECD/INFE 금융이해력 조사 항목	56
표 III-4. PISA2018 금융이해력 평가 영역 및 내용	57
표 III-5. PISA2015 금융이해력 핵심역량 기본 체계의 구성	58
표 III-6. 한국은행·금융감독원 금융이해력 조사 주요 측정 내용	59
표 III-7. FGI 참여자 그룹 구성 및 섭외 기준	63
표 III-8. FGI 참여자 구성 및 특성 : 청소년	64
표 III-9. FGI 참여자 구성 및 특성 : 학부모	65
표 III-10. FGI 주요 내용 구성	66
표 III-11. FGI 방법	68
표 IV-1. 표본설계 :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표본 학교 및 학생 수	93
표 IV-2. 조사 내용의 구성	95
표 IV-3. 조사 문항 및 문항 작성의 근거	98
표 IV-4. 주요 분석 내용 및 방법	104
표 IV-5. 응답자 특성	106
표 IV-6.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별 점수	111

표 IV-7. 초등학생 개인 및 부모 특성별 금융이해력 차이 비교	113
표 IV-8. 중학생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별 점수	117
표 IV-9. 중학생 개인 및 부모 특성별 금융이해력 차이	120
표 IV-10. 중·고등학생 학년별 금융태도 점수 :	
성인 및 20대 점수와 비교	124
표 IV-11.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별 점수	125
표 IV-12. 고등학생 개인 및 부모 특성별 금융이해력 차이	128
표 IV-13. 용돈 유무 및 관리	131
표 IV-14. 용돈 외 수입활동 경험	133
표 IV-15. 직접 가입한 금융상품 보유율	134
표 IV-16. 체크카드 사용 여부 및 유형	135
표 IV-17. 자신 명의 체크카드 첫 사용 시기	135
표 IV-18. 선불충전방식 청소년 전용카드 사용 여부	137
표 IV-19. 부모의 금융교육 경험	138
표 IV-20.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경험	140
표 IV-21. 가정이나 학교 이외에서의 금융교육 경험	141
표 IV-22. 스스로의 금융정보 활동 경험	142
표 IV-23. 금융피해 경험	143
표 IV-24. '돈'에 대한 3가지 차원의 인식	144
표 IV-25. 부정적 '돈' 사용 태도	145
표 IV-26.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 수준	146
표 V-1. 금융이해력 변수 생성 기준	170
표 V-2. 분석 변수 구성	172
표 V-3. 분석 변수의 기초통계량	178
표 V-4. 학교급별 금융이해력 3개 분위 기초통계량 비교	188
표 V-5.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200
표 V-6. 중학생 금융이해력 영향요인	209
표 V-7.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영향요인	216
표 V-8. 초·중·고생 금융이해력 3개 분위 점수	223
표 V-9. 초등학생 3개 분위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요인	226
표 V-10. 중학생 3개 분위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요인	230
표 V-11. 고등학생 3개 분위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요인	236
표 VI-1. 중·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점수 : 성인 및 20대 청년과 비교	249
표 VI-2. 금융지식 측정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 항목:	
복리 개념의 이해	250
표 VI-3. 초·중·고생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요인의 영향력 순위 비교	252

표 VI-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제안	271
표 VI-5.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제안	271
표 VI-6. 정책 추진 과제 요약	282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의 기본 설계	8
그림 I-2. 단계별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	9
그림 I-3. 연구 추진체계	14
그림 I-4. 연구 추진 일정 및 절차	15
그림 II-1. 금융웰빙의 선행모델	22
그림 II-2. 청(소)년 금융이해력 개발의 기본 틀	28
그림 III-1.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의 개발 동향 및 우리나라 조사 실시 시기 비교	52
그림 III-2. 연구추진 과정에서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위치 및 활용	62
그림 III-3. FGI 주요 내용 구성 및 진행 흐름	67
그림 IV-1. 설문조사 추진과정	92
그림 IV-2. Atkinson and Messy의 금융이해력 측정 개념	94
그림 IV-3. 조사문항 개발 과정	96
그림 IV-4. 자료 수집 방법 및 과정	103
그림 IV-5.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수준	109
그림 IV-6. 초등학생 성별 및 학년별 금융이해력 수준	110
그림 IV-7. 초등학생 금융지식 수준	112
그림 IV-8. 초등학생 금융행위 수준	112
그림 IV-9. 초등학생 금융태도 수준	112
그림 IV-10. 중학생 금융이해력 수준	115
그림 IV-11. 중학생 성별 및 학년별 금융이해력 수준	116
그림 IV-12. 중학생 금융지식 수준	118
그림 IV-13. 중학생 금융행위 수준	118
그림 IV-14. 중학생 금융태도 수준	118
그림 IV-15.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수준: 중학생과 비교	123
그림 IV-16. 고등학생 성별 및 학년별 금융이해력 수준	123
그림 IV-17. 고등학생 금융지식 수준	126
그림 IV-18. 금융지식 측정 문항 ‘복리개념의 이해’ 점수 : 중학생 및 성인과 비교	126

그림 IV-19. 고등학생 금융행위 수준	126
그림 IV-20. 고등학생 금융태도 수준 : 초·중·고 비교	127
그림 IV-21. 초등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1) : 용돈	148
그림 IV-22. 초등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2) : 직접가입 금융상품	148
그림 IV-23. 초등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3) : 금융교육	149
그림 IV-24. 초등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4) : 돈 인식 및 태도	150
그림 IV-25. 중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1) : 용돈	151
그림 IV-26. 중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2) : 직접가입 금융상품	151
그림 IV-27. 중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3) : 카드 사용	152
그림 IV-28. 중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4) : 금융교육 및 금융정보 활동	153
그림 IV-29. 중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5) : 돈 인식·태도	153
그림 IV-30. 중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6) :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	154
그림 IV-31. 고등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1) : 용돈	155
그림 IV-32. 고등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2) : 직접가입 금융상품	156
그림 IV-33. 고등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3) : 카드 사용	156
그림 IV-34. 고등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4) : 금융교육 및 금융 정보 활동	157
그림 IV-35. 고등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5) : 돈 인식·태도	158
그림 IV-36. 고등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6) :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	158
그림 V-1.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전체	204

그림 V-2.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금융지식	205
그림 V-3.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금융행위	205
그림 V-4.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금융태도	206
그림 V-5. 중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전체	212
그림 V-6. 중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금융지식	212
그림 V-7. 중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금융행위	213
그림 V-8. 중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금융태도	213
그림 V-9.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전체	219
그림 V-10.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금융지식	220
그림 V-11.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금융행위	220
그림 V-12.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금융태도	221
그림 V-13. 초·중·고생 금융이해력 3개 분위 평균 점수(100점 환산) ..	224
그림 VI-1. 연구 추진의 과정	246
그림 VI-2. 주요 실증분석 및 주요 발견	254
그림 VI-3. 정책 추진의 3가지 방향	266
그림 VI-4. 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계획의	
기본 체계(안)	267
그림 VI-5. 법령 등 개정을 통한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 실행 체계	
범위 확대 및 강화	272
그림 VI-6.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 대상자의 확대	274
그림 VI-7. 초·중·고생 특성을 고려한 금융교육 정책수단의 배치 ..	276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
- 3. 추진 체계 및 절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금융교육을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금융교육협의회, 2020.04, p.1). 그리된 배경에는 OECD가 종합적인 금융교육(financial education)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2002년 금융이해력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영향도 있지만(OECD/INFE 홈페이지, 2023.05.22. 검색), 그보다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라는 상황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라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주요국에서는 금융지식을 비롯한 금융이해력이 소득격차 심화와 양극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동시에 기술발전과 결합하여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생활환경 속에서 원활한 금융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기를 수 있는 금융교육이 중요하게 인식되게 된 것이다(김정환, 2017, p.4).

OECD는 미래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으로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8년 5월에 설치된 금융교육 전담기구인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을 통해 각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각국에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영역을 신설하고 평가하고 있다(OECD, 2018; OECD 2018.06a).

우리나라도 그러한 국제사회 흐름에 동참하며 OECD/INFE가 개발한 조사 내용과 기준

* 이 장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에 따라 전국 18세 이상 79세 이하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조사’를 2012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 국민의 경제·금융 교육 방향 및 정책방안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금융감독원, 2022.08.29., p.1).

국가 수준의 금융교육과 관련한 정부의 노력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전 국민 대상의 금융교육 정책은 2013년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수립된 후 2015년 ‘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 강화 방안’으로 체계성이 강화되었고, 2017년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방안’으로 보완되었다. 또한 법정기구인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2020년 ‘금융교육개선 기본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어 최근 학교 정규교육에서의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융합 선택과목으로 실생활 금융교육을 강조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기도 하였다(금융교육협의회, 2020.4., p.2; 교육부, 2022.12.22., pp.8, pp.27).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교육을 비롯한 금융관련 내용이 청소년정책 안에서 인식되거나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단적인 예로 올해 2월에 발표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 세제단위의 과제로 ‘금융·경제 분야 청소년 교육 실시’가 포함되었는데,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금융관련 과제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해 수집되는 각종 기초통계조사 자료에도 금융과 관련한 청소년의 이해력이나 금융생활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예컨대 중·장기 청소년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3년 주기로 수집되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도 금융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수집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불법금융행위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소액대출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해 제한적으로 조사되었을 뿐이다(여성가족부, 2022.12., pp.204-207).

청소년 시기,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이해력이 직후 생애단계인 청년 시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 등의 정책이 확대되면서,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수혜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금융이해력이 필요하다는 청년 당사자들의 생생한 의견이 포착되기도 한다. 일례로 지난해 청년재단에서 <금융·재테크>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자산형성을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의 질문에 59%가 ‘중·고등학생 때부터 공교육에서 금융·경

제교육', 16.9%가 '금융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가장 필요하고, 자산형성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 없다고 응답한 수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청년재단, 2022.12.30.).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에 발표된 '2022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에 나타난 20대 청년들의 금융이해력 수준(65.8점)은 전체 평균(66.5점)보다 낮다(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3.03.30., p.1).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측면의 교육이 보완 또는 강화되어야 하는가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OECD/INFE의 기준을 준용하여 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18세~79세 성인 대상 금융이해력 조사의 결과로 금융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있기는 하나,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신력 있는 금융이해력 조사는 현재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금융이해력 영역을 2012년부터 평가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해당 영역 평가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학술연구 측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한 연구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술연구에서 측정하고 분석한 자료들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표성을 확보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닌, 특정 지역 또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등 대상자를 한정하여 금융이해력을 측정·분석한 한계가 있어 이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2000년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대략 10여 년 간 청소년 대상 금융이해력 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 표본조사가 어떤 해에는 중학생만, 초등학교만, 또는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2009년과 2011년에만 전국단위 조사가 이루어진 한계가 있다(오영수, 2015, pp.75-76).

한편, 그 간 청소년정책 분야에 있어 금융과 관련한 이해력 수준이나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기초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 이외,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은 물론, 일상에서 조각조각 드러나는 금융생활 실태와 관련한 사실들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 측에서는 주식 열풍에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 수가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인다는 언론의 보도와 더불어 "세뱃돈으로 주식 투자" 등 주식, 가상화폐나 파생상품과 같은 고도화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주식운용능력평가(S-MAT)와 같은

금융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10대 청소년이 10% 전후에서 17%까지 증가(한국증권인재 개발원, 2022.12.13.; 매일경제 2022.02.28.; 헤럴드경제, 2023.01.21.)한 반면, 또 다른 한 측에서는 ‘불법 사금융 피해’나 ‘불법 내구재 대출피해’를 당하거나 금융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금융위원회, 2022.12.22.; 청년재단, 2022.12.30.; NGO저널, 2023.02.13.). 한편 청소년 시기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 없는 상태로 사회에 진출하다 보니 또 정부의 정책지원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신청을 못하는 청년이 존재(청년재단 2022.12.30.; NGO저널 2023.02.13.)한다는 사실 또한 조각되어 드러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현실의 단면으로 드러나는 청소년 금융생활과 관련한 세대내 격차에 대해서도 실증 자료를 통한 확인(fact finding)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금융생활 일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청소년 금융교육의 전략을 수립하고, 올바른 청소년 금융생활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융이해력 수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와 더불어 실증분석 자료가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고, 동시에 일상에서의 금융생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전국의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격화되고 구체화되는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 간 발견되지 못한 효과적인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전략 등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실증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

1) 대상 범주의 설정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20대 초반의 후기청소년이자 청년까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청소년, 즉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후기청소년은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10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OECD/INFE가 제시한 표준방법론에 따라 2년 주기의 18세~79세 대상, 성인 ‘금융이해력조사’에 후기청소년 연령대가 이미 포함되어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청소년 연령 범주를 학령기 청소년인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학령기 10대 청소년 중에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청소년 금융이해력이나 금융생활실태와 관련하여 현재 학령기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 조사된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대표성 있는 조사 자료의 확보가 우선 목표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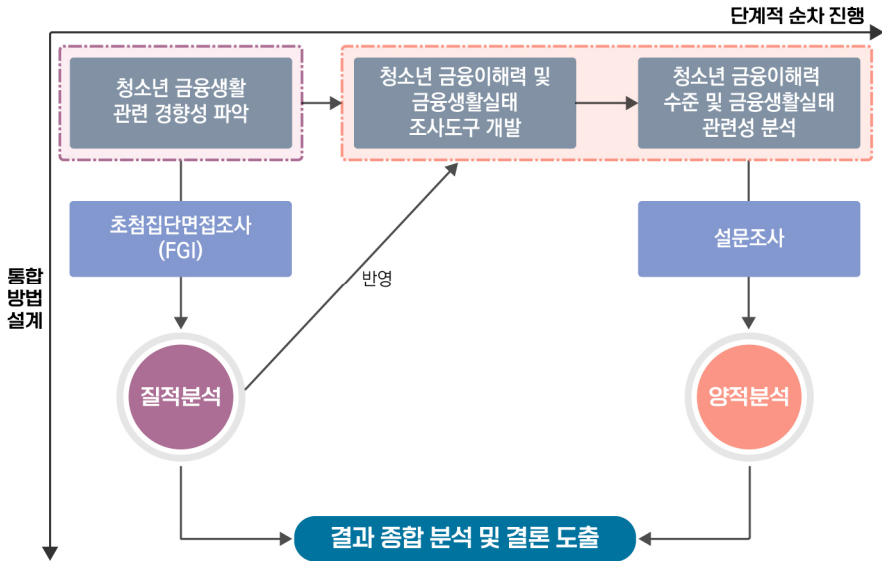
물론 학교밖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경제교육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계획 단계에서 대표성 있는 표본조사를 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표집 틀이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없다는 점, 제한된 예산과 연구기간을 고려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의 일상이 다르게 구성되는 만큼 별도의 조사도구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의 대상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조사도구가 개발된다면 별도로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또는 ‘위기청소년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와 같은 유관 조사에서 하나의 구성요소 또는 문항으로 반영하여 측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2) 내용 및 방법 구성의 기본 설계

청소년 금융이해력과 금융생활실태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측정도구나 국가승인통계가 부재하고, 특히 금융생활실태와 관련해서는 정책연구는 물론 학술연구 측면에서도 측정 문항이 다년간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 실태와 관련된 전반적인 경향을 우선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측정 도구를 개발한 후 양적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통합연구방법(Mixed Methodology)’을 연구 설계의 기본 틀로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통합연구방법의 목적 중 하나가 첫 번째 방법의 활용에서 나온 결과를 두 번째 방법의 정보로 쓰는 방법의 순차적인 활용에 있기 때문에(Tashakkori & Teddlie, 2001, p.77), 질적 방법을 통해 양적 설문조사 도구를 개발해야 하는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통합연구방법에 다양한 설계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 통합방법설계(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를 선택하고, 일명 ‘QUAL/QUAN 계열’로 설계하였다. 순차적 통합방법설계는 질적 접근 후 별개의 양적 접근으로 집행하거나, 혹은 그 역의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QUAL/QUAN 계열’의 순차적 통합설계방식은 일반적인 순차 방법인데,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에 대해 질적 자료수집과 분석을 한 다음 그 결과를 활용하여 후속으로 양적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을 말한다(Tashakkori & Teddlie, 2001, p.82).



*출처: 김지경, 김윤희, 송현주, 변주영(2022).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p.10, 그림 1-3. 수정사용.

그림 1-1.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의 기본 설계

이와 같은 'QUAL/QUAN 계열'의 '순차적 통합방법설계(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를 기본 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횡축에 내용을 위치시키고, 각 내용에 활용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종축에 배치하여 구성하였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 전반에 대한 경향성을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고, 이 면접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토대로 양적 설문조사의 조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개발된 조사도구로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양적 설문조사의 결과 해석 및 종합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단계의 질적 자료 분석의 결과가 반영되는 구조이다.

3) 단계별 주요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앞서 '순차적 통합방법설계(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에서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총 다섯 단계로 구성되며 단계별 주요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 단계별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

1단계에서는 과제 발굴과정에서 모호하게 설정되었던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명확하게 재설정하고,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설정된 연구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문헌고찰과 언론자료, 그리고 청소년 금융과 관련된 EBS 및 유튜브 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전반적인 연구 구성의 기본 설계를 구체화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청소년 금융이해력의 개념 및 정의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확대·발전되어 왔는지를 파악하였다. 또 관련 연구들이 대체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부터 2010년 초·중반까지 집중되었고, 이후에는 축적된 실증연구도 많지 않으며 최근 자료를 분석한 실증연구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청소년의 금융생활실태와 관련한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언론 기사 또는 영상자료 중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의 출시 또는 주식열풍 속에서의 청소년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자료들은 확인할 수 있었다.

2단계에서는 선행연구를 비롯한 기존 문헌자료를 통해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의 구성 내용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동시에 선행연구가 부재하고 참고할 수 있는 문헌자료가 거의 없는 청소년 금융생활실태에 대한 실제 내용을 파악한 후 금융생활실태 측정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초점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최근 청소년의 금융생활실태와 관련해서는 이론을 토대로 개발된 측정 도구는 물론, 유사 주제 연구에서 사용했던 보편적인 측정 문항조차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 금융생활이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1. 초점집단면접조사 방법

구분	내용
대상 및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6개 그룹 구성(청소년 3개 그룹 총 14명, 학부모 3개 그룹 총 9명) 문헌고찰과 집단면접조사 방식을 고려하여 청소년 참여자는 고교 재학생으로 구성,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실태파악은 학부모 그룹 활용
면담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해진 장소로 참여자 내방
면담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구조화된 질문의 내용을 섭외과정에서 미리 제공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진행
면담 횟수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룹별 면접조사 시간은 90분~120분
기록 및 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섭외과정 및 시작 전 참여자들에게 기록을 위한 녹취에 대해 동의 구하고, 녹취 후 속기사에 의한 내용 전사
면담자	연구진

3단계에서는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한 금융이해력 측정도구에 대한 비교·분석의 결과와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한 청소년 금융생활 실태의 주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교사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본 연구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실태조사’의 조사도구를 OECD/INFE의 성인 대상 ‘금융이해력조사’ 구성 요소를 준용하여 마련하였다.

대표성을 갖는 표본으로 청소년 금융이해력이나 금융생활실태와 관련한 기존의 정책 기초자료가 없는 현실에서, 본 연구를 통해 마련되는 조사도구가 이후 관련 연구들에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일정 하에서 최대한 명확한 기준과 체계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는 작성된 조사표 초안에 대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9개 학년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양적인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초·중·고 각 학교급별 교사 및 조사연구 전문가의 반복 검토와 종합분석 및 수정작업, 그리고 IRB승인을 거쳐 조사도구를 확정하였다.

4단계에서는 전국의 초등 4학년~고등 3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두 가지 실증모델(①Robust OLS Model, ②Quantile Regression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의 표본은 17개 광역시도와 초·중·고 학교급 및 고교유형, 학년을 층화변수로 한 층화집락추출법을 활용하여 학교가 선정되고, 선정된 표본학교에서 각 학년별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해당 학급에 속한 학생 모두가 응답자가 되는 방식으로 확정되었다. 대략 350여개 학교가 표본학교로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학교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층에서 무작위로 대체되었다.

표 1-2. 실태조사 표본 개요

모집단	전국 초등 4학년~고등 3학년 재학생
표집 틀	2022년 4월 기준, 교육통계DB 수록 학교 리스트
총 표본 수	총 9,000명
표본 추출 방법	층화집락추출법-확률비례추출 (층화변수: 17개 광역시도, 학교급 및 고교유형, 학년)
표본 배분	변형비례배분 (단순비례 비례 할당 시 특정 층에 너무 작은 표본 크기 배분의 문제 발생)

표본 크기	(단위: 개교, 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학교	
학교 표본	117	108	78	15	6	30	129	
표본 학생 수	2,925	2,916	1,950	375	150	750	3,225	
조사 시기	2023년 5월-6월							
자료수집 방법	표본 학급별 전문조사원에 의한 집단면접조사							

자료의 수집은 선정된 표본학교 학급별 전문조사원에 의한 집단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자료 처리 과정을 거친 후 학교급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에 대한 전반에 대한 통계처리와 더불어 금융이해력 수준과 금융생활실태와의 관련성,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 등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실증모델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되었다.

5단계에서는 실증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각 단계에서 발견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추진과제를 담은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연구 설계부터 정책제언 도출에 이르는 총 다섯 단계의 연구내용을 추진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단계 내에서 또는 다음 단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협의를 물론 자문회의, 유관부처와의 정책실무협의를 함께 진행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이루어진 자문회의는 연구진이 문헌고찰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학교 현장의 금융교육 실태를 비롯하여 교사들이 파악하는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 실태에 관한 생생한 정보의 공유 및 의견 수렴, 그리고 조사도구 개발과정단계에서 내용 검토까지 이어졌다. 또한 법률개정안을 비롯한 정책 자료의 검토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이 이루어졌다. 한편 정책동향에 관한 자료의 공유와 문헌고찰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을 현행 제도와 연계하여 정책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부처 등과 업무협의 및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내용에 대한 공유와 협의가 이루어졌다.

표 1-3. 자문회의 추진 내용

차수	주요 내용	참석	개최 시기
1차	유관 조사자료 파악 및 특성화고 조사관련 협조타진	정책연구자 2인	1/19(목)
2차	FGI 추진 및 설계내용 검토	FGI조사전문가 2인	2/22(수)
3차	초·중·고생 금융생활실태 및 금융교육 현황	교사 3인	3/21(화) 3/22(수) 3/24(금)
4차	조사표 2종 초안 검토	교사 4인 및 조사전문가 2인	4/17(월)
5차	조사표 2종 수정본 검토	교사 4인 및 조사전문가 2인	4/27(목)
6차	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관련 법률 조항 개정 방향	법률전문가 3인	10/12(목)

표 1-4. 정책실무협의회 추진 내용

차수	주요 내용	관계부처	개최 시기
1차	연구계획 및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여성가족부	3/14(화)
2차	학교 금융교육 및 신설교과(금융 및 경제생활) 개설 사항	국가교육위원회	3/14(화)
3차	청소년 금융카드 이용 현황 및 청소년증 기능 강화에의 활용 가능성 검토 및 논의	여성가족부	3/23(목)
4차	금융교육관련 발의법안 검토 사항 및 중간보고 진행 내용 서면 공유	국회	6/15(목) 7/24(월)

3. 추진 체계 및 절차

1)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연구 기간 및 예산 하에서 설정된 연구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내부 연구진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자를 공동연구진으로 구성하였으며,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구성된 통합연구방법을 전문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 조사 방법에 특·장점이 있는 조사전문 업체 각각을 추진체계에 포함하여 [그림 1-3]과 같이 연구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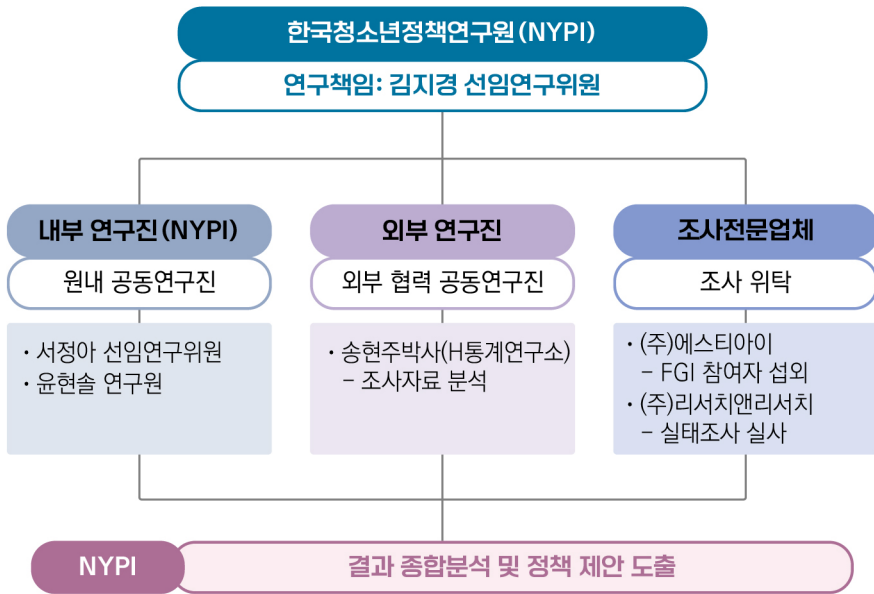


그림 1-3. 연구 추진체계

2) 연구 추진절차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이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추진 절차도 주어진 일정에 따라 각 단계별로 계획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계획하여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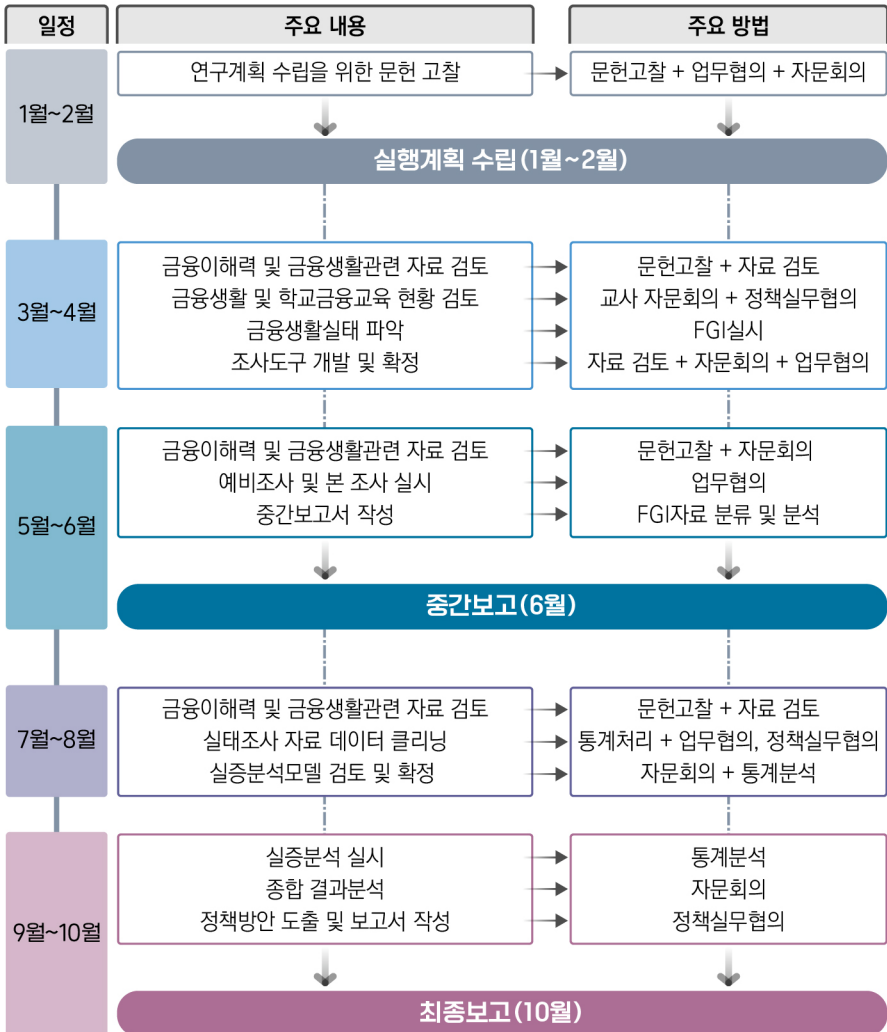


그림 1-4. 연구 추진 일정 및 절차

○ — 제2장 개념 및 이론적 관점, 그리고 정책 동향과 이슈 논의

- 1. 금융이해력 개념 및 정의
- 2. 금융이해력 이론적 관점
- 3. 그 간 정책 대응의 흐름 및 최근 동향

2

개념 및 이론적 관점, 그리고 정책 동향과 이슈 논의*

1. 금융이해력 개념 및 정의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여기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하여 금융이해력의 개념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금융이해력의 개념에서 파생되거나 확대·발전된 개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음.
- 이어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이론들(①계획된 행동이론, ②자기결정이론, ③ 사회적 학습이론, ④생애단계(주기)이론, ⑤인지발달이론, ⑥행동경제학이론)과 해외 연구들을 통해 정립된 금융이해력의 발전 모델,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고려되어야 할 이슈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음.

1) 금융이해력 개념

(1) 금융 및 금융이해력의 개념 정의

사전적 의미로 ‘금융(finance)’이라는 용어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관계되는 경제활동을 말하며, 이 경제활동은 크게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개인금융은 부동산 금융과 신용 금융으로 다시 나뉘고, 기업금융은 자금의 모집, 배치, 투자와 용자의 경제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일상의 경제생활에서 은행이나 증권회사 또는 보험회사 등이 시장 주체인 예금자나 투자자 또는 보험가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다른 시장주체에 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다음사전, 위키백과사전, 2023.10.23. 검색).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미국의 대중 언론과 학술 문헌에 처음 등장하였다(Faulkner, 2015; Cude, 2022, p.1에서 재인용). 그 시기 경제 불황을 겪은 미국 사회에서 금융지식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 이 장의 1.-1)-(2) 일부 내용 및 2.-1)은 서정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초안(pp.21~26)을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수정·보완하였고, 그 외 내용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상황에서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하는 용어로 금융이해력의 개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국 대통령 금융이해자문위원회(PACFL: President's 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는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점프스타트 연합(Jump\$tart Coalition)의 정의에 기초하여 금융교육과 구별할 수 있는 금융이해력에 대한 개념을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평생 금융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Cude, 2022, p.1).

금융이해력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관심은 2000년대 국제적 차원의 논의로 이어졌으며, 2005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금융이해력에 대한 개념 정의를 “금융소비자 또는 투자자가 금융상품과 개념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정보 및 객관적 조언을 통해 금융위험과 기회를 더 잘 인식하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며, 어디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자신들의 금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술과 자신감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제시하였다(OECD, 2017.10, p.49; Cude, 2022, p.2).

이후 학자들마다 다양한 관점으로 금융이해력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나, 이제까지 명확하게 합의된 개념의 틀이나 정의가 없다. 당초 금융이해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학계에서는 이 용어가 무엇인지 또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학자들 나름의 논리로 설명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다른 정의를 제시하였을 뿐, 어느 것 하나로 수렴되지는 못하였다. OECD에서는 2000년대의 논의를 모아 다시 재개념화하여 2012년에 OECD 산하 국제금융교육기구(INFE: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를 통해 금융이해력의 정의를 “건전한 금융의사결정을 내리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금융웰빙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금융인식,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의 조합”으로 제시하였고, 이 개념이 현재까지 국제사회에서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기본 틀이 되고 있다(OECD, 2020b, p.1; Cude, 2022, p.2).

금융이해력에 대한 정의는 계속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앞으로 중심이 되는 개념과 요소, 즉 현재 OECD/INFE의 금융이해력 정의 속에서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지식, 기술, 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초점 또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융이해력이 금융지식으로 등치되어 설명될 수 없고, 중요한 것은 OECD/INFE에서 정의하는 “인식,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 그 각각이 아니라 바로 그것들의 “조합”이라

는 점, 즉 하나의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의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2) 금융이해력에서 파생·발전된 개념들

① 금융역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이해력의 개념 정의에서 어느 요소나 상황이 강조되거나 범위가 확장되면서 파생되거나 확대·발전된 용어들이 등장하였다. 그중 하나가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이다.

금융역량은 금융이해력과 다른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금융이해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식 등을 적용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어 설명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금융이해력에 대한 정의가 “금융지식과 이를 금융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되기도 하였는데(Nicolini, 2019, pp.7-8), 이와 같은 관점이 발전하여 금융역량의 개념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금융역량은 “금융문제에 직면해야 하는 특정 상황에서 금융이해력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Cude, 2022, p.2). 또한 금융역량은 개인 및 가계의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을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애 복지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융웰빙과 금융역량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홈페이지, 2023.03.20. 검색 및 인출).

표 II-1. 금융웰빙과 금융역량의 구성

구분	구성 요소
금융웰빙	가계 재무 생활의 질적 수준과 그로 인한 주관적 행복·만족감 (금융역량의 제고 목적)
금융역량행동	바람직한 금융 의사결정 (행동, 행태, 습관 등)
금융심리	바람직한 금융 행동에 기여하는 심적 동기·태도
금융지식	바람직한 금융 행동의 기초가 되는 금융 상식
금융환경	바람직한 금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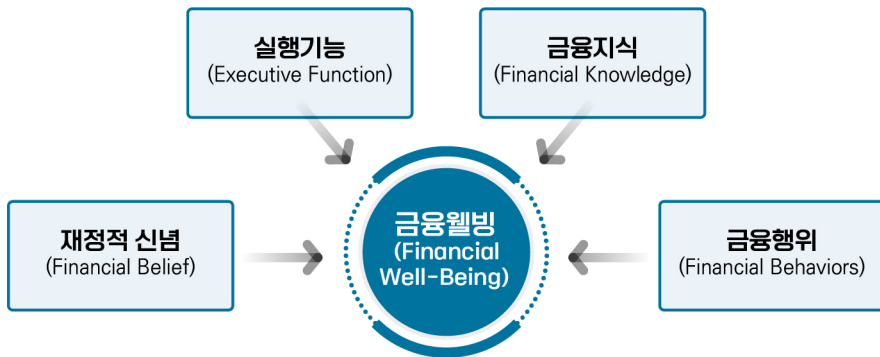
*출처: 금융역량 조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http://www.kfcpf.or.kr/front/evaluation/research2.do>, 2023.3.20. 인출 및 재구성.

② 금융웰빙 및 금융행복

금융역량과 더불어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과 금융행

복(Financial Happiness)이다. 금융역량이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데 있어 특정 요소와 상황이 강조됨으로써 파생·발전된 개념이라면, 금융웰빙과 금융행복은 금융이해력 증진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해당한다.

금융웰빙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도 한데, 개인마다 금융웰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수준에서 수입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기술과 신념이 필요하다. 즉 예산을 수립하는 능력과 이를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 건전한 장기투자 선택을 분별할 수 있는 금융 지식과 자기효율성을 포함하는 개인의 신념, 저축 및 계획행동에 대한 가치 평가 등이 모두 포함된다(Danes, Huddleston-Casas & Boyce, 1999; Anita & Nicole, 2022, pp.18-19에서 재인용).



*출처: Anita E.D & Nicole M.E.(2022), Financial Literacy among children, The Routledge Handbook of Financial Literacy, p.19. Figure 2.1

그림 II-1. 금융웰빙의 선행모델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에 대한 관심은 그를 통해 산출되는 결과, 즉 금융웰빙 또는 금융행복에 대한 측정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이해력 또는 금융역량은 금융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간주되기도 한다. 2014~5년경부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금융웰빙에 대한 측정척도의 개발을 비롯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던 반면, 국내에서는 소비자들의 금융이해력 조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된 바 있다(정운영, 이진호, 이혜림, 2020, p.2). 미국 금융소비자보호원(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이하 CFPB)은 금융웰빙을 “개인이 현재 금융적 의무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고

미래의 금융상황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면서 금융웰빙의 구성항목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명한다 (CFPB, 2017.9, p.13; 정운영, 이진호, 이혜림, 2020, p.5).

표 II-2. 금융웰빙의 4가지 구성항목

	현재	미래
안전성	일일 및 월별 금융 통제력	금융충격의 흡수능력
선택의 자유	삶을 즐기기 위한 선택의 금융적 자유	금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준비

*자료: CFPB(2015). Financial Well-being: The Goal of Financial Education. p.19.

*출처: 정운영, 이진호, 이혜림(2020). 금융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p.5 (표1).

③ 금융포용

금융이해력 설명의 연장선에서 파생되거나 확대된 개념은 아니지만, 시간흐름에 따라 중요하게 등장한 개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이다. 금융 포용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신의 필요에 충족하는 금융서비스를 지불 가능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또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돕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G20금융포용 액션플랜(FIAP: Financial Inclusion Action Plan) 인준 이후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취약한 금융소비자와 기업들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다(World Bank 홈페이지, 2023.10.24. 검색; 변혜원, 2019.05.13., p.11).

한편, 금융포용과 함께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가 함께 설명되기도 하는데, 금융소외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문제가 금융포용의 범위 안에서 논의된다(변혜원, 2019.05.13., p.12).

2. 금융이해력 이론적 관점

1) 금융이해력 설명 이론

(1) 자기 신념과 심리적 욕구에 초점을 둔 이론

① 계획된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인식된 행동 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금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거나 실행한다거나, 금융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투자한다거나, 또는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것과 같은 행동들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가치를 느껴야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Ajzen I, 1991; Anita & Nicole, 2022, pp.18-19에서 재인용). 개인이 하고자 하는 것과 실제로 실행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 이론은 금융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평가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저축과 같이 특정한 금융행위에 부여하는 개인의 가치는 자신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과 같으며, 그러한 금융태도와 신념은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사회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함양되고 변화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② 자기결정이론

자기 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자율성, 능력 및 관련성에 대한 선천적인 심리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금융이해력의 맥락에서 이 이론은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이 재무 결정에 대한 자율성, 재무 결정에 대한 인식된 능력, 재정 지원 또는 지도를 제공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강조된다(Mielitz, MacDonald, Ratzlaff, Joseph & Smodic, 2021).

(2) 관찰·모방 및 학습 경험에 초점을 둔 이론

① 사회적 학습 이론

사회적 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의 관점에서는 개인이 다른 사람을 관찰하

고 모방함으로써 학습한다고 설명한다. 금융이해력의 맥락에서 사회적 학습 이론은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이 가족, 또래, 교사와 같은 타인에 대한 관찰과 상호 작용에 영향을 받는다고 제안한다(Kadoya & Khan, 2020). 이 이론에서는 가족 문화와 규범의 범위에서 가족 구성원이 사회화의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 내에서의 금융 사회화의 영향이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며(Danes, 1994), 후기 청소년이나 청년(young adults)의 경우 또래 간의 사회적 상호 작용이 그들의 태도와 지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Kumar & Nanda, 2020).

② 생애과정 또는 생애주기이론

생애 과정(생애주기) 이론(Life Course or Life Cycle Theory)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험과 전환이 행동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서는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이 돈에 대한 과거의 경험, 현재의 재무 상황, 미래의 목표와 바라는 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점에 주목한다(Collins & Urban, 2018; Salignac, Hamilton, Noone, Marjolin, & Muir, 2020).

영국과 호주에서는 기본적으로 생애주기(life cycle) 혹은 생애사건(life events)을 기본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중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사고의 틀/framework)로 사용하고 있다(Orton, 2007, p.23). 개인의 삶은 새로운 발달 단계에 접어들고 개인이 그것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해 온 오래되고 구조화된 삶의 모델에 영향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해 학습된 책임을 다해내려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³⁾. 이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금융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야 하며, 정책 입안자들은 사람들이 금융위기에 처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미리 예측하고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Lusardi & Mitchell, 2014).

3) 예컨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고(학생용자를 얻고), 졸업 후 직업을 갖고, 차를 사고, 세금을 내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가지고 아이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고 은퇴에 가까워지는 등의 일련의 삶의 과정(Orton, 2007).

(3) 인지 수준에 초점을 둔 이론

① 인지 발달 이론

인지 발달 이론(Cognitive Development Theory)의 관점에서는 청소년 개인의 인지 발달 수준이 금융이해력의 기초가 된다고 본다. 최근에는 특히 인지 발달의 두 가지 주요 측면인 추상적 추론과 메타인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추상적 추론은 여러 관점을 분석하고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청소년의 추상적 추론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금융이해력이 향상된다고 본다. 자신의 인지 과정을 스스로 상기시키는 능력으로서의 메타인지는 자기반성, 목표 설정 및 자기 규제와 같은 인지 전략이 청소년의 금융의사결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Lee, Koh, Cai, & Queck, 2012). 한편 인지 편향 측면에서 청소년의 반성적 사고와 정보에 대한 비판적 평가 및 대안적 관점을 갖는 능력이 개발될 때, 금융이해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다.

요약하면 인지발달이론의 관점에서는 a)추상적 추론 능력을 통해 청소년이 금융 개념을 이해하고, b)메타인지를 통해 재무지식과 기술을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c)인지적 편향을 인식하고 해결함으로써 청소년의 재정적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이론에서는 청소년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발달과정과 연령에 따른 인지 요구와 능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Kadoya & Khan, 2020, Muñoz-Murillo, Álvarez-Franceo, & Restrepo-Tobón, 2020; Van Campenhout, 2015).

② 행동경제학 이론(Behavior Economic Theory)

행동경제학 이론의 관점에서는 청소년들의 금융행위를 개인의 재무 의사결정이 인지 편향과 판단 오류를 인지하는 것(heuristics)에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설명한다. 즉, 청소년들은 장기적인 재정 목표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우선시하는 '현재 편향과 같은 인지 편향에 빠지기 쉬운데 이러한 현재 편향이 종종 잘못된 재무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프레이밍(Framing), 넛지(Nudging), 앵커링(anchoring) 기법을 기반으로 한 개입이 인지 편향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이 이론에서는 청소년의 금융행동에 있어 사회적 요인 또한 강조된다. 즉 사회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또래 압력이며 사회규범과 사회 비교 또한

중요하게 고려된다. 또한 청소년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제한된 경험과 인지의 부족이 금융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a)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지를 단순화 하며, b)금융개념을 더 잘 이해하도록 간단한 언어, 시각자료, 대화형 도구를 사용하고, c)즉각적인 피드백과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금융이해력 학습 및 적용의 핵심요소라는 점이 강조되기도 한다(Caniglia & Michali, 2018).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살펴본 금융이해력에 대한 몇 가지 이론만으로 청소년 금융이해력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겠으나, 이들 이론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관점과 그 시작점에 대한 이해를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대한 실증연구가 축적된 해외 연구들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과 사회적 학습이론 등이 청소년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광범위하게 설명되는 이론이다(Nicolini & Cude, 2022). 이들 이론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을 설명할 수 있을지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함의와 함께 마지막 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청소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1) 청소년 금융이해력 개발의 기본 틀

앞서 살펴본 이론들에 더하여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해외 연구를 통해 정립된 금융이해력 개발에 대한 기본 틀의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림 I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마다 각기 다른 재정 상황의 영향 하에서 한 축에서는 부모의 금융교육 및 또래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은 개인이 갖는 지식 및 자기 신념과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른 한 축에서는 학교를 통한 공식적인 금융교육과 스스로 정보를 찾고 학습하는 형태의 비공식 교육의 금융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 금융교육은 지식과 형성된 자기신념으로 구성된 자기규제, 특히 객관적 지식과 금융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화와 교육, 그리고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누적된 사회화와 직·간접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금융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 가치 및 기대, 그리고 행동통제의 기준 등으로 구성된 자기 신념과 서로 영향을 미치며, 자기만의 규제의 준거 기준을 갖추어 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청소년들은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재무관계, 그리고 금융웰빙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발달 과정의 주요 사항들이 청소년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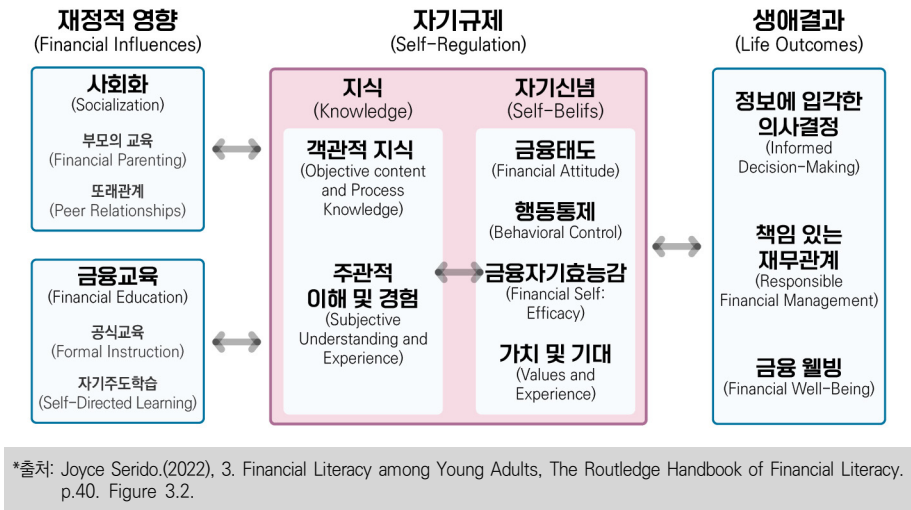


그림 11-2. 청소년 금융이해력 개발의 기본 틀

(2) 실증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국내·외를 막론하고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실증연구는 대다수 성인 대상이다. 전 연령대를 분석한 연구도 미국의 경우는 있으나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연구 중 고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고 분석한 실증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데, 그나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초·중반 연구가 다수이고, 최근 연구는 매우 드물다.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측정척도를 개발하고 우리보다 앞서 자료를 생산하고 분석하는 해외의 경우 축적된 실증연구들이 있기에 청소년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요인을 발견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은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먼저 해외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는 부모교육이 공통적으로 강조된다. 왜냐하면 이 연령대에는 부모가 자녀의 가치관과 올바른 것에 대한 감각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저축에 대한 부모의 비공식적 교육이 재정적 측면에서 미래를

계획하는데 더 큰 미래 지향성과 자기 통제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갖는데 중요하다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이미 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하여 부모 또는 부모와 자녀 2세대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포착된다 (Jorgensen & Savla, 2010; Smetana, Robinson, & Rote, 2015; Van Campenhout, 2015; Bucciol & Zarri, 2019; Anita & Nicole, 2022).

연령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또래들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 특히 고등학생 연령대가 되면, 용돈 이외 수입을 벌거나 직업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금융카드를 가질 수 있고, 월급 대출을 받고, 집 임대 계약을 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금융의사결정과 관련된 금융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금융교육을 통해 제공한다(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2020).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이 객관적인 금융지식의 수준을 향상시킴에도 불구하고, 금융행위에는 있어서는 제한적인 효과만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체험학습을 접목한 금융교육이 이루어졌을 경우 금융행동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Odden & Picus, 2008; Walstad, Rebeck, & MacDonald, 2010; Fernandes, Lynch, & Netemeyer, 2014; Urban, Schmeiser, Collins, & Brown, 2020).

예컨대 금융카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교 금융지식의 수준이 더 높는데, 이는 금융카드를 보유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금융정보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Walstad, Rebeck, & MacDonald, 2010).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잇는 범위가 확장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금융경험이 대학에서의 저축률과 금융웰빙으로 이어지는 행동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다(Peng, Bartholomae, Fox & Cravener, 2007). 이는 청소년기의 금융경험이 단순한 금융 지식보다도 금융행위와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저축계좌 개설, 카드 발급 및 사용이라는 하나의 생애 금융경험과 해당 금융교육 내용과 연계되어 제공될 때 금융교육이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해외 실증연구에 나타난 주요 요인을 요약한다면, 금융이해력 수준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연령대에는 부모교육이 중요한 요인이고, 연령수준이 올라갈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 카드발급 등을 비롯한 금융경험, 그리고 학교에서의 금융교육과 금융경험을 함께 연계하여 제공되는 방식이 핵심 요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이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실증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연구는 소수의 학술 논문(한진수, 2013, 2018; 천규승, 김솔, 2016)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마다 사용된 자료가 상이하고 연구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요인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해외 선행연구에 비추어 부모의 금융교육이나 또래의 영향, 학교의 금융교육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개인의 금융교육 경험과 금융이해력 수준을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에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결과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돈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돈에 대해 감정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이들이 금융지식의 수준이 낮고, 가계 소득이 높은 청소년들이 행동적 차원의 태도 점수가 높다는 결과이다(최병일, 2020). 이는 기본적으로 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금융이해력에 접근하는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결과는 금융이해력이 낮은 중·고생 집단이 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다는 결과이다(박상은, 2020). 이는 디지털 기술 개발에 따른 매체 환경의 영향으로 불법금융행위에 따른 청소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해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요인 발견이라 할 수 있다.

(3)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최근 이슈

선행 연구에서는 분석되거나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문헌자료와 언론 보도, 그리고 영상 자료 등을 통해 포착된 몇 가지 이슈가 있다. 이는 바로 청소년 금융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이슈이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금융에 대해 인지하고 관심을 갖는데 있어 일종의 경로가 되는 사항이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슈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① 일상화된 청소년의 디지털금융생활: 청소년 전용카드의 사용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2020년 10월부터 연령대는 다소 차이가 있으

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불충전방식의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시사인, 2022.11.04.).

〈표 II-3〉에 제시한 바와 같이, 14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카카오뱅크 ‘미니’ 카드의 가입자 수는 2022년 말 기준 161만 명이다. 이 가입자 규모는 우리나라 14세~18세 청소년의 총 인구 수인 232만 명의 69.0%에 달하는 수치이다. 10명 중 7명 정도가 카카오뱅크 미니 카드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이듬해 등장한 토스뱅크의 ‘유스카드’는 7세~16세 청소년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이후 케이뱅크와 일반은행까지 선불충전방식의 청소년전용카드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10대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이미 청소년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카드와 연동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활용하여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금융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앞서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단순한 지식보다 금융경험과 교육이 결합되어 인지된 금융지식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파악하고 분석함에 있어 선불충전방식의 청소년전용카드 사용에 관한 측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동일 세대 내 “금융문맹”과 “적극 투자자”로의 양극화

금융이해력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금융이해력 수준이 이미 양극화되어 있으나, 그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낸 실증자료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초·중·고 시기에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고, 기본적인 금융지식 없이 사회에 진출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불법 금융 사건에 연루된 지도 모르는(NGO저널, 2023.02.13.; 주간경향, 2023.05.22.) 이들이 한 끝에 존재한다면, 다른 한쪽 끝에는 10대 시기에 직접 금융자격증도 응시하면서 세뱃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한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0년에 신규 개설된 미성년자 주식 계좌는 47만 5,399개로 전년 대비 5배 이상 상승하였고, 한국증권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주식운용능력평가에 청소년 응시생 비중이 10%에서 17%로 증가하였다(매일경제, 2022.02.28.; 한국증권인재개발원, 2022.12.13.).

이와 같은 동일 세대 내 금융생활 및 지식 등의 격차는 전반적인 금융이해력 수준의 차이를 발생시킬 것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의 경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측정 도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선택적, 비자발적 금융교육 기회의 제한

학교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이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고등학교 과정이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사회과나 기술·가정 과목에서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교사의 재량 하에서 금융교육이 활동수업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체험과 연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선택적으로 금융교육을 스스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 과목이다. 매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를 보면 사회영역 응시과목으로 '경제'를 선택하는 비율은 언제나 가장 낮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12.08.). 이는 선택적으로 금융교육의 과정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비단 입시과목의 선택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교육과정 속에서 금융교육을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이보다 더한 비자발적 금융교육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한국교육방송(EBS)가 어느 지역, 어느 고등학교에 '경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전수 조사를 해보니, 서울과 그 외 지역 간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다. 가령 서울은 86%인데 반해, 전북은 20%를 갓 넘는 수준이고, 인천의 경우 구 지역에서는 70%의 개설률을 보였지만, 군 단위에서는 10개 학교 중 1개 학교만 개설하여 서울과 그 외 지역, 같은 지역 내에서의 구 단위와 군 단위의 차이가 발견된 것이다(한국교육방송(EBS), '생존금융 심층기획 2편' 영상).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에 있어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은 물론, 거주지역 간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기에 본 연구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④ 불법금융행위 및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비롯하여 그것이 불법금융행위인지 모르거나 연루되는 '휴대폰 결제깡'이나 '내구제 폰테크' 등의 사건이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대다수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다시 업체에 휴대폰을 넘겨주고 그 업자로부터 휴대폰 판매 금액의 일부를 받는 것을 청소년들은 그저 돈이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서 2019년 중·고생 7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불법이 아니라거나 모른다고 답하였다(대구미래교육원, 2019.05.14.). 이와 같은 불법금융행위 및 피해와 관련된 경험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3. 청소년 전용 카드 사례 분석

인터넷전용 은행		일반 은행				
	카카오뱅크 "미니"	토스 "토스유스카드"	케이뱅크 "하이틴"	국민은행 "리브넥스트"	하나은행 "아이부자"	신한은행 "맘"
출시 시기	2020. 10. 만 14세 ~ 만 18세	2021. 12. 만 7세 ~ 만 16세 (만 19세까지 사용가능, 이후 자동해지)	2022. 12. 만 14세 ~ 만 18세	2022. 8. 만 14세 ~ 만 18세	2021. 6. 연령제한 없음	2021. 10. 만 14세 ~ 만 18세
발급 방법 (가입방법)	① 카카오뱅크 어플 설치 ② 카카오 계정으로 시작 혹은 후대전화 번호로 시작 선택 ③ 약관동의 ④ 카카오 미니 계좌 개설 → 약 관동의, 본인인증, 인증수단 등록 ⑤ 카카오뱅크 미니 카드 만들 기 → 카드 디자인 선택, 이 름 입력, 카드비밀번호 설정, 카드배송지 입력	① 토스 어플 설치 및 토스 계좌 개설 ② 카드 발급 신청(만 14세 미만은 부모 동의 필요) ③ 카드 선택 ④ 카드 비밀번호 설정 ⑤ 배송지 입력	① 케이뱅크 어플 설치 및 계좌 개설 ②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③ 하이틴 카드 신청	리브넥스트 어플 설치 및 가입 진행	타 카드와 방법 유사	타 카드와 방법 유사
※ 본인명의 휴대폰 필요						

		인터넷금융 은행		일반 은행		
	카카오뱅크 “미니”	토스 “토스유스카드”	케이뱅크 “하이틴”	국민은행 “리브뱅크”	하나은행 “아이부자”	신한은행 “맘”
	※ 선불전자지급수단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한도: 일 50만원, 월 200만원 - 선불 티머니 사용 가능 - 이체 및 입/출금 수수료 없음 - 미니 26 일저금 서비스(매일 500원~2,000원 저금 가능, 성공시 260원 지급) - 소득공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한도: 일 50만원, 월 200만원 - 교통카드 사용가능 - 이체 및 입/출금 수수료 1회 면제 - 용돈기입장 기능 - 청소년 보호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한도: 일 50만원, 월 200만원 - 교통카드 사용가능 - 이체 및 입/출금 수수료 없음 - 편의점(100원씩 10회) 및 온라인 업종(100원씩 5회) 캐시백 혜택 - 전월 실적 10만원 이상 및 5회 이상 결제시 500원 캐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한도: 일 30만원 (보유는 50만원), 월 200만원 - 이체 및 입/출금 수수료 없음 - 스타벅스 모의(거래를 통해 스타벅스 받으면 쿠폰 교환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한도: 일 5만원, 월 50만원(14세 미만), 일 50만원 사용가능(14세 이상) - 자녀와 부모 연결하는 페어 엠기반 플랫폼 - 이체 및 입/출금 수수료 없음 - 모의(용돈, 알바, 저축), 불리(주식 투자 채험), 나누기(기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전/ 송금 한도: 일 100만원(연결계좌 등록시 500만원), 월 2000만원 - 교통카드 사용가능
기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말 기준 약 161만 명 (14세~18세 청소년 인구 약 232만 명의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현황 확인 자료 없음 	상등	상등	상등	상등

인터넷전용 은행		일반 은행			
카카오 뱅크 "미니"	토스 "토스유스카드"	케이뱅크 "하이틴"	국민은행 "리브뱅크"	하나은행 "아이부자"	신한은행 "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른 가입(별도서류 필요 없음) - 카드 디자인 5종(캐릭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4세 미만은 부모 동의필요 - 카드 디자인 5종 (Support your you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점 이벤트 진행 - 카드 디자인 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제휴 서비스(할인 및 적립) - 카드 디자인 3종 + 가수 에스파 디자인 카드(한정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세 미만 부모동의 필요 - 자녀 부모가 연동되어 어플에서 바로 상 호작용 가능(용돈 주기, 주식투자 등) - 카드 디자인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점, 음원스트리밍, 앱마켓 등 이용금액 5% 포인트 적립 및 전기요금 0.1% 기본 적립 - ATM 출금 불가 - 카드 디자인 4종
					
기타 사항					
카드 디자인					

*자료: 각 은행 홈페이지 2023.03.10. 내용 검색 및 재구성

3. 그 간 정책 대응의 흐름 및 최근 동향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여기에서는 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금융교육 정책의 근거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경제교육지원법」의 내용 및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금융교육과 발의된 두 개의 법안을 고찰하였음.
- 법률과 함께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된 정부의 정책동향을 기 발표된 정부대책 자료들을 중심으로 2013년부터 10여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1) 금융교육관련 법률 및 입법 동향

청소년의 금융이해력과 관련한 정책은 ‘금융교육’으로 수렴된다. 여기에서는 그 간의 정책이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되어 왔는가를 정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법률과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금융교육은 2020년 3월 24일에 제정·공포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0조에 규정된 내용을 근거로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동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교육협의회’가 심의·의결을 한 후 시행되는 것이다. 법률의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전 국민의 금융역량 향상과 장기적인 금융복지를 위해 금융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책무를 갖는다.

법률에서 금융교육에 관한 조항에 이어 바로 금융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금융교육협의회를 규정하는 것은 금융교육의 대상과 내용의 범위가 범부처의 협력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제31조제5항에 협의회의 위원이 되는 행정기관을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28조)으로 정하고 있으며, 8개 부처(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이에 해당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에서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선언(2011.10)하기도 했고(금융위원회, 2015.10.15., p.1),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에 견주어 볼 때 우리나라의 입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제정·공포의 시점이 2020년 3월일 뿐, 입법회는 2010년대 초반부터 정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고,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된 바

있다(금융위원회, 2013.09.03., p.3).

표 II-4. 금융교육 근거 법률 조항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0조(금융교육)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p>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p> <p>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p>	<p>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하생략)</p> <p>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협의회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p> <p>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금융교육과 관련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p> <p>2.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이하 생략)</p>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2023.5.18. 검색 및 출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서, 2009년 2월 6일에 제정·공포된 「경제교육지원법」에서도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경제교육의 범위에 ‘금융’이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 안과 밖에서 모두 경제교육을 장려하며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교육지원법」에 근거해서 실시되는 경제교육은 그 범위가 경제 전반으로 넓어 금융과 관련한 내용을 경제교육 내용에 일부 담을 수 있을 뿐, 금융이해력이나 금융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집중력 있게 대응하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한 이유로 최근 국회에서는 금융교육과 관련한 별도의 법안 제정을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 II-5. 금융교육 근거 법률 조항 : 경제교육지원법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정의)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① 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 도입·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①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2023.5.18. 검색 및 출력).	

발의된 법안 중 하나는 2021년 11월 민형배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766호)」이다. 젊은 층의 주식열풍과 디지털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거래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폐해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면서 현행보다 더 강화된 금융교육으로 금융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서 법률 제정이 제안되었고, 금융교육 의무화를 통해 금융투자자의 역량을 높이고 올바른 금융투자 습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금융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차적인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2021.11, pp.1-5).

또 다른 법안은 2023년 5월 홍성국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교육 진흥법안(의안번호: 제2112555호)」이다. 이 법안은 금융 산업의 성장과 함께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금융거래의 매개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상품에 접근하는 연령대가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불법 금융피해 사례 또한 잇따르는 상황이므로 ‘금융문맹’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금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제기에서 제안되었다. 특히 금융교육과 소득 양극화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교육보다는 학교를 중심으로 보편적인 금융교육 체제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는 제정안과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인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경제교육지원법」에 근거해서 이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 제정 시 중복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검토의견을 밝힌 바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2023.05, pp.3-8).

이들 두 법률안 모두 제안된 법률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기존 법률과 유사·중복되어 입법의 실효성이 낮고,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일차적인 결론이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3.05.22. 검색 및 인출). 이는 금융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 환경의 변화 또한 금융교육에 대한 요구를 높이는 상황이나, 기존 「경제교육지원법」으로 인하여 독립된 법률 제정은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지자체에서는 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21년부터 금융교육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7개 광역시도(부산, 서울, 세종, 인천, 전라남도, 제주도,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의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상태이다. 제주도의 경우만 금융교육을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경제교육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교육으로 정의하였고, 그 외 다수의 지역 조례에서는 “금융역량을 향상시키며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II-6. 지자체 금융교육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명	공포번호	시행일	소관부서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486호	‘21.9.29	유초등교육과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제8115호	‘21.7.22	중등교육과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제1955호	‘22.4.20	중등교육과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제6657호	‘21.9.27	진로진학 직업교육과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제5630호	‘22.12.22	중등교육과

구분	조례명	공포번호	시행일	소관부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제3107호	'22.3.4	미래인재 교육과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165호	'21.12.30	미래인재과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 및 발체 후 연구자 재구성(www.law.go.kr/, 2023.05.18. 검색 및 발체).

이들 제정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유사하다. 우선 조례의 목적이 금융교육 활성화로 수렴되며,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와 같은 조항을 비롯해서 총 8~10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항으로 3년 주기의 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는데, 용어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또는 활성화계획으로 각기 다르게 표현되어 있으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동소이하다. 그 외 금융교육표준안 마련, 선도학교 또는 시범학교 지정·운영, 교원 연수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업무 위탁 근거 등의 규정 내용을 담고 있다.

표 II-7. 금융교육관련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

구분	조항 구성	주요 내용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8조 구성 - 목적, 정의, 책무, 활성화 계획, 사무의 위탁, 자문, 협력체계 구축,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 관련 지식 습득, 금융역량 향상을 통해 금융사고·금융사기 등 피해 예방 교육 실시를 위한 활성화 계획수립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0조 구성 - 목적, 정의, 책무, 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시범학교 지정·운영, 교원연수 지원, 위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 3년 금융교육시행계획 수립, 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시범학교 지정·운영, 교원연수 지원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8조 구성 -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교원연수 지원, 위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3년 금융교육시행계획 수립, 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교원연수 지원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8조 구성 -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활성화 계획, 교육 및 연수, 지원 및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3년 금융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교육 및 연수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8조 구성 -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금융교육의 기본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정보 제공, 금융교육 지원,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3년 금융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금융교육 지원

구분	조항 구성	주요 내용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0조 구성 - 목적, 정의, 도교육감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교육자료 보급, 선도학교 지정, 교원연수 지원, 위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3년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선도학교 지정, 교원연수 지원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0조 구성 -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금융교육 표준안 마련, 선도학교 지정·운영, 교원연수 지원, 위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3년 금융교육시행계획 수립, 금융교육 표준안 마련, 선도학교 지정·운영, 교원연수 지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 및 발췌 후 연구자 재구성(www.law.go.kr/, 2023.05.18. 검색 및 발췌).

2) 금융교육 정책 수립 동향

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시기에도 국가정책으로서 금융교육은 금융위원회에서 간략하나마 수립하여 발표하였는데, 현재 확인가능한 자료 중에서 가장 초기의 계획은 2013년에 수립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이다. 법제화 되지는 않았으나 이 시기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금융교육협의회’가 활동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계획에서는 몇 가지 기존의 정책 대응의 한계, 즉 취약계층 등 금융교육이 가장 필요한 수요자에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데 반해 중복되는 분야도 있는 등 전반적으로 수요-공급이 불일치한다는 점과 교육프로그램 제공기관이 다수이나 체계적으로 협의·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했다는 점, 그리고 교육 콘텐츠가 실생활과 다소 동떨어진 점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공감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하였다. 목표는 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면서 접근이 용이하며 실수요자에 맞춤형으로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였으나, 청소년 금융교육에 초점을 맞춘 교육은 특별히 계획되지 않았다(금융위원회, 2013.09.03.).

2013년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 이후 2년 주기로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2015년에는 금융교육 기회의 대폭 확대와 생활중심의 교육내용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교육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금융교육의 수요는 급증한데 반해 금융교육의 공급이 충분치 않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설계가 부족하여 금융교육의 효과성이 낮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핵심 추진과제로 학교교육의 교육과정 개편과 1개 금융회사와

1개 학교를 연계한 ‘1사1교’ 사업을 내실화하고, 체험형 교육 콘텐츠와 체험공간을 대폭 확대하는 과제들이 선정되었다. 이로써 청소년에 대한 금융교육이 강화되는 듯하였으나, 2017년에 수립된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에서는 계획의 초점이 가계부채 증가와 노후 자산 부족 등의 문제로 옮겨지면서 청소년 및 대학생의 금융교육을 묶어 2013년에 수립된 교육과정에 금융콘텐츠 연계 확대 및 1사1교, 체험형 교육의 내용이 반복되었다(금융위원회, 2015.10.15., 2017.01.23).

이후 2020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로 국가의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자, 「금융교육 개선 기본 방향」을 발표하였다. 금융교육 계획으로서 가장 체계성을 갖추었으며 계획수립을 위해 금융교육 실태조사 결과 분석이 활용된 첫 번째 근거기반 금융교육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계획의 차이점은 2020년을 원년으로 하여 금융교육의 “질적 성장”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교육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개발하기 위한 “금융이해력지도”를 설계하여 기존 콘텐츠 관리의 틀을 마련한 후 부족한 신규콘텐츠가 있으면 개발을 추진하고, 콘텐츠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전수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을 중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또 온라인 콘텐츠물을 구축하여 교육콘텐츠를 종합 제공하고, 양질의 교육인력을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교사 자격 기준을 마련하며, 동시에 학교교사의 연수기회를 확대하는 개선을 추진하였다.

표 II-8. 금융교육관련 주요 정책 동향

구분 (발표시기)	발표 제목 및 기본 방향	청소년 금융교육 관련 주요 내용
2013 (‘13.09.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 목표 : 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매체활용 교육 맞춤형 교육 제공
2015 (‘15.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중심의 금융교육 강화 - 목표 :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 및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교육 기회 확대 지식교육 중심 → 생활중심 교육 교육과정 내 금융교육 내용 확대, ‘1사1교’ (1개 금융회사와 1개 학교 연계된 교육)
2017 (‘17.0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 목표 :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형, 생활밀착형 금융교육 확대 2015년 개정 교육과정(‘18년 고1부터 적용) 고교 교육과정에 금융내용 확대
2020 (‘20.05.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교육개선 기본 방향 - 목표 : 금융교육의 질적 성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콘텐츠 체계적 관리·개발(금융역량지도) 자기주도 체험형 교육(토론회, 공모전 활성화) 학교 정규교육에서의 금융교육 강화

구분 (발표시기)	발표 제목 및 기본 방향	청소년 금융교육 관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년제 등 프로그램 개발·제공 - 사회 외 주요 교과에서 내용 연계
2021 (‘21.0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교육 운영 방안 - 목표 : ‘20 금융교육개선 기본 방향 세부과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상황 대응 비대면 교육 강화 • 생애주기별 담당 교육기관 역할 분담 - 아동·청소년 주관 기관: 금융감독원
2022 (‘21.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교육 강화 방안 - 목표 : 디지털전환 등 금융환경변화 대응 금융교육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형교육(보드게임, 금융체험관) 확대 • 디지털기술 활용 교육 콘텐츠 개발·확산 • 학교교육내 금융교육 강화 -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 과정 ‘금융과 경제생활’ 신설, 통합사회 과목 금융관련 내용 내실화
2023 (‘22.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 목표 : 금융소비자의 금융웰빙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을 통한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 추진 - 모의투자 등으로 투자원리 습득 - 불법사금융 예방 교육

자료: 금융위원회 각 년도 보도자료 (<https://www.fsc.go.kr>, 2023.05.23. 검색 및 발췌).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금융교육에 있어 강의를 통한 지식 전달을 넘어 자기주도형·체험형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 정규교육에서의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자유학기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차기 교육과정 금융교육 개선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금융위원회, 2020.05.01.).

2021년에는 「금융교육 운영 방안」이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2020년에 수립된 「금융교육 개선 기본 방향」 주요 세부과제들에 대해 추진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의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상황에서도 금융교육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수요자 생애주기 및 계층별 교육기관을 그룹화하고 주 담당기관을 지정하는 금융기관 역할분담 방안이 진행되었다. 이때 아동·청소년 금융교육은 금융감독원을 주 담당기관으로 배분되었다(금융위원회, 2021.05.26.).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산업구조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22년에는 「금융교육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전에도 금융교육 강화 방안이 발표된 바 있기는 하나, 이전과 같이 단순히 금융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강화의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이전과 같은 내용의 대응이 아닌, 금융의 비대면 거래 확대 및 디지털화(Digital Transformation)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등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금융교육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계획에서는 체험형 교육방식의 확대에 더하여 메타버스(Metaverse)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확산,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금융역량 높이는 방향으로 일반교과 내용에 반영, 고교 교육과정에 융합선택 교과목 ‘금융과 경제생활’ 신설 등의 내용을 추진과제로 담고 있다(금융위원회, 2021.12.21.).

지난해 12월 말에는 20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으로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간의 금융교육 목표와는 달리 “금융소비자의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 증진”이라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전까지 국가 금융교육의 목표가 금융역량 강화의 선에서 설정되었다면, 2023년부터의 금융교육 방향은 금융이해력과 역량을 넘어 ‘금융웰빙’, 즉 “금융소비자가 일상 생활에서 금융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고, 금융충격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선까지의 개념이 반영된 것이다.

이 계획에서 담고 있는 청소년 금융교육의 추진 방향은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이고, 주요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금융상품 모의투자를 통한 투자의 기초원리 습득이고, 다른 하나는 대리입금 등의 불법사금융 예방 교육이다(금융위원회, 2022.12.22.).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피해 예방이 국가 금융정책의 주요 과제로 다루어질 만큼 청소년들의 일상적 금융생활의 반경이 넓어졌으며, 금융약자로 위치할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해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제3장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 실태 문항 작성 및 개발

- 1.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의 검토
- 2. 청소년 금융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FGI
- 3. 소결

1.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의 검토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실태 문항을 작성하고 개발하기에 앞서 관련 미국과 OECD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측정도구의 개발 동향을 시간 흐름의 순서로 살펴보고, 그 흐름 속에서 기 실행되었던 우리나라의 금융이해력 조사의 위치를 비교 고찰하였음.
- 금융이해력 측정도구 개발 동향에 대한 고찰에 이어, 미국의 점프스타트, 미국경제교육협의회, OECD_INFE, OECD_PISA 등 주요 측정도구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하나씩 살펴보고, 본 연구의 측정도구 구성의 기본 틀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였음.

1) 주요 측정도구의 개발 및 발전 동향

제2장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개념 및 이론적 관점과 정책동향 고찰에 이어 본 장에서는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작성하고 개발하기에 앞서, 두 가지 측면에서 도구 마련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중 하나는 측정내용의 구성을 위한 기본 틀(frame)에 대한 근거 및 참고자료를 확보하고자, 청소년 금융이해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어떠한 내용의 도구들이 개발되어 조사가 이루어져 왔는가를 관련 문헌자료들을 통해 검토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문헌자료를 찾을 수 없는 청소년 금융생활실태 측정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초점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이제까지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도구들이 개발되었고, 어떠한 흐름으로 발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개발은 경제 불황을 겪은 미국이

* 이 장의 3.-2)의 일부 내용은 서정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초안을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수정·보완하였고, 그 내용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금융지식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1997년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들의 연합체인 점프스타트(Jump\$tart)가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측정 척도를 개발한 것이 그 첫 번째라 할 수 있다(Cude, 2022, p.5). 이후 3종(K-5, K-8, K-9~K-12)으로 개발된 척도로 미국에서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격년으로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0년에 측정도구의 개정이 추진되었다. 조사가 진행되던 기간에 다른 한 축에서는 1998년에 처음 제정된 ‘금융교육 표준인(National Standards in K-12 Personal Financial Education)’이 2001년과 2006년에 두 차례 개정되기도 하였다(오영수, 2015, p.73; 금융위원회·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2013.11.15., p.19).

같은 시기라 할 수 있는 2003년부터 대략 8년여간,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대상 금융이해력조사가 시도되고 일정 기간 이어진 바 있는데, 그 시기 조사에 사용되었던 측정도구가 바로 미국 점프스타트가 개발한 척도이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금융감독원과 청소년금융교육협회가 수도권지역의 고등학생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를 달리하며 2회 정도 반복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때 점프스타트에서 개발한 측정도구의 일부를 발췌하여 번안하여 사용한다거나, 일부 문항을 우리나라 사정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을 측정하는 검증되거나 표준화된 척도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금융지식이나 이해력을 주제로 한 학술논문들도 주로 점프스타트의 측정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거나, 문항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적용한 것이 대부분이다(한진수, 2018, p.3; 오영수, 2015, p.73; 한진수, 2013, p.41).

한편, 미국의 경제교육협의회(CEE: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는 금융교육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FFFL(Financial Fitness for Life Curriculum)이라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연령의 금융교육교재를 개발하였는데, 이 교재 학습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재 내용을 기초로 대학생용을 제외한 초·중·고생 대상 3종의 검사 도구(K-1~5, K-6~8, K-9~12)를 개발한 바 있다(한진수, 2013, p.42; 금융위원회·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2013.11.15., p.20).

또한 미국경제교육협의회는 2013년에 발표된 ‘금융교육 국가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포함하여 학교급별 개인 금융의 이해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도구 3종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즉,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5학년~6학년 대상 BFT(Basic Financial Test), 중학생에 해당하는 8학년~9학년 대상 TFK(Test of Financial Knowledge), 그리고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1학년~12학년 대상 TFL(Test of Financial Literacy)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이미 개발된 ‘경제이해력 표준 측정도구 3종, 즉 BET(Basic Economic Test), TEK(Test of Economic Knowledge),

TEL(Test of Economic Literacy)의 보완재 성격으로 개발된 것이다(한진수, 2018, p.3).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금융이해력 측정도구에 대한 논의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의 공식 안건으로 이어졌고, OECD에서는 두 가지 경로로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그중 하나는 2010년에 실시한 금융이해력조사를 통해 국제 금융교육기구(INFE: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에서 표준화된 금융이해력 측정 척도를 개발하여 회원국에 보급한 것이다. 단, 이 조사의 측정 도구는 18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2012년부터 우리나라도 이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2년 주기의 2,400가구 표본 조사를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3.03.30., p.18).

OECD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는 OECD의 금융전문가 그룹인 FLEG(Financial Literacy Expert Group)에서 개발하였고,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읽기, 수학, 과학 영역에 이은 4번째 영역으로 추가되어 2012년에 처음 평가가 실시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았다(OECD, 2018; 오영수, 2015, p.74).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학령기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측정 척도는 부재할 뿐만 아니라 같은 시점에 측정한 대규모 표본조사는 없는 실정이다. 2013년 금융위원회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의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이해력 측정척도 개발을 시도한 바 있으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척도를 표준화하였다거나, 대규모 표본조사를 통해 척도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지는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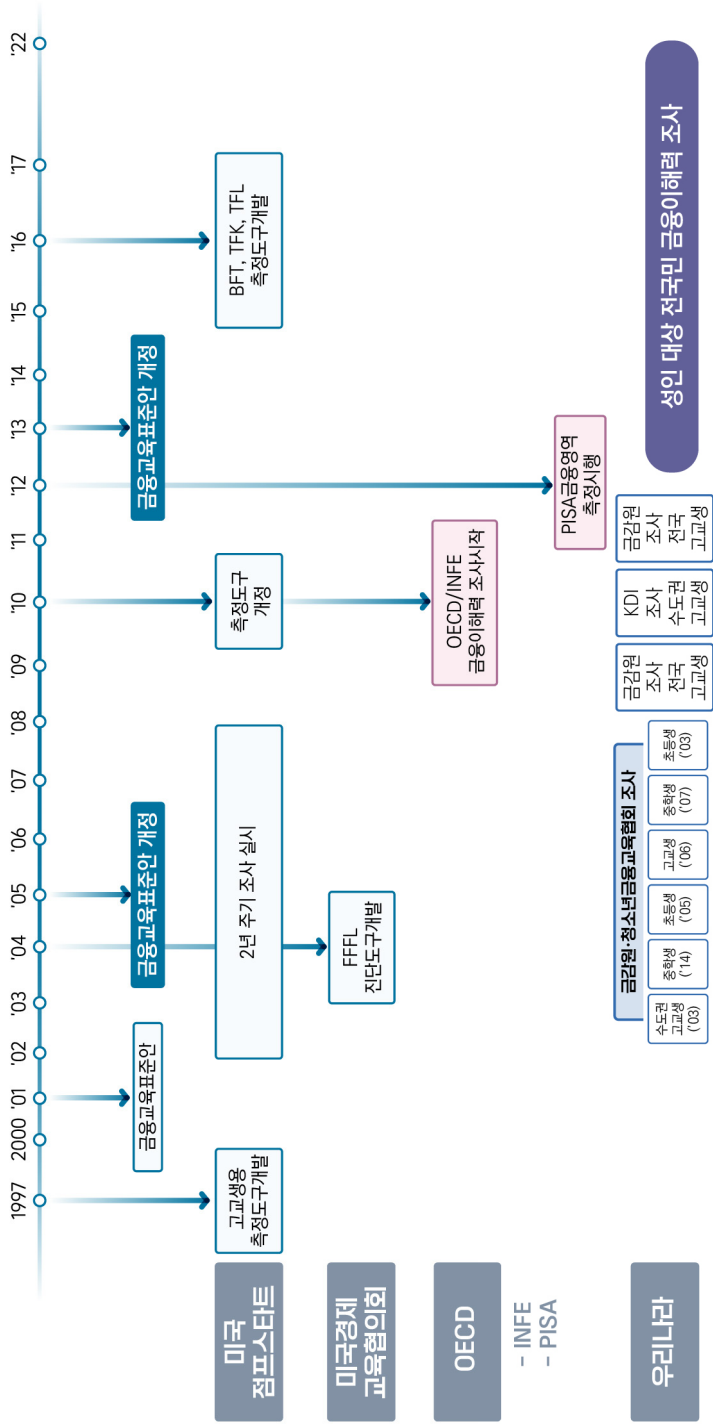


그림 III-1.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의 개발 동향 및 우리나라 조사 실시 시기 비교

2) 주요 금융이해력 측정도구의 구성 내용

(1) 미국의 개발 도구

① 점프스타트연합(Jump\$tart Coalition)의 측정 도구

점프스타트 연합은 미국 51개주정부와 연계된 금융교육 이해관계자들의 연합 네트워크로서 비영리기구로서, 일생동안의 재정적인 성공을 위해 청소년을 교육시키고 준비시키는 일에 협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연합체이다(Jump\$tart Coalition 홈페이지, 2023.10.23. 검색). 1997년 만델(Lewis Mandell)박사의 주도 하에 점프스타트에서는 고교생의 금융이해력을 평가하기 위해 4지 선다형 응답의 31개의 문항을 개발하였고, 이것이 금융이해력 측정의 첫 번째 도구이다. 이후 연령대별로 구분된 3종의 측정도구(K-5, K-6~8, K-9~12)가 개발되었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격년 마다 조사하였으며, 2010년에 평가문항을 개정하였다(오영수, 2015, p.73).

또한 점프스타트에서는 1998년 금융교육표준안(National Standards in K-12 Personal Financial Education)을 처음 제정한 이후 2001년과 2006년에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2007년에 6개 요소(①금융 책무와 의사결정, ②소득과 진로, ③예산과 자금관리, ④신용과 부채, ⑤위험관리, ⑥저축과 투자) 29개 표준으로 구성된 내용 체계를 마련하였고(오영수, 2015, p.73; 금융위원회·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2013, pp.18-19), 현재는 2021년 미국경제교육협의회(CEE)와 함께 작성한 6개 요소(①소득창출, ②지출, ③저축, ④투자, ⑤신용관리, ⑥위험관리) 및 학년대별 다른 개수의 표준으로 구성된 내용이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 체계가 금융이해력 측정의 기본 틀이 되고 있다(CEE&JumpStart, 2021, pp.7-8).

표 III-1. 미국 금융교육 표준체계의 주요 내용 구성

요소	주요 내용
1. 소득창출	일한 대가(임금 및 급여), 이자, 배당금, 임대료. 사업 이익, 투자 가치상승 등
2. 지출	예산에 대한 개념 및 돈의 배분 계획, 정보를 활용한 지출 의사결정
3. 저축	저축의 목적 및 방법, 저축 금융상품별 이해, 금융기관의 유형 이해
4. 투자	장기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이해, 위험도와 수익률, 다양한 투자 선택
5. 신용관리	신용의 활용 및 책임, 신용도 평가, 신용 유형(카드, 각종 대출 등)

요소	주요 내용
6. 위험관리	소득, 자산, 건강, 생명에 대한 위험 노출 관리를 위한 보험, 개인금융정보
*출처: CEE(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JumpStart(2021). National Standards for Personal Financial Education. pp.7-8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② 미국경제교육협의회(CEE: The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의 측정 도구 점프스타트와는 별개로 미국경제교육협의회는 학교급별로 개인 금융과 관련된 학생의 금융지식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3종의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즉, 초등학생 연령대인 4학년(Grade4)을 대상으로는 BFT(Basic Finance Test: 기초금융), 중학생 연령대인 8학년(Grade8) 대상 TFK(Test of Financial Knowledge), 고등학생 연령대인 12학년(Grade12) 대상 TFL(Test of Financial Literacy)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경제교육협의회 의 의뢰로 Walstad 와 Rebeck(2016)이 작성한 3종의 도구는 6개 영역(①소득의 창출, ②상품 및 서비스 구매, ③저축, ④신용사용, ⑤금융투자, ⑥금융자산 보호 및 보장)과 학교급별 총 144개의 성취수준(4학년 32개, 8학년 49개, 12학년 63개)의 내용으로 구성 된다(한진수, 2018, pp.3-4; Walstad & Rebeck, 2016, pp.1-7).

표 III-2. 미국경제교육협회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의 주요 내용 구성

영역	주요 내용
1. 소득의 창출	평생 동안 자신의 수입과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직업, 경력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직업에는 다양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기회비용이 발생함. 이자, 배당금, 시세차익은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이해
2.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원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사거나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 및 예산 책정 등을 하여 지출을 결정함으로써, 경제적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이해
3. 저축	저축은 미래의 사용을 위해 소득의 일부를 따로 떼어둔 것이며,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저축을 하는데, 저축 방법과 금액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선택을 하고, 시간, 이자율 및 인플레이션은 저축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이해
4. 신용사용	신용은 사람들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미래에 이자를 포함하여 해당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대출 기관은 과거 신용 기록과 향후 지불 능력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대출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데, 고위험 차용인에게는 더 높은 이자율이 부과되고, 위험도가 낮은 대출자는 더 낮은 이자율이 부과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

영역	주요 내용
5.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미래의 소득이나 재산을 늘리기 위해 금융자산을 구입하는 것이고, 투자자는 위험과 기대 수익률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 위험이 더 큰 경향이 있고, 분산 투자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
6. 금융자산 보호 및 보장	소득, 자산, 건강 또는 신원 상실의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이 필요하며, 위험을 감수하거나 위험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보험의 가격은 개인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

*출처: Walstad, W. B., & Rebeck, K. (2016). Basic Finance Test: Examiner's Manual, pp.5-6의 내용 재구성.

이상과 같이, 미국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는 표준화된 금융교육 내용 체계와 연계하여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교육의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대체로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이 배제된 금융지식 중심으로 측정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이는 2012년 OECD에서 금융이해력에 대한 종합적으로 개념 정의를 내리기 전까지 대체로 금융지식을 중심으로 측정 척도들이 제안되어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Haupt, 2022, p.81).

따라서 전반적인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점프스타트나 미국경제교육협의회에서 개발된 내용을 그대로 번안하거나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초등학생 대상으로 개발된 미국경제교육협의회(BFT(Basic Finance Test)의 내용에 대해서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지식을 측정하는 문항 개발이나 작성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존 작성 문항이 전혀 없는 주제나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금융교육표준안이 제정된 바 있으므로, 이를 준거로 주제를 선정하고 해당 문항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 도구

① 국제금융교육기구(OECD/INFE: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의 측정 도구

OECD에서 개발한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OECD 산하 국제금융교육네트워크(INFE: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에서 성인(18세~79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융이해력 조사 도구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금융이해력을 읽기, 수학, 과학 영역에 이어 네 번째 측정 영역으로 추가한 것이다.

먼저 OECD/INFE에서 금융이해력 조사의 문항을 개발·보급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금융복지를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금융이해력 수준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국제기구 입장에서 비회원국을 포함하여 국가 간 격차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부재하였기에 지원 도구의 하나로 개발된 조사도구를 제공하고, 시계열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성인과 청소년의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OECD, 2020b; Haupt, 2022, p.85)

OECD/INFE에서 개발한 금융이해력 조사의 초기 항목은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즉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와 추가적으로 금융포용과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한 40여개의 문항이 기본으로 구성되었다(한국은행, 2013.01.21.). 측정 도구 및 조사와 관련된 지침 사항은 2010년 이후 계속 수정·보완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시대변화와 함께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이해력(디지털 금융지식 3문항, 디지털금융행위 4문항, 디지털 금융태도 3문항)을 측정하는 문항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였다(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3.03.30.). 이들 항목을 기본으로 각국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을 측정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2년부터 OECD/INFE의 내용을 준용하여 2년 주기의 성인 대상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III-3. OECD/INFE 금융이해력 조사 항목

구분		내용
금융 이해력	금융지식 (8문항) ⁵⁾	금융 관련 나눗셈, 화폐의 시간적 가치, 대출이자 개념, 원리금 계산, 복리 개념, 위험과 수익간의 관계, 인플레이션의 의미, 분산투자의 효과
	금융행위 (11문항)	구매 전 지불능력 점검, 각종 대금의 적기 납부, 평상시 재무상황 점검, 장기 재무목표 설정, 가계예산 수립, 최근 1년간 저축 경험, 금융상품 선택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수집, 생계를 위한 차입 등
	금융태도 (3문항)	저축과 소비에 대한 선호, 현재에 대한 선호(미래에 대한 대비), 돈에 대한 태도(돈은 쓰기 위한 것)

구분	내용
금융포용(4문항)	금융상품 인지 및 보유 여부, 최근 2년간 금융상품 선택 유무, 친지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의존 여부
사회인구학적 정보 등 (14문항)	거주지, 성별, 자녀수, 연령, 소득, 교육 수준, 고용형태 등

*출처: 한국은행(2013.01.21.). 우리나라의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 p.2.

② 국제학업성취도평가(OECD/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측정 도구

OECD의 청소년 대상 금융이해력 측정은 PISA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이루어진다. PISA의 금융이해력 평가 문항은 내용(content), 과정(process), 맥락(context)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내용 영역에는 평가문항에서 묻는 금융 관련 핵심 지식이, 과정 영역에는 평가 문항에서 제시된 자료를 다루는 것과 관련된 사고 전략과 접근 방식이, 맥락 영역에는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세계적인 것까지 해당 영역의 지식, 이해를 적용하는 상황이 무엇인지가 포함된다 (OECD, 2018.06b, p.3).

표 III-4. PISA2018 금융이해력 평가 영역 및 내용

영역	주요 내용
내용(context)	화폐와 거래, 재정 계획 및 관리, 위험과 보상, 금융 환경
과정(process)	재무 정보 식별, 재무 맥락에서 정보 분석, 재무 문제 평가, 재무 지식 및 이해 적용
맥락(context)	교육과 직장, 가정과 가족, 개인과 사회

*출처: OECD(2018.06b). PISA 2018 released financial literacy items, p.3.

PISA2015 금융이해력 핵심역량 기본체계는 총 4개의 주제(①돈 및 금융거래, ②계획 및 관리, ③위험 및 보상, ④금융환경)에 따른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이와 같은 기본 체계 구성은 “각국의 금융발전, 단계, 문화, 대상 등을 고려하여 15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적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외교부, 2018, p.19).

5) 각 문항 정답 시 1점 부여, 총 8점

표 III-5. PISA2015 금융이해력 핵심역량 기본 체계의 구성

주제	세부 내용
돈 및 금융거래	돈/수입, 지불 및 구매/가격, 출납 기록 및 계약, 외화
계획 및 관리	예산/수입 및 지출 관리, 저축, 장기 계획, 신용
위험 및 보상	변화하는 가치, 위험 파악, 금융안전망 및 보험, 위험과 보상의 조화
금융 환경	규정 및 소비자 보호, 교육·정보·조언, 권리 및 책임, 금융서비스 제공자, 사기, 세금과 공공지출/외부 영향

*출처: 외교부(2018), PISA2015(제4권) 학생의 금융이해력 주요 내용, p.19 내용 재구성.

이와 같은 금융이해력 측정의 영역과 기본 체계만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대상 금융이해력 측정 척도를 구성하는데 좋은 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나, PISA의 구체적인 측정 문항을 살펴보면⁶⁾ 전반적인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수의 문항이 수리적 능력(numeracy)을 측정하는 문항이 상당수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융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문항은 공개된 문항 중 30%에 지나지 않고, 대체로 일반상식이나 수리적 능력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조지민, 임해미, 천규승, 김경모, 2014, p.186). 뿐만 아니라 공개된 일부의 내용을 번안하여 사용하기에는 상황을 기술하는 문항이 많아 번역 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PISA의 측정 도구를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우리나라의 관련 측정 도구

① 금융감독원·한국은행 실시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ECD/INFE가 제공하는 표준방법론 및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18세~79세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2012년에 처음 실시된 이래 2년 주기의 가구조사(전국 2,400가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고 있으며, 국가 승인통계이다. 조사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조사 자료이다.

측정은 2022년 조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OECD INFE 가이드라인의 핵심질문 중

6) OECD(2018.06b). PISA2018 Released Financial Literacy Items.
OECD(2017.10). Financial Literacy Questionnaire for PISA 2018.

금융지식(7점), 금융행위(9점), 금융태도(4점)로 구성된 문항의 총점을 20점 만점으로 산정하여 금융이해력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금융생활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몇 개의 유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측정 척도의 구성인 <표 III-6>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지식에서 측정하는 내용이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동일한 개념을 설명하되 사용하는 용어를 수정한다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응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행위에서 측정하는 내용을 청소년의 일상생활 상황에 맞추어 수정한다면 청소년 대상 조사표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신의 선호를 측정하는 금융태도의 문항은 학교급에 상관없이 초등학교생 청소년까지 응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금융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인 대상 조사를 하면서 이미 수차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완 작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성인과 청소년을 같은 측정도구의 틀로 조사할 경우 10대 시기와 성인 시기의 연령대별 금융이해력 수준의 비교는 물론, 금융교육의 중·장기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의 내용을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6. 한국은행·금융감독원 금융이해력 조사 주요 측정 내용

영역	분류	배점	비고
금융지식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1	정답은 1점, 그 외는 0점
	이자 개념의 이해	1	
	단기 계산	1	
	복지 계산	1	
	인플레이션의 의미	1	
	분산투자 개념	1	
	위험과 수익 관계	1	
	소개	7	
금융행위	가계예산 관리	1	가계예산 관리 1점
	적극적인 저축활동	1	저축 경험 있는 경우 1점, 그 외 0점

영역	분류	배점	비고
	신중한 구매	1	매우 동의 또는 동의의 경우 1점, 그 외 0점
	청구대구 적기 지급	1	
	평소 재무상황 점검	1	
	장기 재무목표 설정	1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2	독자적 정보 이용 2점, 비교·검토 또는 일반정보 이용 1점
	가계수진 적자 해소	1	차입에 의존 0점, 그 외 1점
	소계	9	
금융태도	저축보다 소비 선호	1.3333	매우 동의=1점, 동의=2점, 보통=3점, 대체로 반대=4점, 완전 반대=5점
	미래보다 현재 선호	1.3333	
	돈은 쓰기 위해 존재	1.3333	
	소계	4	
금융이해력(합계)		20	

*출처: 한국은행·금융감독원(2023.03.30),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보도자료, p.14.

②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이해력 조사'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한 2022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는 학생들의 경제이해력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경제교육의 성과와 취약점을 파악하고 학교 경제교육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첫 실시 이후 2022년에 두 번째 실시된 바 있다. 질문지를 이용하여 전국의 초등학교(6학년), 중학생(3학년), 고등학교(2학년) 각 5,000명을 대상 대면조사가 이미 실시되어(기획재정부, 2023.02.23),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측정도구를 마련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주요 내용이 경제이해력과 학교 경제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로 금융이해력과는 내용의 초점이 다소 상이하고, 관련 측정도구가 공개되지 않아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청소년 금융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FGI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여기에서는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금융생활실태를 청소년과 학부모의 생생한 일상의 이야기 속에서 파악하고, 설문문항 작성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음.
- 설계된 면접조사의 대상자 구성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청소년 3개 집단 14명, 학부모 3개 집단 9명이 참여하였음.
-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음.
 - ① 디지털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 금융생활이 이미 보편화되었음.
 - ② 저축을 넘어 투자를 하는 경험 범위(주식, 가상화폐)와 주체(자기주도 vs 부모주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
 - ③ 주식 투자하는 청소년과 도박을 즐기는 청소년은 이질적 집단임.
 - ④ 금융교육에 대해 대체로 기억에 남지 않다는 청소년에 반해, 금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관심을 보임.

1)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실시 목적 및 과정

앞서 검토된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와는 달리, 청소년의 금융생활 실태에 대해서는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실증연구는 물론, 적절한 문헌자료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중반에 태어난 10대 청소년들의 금융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조사도구 개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초점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제한된 자료나 자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금융생활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금융이해력 수준과 더불어 청소년의 금융생활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를 제대로 포착해 내어 측정도구 개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초점집단면접조사 실시의 일차적인 목적이 청소년 금융생활실태를 측정하는 조사도구 개발에 있기는 하나 단지 그것에만 한정하지 않고, 본 연구의 결과로써 정책제언을 도출하는데 실증결과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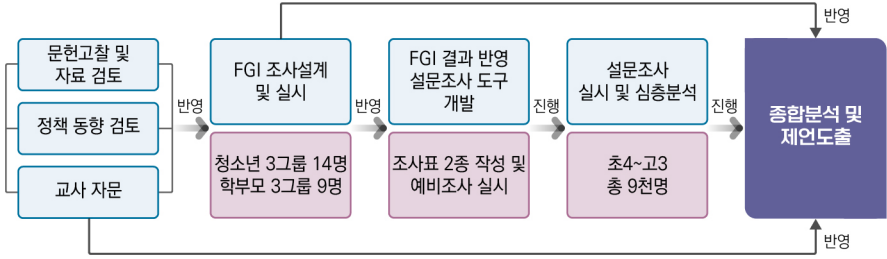


그림 III-2. 연구추진 과정에서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위치 및 활용

2)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구성

(1) 참여자 집단 구성 및 섭외 기준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조사의 범위와 참여 그룹의 구성은 가용 예산의 제한 하에서 단계적으로 검토되고 결정되었다. 논의를 거쳐 여러 명의 참여자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여 주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a)초점집단면접조사 방식의 특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과 b)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소비·지출 및 생활환경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는 점, 그리고 c)체크카드 등 본인명의로 금융생활이 가능한 연령대가 만14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등학생 중심의 청소년 참여자 그룹을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금융생활실태에 대해서는 학부모 그룹을 자녀 학교급, 초·중·고별로 나누어 구성함으로써 청소년 참여자 그룹 구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초점집단면접조사의 그룹은 크게 고등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그룹과 자녀 학교급을 기준으로 한 초·중·고 학부모 3개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다음 단계에서는 청소년 그룹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구성 기준을 검토하고 청소년 그룹 구성을 확정하였다. 먼저 청소년 금융생활실태와 관련된 문헌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근 10대를 겨냥한 청소년 전용 선불전자지급방식의 금융카드가 카카오페이나 토스뱅크 등 인터넷뱅킹 회사들을 중심으로 출시되었고, 2020년 10월에 만14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한 카카오페이의 ‘미니’의 경우, 2년 사이 해당 연령대 청소년 인구의 64%가 가입했다는 사실이 포착되었다(시사인, 2022.11.04.).

정식 금융계좌는 아니지만, 성인이 사용하는 카드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 카드를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청소년들의 금융생활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카드 사용여부를 청소년 그룹 구성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재학 중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이나 해당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특성화고교가 있음을 고려하여 특성화고 재학생 그룹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그룹의 구성은 a)선불전자지급수단의 카드 사용 그룹과 b)비사용 그룹, 그리고 c)특성화고교 재학생 그룹의 총 3개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이어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그룹별 참여자 수 범위와 성별 구성 등을 결정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최대 4명 구성을 기본으로 하되, 최대 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성별의 비중을 가능한 5:5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참여자 섭외과정에서 동일한 조건일 경우 각 그룹에 공통적으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있거나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 등이 있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섭외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 학교급별 3명씩이라는 참여자 수에 대한 기준만 정하였다. 단, 초·중·고에 재학 중인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하나의 학교급 그룹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모든 그룹 공통적으로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녀의 금융생활 및 금융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우선 섭외하였다.

표 III-7. FGI 참여자 그룹 구성 및 섭외 기준

구분	구성 및 섭외 기준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개 그룹(①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②특성화고교 재학, ③선불전자지급수단 비사용) • 한 그룹 당 4명 구성을 기본으로 하되, 최대 5명 초과하지 않도록 참여자 구성 • 각 그룹별 참여자 성비는 가능한 5:5의 비중으로 구성 • 동일한 조건이라면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유경험, 금융교육 유경험자 우선 섭외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개 그룹(①초등학교 자녀 학부모, ②중등학교 자녀 학부모, ③고등학교 자녀 학부모) • 한 그룹 당 3명을 구성을 기본으로 함. • 학부모의 성별은 제한하지 않음. • 초·중·고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한쪽 학교급에만 참여 가능 • 동일한 조건이라면 자녀 금융생활 및 금융교육 관심 많은 자 우선 섭외

(2) 참여자 구성 및 특성

①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구성

앞서 기술한 참여자 그룹 구성 및 섭외기준에 따라 선정된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참여자 수는 청소년 총 14명과 학부모 총 9명이다.

먼저 <표 III-8>에 제시된 청소년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들이 8명으로 다수이고,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7명씩 동수이다. 이들 중 다수는 중학교 2학년 때 본인 명의의 카드를 처음 사용하였고, 1명을 제외한 참여자들이 계좌 입금 형태로 용돈을 받고 있다. 총 14명 중 6명의 참여자가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성화고 재학생 그룹의 학생이 이들 중 절반을 차지한다. 아르바이트 경험의 경우도 9명이 유경험자인데, 특성화고 학생들은 모두 경험이 있다. 금융생활 중에 피해경험은 학교폭력과 중고거래사기 경험 각각 1명씩 있었다.

표 III-8. FGI 참여자 구성 및 특성 : 청소년

구분		성별	학년	본인카드 첫 이용 시기	용돈 지급 방식	주식계좌 보유여부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금융피해 경험	
1그룹	선불전자지 급수단 사용 일반고 재학 생	1-A	남	고2	중3	계좌	×	×	×
		1-B	남	고2	중3	계좌	○	○	×
		1-C	여	고3	중3	계좌	○	×	○ (학폭)
		1-D	여	고2	중2	계좌	×	×	×
		1-E	남	고2	중2	계좌	×	○	×
2그룹	특성화고 재 학생	2-A	여	고3	고2	현금	×	○	×
		2-B	여	고2	중2	계좌	○	○	○ (중고거래 사기)
		2-C	남	고3	중2	계좌	○	○	×
		2-D	남	고3	중2	계좌	○	○	×
		2-E	여	고2	중2	계좌	×	○	×
3그룹	선불전자지 급수단 비사 용 고교생	3-A	여	고2	중1	계좌	×	○	×
		3-B	여	고3	중3	계좌	○	×	×
		3-C	남	고1	중2	계좌	×	○	×
		3-D	남	고2	중2	계좌	×	×	×

다음 <표 III-9>에 제시된 학부모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 학교급에 상관없이 모두 어머니들이 참여하였으며, 40대가 5명, 30대와 50대가 각각 2명씩 구성되었다.

자녀에 용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초등학교생 자녀는 현금, 중·고생은 계좌로 입금하는 형태가 절대 다수이다. 또한 모든 참여자가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가 있으나, 관리하는 방식은 각기 달라 해당 계좌를 부모가 관리하거나 자녀가 직접 관리하기도 하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자녀의 용돈이나 수입과 지출 등 금융생활에 대해 관여를 하거나 관리하는 학부모가 6명으로 다수이다. 금융교육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주최하는 교육에 참여한 경험자가 3명, 자녀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 참여자 2명, 거주지 지자체에서 실시한 교육에 참여한 경우도 1명 있었다.

표 III-9. FGI 참여자 구성 및 특성 : 학부모

구분		성별	연령	자녀 학년	자녀 용돈 지급 방식	자녀 주식계좌보유 및 관리 여부	자녀 금융생활 관리 여부	자녀 금융교육 경험	
1그룹	초등자녀 학부모	1-A	여	42	초6	현금	주식 (부모관리)	관리함	없음
		1-B	여	39	초2	현금	주식 (부모관리)	관리함	없음
		1-C	여	39	초1	현금	주식 (부모관리)	관리함	있음 (지자체 교육)
2그룹	중등자녀 학부모	2-A	여	43	중2	계좌	주식 (자녀+부모 함께 관리)	관리함	있음 (금융기관 교육)
		2-B	여	51	중3	계좌	주식 (자녀 직접 관리)	관리함	있음 (금융기관 교육)
		2-C	여	42	중3	계좌	주식 (자녀 직접 관리)	자녀가 알아서	없음
3그룹	고등자녀 학부모	3-A	여	47	고3	계좌	주식 (자녀 직접 관리)	자녀가 알아서	있음 (학교교육)
		3-B	여	49	고2	계좌	주식 (자녀 직접 관리)	자녀가 알아서	있음 (학교교육)
		3-C	여	52	고2	현금	주식 (부모관리)	관리함	있음 (금융기관 교육)

3) 초점집단면접조사(FGI) 내용 및 방법

(1) 조사내용의 구성

초점집단면접조사의 내용은 문헌고찰과 언론 및 영상자료의 검토, 그리고 현직 초·중·고 현직 교사들을 학교급별 1:1 방식으로 자문을 받아 주제를 선정하고, 반구조화된 질문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청소년 그룹 조사내용은 선불전자지급방식의 카드(카카오�뱅크 미니, 토스유스카드 등) 사용 경험과 수입 및 지출 관리, 저축 및 투자활동, 그리고 금융교육경험과 금융피해 직·간접 사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학부모 그룹의 조사 내용은 자녀의 용돈, 저축, 소비 등 금융생활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해 가정에서의 지도 경험과 자녀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 금융교육에 대한 의견, 그리고 자녀의 금융생활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표 III-10. FGI 주요 내용 구성

구분	내용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뱅 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경험 • 수입과 지출(용돈사용) • 투자활동 • 리세일 거래 경험 • 금융교육경험 • 소액대출 경험 • 금융사기 등 피해 경험(대출피해, 학교폭력 피해, 개인정보 관련 피해 등 포함)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금융생활(저축, 소비, 용돈) 파악 및 지도 • 자녀의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 • 금융교육에 대한 의견 • 금융생활관련 우려되는 점

면접조사는 참여들의 인사에 이어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면접조사의 시작을 모든 참여자가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용돈을 받고 있나요?’라는 도입 질문을 도구 질문으로 활용하였다. 도입 질문 이후 정해진 주제를 반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일부 참여자 그룹의 성격에 따라 참여자들 간 인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주제가 도입 질문과 달라지기도 하였으나, 이 경우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주제를 옮기지 않고 참여자들이 이야기를 시작한 주제부터 청취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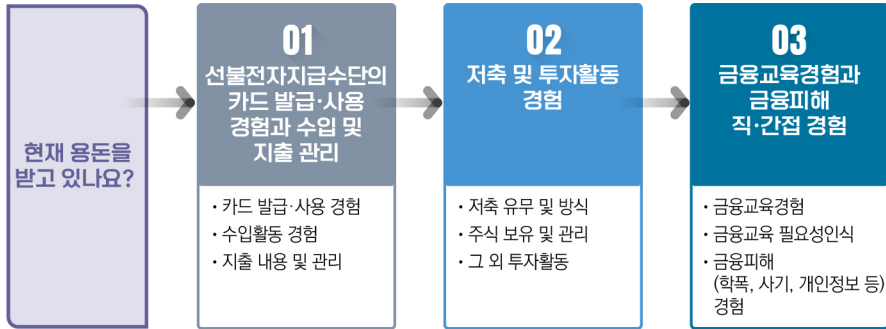


그림 III-3. FGI 주요 내용 구성 및 진행 흐름

(2) 초점집단면접조사 방법 및 IRB 심의

① 초점집단면접조사 방법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구진이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섭외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업체에서 참여자 섭외를 진행하였고, 계획된 기간 내 참여자들의 참여 가능 일정을 재차 확인 후 3월 27일~4월 2일까지 각 그룹별 초점집단면접조사가 실시되었다.

1개 그룹 당 90분을 기본으로 하되, 최대 1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진행하였으며, 조사를 시작하기 전 “언제든 참여를 중단하고 싶으면 중단할 수 있다”는 연구윤리 측면의 참여자 기본 권리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기록에 대한 녹취에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면접조사가 시작되었다. 섭외 과정부터 여러 차례 설명이 되기는 하였으나, 참여자들 간 인사 후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다시 설명하였고, 진행과정에서 참여자 한 두 사람에게 발언 기회가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였다.

표 III-11. FGI 방법

구분	내용
참여자 섭외 및 참여자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조사업체에서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 후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진이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단계적 필터링 후 참여자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참여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개인 연락에 동의한 신청자 목록화 → ② 연구진이 설정한 참여자 구성 및 섭외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 우선 섭외 순위 부여 → ③ 개별 연락으로 참여 의사 재확인 후 계획된 조사 기간 내 참여 가능 여부 타진 → ④ 일정 및 면접조사 방식, 사전 정보 확인 등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최종 동의 여부를 확인 후 확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된 장소로 참여자 내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3월 27일~ 4월 2일(7일 간)
조사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6개 그룹 모두 연구책임자와 그룹별 참여자들이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조사내용 측면에서의 일관성 유지와 함께 진행과정에서의 동시 분석 가능하도록 함.
참여 횟수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룹별 1회, 진행 시간은 90분을 기본으로 하고, 최대 1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기록 및 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을 위해 내용 녹취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조사 시작
진행자	연구진

② 연구윤리 심의 및 승인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실시를 위해 연구진의 기본 조사 설계를 하였고, 이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연구윤리 심의·승인받은 후 심층면접조사가 실시되었다(승인번호: 202303-HR-고유-002, 통보일: 2023.03.17.).

(2)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자료의 분석

녹취된 자료는 전문속기사에 의해 전사되었고, 전사된 자료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이 참여자별로 기록한 자료와 함께 주제별로 일차 분류되고 분석되었다. 그 다음 연구진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고 주제별 범주화하는 과정(주제 분류→재분류→범주화→구조화)이 있었으며, 1차 도출된 내용을 또 다른 틀(frame), 즉 a)생활환경 및 여건, b)인식·태도 및 세대 특성, c)경험, d)금융교육 경험 및 필요성 인식으로 재분류 하고 1차 도출 내용과 교차 확인 및 검토 후, 최종 도출 내용의 의미를 구조화하였다.

4)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주요 결과

(1) 용돈 기입장은 더 이상 불필요한 디지털 금융생활

① 동전과 지폐를 볼 기회가 없는 세대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 도출된 청소년들의 금융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디지털 생활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선 부모세대가 용돈기입장과 돼지저금통에 넣어 저축하는 유형의 동전과 지폐를 ‘돈’으로 인식하였다면, 오늘의 청소년들은 영수증에 찍히는 무형의 숫자로 ‘돈’을 인식한다. 생애 이른 시기에 디지털기기를 사용하고 가상의 공간과 일상에서의 생활이 경계 없이 이어지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른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 OECD, 2020a, p.6)이라 불리는 청소년들에게 부모세대가 어렵듯이 떠올리는 소싯적 용돈 기입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청소년들은 화폐, 일명 ‘돈’이라는 것이 동전과 지폐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숫자로 찍히는 금액의 돈을 지출하는 것부터 몸에 익히게 된다. 어릴수록 ‘돈’의 형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자조 섞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실제 본 연구의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이구동성 요즘 청소년들이 돈에 대한 개념, 즉 ‘돈’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형태이고, 게임 속 가상화폐(사이버머니)의 단위와 어떻게 다른 지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서 자랐다고 토로한다.

애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엄마 지금 돈 없는데 그러면, “카드 있잖아” 라고 해요. 그러면 “아니 엄마 통장에도 돈이 없어” 라고 설명해도 카드는 아무 때나 써도 되는 것처럼

애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엄마 지금 돈 없는데 그러면, “카드 있잖아” 라고 해요. 그러면 “아니 엄마 통장에도 돈이 없어” 라고 설명해도 카드는 아무 때나 써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무슨 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조금 ... (중략) 제가 교과 과정을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조’가 나오는데 너무 먼 얘기죠. 너무 막연한 컨셉이고 그러니까 현물 위주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동전은 잘 모르더라고요. 10원짜리. 10원짜리 특히 볼 일이 없어서 “이거 뭐예요?”라고 해요. (학부모 1그룹, 참여자 1-A)

현물이 아니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있다가 점점 줄어가는 걸 자기가 눈으로 보면 좀 초조한 것도 있고 할 텐데, 요게 무슨 사이버머니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학부모 1그룹, 참여자 1-B)

요즘에는 지폐를 안 쓰니까 또 지폐를 잘 모르더라고요 화폐 가치를. 그래서 카드밖에 모르는데. 저는 우선은 요즘에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지폐랑 동전이랑 놓고 그 가치 비교하는 거랑 알 수 있게끔. 요즘 애들은 절대 몰라요 그 어느 누구도 현금을 안 쓰니까. 재래시 장밖에 쓸 데가 없어요. ... (중략) 엄마들한테 물어 봤어요. 집에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시장 놀이 하듯이 어릴 때 장난감으로 했지, 실제로 자기도 쓸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 (학부모 1그룹, 참여자 1-C)

② 디지털 생활, 금융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세대

더 이상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작은 카드와 휴대폰으로 연결된 디지털 결제 기술이 발전함으로 금융카드의 사용은 일상화되었고, 가속화된 인터넷전용 은행을 중심으로 일명 핀테크 기업들의 디지털기술은 미성년 청소년들에게 제한적이었던 카드 발급의 벽을 이미 넘어서서 선불충전 방식의 지급수단으로서 청소년전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금대신 부모의 카드를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녔던 세대를 지나 부모가 자녀의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었던 세대를 넘어 이제는 휴대폰만 있으면 청소년 스스로가 금융카드를 만들 수 있는 세대로 변화하였다.

제2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2020년 10월에 14세~18세 청소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첫 번째 청소년전용 카드가 카카오뱅크에서 '미니' 카드로 출시되었는데, 출시 이후 22년 말 기준 가입자가 161만 명에 이르며, 이는 우리나라 14세~18세 청소년 인구 232만 명의 6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후 또 다른 인터넷전용 은행인 토스(유스카드)와 케이뱅크(하이틴)를 비롯하여 일반 은행에서 발급하는 청소년전용 카드가 지속적으로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에 비추어본다면, 이미 청소년 중 중·고생의 경우 절대 다수가 청소년전용 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가상계좌로 연결된 금융카드 사용 또한 일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전용 카드에 높은 호응도를 보이는 데에는 몇 가지 이데 세대가 동의하는 공통된 사유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접근 용이성이다. 보통 금융카드를 하나 신청하려고 하면,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는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연계된 카드를 발급받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한데 반해, 선불충전방식의 청소년전용 카드는 자신명의로 휴대폰만 있다면 휴대폰으로 신청한 후 수일 내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원래 체크카드는 청소년이 만들려면 무조건 은행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은행도 토요일

날도 안 열고 학교가 다 끝나면 은행도 마감 시간이어서 갈 수가 없던 말이에요. 만들기가 힘든데 '미니'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그냥 접수하면 택배로 오다 보니까 그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청소년 2그룹, 참여자 2-B)

그러나 신청과 수령이 편리하다는 측면의 접근 용이성 이면에는 청소년들의 또 다른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 중 하나가 또래의 영향이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의 동의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친구가 사용하는 카드가 궁금하기도 하고 신청하는 것에 돈이 들지도 않고 간단한데, 신청 과정에서 은행계좌를 만드는 것과는 다르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쓰고 싶다가 아니라 재도 쓰니까 그냥 그게 처음 발급할 때는 무료인 거거든요. 그냥 발급도 쉬우니까 이거 신청하면, 네. (청소년 1그룹, 참여자 1-A)

만들었던 계좌로 받았던 거를 카카오펙 카드를 쓰면 부모 동의 없어도 계좌 개설이나 카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사생활 보호나 ... (중략) 다른 계좌나 카드를 발급하려면 어쨌든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나 은행에 가서 계좌를 해야 되는데 카카오펙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만 하면 핸드폰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계좌 개설 방식이 간편해요. (청소년 1그룹, 참여자 1-D)

일반 카뱅은 해야 하는데 카뱅 미니는 청소년 전용으로 나온 카드라서 딱히 부모님 동의 없이도 개설 돼요. (청소년 1그룹, 참여자 1-B)

이와 같이 신청단계부터 청소년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카드가 현금보다 휴대 편리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의 편의성에 대한 욕구가 동시에 충족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이른 시기에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거나, 청소년 전용 카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된 또 다른 주요 사유가 된다.

보통 현금만 들고 다니면 잔돈 막 주고받기도 귀찮고 결제하든 뭘 하든 뭔가 불편한 감이 좀 많잖아요. 어쨌든 잔돈도 생기는 법이고 지갑을 따로 넣어 다니기도 하고 학교 가니까 현금이면 분실도 종종 일어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카드가 훨씬 자기가 관리만 잘한다면 보안 상으로도 좋고 훨씬 편리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1그룹, 참여자 1-A)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 이렇게 계속 손에 들고 다녀야 되고 또 주머니 넣고 다니면 또 이렇게 덜렁덜렁 갖고 다니니까 저도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카드가 용돈 주기도 편할 것 같고 밖에 나갈 때 혹시나 돈이 모자라거나 그럴 때도 이체해 주는 것도 편하고 그래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 (중략) 거의 다 카드를 가지고 있어. ... (중략) 현금을 갖고 다니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아이가 또 멀리 갔는데 현금이 없어서 집에 못 올 경우도 있고 만약에 급하게 뭘 먹고 싶거나 거기서는 쓸 일이 조금 있다 보니까 카드를 다 거의 엄마들 물어보니까 “나도 카드 썼어. 카드 썼어. 아이 카드 만들어 썼어.”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학부모 2그룹, 참여자 2-C)

에버랜드 같은데 5~6명씩 가면, “엄마 나 오늘 현금 가져온 애 나 하나야. 촌스러워.” 막 이래요. 그리고 막 뛰는데 동전 째랑째랑.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카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학부모 2그룹, 참여자 2-B)

후대의 편의성에 더하여 디지털 금융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기능은 디지털기
기 활용능력이 그 어떤 세대보다도 뛰어난 청소년들에게 선불충전방식의 청소년전용카드
사용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예컨대 용돈기입장의 기능은 이미 가입한 카드의 어플리케
이션으로 대체되었고, 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든지 지출금액
과 남아있는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통해 용돈의 일부를 저축하기도
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계좌를 나누어 관리하기도 하며, 수시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적금에 가입하기도 하거나 주식을 사기도 한다.

제가 용돈을 받는다고 거의 다 쓰지는 않고 일주일에 10만 원 받은 거에서 대부분 항상 5
만 원은 따로 저축 계좌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좀 제 안에서 좀 한도를 두고 소비하고 저축
하고 있어요. (청소년 3그룹, 참여자 3-B)

저는 일단은 이제 자동이체, 그러니까 적금 통장에 자동이체를 시켜요. 그다음에 저 주식을
하거든요. 주식 사고 그다음,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 적금 이자가 좀 세 가지고, 그런 식으
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청소년 2그룹, 참여자 2-B)

저는 일단은 카뱅 '미니'카드 하나, 일반이 하나 있고, 국민은행이 있고 토스. 일단 미니로
용돈을 받으면 제 카뱅 본 계좌에다가 넣고, 그리고 이제 알바를 해서 번 돈으로 이제 카뱅
을 주로 메인 은행으로 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일날에 0000에 가보려고 했던 거
는 토스에 따로 저금통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목표가 있는 거는 좀 통장 분리를
해놓고, 카뱅에 세이프박스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가둬 놓을 수 있는 그건데

거기다가 좀 넣어놓고 있어요. (청소년 2그룹, 참여자 2-C)

용돈이 부족하면,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부모님에게 받는 용돈 이외 수입이 되는 활동을 하는데, 그 수입을 저축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금융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흔히 청소년들의 용돈 이외 수입활동이라 하면 부모 세대의 경우, 시간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아르바이트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각종 중고거래가 활성화된 현실에서 오늘의 청소년들은 노동을 하는 아르바이트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판매하는 등의 중고거래를 통한 수입활동을 더 보편적으로 경험한다. 무엇보다도 그 중고거래의 과정에서도 디지털 금융카드와 계좌가 활용된다.

저는 적금해가지고 여행 갈 때마다 써요. 그 용돈하고 알바비 합쳐가지고 적금 들어요. (청소년 2그룹, 참여자 2-A)

작년에 그냥 서빙 그런 걸로 단기로 했었어요. 워딩홀 같은데. 그게 일하는 시간 따라 달라요. 적게 하면 적게 주고 10시간 하면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 주고 그래요. (청소년 3그룹, 참여자 3-C)

제 주변에 좀 뮤지컬 같은 거나 그런 거 관람하는 게 취미인 애들이 많아서 좀 티켓팅 실력을 늘린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산 티켓에 가격을 붙여서 파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번개장터 아니면 중고나라 아니면 트위터 그런데다 올려요. (청소년 3그룹, 참여자 3-B)

그래서 이제 급할 땐 알바를 찾아서 쓰거나 아니면 굿즈를 팔아서. (청소년 3그룹, 참여자 3-A)

(2) 자기 주도의 투자 경험 vs. 부모 주도의 투자 경험

① 자기 주도의 투자 경험

디지털환경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금융생활의 내용과 범위는 성인과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용돈과 용돈 이외의 수입활동으로 제한되는 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제외하고, 수입 및 지출관리와 저축의 방식은 오히려 디지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도 한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하여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저축을 넘어 금융투자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그 유형에 있어 주식 계좌를 보유하고 실제 투자를 스스로 실행하는 자기 주도의 투자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부모가 계좌를 만들어 주식 투자를 권하거나 명의를 내어주는 부모 주도의 투자를 경험하는 이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주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 내용을 청취하다보면, 공통적으로 또래의 영향이 있었음이 발견된다. 주변에 먼저 주식투자를 하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시작한다거나,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주변 친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물론, 가장 관심을 갖게 했던 요인은 주식투자 수익으로 친구가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다수의 청소년들이 갖는 문화는 아니겠으나, 학부모 그룹 면접조사에서는 자녀가 친구로부터 주식 1주를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고, 자녀와 친구들이 기념일에 주식을 선물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일단 저는 주식이라는 거는 좀 되게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친구가 000뱅크가 10만 원 하던 시절에 사서 12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중1 때 그 친구 아버지는 이제 0000 다니는 분이었던 거요. 눈이 뜬 친구인데 저는 그때 아, 나는 좀 범접할 수 없는 건가 보다 싶어서 접다가... 고1 때 관심이 생겨서 엄마 손잡고 국민은행 가서 만들게 됐어요. 집에서는 “그거는 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놀면서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좀 깐 거죠. (청소년 2그룹, 참여자 2-C)

생일 선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한테서 00전자 주식을 받았어요. 많이도 안 받고 딱 한 주. 한 주를 받았는데 00전자 주식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튀잖아요. 거기서 수익이 나니까 그게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토스에서 왜 주식을 한 주씩 줬었어요. “뭘 클릭하면 주식 한 주 드립니다. 원하는 그 계정을 선택하세요.” 이래가지고 그거를 하고 나서 자기 주식이 조금 늘어난 거지. 근데 그런 걸 친구들끼리 공유하다 보니까 애들이 생일 때나 하다못해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때도 주식을 주는 거예요. 은행 주식도 한 주씩 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쓸쓸하게 그런 관심이 많더라고요. (학부모 3그룹, 참여자 3-A)

또래의 영향은 비단 학교 친구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가상공간에서만 만나는 친구들을 통해서도 주식투자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주식투자 및 거래를 하게 되는 사례도 포착된다. 이 경우도 예외 없이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지점은 ‘얼마를 벌었다’에 있다.

공모주 하느라고 가족 계좌 하면서 아들 거를 만들어줬는데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근데 아들은 중1인가 중2때 알게 됐어요... (중략) 게임을 하다 보니까 형들도 많이 만나는데 "형이 하루에 100만 원을 벌었다. 주식으로." 이러는 거예요 ... (중략) 머리가 더 크고 하니깐 OO전자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매수 매도하는 거를 자기가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 (중략)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올 때까지 다 왔는데 이게 모르는 척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네가 관심이 있으니까 해봐라. 허락 한 거죠. (학부모 2그룹, 참여자 2-B)

또래의 영향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자기주도로 주식투자를 하게 되는 또 다른 영향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디어의 영향이다. 일상적으로 온라인 영상 및 포털사이트 노출된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한참 주식과 가상화폐 붐이 일었던 시기에는 검색하지 않아도 해당 콘텐츠를 다루었던 예능프로그램만을 보았더라도 알고리즘으로 주식투자 영상이 추천되었다고 한다.

저는 그때 뭐 알고리즘인지 모르겠는데 네이버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자꾸 그런 영상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보다가 좀 약간 좀 더 알아보다가 이제 아빠랑 같이 계좌를 만들러 가고 그러고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좀 더 하다가 투자를 하고 앱을 지우고 안 보고 그랬어요. (청소년 2그룹, 참여자 2-D)

저도 똑같이 알고리즘도 타게 됐고. 저도 이렇게 돈 불리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찾아보고 가입하게 됐어요. 그때 청소년증 들고 가면 부모님 없이도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 혼자 만들러 가게 됐어요. ... (중략) 카카오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저는 OOO뱅크로 수익률을 80%까지 찍었어요. (청소년 2그룹, 참여자 2-B)

② 부모 주도의 투자 경험

또래나 미디어의 영향으로 자기 주도의 주식 투자를 하게 된 청소년들의 경험 속에는 직접 과정에서 얻는 즉각적인 정보는 있을지라도 그 정보가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함께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과정이 부재하다.

그렇다고 하여 '부모 주도로 이루어지는 투자 경험이 반드시 청소년 자녀에게 긍정적인 금융교육 과정을 동반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부모가 어떠한 계기와 목적으로 자녀에게 주식 투자를 알려주고 계좌를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경험에서도 부모의 금융교육이 부재한 부모 주도 투자 경험이 생생하게 보고된다. 이 경우, 부모 또한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다수 해당한다.

저 엄마가 하라고 해가지고. 계좌 만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랑) 같이 가서 만들었어요. 그때 OO전자 떨어져가지고 그때 엄마가 사라고 해서. 엄마는 잘 안 하는데 엄마는 하나도 안 하는데 저한테 하라고 그래가지고. 돈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투자 금액은) 100만 원? 하라고 해서 샀는데 그때는 안 넣고 좀 시기를 잘못 해가지고. 조금 이따 넣고 좀 나눠서 넣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마이너스 됐어요. (청소년 1그룹, 참여자 1-C)

부모님이 주식을 투자하시는데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좀 이제 저도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된다고 하셔서, 그냥 우량주 주식 같은 거 몇 주를 사주셔서 저도 좀 쳐다보고 투자하게 된 것 같아요. (청소년 3그룹, 참여자 3-B)

이와 같은 사례와는 달리, 부모의 금융교육이 동반된 부모 주도의 투자 경험의 사례들은 학부모 그룹에서 다수 청취 되었는데, 이들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사항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점, 그리고 투자를 위해서는 저축으로 돈을 먼저 모아야 한다는 것과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자는 도박과 같다는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 경험 그 자체에 대한 의미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대화, 금융경제에 대한 관심 및 스스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는 학습 기회의 마련, 기능보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희 아이는 6학년 때쯤 주식 계좌를 하나 마련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조금 투자를 하면서 본인이 조금 해보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핸드폰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한두 주식 이렇게 사보면서 이렇게 우량주 위주로 아빠랑도 얘기하고 우리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조금씩 해봤었거든요. 그때 코로나라 집에도 많이 있었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한 1~2년을 그렇게 하다가 ... (중략) 들어가는 돈은 이렇게 설날 명절날에 부모님들, 어른들이 이렇게 주시는 돈으로 그러면서 경제 기능도 좀 익히고 회사나 이런 거를 본인이 또 찾아보고 이런 게 어떤가라는 거를 조금 공부 하더라고요. (학부모 2그룹, 2-C)

6학년에서 1학년 넘어갈 때쯤인가, 그때 아이랑 얘기를 해서 “네 명의로 된 통장에 얼마가

있다. 해볼래?”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도 관심 있다고 해본다고 해서 그때 제가 통장 개설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얘기해서 몇 개의 종목을 이렇게 샀는데 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게, “그 봐. 투자가 이렇게 어려운거야. 그러니까 대충 우리처럼 대충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네가 돈을 이만큼 모아놔야 할 수 있는 거야. 투자가 먼저가 아니라 돈을 모으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거야.” … (중략)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좀 유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학부모 2그룹, 참여자 2-A)

주식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명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한 종목씩으로 해서 넣어줬죠. 저는 “주식은 공부를 하지 않고 하면 도박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서 만드는 과정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주식 통장 보여주고. 뉴스에 나오면 맨 마지막에 항상 주식이 상한가 하한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 주식이 어느 정도에 올랐는지 그런 걸 먼저 확인하게 해서 그 방법을 다 익히고 나면은 이게 그래서 수익률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학부모 3그룹, 참여자 3-C)

(3) 집단의 이질성 : 도박 관심 vs. 주식 투자 관심

2~3년 전 코로나19 시기와 함께 주식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붐의 영향은 청소년들에게도 비껴가지 않았고,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가 아닌 도박과 같이 이해하고 무분별하게 주식투자를 하는 10대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뉴스 보도(SBS뉴스, 2021.02.23.; MBC뉴스, 2021.03.12.)가 이어지기도 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는 지점은 투자에 대한 수익, 일명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청소년이 아닐지라도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대체로 주식과 도박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고, 도박과 같은 사행심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경험과 참여자들의 주변 친구들을 관찰한 사례들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사행성 게임이나 불법 도박을 하는 청소년들과 주식 투자를 하거나 관심을 갖는 친구들과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다.

① 사행성 게임 및 도박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

일상에서 클릭 한 번이면 불법도박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는 매체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특히 중·고교 남학생들의 도박성 게임에 노출된 정도가 높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성 게임을 해봤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따질 것은 아니다.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몰입하여 지속하는지의 여부, 즉 중독이 문제인 것이다.

돈을 걸고 즉각적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 도박에 청소년들이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으나, 이러한 특성에 반응하는 이들이 장기간의 관찰과 흐름을 읽어 내야하는 주식에 동일하게 관심을 갖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은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불건전하게 놀지 않는 학생들도 보면 다들 흔히 말해서 ‘토토’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경우 사이트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씩은 사용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청소년 1그룹, 참여자 1-E)

‘토토’ 그런 거는 완전 반반 확률도 많아서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이 중독되는 것 같고 주식은 합법인 것도 있고 그냥 뭔가 좀 주식이랑 ‘토토’ 하는 애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그룹이에요. 완전. ‘토토’ 하는 애들은 주식을 안 봐요. 왜냐하면 ‘토토’는 한 번 큰돈을 넣으면 바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주식은 좀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쪽 주식에다가 돈을 안 넣게 되는 거죠. ... (중략) 그 주식은 그냥 부모님이 하셔서 애들이 따라 하는 애들도 있고 ‘토토’ 그런 거는 애들이 서로 권하면서 해서 완전 달라요. (청소년 3그룹, 참여자 3-C)

‘토토’는 넣으면 바로 잃거나 따는 건데 주식은 (길게) 봐야 하니까 ‘토토’를 하면 주식보다 더 그거죠. 애들이 이상해지죠. ‘토토’를 하면 애들이 그런 불법 게임을 하면. (청소년 3그룹, 참여자 3-D)

② 주식 및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

사행성 게임 및 도박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과 주식 및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이 다르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다른가?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그들의 주변 친구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에 투기라 할 수 있는 무분별한 투자를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기대수익을 얻기 위하여 정보를 스스로 찾는 과정이 발견되고 여기에 더하여 학습을 하는 과정이 그들의 경험 속에 존재한다. 그러면서 즉각적이기 보다 일정 시간을 관찰하고 또래 친구들과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태를 나누는 행위가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도박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의 특성과는 다른 차이점이 발견된다.

친구들끼리 같이 직접 그냥 책 사 가지고 공부하면서 주식 사가지고 아침마다 와서 학교 와서 “야 너 거 떨어졌다” 하고 놀리고.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1그룹, 참여자 1-B)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코인 (투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애가 엄청 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강 뛰어든다 하고. 물어보니까 완전 마이너스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청소년 1그룹, 참여자 1-E)

저도 이제 한 가상화폐가 한참 붐했을 때 OO코인도 하고 △△나오고 했을 때 친구가 리플로 한 50% 수익 정도 벌었다가 뭐 다시 내려가기도 했다 하고, 또 한 친구는 한두 달 전에 시작했는데 □□□스토리로 하루 동안 총수익이 10% 올랐다는 거예요. (청소년 2그룹, 참여자 2-C)

(4) 동일 세대 내 금융역량 격차 : 관심 및 자기주도 정보 탐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쪽에서는 용돈관리 및 저축의 수준을 넘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학습하며 투자하는 청소년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금융생활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갖지 않는 이들이 있다.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업 이외에 전혀 관심이 있는 또래 친구들이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청취된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금융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 배경에 따라 양극화된 금융생활 실태가 드러난다.

참여자들의 경험과 관찰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선불 충전방식의 청소년전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이전보다 손쉽게 지출을 관리하고 저축을 하는 것을 넘어, 주식이나 가상화폐와 같은 금융상품 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들은 두 가지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한 집단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주변에 금융투자를 하는 성인이 많은 청소년들이고, 다른 한 집단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아르바이트 등 수입활동을 하며 주식과 코인 등에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청소년들인 것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찾아볼 애들은 다 찾아보고 직접 공부하고 하는데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공부만 하는 애들. (청소년 1그룹, 참여자 1-E)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돈이 많아서 진짜 학교생활에만 전념하고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그냥 집에서 먹고 자고 운동 좀 하는 애들. 오히려 집에 돈이 많으니까 보고 자란 게 많아서 그만큼 금융 쪽에 관심이 많고. 학교 다니는 거 외에 부업으로 여러 가지 찾아보고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알바하고 뛰고 하면서 여러 가지 돈을 버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사실 제일 애매하게 중간 쪽에 있는 애들이 오히려 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많은 걸 더 채워 나가거나, 아니면 좀 진짜 아예 부족해서 급한 애들이 오히려 그런 쪽이 더 많이 찾아보고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청소년 1그룹, 참여자 1-E)

금융이해력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집단은 학업에만 전념하고 금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과 체크카드나 선불지급방식의 청소년전용 카드조차 사용하지 않아 또래들에 비해 금융생활정보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이에 더하여 디지털환경 하에서의 기본적인 문해력(literacy)이 낮아 금융이해력까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다.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청소년그룹 뿐만 아니라 학부모그룹에서도 동일 세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생활의 기본적인 역량에 있어 이미 큰 격차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들이 다수 포착되었다.

가끔 그거에 대해서 좀 되게 무지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캐시백'을 준다고 치면 그거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개념 자체를 모르는. "아, 이게 뭐야?" 그러면 "아, 이거 네가 쓰면, 쓰면 돈 줘" 이렇게 얘기해줘요, 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다소 쉬운 개념들을 그 친구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거나 무지한 경우가 많아요. 가끔씩 말하죠. 그것도 모르냐고. (청소년 2그룹, 참여자 2-C)

중학교 1~2학년 애들이 회원가입 거의 다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이게 카드를 만들거나 뭘 하려해도 사실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인증도 해야 되고. 근데 가입을 할 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한 반에서 애들에게 시키고, 그 다음에 잘하는 애들이 (못하는 애들) 도와주는데, 내국인 외국인에 뭘 체크해야 되냐고 물어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저렇게 크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진짜 크더라고요. 그런 애들한테는 무슨 카드를 이렇게 주면 쓰지 이렇게 만들고 네가 직접 계좌 개설을 하라고 그러면 사실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부모 2그룹, 참여자 2-A)

(5) 기억에 남지 않는 금융교육 vs.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① 기억에 남지 않는 교육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일명, 대리입금이라 불리는 소액대출과 같은 불법금융행위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의 금융생활의 범위가 용돈 관리 및 지출의 범위가 아닌, 아르바이트나 가지고 있는 것의 중고판매 및 거래, 저축 이상의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더 나아가서 불법사금융의 대출 문제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금융교육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장의 그 간의 정책의 흐름 및 최근 동향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이제까지의 금융교육은 대체로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이 비교과 시간에 외부 강사의 강의 또는 동영상 상으로 학습을 한다거나, 사회나 기술가정 등 관련 내용을 다루는 교과 시간에 교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그와 같은 금융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청소년들은 금융교육은 있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을 만큼 관심도 집중도 하지 않았던 시간으로 기억한다.

중학교 때 (금융교육)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학교에서 그렇게 창체 시간에 해도 듣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막 다 같이 이런 경제성에 대해서 깨닫고 이런 걸 알아보는 거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 1그룹, 참여자 1-D)

중학교 초등학교 다 이걸 창체 시간에 교육을 받든 아니면 사회 과목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든 다들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고, “창체 시간에 굳이 이거 왜 들어야 돼?” 하는 편이다 보니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 1그룹, 참여자 1-B)

(금융 관련 교육)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창체 시간에는 아무도 집중을 안 하고. 강의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학교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강의를 한다고 해도 그걸 다 잘 귀담아서 기억하고 있는 학생이 잘 없을뿐더러 그렇게 안 들죠. (청소년 3그룹, 청소년 3-D)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청소년 참여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참여자들이 경험한 금융교육의 내용이 흥미를 갖고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쉬운 내용들이었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을 뿐이다. 이는 금융교육

강사들이 준비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태에서 수업자료가 준비되는 것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오늘의 청소년이 경험하는 금융생활의 범위는 이미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이고, 디지털금융기술로 인하여 이미 많은 금융상품의 혜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선택하며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고 이들 세대 내 격차가 상당하다는 측면에 유의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인데, 분명한 것은 현행과 같은 방식의 금융교육이 적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중학교 때,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셔서 얘기해주셨는데 저는 그 시간에 멍 때렸던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예금하고 뭐 적금 차이, 용돈 기입장 이런 거는 저는 다 원래 다 썼어가지고. 딱히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금요일마다 창체 시간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방송실에서 동영상 틀어주는데 그 시간은 이제 다 자는 시간이어 가지고. (청소년 2그룹, 참여자 2-B)

중학교 때도 창체 시간에 교육받은 적도 있고, 고등학교 때 받은 적도 있는데, 다 너무 알고 있던 거나 난이도가 쉬워서 딱히 기억에 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 2그룹, 참여자 2-C)

② 분화된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앞서 청소년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비롯한 비교과 시간에 외부 강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금융교육 자체에 대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아닌 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제각기 다른 의견이 있을 뿐, 금융교육이 일정 수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저는 약간 돈을 제가 좀 막 쓰는 것 같아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돈의 가치?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왜 중요한지와 진짜 그 가치? 제가 너무 중요성을 모르고 진짜 막 써요. (청소년 1그룹, 참여자 1-C)

저도 너무 약간 전문적인 내용으로 금융교육을 하면 친구들이 다 안 들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수준의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될지 정도의 수준이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준이. (청소년 3그룹, 참여자 3-A)

저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안 듣는 애들이 많아서 올바른 소비 생활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하는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 3그룹, 참여자 3-B)

이와는 달리,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한 의견도 있었다. 그 중 하나는 금융교육을 학교교육이 아닌, 가정에서 부모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함께 일부 특성화고교에서와 같이 교과목으로 교육하고, 수행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다.

저는 나름대로 제 주변 친구들과보다는 그래도 뭔가 자부심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잘 받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 (중략) 학교에서나 아니면 부모님이 신청해 주셔서 밖에서의 금융교육보다는 직접 그걸 부모님한테 배우고 깨닫는 게 제일 빠르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 (중략) 그냥 부모와 자녀 간에서 알아서 알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억지로 가서 듣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 (중략) 제일 좋은 교과서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걸 더 탄탄하게 아시고 저희한테 알려주는 게 효율성으로 좋지 않을까. (청소년 1그룹, 1-B)

교과목이 저는 나은 것 같아요. 원래 금융 시간이 2학년 때는 1시간이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1시간 자체가 정말 이제 진짜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고. 오히려 교과목이 저는 훨씬 괜찮다고 생각해요. 보통 수행평가로 이제 그거를 채우는데 그 수행평가도 어려운 편은 아니고 진짜 정말 기본적인 것만 적으면 되는 거라서. (청소년 2그룹, 참여자 2-D)

③ 청소년 금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필요성 인식

금융교육의 필요성이나 방법에 대해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필요하지만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각기 생각이 달랐던 것과는 달리, 학부모들의 경우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그 높은 필요성 인식이 녹아있는 경험들이 현재 시점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학부모들의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것이 학교 이외 금융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금융교육 정보 수집 또한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가령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금융과 관련된 동화책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신청해서 참여하기도 하고, 금융회사에서 주최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초등학교 자녀를 위해 어렵게 신청하기도 하며, 경제포럼에 다니는 학부모에게 정보를 듣기도 한다.

OO시 OO센터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몇 개 있으면 고정적으로 신청해요. 일 년에 몇 번씩 모여서 하는 거니까. 바로바로 마감돼요. 그런 수업도 애들과 같이 들을 수 있는 게 있고, 애들과 같이 듣는 건 이제 동화책으로 해서 설명해 주니까 물론 산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 듣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엄청 다들 엄마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학부모 1그룹, 참여자 1-C)

저희 애 아빠도 좀 열성적이예요. 경제 교육에. OO은행에선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 모여서 경제 교육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10명인가 20명인가 딱 조금만 받았어요. 그래서 땡 하면 그냥 다 (신청) 끝나버리고. (학부모 1그룹, 참여자 1-B)

경제 포럼 같은 거 자기가 가서 듣고 와서 애들 알려주고 이런 엄마들도 많아요. 그 중에 또 그런 엄마들이 얘기하면 '저런 엄마가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나' 하죠. 그런 엄마들이 있어야 저희가 좀 기분이 좋아요. 정보통이 있어서 듣고 와서 항상 알려줘요. 저는 들으면 너무 자각하게 돼요. 현실이 이렇구나. 근데 정보를 모르면 뒤처져요. 그건 확실하더라고요. (학부모 1그룹, 참여자 1-C)

이러 학부모들은 기본적인 돈에 대한 기본 개념과 올바른 인식, 그리고 계획된 수입 및 지출관리 행동의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학교 시기가 용돈 금액도 늘고 활동 범위도 넓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올바른 돈 사용 방법. 아니면 돈을 어떻게 썼을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은 일단 모아야 쓰는 거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쓰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정된 재화에서 어떻게 네가 쓸 것이냐. 사실은 소비보다는 관리의 의미여야 되는데 애들은 돈을 받으면 그냥 소비의 의미로만 생각을 하니까. (학부모 2그룹, 참여자 2-C)

제일 필요한 시기는 사실 중·고등학교생인 것 같아요. 쓰는 돈도 좀 늘어나고 아이들이 친구

들 관계도 생기고 남들한테도 관심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남이 뭐하면 자기도 하고 싶고. 근데 정작 중·고등학교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 많이 없고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는 엄마들이 열심히 찾아서 보내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학부모 2 그룹, 참여자 2-A)

가장 필요한 시기가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는 학교에서밖에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끌고 어디를 가기에는 이제는 힘든 시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가자. 그러면 아마 백 프로 안 갈걸요. 학교에서 좀 적절하게 해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부모 2그룹, 참여자 2-B)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이외, 지역사회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되었는데, 교과서가 아닌 금융교육과 관련된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진행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즉, 그 교육이 학교의 수업형태가 아니어도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책의 내용이 좋으면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기본 개념과 인식, 그리고 생활습관 형성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센터에서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그 책 있잖아요. 세금 내는 아이들. 그게 일부 선생님하고만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정말 그런 게 정규수업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도 그 책 읽어보고서 아이도 같이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수업으로 하면 애들 되게 재미 없잖아요. 그런 거 해 주면 아이들이 그냥 1년 동안 6학년 때 좀 머리 컷을 때 하면 그래도 그냥 생활 속에서 그게 몸에 습득할 테니까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집 앞에도 보면 아동센터 이런 거 있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주민 센터에서도 만약에 금융교육 같은 거를 정말 수업 말고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거를 신청 받으면, 지원할 사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센터나 이런 데서 활용해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학부모 1그룹, 참여자 1-A)

3. 소결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금융이해력 측정을 위해 기존 개발된 측정 척도를 검토한 결과, 하나의 측정도구를 준거로 하여 활용하기는 어려움. 단, OECD/INFE 개발 도구를 준용하여 성인 대상으로 조사되고 있는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 측정 척도의 틀과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장점이 많은 상황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음 장에서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을 작성하고자 함.
-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발견된 주요 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 금융생활실태의 문항을 개발·작성하고자 함.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파악될 수 없었던 선불충전방식의 청소년전용카드의 사용과 연계된 용돈 사용 및 관리 방법, 수입활동,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 그리고 금융교육의 경험과 돈에 인식 등의 문항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본 장에서는 앞서 제2장에서 논의된 금융이해력의 개념 및 이론적 관점, 그리고 금융이해력과 관련한 정책의 동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을 위해 검토되어야 하는 기존 측정척도 구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청소년 금융생활실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항 작성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도구를 검토한 결과, 제2장에서 논의된 종합적인 금융이해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 표준안에 따라 학습 또는 교육효과를 진단하는 미국의 점프스타트나 미국 경제교육협회가 개발한 측정도구는 금융이해력 중 금융지식을 측정하는 도구로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으나, 금융지식을 넘어 금융행위와 태도를 포괄하는 금융이해력 전반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을 측정하는 OECD/PISA의 측정 도구는 전체적인 도구의 틀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문항의 내용이 다소 일반상식이나 수리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적지 않아 이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종합적인 금융이해력을 측정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남은 것은 OECD/INFE에서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여 현재 성인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의 측정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OECD에서 종합하여 정의한 금융이해력 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비록 성인 대상이기는 하나 국내에서 2년 주기 반복조사를 실시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게 수정·보완되어 왔다는 점과 10대 시기와 18세 이상의 성인기의 금융이해력을 연계하여 전 생애단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많은 장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기본 틀은 OECD/INFE 성인 대상 조사인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다만, 초등학생의 금융지식의 측정은 이를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미국경제교육협회의에서 금융교육 표준과정에 맞추어 BFT(Basic Financial Test) 등의 척도를 개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교육과정개발원이 함께 개발한 2020년 초등학교 금융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고려하여 개발·작성하고자 한다.

금융생활실태와 관련된 측정 도구는 초점집단면접조사(이하 FGI)에서 발견된 주요 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문항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생활실태가 아닌, 금융이해력과의 연계성을 갖는 금융생활실태라는 점을 염두하고 문항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분석된 FGI 결과 전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일학교 급의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금융생활의 내용이 양극화되어 나타나고, 금융상품에의 저축과 투자 또한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학부모의 영향으로 용돈 지출 및 관리와 올바른 금융이해력 수준이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청소년이 있는 반면,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 동시대에 공존한다. 청소년들이 주식을 ‘도박’과 같이 생각하고 투자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와 디지털 금융생활로 인해 이미 소액대출까지 금융생활의 범위가 성인만큼 확장된 상태에서의 불법금융행위나 그로 인한 피해는 그다지 보편적인 상황으로 포착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직·간접적인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설문조사 도구 개발 및 작성에 앞서, 청소년과 학부모의 생생한 일상과 그들의 경험을 통해 파악된 오늘의 청소년 금융생활실태는 금융이해력과의 연계성 속에서 핵심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고, 체계성을 갖춘 문항으로 다음 제4장에서 개발·작성하고자 하였다.

○ — 제4장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분석
- 2.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실태 분석
- 3. 소결: 결과의 함의 및
실증모델 분석의 방향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분석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전국 초·중·고생을 대표하는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층화집락추출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선정하고, 학교방문 집단면접조사 방식으로 최종 8,758명의 자료를 확보하였음.
- 조사의 내용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즉 금융이해력과 금융생활실태로 설계하였으며, 금융이해력의 내용은 OECD/INFE의 금융이해력 조사의 틀을 준용하되, 측정 문항의 기술표현을 청소년에 맞게 수정·활용하였고, 초등학교 금융지식의 경우 금융교육표준안을 준용하여 별도로 작성하였음, 금융생활실태는 문헌자료 및 제3장에서 실시된 FGI(초점집단면접조사)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이 작성하였음.
-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표본설계 시 개발된 가중치를 반영하여 분석하였으며, 학교급별 응답자의 수는 초등학교 2,870명, 중학생 3,041명, 고등학생 2,847명임.

1) 조사 추진 및 표본 구성

(1) 조사 추진 과정

앞선 제2장에서 고찰된 이론 및 정책동향과 제3장에서 비교 분석된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에 관한 분석 내용 및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해 우선 조사 내용 및 표본에 대한 설계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자문 및 업무협의회의를 통해 각 단계별 완료되어야 하는 일정을 조정하였다. 이어 예비조사 및 전문가검토, 그리고 실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협의 및 검토 과정을 거치며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확정된 조사 설계의 내용에 따라 내용설계의 측면에서는 조사도구 개발이 진행되었고, 표본설계 측면에서는 표본 추출 및 배분을 위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 이 장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과 송현주박사가 함께 분석하고,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조사도구는 초등생용과 중·고생용으로 나누어 2종으로 작성·개발되었고, 초안에 대한 예비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동시에 현직 교사 및 조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들의 검토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진 후 최종안이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 이후 현장 조사를 위한 면접원의 교육을 비롯한 표본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상과 같은 추진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면 [그림 IV-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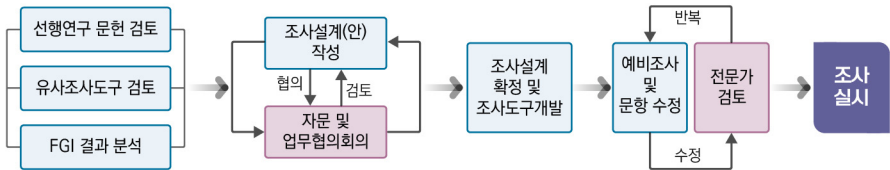


그림 IV-1. 설문조사 추진과정

(2) 표본 구성

앞서 제1장의 단계별 주요 내용 및 방법에서 간략하게 설명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 각 3천여 명씩 총 9천여 명의 표본 응답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표본설계를 하였고, 이들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지역(17개 광역시도)과 학교급(초·중·고) 및 학교유형(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그리고 학년을 층화변수로 하는 층화집락추출법으로 표본 학교를 추출하였다.

또한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적은 표본수가 배분될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위해 변형비례 방식으로 표본을 배분하여 표본학교를 선정하였다. 응답대상자는 선정된 표본학교에서 각 학년별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해당 학급에 속한 이들이 모두 조사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가 조사 참여를 거절할 경우, 층화된 동일 층에서 무작위로 학교를 대체하고, 자료의 수집은 선정된 표본학교 학급별 전문조사원이 방문하여 학급 단위의 집단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설계에 따라 추출된 학교의 17개 시도 분포와 각 지역의 표본학교 수 및 학생 수를 제시하면 <표 IV-1>과 같다.

표 IV-1. 표본설계 :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표본 학교 및 학생 수

(단위: 개교,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서울	18(450)	15(405)	9(225)	3(75)	6(150)	6(150)
경기	33(825)	27(729)	18(450)	3(75)		6(150)
인천	6(150)	6(162)	6(150)			6(150)
강원	3(75)	3(81)	3(75)	3(75)		6(150)
충북	3(75)	3(81)	3(75)			
충남	6(150)	6(162)	3(75)			
대전	3(75)	3(81)	3(75)			
세종	3(75)	3(81)	3(75)			
경북	6(150)	6(162)	3(75)	3(75)		6(150)
경남	9(225)	9(243)	6(150)			
부산	6(150)	6(162)	3(75)			
대구	6(150)	6(162)	3(75)			
울산	3(75)	3(81)	3(75)			
전북	3(75)	3(81)	3(75)	3(75)		6(150)
전남	3(75)	3(81)	3(75)			
광주	3(75)	3(81)	3(75)			
제주	3(75)	3(81)	3(75)			
합계	117(2,925)	108(2,916)	78(1,950)	15(375)	6(150)	30(750)
			129(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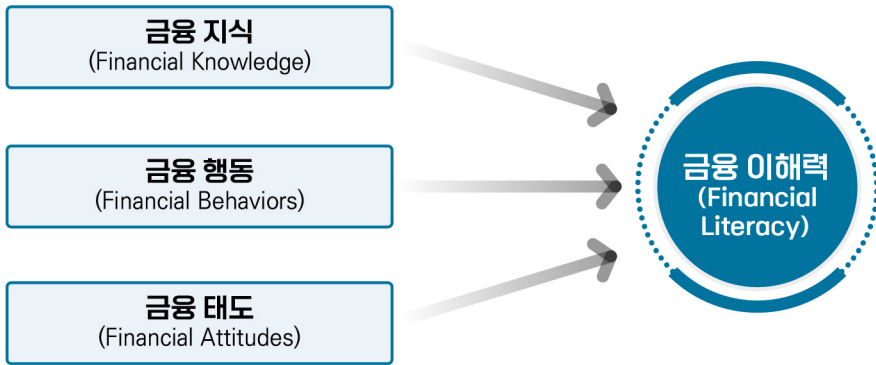
*() 안의 수치는 표본 학생 수

2) 조사 내용 구성 및 문항 개발

(1) 조사내용 구성

실태조사의 내용은 크게 ‘금융이해력’과 ‘금융생활실태’로 구성되며, 여기에 응답자 특성이 추가되었다. 금융이해력의 세 가지 하위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는

OECD/INFE의 ‘금융이해력조사’의 구성요소이자, Atkins and Messy에 의해 개념화된 금융이해력 측정 3요소의 틀을 준용하여 구성하였다. 금융지식(Financial Knowledge), 금융행위(Financial Behavior), 금융태도(Financial Attitudes)로 측정된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은 3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되며,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종속변수로 분석되었다.



*출처: Haupt (2022). 6.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p.85, Figure 6.3 The concept of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by Atkinson and Messy(2012).

그림 IV-2. Atkinson and Messy의 금융이해력 측정 개념

하위 요소별 측정 문항의 구성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OECD/INFE ‘금융이해력조사’ 측정 문항의 구성을 준용하였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 금융지식을 측정하는데 있어 중·고등학생과 같은 틀(frame)을 적용하여 구성하는 것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금융감독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한 ‘초·중·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의 “영역별·학교급별 핵심 성취기준”을 참고하여 초등학생용 금융지식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다(금융감독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10.23., pp.174-182).

금융생활실태는 문헌자료 검토를 포함하여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측정 문항, 그리고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 발견되거나 확인된 청소년 금융생활실태의 주요 사항을 반영하여 다섯 가지 하위 요소(용돈 및 수입활동, 금융상품/서비스 이용 경험, 금융교육경험, 금융피해 경험, 돈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를 구성하였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수입활동이나 금융피해경험은 제외하였다. 응답자 특성에 있어서도 초등학생의

경우 금융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나 학업성적과 관련한 측정 항목은 구성하지 않고, 출생 연도와 성별, 그리고 부모와 가족의 특성을 공통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금융생활 실태 및 응답자 특성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표 IV-2. 조사 내용의 구성

구분		구성 문항	
		초등	중·고등
금융이해력	금융지식	①신용관리 ②금융회사의 성격 ③소득종류 ④저축 습관 ⑤적금하기 적절한 금융회사 ⑥지출의 우선순위 ⑦미래 위험 대비 ⑧개인정보 보호	①주관적 금융지식 수준 ②인플레이션과 구매력 ③이자개념의 이해 ④단리 계산 ⑤복리개념의 이해 ⑥위험과 수익간의 관계 ⑦인플레이션의 의미 ⑧분산 투자 개념
	금융행위	①예산(용돈)관리 ②적극적인 저축활동 ③신중한 구매 ④청구대금 적기 지급 ⑤평소 재무상황 점검 ⑥장기 재무목표 설정	①예산(용돈)관리 ②적극적인 저축활동 ③신중한 구매 ④청구대금 적기 지급 ⑤평소 재무상황 점검 ⑥장기 재무목표 설정 ⑦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⑧적자 해소
	금융태도	①저축보다 소비 선호 ②미래보다 현재 선호 ③돈은 쓰기위해 존재	
금융생활 실태	용돈 및 수입활동	현재 용돈 받는지 여부	①현재 용돈 받는지 여부 ②수입 활동 여부
	금융상품/서비스 이용경험	①금융상품 가입 여부 ②체크카드 사용 여부 ③부모님 카드 사용 여부 ④선불충전방식 카드 사용 여부	
	금융교육경험	①가정에서의 금융교육 ②학교에서의 금융교육 ③학교 이외의 곳에서 금융교육	①가정에서의 금융교육 ②학교에서의 금융교육 ③학교 이외의 곳에서 금융교육 ④금융정보 활동
	금융피해경험	-	불법금융행위

구분	구성 문항	
	초등	중·고등
돈에 대한 인식 및 금융웰빙	①돈에 대한 인지, 감정, 행동 ②돈 빌리기	①돈에 대한 인지, 감정, 행동 ②돈 빌리기 및 경제적 지원 ③금융 웰빙
응답자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①출생년도. ②성별, ③금융 관련 자격증 ④학업성적
	부모·가족특성	①함께 살고 있는 가족, ②부모님 직업 유무 ③부모님 중 금융업 종사 유무 ④보호자 최종 학력

(2) 조사문항 개발

① 조사 문항의 개발 및 확정 과정

앞서 기술한 조사내용에 대한 구성 요소들과 각 요소별 하위 문항을 구성한 후, 개별문항 작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제한된 기간 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문항 개발 과정이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연구진의 초안 작성 후 양적 예비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초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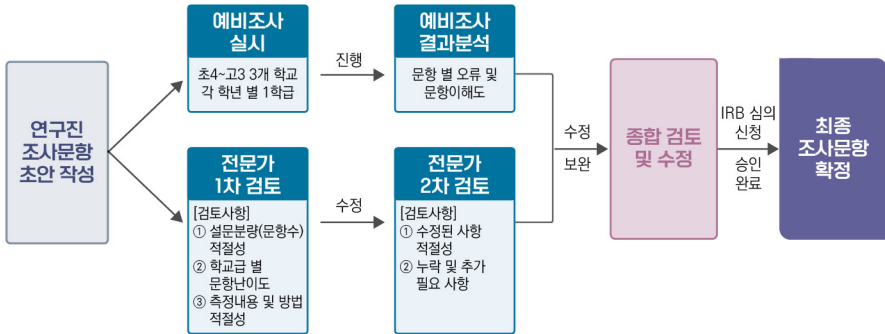


그림 IV-3. 조사문항 개발 과정

문항 검토를 위한 예비조사는 초·중·고 각 1개교 총 3개 학교의 초등 4학년~6학년, 중·고등학교 각 1학년~3학년 9개 학급, 총 215명(초등학교 56명, 중학교 78명, 고등학교

81명)을 대상으로 4월 17일~21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으며, 문항별 응답 오류가 빈번한 문항과 각 문항별 이해도 및 응답 난이도 점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예비조사에서의 점검 방식은 각 측정문항에서 응답을 통해 나타난 오류의 유형(예: 응답 누락, 연계 응답 오류, 중복응답, 무응답, 응답 단위 오류)과 각 유형별 빈도를 집계하였고,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항이나 단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급 및 학년별로 해당 내용을 파악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오류는 연계 응답 오류였으며, 중학교 1학년~2학년에서 금융지식 측정과 관련한 용어(예: 인플레이션, 인출 등)에 대해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한 것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연구진이 작성한 초안에 대해 현직 초·중·고 교사 4명과 조사연구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의 1차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단계에서는 ①내용 분량(문항 수)의 적절성, ②학교급별 문항 난이도, ③측정 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이 검토되었고, 수정·보완을 거쳐 2차 검토에서는 ①수정된 내용의 확인과 ②누락된 사항의 유무 및 추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중·고등학생을 기준으로 총 45문항 정도로 구성된 분량에 대해서 현직 교사들은 45분 수업시간 내 완료하는데 다소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고, 금융지식을 측정하는 일부 문항이 중학교 1~2학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나 ‘모르겠음’ 응답 선택항목이 있어 무리 없을 것이라는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다소 추상적으로 기술된 문항 내용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예비조사와 전문가 검토 이후, 연구진은 예비조사 분석 결과와 2차례 수정된 전문가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면서 응답자 중심의 용어 수정 및 문항의 위치, 그리고 예비조사 결과에서 연계 응답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항에서의 지시문 삽입 등을 수정·보완한 후 최종 조사표(안)를 완성하였다.

이후 작성 완료된 최종조사표(안)를 본 연구의 실태조사 조사도구로 확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심의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승인(승인번호: 202304-HR-고유-002, 통보일: 2023.05.04.)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조사도구를 확정하였다.

② 조사 문항 및 문항작성의 근거

조사 문항을 구성한 후 구체적인 문항이 작성되었는데,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의 작성은 기본적으로 OECD/INFE이 제시한 표준 방법론에 따라 성인 대상으로 2년 간격으로 조사

하고 있는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의 가장 최근(2022년) 조사의 문항을 청소년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단, 금융행위나 금융태도 측정 문항의 경우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크게 다를 바 없으나, 금융지식의 경우 초등학생은 성인 대상 금융 지식 측정 문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2020년에 발표된 ‘초·중·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의 “영역별·학교급별 핵심 성취기준”의 주요 항목과 기존에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지수를 측정한 선행연구(천규승, 김술, 2016)에서 사용한 문항을 매칭하고, 매칭되는 선행연구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2020년 금융교육 표준안의 핵심성취기준의 주요 항목으로 선정된 내용이라는 하나,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반영된 사항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측정 문항이 없는 경우, 연구진이 금융감독원의 초등학생 대상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문항을 새롭게 작성하기도 하였다.

금융생활실태 측정 문항은 기본적으로 FGI(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 활용하였던 반구조화된 질문과 결과분석에서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일부 금융피해경험이나 돈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웰빙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측정했던 문항을 수정하여 작성하거나 해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를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할 바 있는 척도 항목 중 요인(factor)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을 선별하여 수정 사용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이외 응답자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 또한 연구진이 작성하였다.

표 IV-3. 조사 문항 및 문항 작성의 근거

구분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또는 작성 근거
		주문항	하위문항	
금융 이해력	초등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천규승, 김술, 2016) 문7, 문11, 문16, 문20, 문21, 문22, 문24 수정사용
	신용관리	1번		
	금융회사의 성격	2번		
	소득종류	3번		
	저축 습관	4번		
	저축 통장 만들 수 있는 곳	5번		
	지출의 우선순위	6번		
미래 위험 대비 방법	7번			

구분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또는 작성 근거	
		주문항	하위문항		
	금융생활에서 개인정보 보호 방법	8번		금융감독원 '초등 슬기로운 생활금융 이러닝 4차시: 소중한 개인 정보' 내용 참조 연구진 작성	
	중·고등				
	금융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수준	1번		2022 금융이해력 조사 문22, 문23, 문24, 문25, 문26, 문27-1, 문27-2, 문27-3 수정사용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2번			
	이자개념의 이해	3번			
	단리 계산	4번			
	복리개념의 이해	5번			
	위험과 수익간의 관계	6번			
	인플레이션의 의미	7번			
	분산 투자 개념	8번			
	금융 행위	예산(용돈) 관리	9번 (초, 중·고등)		2022 금융이해력 조사 문3_sub항목 1,2,5 수정사용
		여러 저축활동에 대한 경험	10번 (초, 중·고등)		2022 금융이해력 조사 문4_sub항목 4 수정사용
		상품구매 시 다양한 정보확인	11번 (초, 중·고등)		2022 금융이해력 조사 문18_sub항목 3 참조 연구진 작성
		청구대금 적기 지급	12번 (초, 중·고등)		2022 금융이해력 조사 문3_sub항목 6, 문18_sub항목 5 참조 연구진 작성
		소유하고 있는 돈 확인	13번 (초, 중·고등)		2022 금융이해력 조사 문17_sub항목 5, 문18_sub항목 4 참조 연구진 작성
물건 구매를 위한 계획 및 실천		14번 (초, 중·고등)		2022 금융이해력 조사 문6, 문17_sub항목 7 참조 연구진 작성	
금융상품 선택 시 활용한 정보		15번 (중·고등)	15-1번 (중·고등)	2022 금융이해력 조사 문13_sub항목 중 '독립투자자문' 제외 수정사용	

구분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또는 작성 근거	
		주문항	하위문항		
금융 태도	사용할 돈이 부족할 때 조달 방법	16번 (중·고등)	16-1번 (중·고등)	2022 금융이해력 조사 문9-1_sub항목 1,2,3,4,7,17,19+기타 수정사용	
	저축보다 지금 소비 선호 경향	15번(초등) 17번(중·고등)		2022 금융이해력 조사 문17_sub항목 1, 문19_sub항목 9, 문17_sub항목 3, 발체 사용	
	미래보다 현재 하고 싶은 것 선호 경향	16번(초등) 18번(중·고등)			
돈은 쓰기 위해 존재	17번(초등) 19번(중·고등)				
용돈 및 수입 활동	용돈 받는 방법, 금액, 저축 여부	18번(초등) 20번(중·고등)	18-1번(초등) 18-2번(초등) 18-3번(초등) 18-4번(초등) 20-1번(중·고등) 20-2번(중·고등) 20-3번(중·고등) 20-4번(중·고등)	FGI 내용 반영 연구진 작성	
	용돈 이외 수입 활동 경험	21번(중·고등)	21-1번(중·고등) 21-2번(중·고등)		
금융 생활 실태	금융 상품/서비스 이용 경험	내 이름으로 된 금융상품 소유 여부	19번(초등) 22번(중·고등)	2022 금융이해력조사 문11 수정사용	
		내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 사용 여부	20번(초등) 23번(중·고등)	20-1번(초등) 23-1번(중·고등)	
	부모님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 사용여부	21번(초등) 24번(중·고등)	21-1번(초등) 24-1번(중·고등)	FGI 내용 반영 연구진 작성	
	선불충전방식의 청소년 금융카드 사용 여부	22번(초등) 25번(중·고등)	22-1번(초등) 22-2번(초등) 25-1번(중·고등) 25-2번(중·고등)		
	금융 교육 경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교육 경험	23번(초등) 26번(중·고등)		FGI 내용 반영 연구진 작성
		학교에서 금융교육 받은 경험	24번(초등) 27번(중·고등)	24-1번(초등) 27-1번(중·고등) 27-2번(중·고등)	교사자문, FGI 내용 반영 연구진 작성

구분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또는 작성 근거	
		주문항	하위문항		
응답자 특성	학교 이외의 곳에서 금융교육 받은 경험	25번(초등) 28번(중·고등)	25-1번(초등) 28-1번(중·고등) 28-2번(중·고등)	FGI 내용 반영 연구진 작성	
	스스로 경제뉴스나 금융정보 찾아본 경험	29번 (중·고등)	29-1번(중·고등) 29-2번(중·고등)		
	금융 피해 경험	30번 (중·고등)		대구미래교육원 2019 청소년 금융역량 실태조사 '불법금융 행위경험' 문항 수정사용	
	돈에 대한 인식 및 금융 웰빙	돈에 대한 인지, 감정, 행동	26번(초등) 31번(중·고등)		Tang과 Li-Ping(1995)이 개발한 SMES(Short Money Ethic Scale) 12개 항목을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한 최병일(2020)의 연구에서 주 성분분석 요인(factor) 값이 높은 6문항(인지, 감정, 행동 각 2문항) 발채 사용
		친구에게 돈 빌리기 및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27번(초등) 32번(중·고등)		전문가 자문, FGI 내용 반영 연구진 작성
		금융 웰빙	33번(중·고등)		미국소비자보호원(CFPB) 금융웰빙척도 10개 중 5개 사용, 2022금융이해력조사 문항17~19. 일부 항목 수정사용, 2022년 컨슈머인사이트 설문조사 사용된 5개 항목 수정사용
	사회·인구학적 특성	출생년도	배문1 (초, 중·고등)		연구진 작성
		성별	배문2 (초, 중·고등)		
		금융 관련 자격증 취득	배문3(중·고등)		
최근 학업성적 수준		배문4(중·고등)			
부모, 가족 특성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배문3(초등) 배문5(중·고등)		연구진 작성	
	부모님 직업 유무	배문4(초등)			

구분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또는 작성 근거
		주문항	하위문항	
		배문6(중·고등)		
	부모님 중 금융업 종사 유무	배문5(초등) 배문7(중·고등)		
	보호자 최종 학력	배문6(초등) 배문8(중·고등)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 수집 방법

최종 조사표가 확정되고 표본 설계가 완료되면 선발된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동시에 다른 한 축에서는 표집방법에 따라 추출된 표본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단위의 조사 참여에 대한 섭외 및 동의과정을 통한 조사학교 확정과정이 이루어진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가 참여를 거절할 경우 표본 대체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표본설계 시 층화된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목록에서 무작위로 대체되고, 다시 조사 참여에 대한 섭외 및 동의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 학교로 확정된다.

확정된 학교마다 조사협력 교사를 지정하고, 협력교사를 통해 학교가 승인한 일정에 전문조사원 2명이 2인 1조의 형태로 학교를 방문하여 집단면접조사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실시에 앞서 사전 안내 사항을 전달하고, IRB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한 후 참여 동의를 확인한 후 조사표가 배부되었다. 2명의 조사원 중 1인이 사전 안내 및 설명을 진행하는 동안 나머지 1인의 조사원을 통해 실시간 무응답이나 응답 오류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조사 완료 후 조사표 8,823개를 회수한 후 다시 한번 무응답 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조사표는 자료처리 후 재검증하고, 사후검증 결과 특정 학교 또는 특정 학급에서 중대한 오류가 다수 발생되어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학교 내 다른 학급을 대상으로 대체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되었다. 회수된 조사표 입력처리 후, 성별과 같이 중요 항목이 무응답인 경우(63건)와 전체 문항 중 응답한 문항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자료(2건)를 확인 및 선별하였고, 해당되는 자료는 최종 응답 자료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 최종 자료 8,758개의

응답 자료가 확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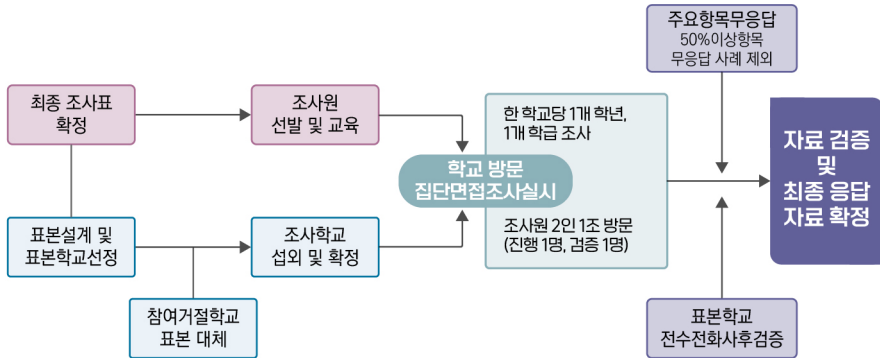


그림 IV-4. 자료 수집 방법 및 과정

(2) 자료 분석 방법

설문조사 최종 자료의 분석은 응답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여 금융이해력 수준과 금융생활 실태를 기술통계 분석과 차이 검증을 통해 파악하고, 초·중·고생 각각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델 분석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특성은 빈도 및 비율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초·중·고생 각각의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실태는 빈도 및 비율과 평균 및 표준편차의 기술통계 분석과 특성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를 두 가지의 검증 통계(t-test, GLM-test)를 적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차이검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된 특성을 확인한 후, 초·중·고생 각각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두 가지의 실증모델로 분석하였는데, 하나는 금융이해력 총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Robust OLS Model이고, 다른 하나는 세 개의 분위, 즉 하위 10%, 50%, 상위 10% 점수대의 금융이해력 점수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Quantile Regression Model이다.

본 연구에서 이 두 가지의 실증 모델을 선택한 것은 오차항의 이분산성이 관찰⁸⁾되었기

8) 동분산 검증(Breusch-Pagan / Cook-Weisberg test for heteroskedasticity: Ho: Constant variance)결과,

때문인데, 이 경우 일반 선형회귀분석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추정값이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 문제를 수정한 추정 모델로서 Robust OLS Model을 우선 선택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금융이해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과 높은 청소년 그리고 중간 수준에 위치하는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면, 이에 대응하는 정책 또한 다르게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이를 확인해보고자 Quantile Regression Model(분위 회귀모델)을 추가적으로 실증분석 모델로 선택하였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단계적 자료 분석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률표본 설계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만큼 표본설계 시 개발된 가중치를 반영하여 분석되었다.

표 IV-4. 주요 분석 내용 및 방법

분석 내용	분석 방법	비고
응답자 특성 · 조사응답 대상자 개인 및 부모 특성 · 용돈 및 금융교육 경험 유무	▶ 기술통계 - 빈도, 비율	
금융이해력 수준 · 학교급별 금융이해력 수준 · 초·중·고생 특성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 검증	▶ 기술통계 및 차이 검증 -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 t-test, GLM-test	제4장
금융생활 실태 · 학교급별 금융생활 실태 · 초·중·고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 검증	▶ 기술통계 및 차이 검증 -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 t-test, GLM-test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 요인 · 초·중·고생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 요인 · 초·중·고생 금융이해력 수준 3분위(하위10%, 50%, 상위 10%)의 영향 요인	▶ Robust OLS Model - 오차항 이분산성 수정 ▶ Quantile Regression Model	제5장

4) 응답자 특성 분석

최종 응답자로 확정된 설문조사 응답자 8,758명의 학교급 구성을 살펴보면, <표 IV-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 2,870명, 중학생 3,041명, 고등학생 2,847명이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초·중·고생 모두 남성의 구성 비율이 다소 높고, 학년의 비중은 큰 차이 없으며, 고교 유형의 비중도 일반고/자율고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표본 설계 및 사후

중학생의 금융행위점수(chi2(1)= 30.39, Prob>chi2=0.0000), 초등학생의 금융지식점수(chi2(1)= 5.77, Prob>chi2=0.0163)에서 이분산이 확인됨.

가중치 반영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더불어 간략하게나마 생활실태를 엿볼 수 있는 용돈을 받는 여부의 비율을 살펴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용돈을 받는 비율은 높아 초등학생이 74.7%이고 고등학생은 이보다 10%p 가량 높은 84.7%로 높다.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학생이 33.9%로 가장 낮아 학교급의 영향이 아닌 다른 요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학교 이외의 곳에서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는 학교급, 즉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데, 초등학생의 유경험률이 22.5%이나 중학생은 5.5%, 고등학생은 6.0%에 불과하다. 이는 금융교육의 확산 및 기회가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차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금융교육 이외 스스로 금융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을 한 적 있는지에 대한 유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생 24.9%보다는 고등학생의 비율이 37.6%로 높다. 이는 자기주도적 금융에 대한 학습이나 정보탐색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가족과 부모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먼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한부모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초등학생 4.2%에 비해 고등학생은 10.0%에 이른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의 비율은 학교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부모의 금융업 조사여부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부모님의 학력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부모 모두 고졸 이하의 비율이 초등학생보다는 고등학생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이상과 같은 응답자의 기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생 각각의 금융이해력 수준과 금융생활실태를 살펴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력의 크기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IV-5.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870(100.0)	3,041(100.0)	2,847(100.0)
성별	남성	1,474(51.4)	1,566(51.5)	1,476(51.9)
	여성	1,396(48.6)	1,475(48.5)	1,371(48.1)
학년	1학년(초등 4학년)	976(34.0)	970(31.9)	964(33.9)
	2학년(초등 5학년)	950(33.1)	1,009(33.2)	911(32.0)
	3학년(초등 6학년)	945(32.9)	1,062(34.9)	972(34.2)
고교유형	일반고/자율고	-	-	2,245(78.8)
	특성화고	-	-	544(19.1)
	특목고	-	-	58(2.0)
지역규모	특별/광역시	1,112(38.7)	1,205(39.6)	1,130(39.7)
	중소도시	1,415(49.3)	1,510(49.6)	1,349(47.4)
	읍/면/도서 지역	343(12.0)	327(10.7)	369(12.9)
용돈여부	예	2,126(74.7)	2,466(81.5)	2,398(84.7)
	아니오	721(25.3)	560(18.5)	434(15.3)
학교 금융 교육 경험	예	1,064(37.5)	1,010(33.9)	1,091(38.9)
	아니오	1,776(62.5)	1,965(66.1)	1,713(61.1)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	예	627(22.5)	165(5.5)	169(6.0)
	아니오	2,162(77.5)	2,828(94.5)	2,628(94.0)
금융정보 활동 경험	있음	-	747(24.9)	1,054(37.6)
	없음	-	2,254(75.1)	1,747(62.4)
가족 유형	양부모	2,698(94.3)	2,784(91.7)	2,508(88.6)
	한부모	122(4.2)	228(7.5)	282(10.0)
	조손 및 그 외	40(1.4)	23(0.8)	42(1.5)
부모 경제활동 유형	맞벌이	1,795(63.6)	2,057(68.5)	1,959(69.8)
	홀벌이	1,015(35.9)	918(30.6)	819(29.2)
	비경제활동	15(0.5)	26(0.9)	28(1.0)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870(100.0)	3,041(100.0)	2,847(100.0)
부모 금융업 종사 여부	예	247(8.9)	191(6.4)	168(6.0)
	아니오	,2535(91.1)	2,805(93.6)	2,642(94.0)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240(8.4)	433(14.2)	676(23.7)
	대학졸업	1,267(44.2)	1,581(52.0)	1,420(49.9)
	대학원졸업	342(11.9)	328(10.8)	298(10.5)
	잘모름/무응답	1,020(35.5)	699(23.0)	453(15.9)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301(10.5)	486(16.0)	692(24.3)
	대학졸업	1,333(46.5)	1,665(54.7)	1,524(53.5)
	대학원졸업	267(9.3)	229(7.5)	210(7.4)
	잘모름/무응답	969(33.8)	661(21.7)	421(14.8)

2.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실태 분석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여기에서는 학교급별 초·중·고생 각각의 금융이해력 수준과 금융생활실태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응답자의 개인 및 부모과 금융생활실태 내용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의 평균 차이 검증을 검정통계(t-test, GLM-test)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학교급별 금융이해력 수준 분석 결과, ①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은 100점 기준 63.5점이며, 중학생의 금융이해력은 61.9점, 고등학생은 67.2점 정도임. ②대체로 학교급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금융이해력 점수는 높고, 현재 소비 및 돈에 대한 지출인식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③각 학교급별 금융이해력 점수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개인 및 부모특성은 각기 다르며, 학교급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성은 부모의 학력임.
- 금융생활실태에 있어서 또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①용돈을 정기적으로 받는 비율은 높지만, 용돈의 일부를 저축하는 저축률은 낮아지고, ②용돈 외 수입활동 경험과 디지털 금융상품 가입 및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만큼, 위법한 금융행위에 따른 피해경험률 또한 높음. ③부모의 금융교육은 용돈사용 모니터링이나 관리방법은 주로 초등학생에 집중되고, 저축 및 투자계좌를 만들거나 설명하는 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소 높아짐. ④학교 이외 금융교육의 경험은 초등학교 이후에 현저히 낮아지며,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은 고등학생에게서 가장 높고, 내용 범위가 넓음. ⑤돈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측면의 인식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나, 행동적 차원의 인식은 낮아지며, 부정적 돈 사용태도나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은 뚜렷한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정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 금융생활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다수의 생활실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①용돈의 일부 저축여부나 ②저축계좌 유무, ③부모의 금융교육 수준, ④돈에 대한 행동적 차원에 대한 인식, ⑥부정적 돈 사용태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점수 차이를 보였으며, 학교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음.

1) 금융이해력 수준

(1)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수준

① 금융이해력 및 구성 3요소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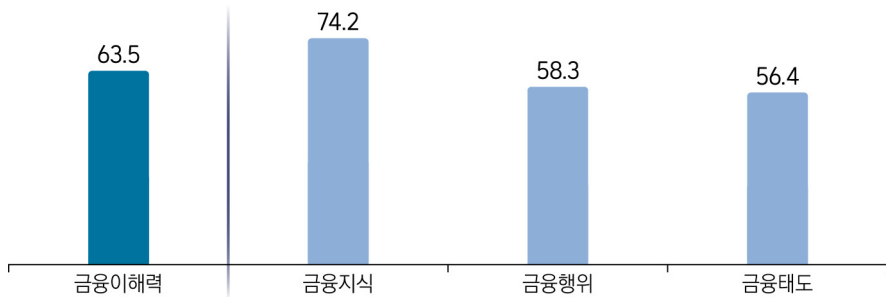
앞서 <표 IV-2> 조사문항의 구성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금융이해력 수준과 금융생활실태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는 금융이해력 수준을 학교급별로 나누어 각각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할 점수는 금융지식(7점)과 금융행위(9점) 그리고 금융태도(4점) 점수를 모두 합하여 총 20점인데, 비교 편의를 위하여 획득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후 금융이해력 총점수와 이를 구성하는 3가지의 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의 점수를 함께 제시하였다.

초·중·고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동시에 비교하지 않고 각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은 우선,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동일한 문항으로 측정될 수 없어 다른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단순하게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동일한 도구로 측정했음지라도 각 학교급별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 그리고 인지발달 및 학습범위와 내용의 차이가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역량 수준을 통합하여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의 순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금융이해력 수준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100점을 기준으로 63.5점이며,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중 금융지식의 점수(74.2점)가 금융행위(58.3점)나 금융태도(56.4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금융지식 점수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초등학생들의 생활에 금융행위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경험과 범위가 좁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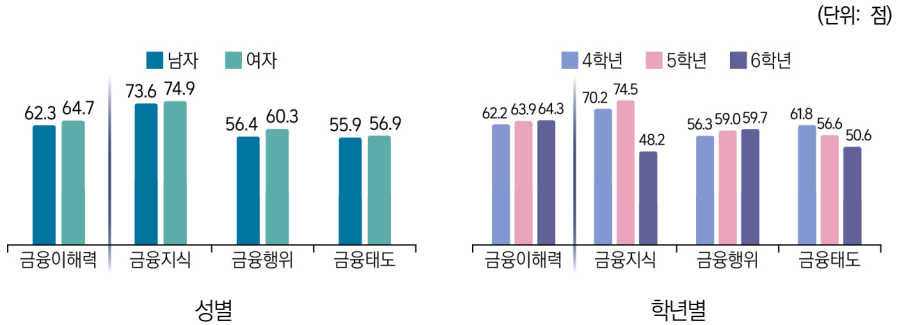
주) 금융이해력 총 20점(금융지식 7점, 금융행위 9점, 금융태도 4점)을 100점 환산
 금융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저축보다 소비선호, 미래보다 현재선호, 돈을 쓰기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임.

그림 IV-5.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수준

이를 성별과 학년별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금융이해력은 여학생(64.7점)이 남학생(62.3점)보다 다소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높아 4학년(62.2점)보다는 5학년(63.9점)이, 5학년보다는 6학년(64.3점)이 높다. 특히 금융지식 점수에서 이러한 경향성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학년이 올라갈수록 금융태도 점수가 눈에 띄게 낮아져 4학년(61.8점)보다는 5학년(56.6점)이, 5학년보다는 6학년(50.6점)의 점수가 낮다. 이는 금융태도를 측정하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금융태도 항목의 측정이 해당 내용에 동의할수록 점수가 낮다는 것을 염두하고

항목 측정 점수를 비교해보면, '돈은 쓰기 위해 존재' 한다는 것이 점수가 측정 항목 중 가장 낮고, 6학년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소비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 금융이해력 총 20점(금융지식 7점, 금융행위 9점, 금융태도 4점)을 100점 환산
 금융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저축보다 소비 선호, 미래보다 현재 선호,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임.

그림 IV-6. 초등학생 성별 및 학년별 금융이해력 수준

이러 금융이해력 3요소의 측정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았다. 먼저 7개의 문항으로 측정된 금융지식의 경우, '적절한 금융회사' 문항의 점수가 38.6점으로 가장 낮고, 그다음으로 '금융회사의 성격' 문항이 43.2점으로 낮았다.⁹⁾ 9개 문항으로 측정된 금융행위와 관련해서는 '예산(용돈)관리'(49.4점)나 '신중한 구매'(46.7점), '청구대금 적기 지급'(42.6점) 점수가 낮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일상에서 해당 금융행위를 경험할 범위가 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3개 문항으로 측정된 금융태도를 살펴보면, '미래보다 현재 선호' 점수가 67.7점으로 높고, '저축보다 소비 선호'의 점수가 이보다 낮은 60.2점이며, '돈은 쓰기 위해 존재'에 41.4점으로 해당 내용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9) '적절한 금융회사' 측정 문항:

Q. 다음은 우리의 돈을 맡아 보관하거나 돈이 필요한 경우 빌려주는 일을 하는 금융회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잘못 설명된 것은 무엇인가요? ① 한국은행은 돈을 만드는 일을 한다. ② 보험회사는 개인이 내는 세금을 받는 일을 하는 곳이다(정답). ③ 증권회사는 주식을 사고파는 일을 도와주는 곳이다. ④ 우체국은 우편물을 배달도 하고 돈을 맡아주는 곳이기도 한다.

'금융회사의 성격' 측정 문항:

Q. 다음에 제시된 보기 중 저축 통장을 만들 수 없는 곳은 어디인가요? ① 은행 ② 우체국 ③ 세무서 ④ 새마을금고
 그 외 문항 [부록]의 초등학생용 조사표 내용 참조

표 IV-6.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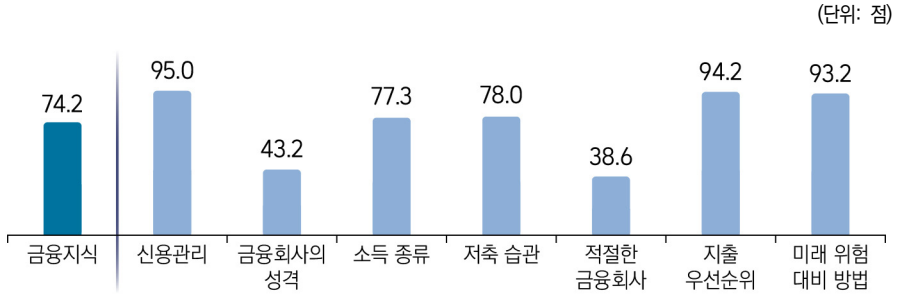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배점	전체		성별 ^{주2)}		학년 ^{주3)}		
		평균 획득 점수	100점 환산 점수 ^{주1)}	남학생	여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
금융이해력	20점	12.7	63.5	62.3	64.7	62.2	63.9	64.3
금융지식	7점	5.2	74.2	73.6	74.9	70.2	74.5	78.2
① 신용관리	1	0.9	95.0	94.6	95.3	94.4	93.2	97.3
② 금융회사의 성격	1	0.4	43.2	43.0	43.5	33.3	43.3	53.5
③ 소득 종류	1	0.8	77.3	74.6	80.2	74.5	77.7	79.8
④ 저축 습관	1	0.8	78.0	76.5	79.7	69.6	78.8	86.0
⑤ 적절한 금융회사	1	0.4	38.6	40.4	36.8	36.9	39.9	39.2
⑥ 지출 우선순위	1	0.9	94.2	93.4	95.2	92.2	94.2	96.3
⑦ 미래 위험 대비 방법	1	0.9	93.2	92.9	93.5	90.2	94.2	95.2
금융행위	9점	5.2	58.3	56.4	60.3	56.3	59.0	59.7
① 예산(용돈) 관리	2	1.0	49.4	49.0	49.8	48.9	49.9	49.3
② 적극적인 저축 활동	1	1.0	97.1	95.9	98.4	97.2	97.5	96.7
③ 신중한 구매	2	0.9	46.7	46.1	47.3	43.8	46.0	50.4
④ 청구대금 적기 지급	2	0.9	42.6	38.1	47.4	40.3	43.8	43.8
⑤ 평소 재무상황 점검	1	0.8	82.2	78.3	86.3	77.4	83.9	85.4
⑥ 장기 재무목표 설정	1	0.7	68.0	67.0	69.0	66.0	70.0	68.0
금융태도 ^{주4)}	4점	2.3	56.4	55.9	56.9	61.8	56.6	50.6
① 저축보다 소비 선호	1.333	0.8	60.2	61.2	59.1	66.4	60.1	53.9
② 미래보다 현재 선호	1.333	0.9	67.7	67.1	68.3	71.4	68.4	63.3
③ 돈은 쓰기 위해 존재	1.333	0.6	41.4	39.5	43.4	47.8	41.5	34.6

주 : 1) 총 20점(금융지식 7점+금융행위 9점+금융태도 4점) 중 획득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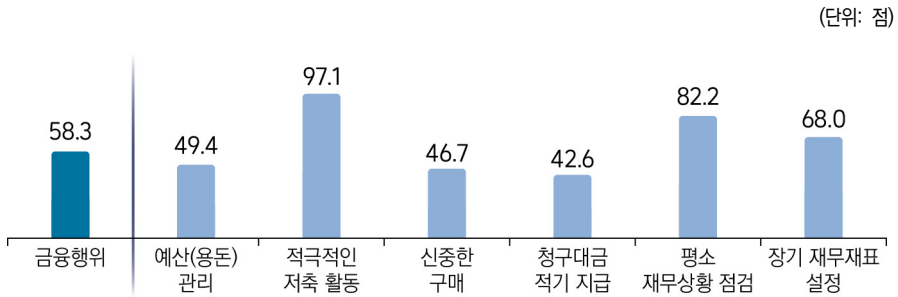
2) 와 3) 100점 환산 점수

4) 금융태도 ①~③ 각 항목 평균 점수 동의할수록 점수가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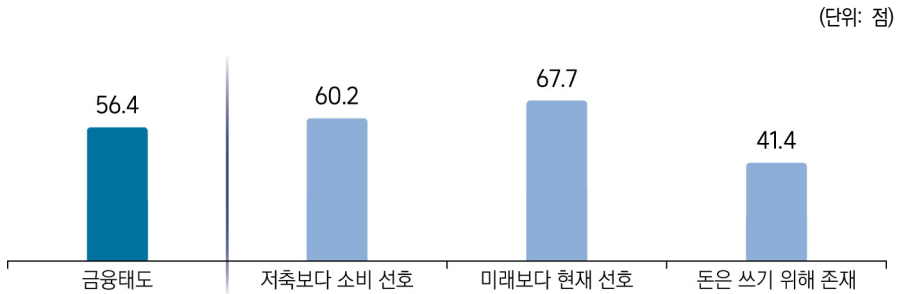
주) 금융지식 총 7점(각 문항 1점)을 100점 환산

그림 IV-7. 초등학생 금융지식 수준



주) 금융행위 총 9점(예산(용돈)관리, 청구대금 적기 지급 문항 2점, 나머지 문항 1점)을 100점 환산

그림 IV-8. 초등학생 금융행위 수준



주) 금융태도 총 4점(각 문항 1점)을 100점 환산. 동의할수록 점수가 낮음
금융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저축보다 소비 선호, 미래보다 현재 선호,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임.

그림 IV-9. 초등학생 금융태도 수준

② 특성별 금융이해력 차이 검증

앞서 100점 환산점수로 살펴본 초등학교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이어 여기에서는 초등학교 개인 및 부모의 특성별 금융이해력 수준의 차이를 환산 점수가 아닌, 기본 점수 값의 검정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초등학교 금융이해력 점수는 총 20점 중 12.7점이고, 금융지식은 총 7점 중 5.20점, 금융행위는 총 9점 중 5.25점, 금융태도는 총 4점 중 2.26점 수준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과 학년, 거주지역의 규모,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학생(12.47점)보다 여학생(12.94점)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다소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고, 특별/광역시와 같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가 대도시 일수록 금융이해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교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은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가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3요소, 즉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에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학년과 부모의 학력의 통계적 유의성 차이는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그 외 특성들은 금융이해력 3요소마다 다른 결과를 보인다.

예컨대 금융지식점수의 차이 검증에서는 금융이해력 점수 검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가족유형이, 금융행위 점수 검증에서는 부모금융업 종사 여부, 그리고 금융태도 점수 검증에서는 부모의 경제활동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검증 결과는 초등학교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3요소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IV-7. 초등학교 개인 및 부모 특성별 금융이해력 차이 비교

(단위: 점)

구분		금융이해력	금융이해력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전체		12.70(2.79)	5.20(1.25)	5.25(1.97)	2.26(0.91)
성별	남학생	12.47(2.77)	5.15(1.28)	5.08(1.97)	2.24(0.93)
	여학생	12.94(2.79)	5.24(1.21)	5.43(1.95)	2.28(0.90)
	t-test	-4.586***	-1.868	-4.787***	-1.145

구분		금융이해력	금융이해력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전체		12.70(2.79)	5.20(1.25)	5.25(1.97)	2.26(0.91)
학년	4학년	12.46(2.73)	4.91(1.24)	5.07(1.96)	2.48(0.88)
	5학년	12.79(2.86)	5.21(1.26)	5.32(1.99)	2.27(0.89)
	6학년	12.91(2.73)	5.49(1.14)	5.38(1.93)	2.04(0.91)
	GLM-test	6.873**	53.401***	6.891**	57.065***
거주 지역 규모	특별/광역시	12.95(2.78)	5.31(1.17)	5.32(2.03)	2.31(0.91)
	중소도시	12.62(2.78)	5.17(1.27)	5.24(1.94)	2.22(0.92)
	읍/면/도서 지역	12.41(2.72)	5.02(1.30)	5.14(1.87)	2.25(0.85)
	GLM-test	6.521**	8.532***	1.245	3.217*
가족유형	양부모	12.73(2.77)	5.22(1.23)	5.25(1.96)	2.26(0.91)
	한부모	12.33(3.04)	4.87(1.33)	5.17(2.07)	2.29(0.94)
	조손 및 그 외	13.11(2.60)	5.00(1.23)	5.92(1.68)	2.19(0.85)
	GLM-test	1.786	5.592**	3.067*	0.215
부모 경제활동 유형	맞벌이	12.67(2.76)	5.20(1.24)	5.23(1.95)	2.23(0.90)
	홀벌이	12.83(2.83)	5.23(1.25)	5.29(2.01)	2.32(0.92)
	비경제활동	11.67(2.67)	4.93(1.21)	4.86(2.14)	1.88(1.04)
	GLM-test	2.184	0.497	0.563	4.015*
부모 금융업 종사 여부	예	12.97(2.84)	5.21(1.30)	5.48(1.96)	2.28(0.88)
	아니오	12.68(2.78)	5.21(1.23)	5.21(1.97)	2.26(0.91)
	t-test	1.580	-.037	2.059*	.430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12.28(2.76)	5.09(1.40)	5.09(1.89)	2.11(0.90)
	대학졸업	12.95(2.76)	5.32(1.20)	5.39(1.93)	2.25(0.91)
	대학원졸업	13.70(2.68)	5.41(1.17)	5.92(1.95)	2.37(0.89)
	잘모름/무응답	12.20(2.73)	5.02(1.24)	4.91(1.96)	2.27(0.92)
	GLM-test	32.174***	15.738***	26.788***	4.291**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12.39(2.71)	5.06(1.34)	5.21(1.81)	2.11(0.93)
	대학졸업	13.01(2.78)	5.36(1.19)	5.38(1.94)	2.27(0.90)
	대학원졸업	13.42(2.89)	5.24(1.19)	5.84(2.08)	2.33(0.97)
	잘모름/무응답	12.23(2.69)	5.02(1.26)	4.94(1.96)	2.27(0.90)
	GLM-test	22.302***	16.698***	18.333***	3.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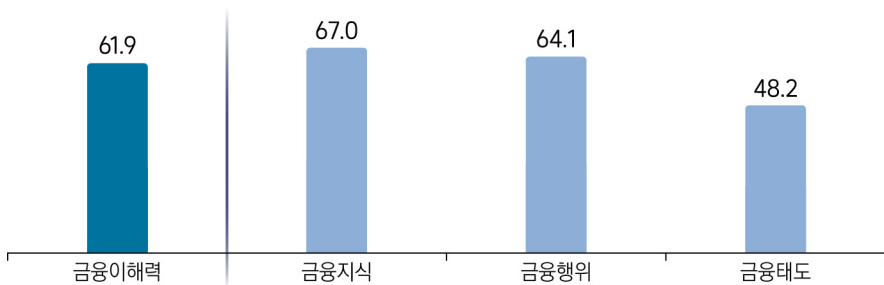
(2) 중학생 금융이해력 수준

① 금융이해력 및 구성 3요소 평균 점수

앞서 살펴본 초등학생과는 달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측정문항은 본 장의 표 <IV-2> 조사내용의 구성 및 <표 IV-3> 조사문항 및 문항작성의 근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OECD/INFE가 제시한 표준 방법론에 따라 성인을 대상의 2년 주기 조사인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3.03.30.)의 문항을 청소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결과의 직접 비교는 물론, 2022년에 조사된 성인 조사 결과와 일정 부분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초등학생과 같이 100점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61.9점이다.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중 금융지식의 점수(67.0점)와 금융행위(64.1점) 점수 차이가 초등학생과 같이 크지 않다. 금융태도(48.2점)의 경우 동일한 항목으로 측정한 초등학생(56.4점)에 비해 더 낮아 현재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초등학생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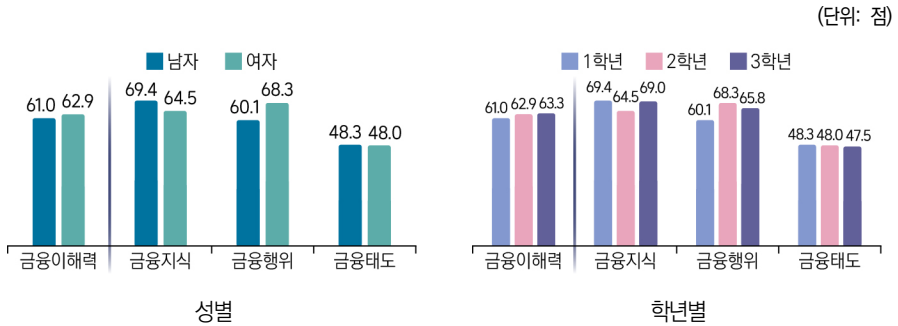


주) 금융이해력 총 20점(금융지식 7점, 금융행위 9점, 금융태도 4점)을 100점 환산
금융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저축보다 소비 선호, 미래보다 현재 선호, 돈을 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임.

그림 IV-10. 중학생 금융이해력 수준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를 성별과 학년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여학생(62.9점)이 남학생(61.0점)보다 다소 높다. 그러나 3가지 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금융지식 점수는 남학생(69.4점)이 여학생(64.5점)보다 높고, 금융행위 점수는 여학생(68.3점)이 남학생(60.1점)보다 높으며, 금융태도는 성별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초등학생과 같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금융이해력 점수는 높아, 중학교 1학년(60.9 점)보다는 2학년(61.6점)이, 2학년보다는 3학년(63.3점)의 점수가 더 높다.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 각각을 살펴봐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금융지식과 금융행위 점수가 높아지는 패턴은 동일하다. 다만, 금융태도에 있어서 중학교 1학년(49.7점)과 2학년(47.4점) 사이에는 다소 점수 차이가 있으나, 2학년과 3학년(47.5점) 간의 차이는 매우 미미하다. 이는 저축과 소비 사이에서의 선호나 미래와 현재 사이에서의 선호, 그리고 돈에 대한 도구적 인식과 같은 인식 형성이 중학교 2학년 이후에는 전체 평균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주) 금융이해력 총 20점(금융지식 7점, 금융행위 9점, 금융태도 4점)을 100점 환산
 금융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저축보다 소비 선호, 미래보다 현재 선호,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임.

그림 IV-11. 중학생 성별 및 학년별 금융이해력 수준

이러 금융이해력 3요소의 측정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먼저 7개의 문항으로 측정된 금융지식의 경우, '복리 개념의 이해' 문항의 점수가 36.6점으로 가장 낮았다. 복리 개념의 이해 그다음으로 점수가 낮은 항목은 '인플레이션의 의미'로 45.1점이다¹⁰⁾.

9개 문항으로 측정된 금융행위의 경우,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33.1점) 항목이 가장 낮다. 또한 금융태도 측정 문항에서는 '미래보다 현재 선호' 점수가 61.9점으로 높고,

10) '복리 개념의 이해' 측정 문항:
 Q. 1년에 2%의 이자를 주는 계좌에 백만원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5년 동안 둔다면, 5년 후에 계좌에는 얼마의 돈이 들어 있을까요? ① 110만원 ②110만 원보다 많다(정답). ③ 110만원 보다 적다 ④ 모르겠다
 '인플레이션의 의미' 측정 문항:
 Q. 다음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응답해 주세요.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생활비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① 참 ② 거짓 ③ 모르겠다
 그 외 문항 [부록]의 초등학생용 조사표 내용 참조

돈은 쓰기 위해 존재'에 29.1점으로 해당 내용에 초등학교(41.4점)에 비해 동의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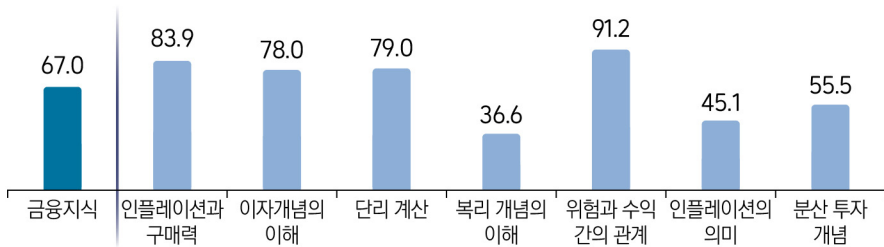
표 IV-8. 중학생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별 점수

(단위: 점)

구분	배점	전체		성별 ^{주2)}		학년 ^{주3)}		
		평균 획득 점수	100점 환산 점수 ^{주1)}	남학생	여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금융이해력	20점	12.4	61.9	61.0	62.9	60.9	61.6	63.3
금융지식	7점	4.7	67.0	69.4	64.5	65.4	66.5	69.0
①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1	0.8	83.9	85.6	82.0	82.6	85.0	84.0
② 이자 개념의 이해	1	0.8	78.0	79.0	76.8	72.6	80.0	81.0
③ 단리 계산	1	0.8	79.0	83.2	74.5	78.7	78.5	79.7
④ 복리 개념의 이해	1	0.4	36.6	37.3	35.9	35.5	35.0	39.2
⑤ 위험과 수익 간의 관계	1	0.9	91.2	90.3	92.2	91.0	92.4	90.2
⑥ 인플레이션의 의미	1	0.5	45.1	50.3	39.6	44.5	41.5	49.1
⑦ 분산 투자 개념	1	0.6	55.5	60.1	50.5	53.1	53.0	59.9
금융행위	9점	5.8	64.1	60.1	68.3	62.3	64.1	65.8
① 예산(용돈) 관리	1	0.7	74.4	70.9	78.1	73.5	72.9	76.7
② 적극적인 저축 활동	1	0.9	94.7	93.1	96.3	96.2	94.7	93.2
③ 신중한 구매	1	0.8	79.3	76.0	82.8	77.4	78.6	81.8
④ 청구대금 적기 지급	1	0.7	67.1	59.4	75.3	64.7	69.0	67.7
⑤ 평소 재무상황 점검	1	0.9	87.2	84.7	90.0	86.4	86.9	88.3
⑥ 장기 재무목표 설정	1	0.7	66.5	64.5	68.7	67.2	66.7	65.8
⑦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2	0.7	33.1	29.4	37.1	28.6	33.3	37.1
⑧ 적자 해소	1	0.4	41.3	33.5	49.6	37.8	41.5	44.3
금융태도 ^{주4)}	4점	1.9	48.2	48.3	48.0	49.7	47.4	47.5
① 저축보다 소비 선호	1.333	0.7	53.6	54.9	52.3	54.7	52.8	53.5
② 미래보다 현재 선호	1.333	0.8	61.9	61.3	62.5	63.4	61.6	60.7
③ 돈은 쓰기 위해 존재	1.333	0.4	29.1	28.8	29.3	31.0	27.8	28.4

주 : 1) 총 20점(금융지식 7점+금융행위 9점+금융태도 4점) 중 획득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
 2) 와 3) 100점 환산 점수
 4) 금융태도 ①~③ 각 항목 평균 점수 동의할수록 점수가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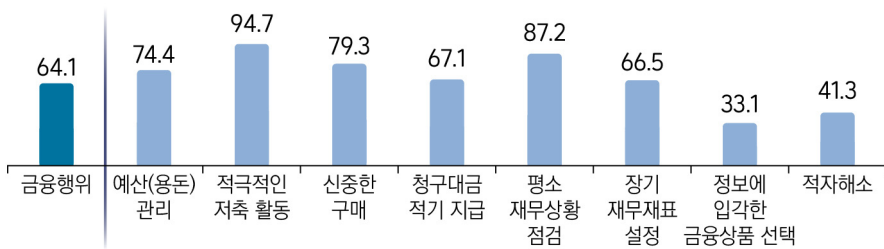
(단위: 점)



주) 금융지식 총 7점(각 문항 1점)을 100점 환산

그림 IV-12. 중학생 금융지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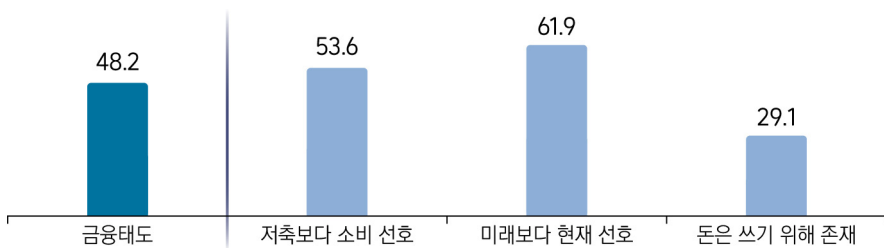
(단위: 점)



주) 금융행위 총 9점(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문항 2점, 나머지 문항 1점)을 100점 환산

그림 IV-13. 중학생 금융행위 수준

(단위: 점)



주) 금융태도 총 4점(각 문항 1.333점)을 100점 환산, 동의할수록 점수가 낮음
금융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저축보다 소비 선호, 미래보다 현재 선호,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임.

그림 IV-14. 중학생 금융태도 수준

② 특성별 금융이해력 차이 검증

앞서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차이 검증에서와 같이, 총점수 20점으로 측정한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획득 점수 값에 대한 특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총 20점 중 12.39점이고, 금융지식은 총 7점 중 4.69점, 금융행위는 총 9점 중 5.77점, 금융태도는 총 4점 중 1.93점 수준이다. 이어 특성에 따라 금융이해력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표 IV-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석한 특성 모두에서 중학생 금융이해력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12.59점)이 남학생(12.20점)보다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높으며,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가 대도시일수록, 그리고 주관적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양부모(12.45점)와 함께 사는 가족유형이 한부모(11.74점)나 조손 및 그 외(10.06점) 가족보다 점수가 높으며, 부모가 맞벌이(12.39점)인 경우가 홀벌이(12.41점)에 비해 점수가 다소 낮으나, 부모가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경우(10.56점)에 비해서는 높다. 또 부모가 금융업에 종사하는 경우(11.96점)에 비해 종사하지 않는 경우(12.42점)가 높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이들 특성 중에서 학년과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 가족유형, 부모님의 학력은 금융이해력 구성의 3요소인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점수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특성 이외, 성별의 경우 금융이해력과 금융지식, 금융행위에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거주지역의 규모는 금융이해력과 금융지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들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중소도시나 읍/면/도서지역 거주하는 중학생들에 비해 금융이해력, 그 중에서도 금융지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다는 결과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언할 수는 없으나, 제5장에서 분석될 실증모델 분석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른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금융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지의 여부에 대해 정책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이 금융이해력과 구성 3요소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동일 학교급에서 단순히 학업성취가 금융지식의 측면만이 아닌,

행위와 태도를 갖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임을 의미한다. 가족유형과 부모의 학력이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금융이해력 수준에 가정에서의 부모를 통한 금융교육 및 습관과 태도 형성이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특성임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부모의 경제활동 유형이 금융행위와 금융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맞벌이 부모의 중학생 자녀가 금융행위 점수(5.80점)가 홀벌이(5.67점)나 비경제활동(4.81점)보다 높고, 홀벌이 부모의 중학생 자녀의 금융태도 점수(2.01점)가 맞벌이(1.88점)나 비경제활동(1.76점)보다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경제활동과 같은 생활 형태,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라는 특성이 중학생 자녀의 금융행위나 금융태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V-9. 중학생 개인 및 부모 특성별 금융이해력 차이

(단위: 점)

구분		금융이해력	금융이해력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전체		12.39(2.89)	4.69(1.53)	5.77(1.87)	1.93(0.92)
성별	남학생	12.20(2.93)	4.86(1.52)	5.41(1.90)	1.93(0.94)
	여학생	12.59(2.82)	4.52(1.51)	6.15(1.76)	1.92(0.90)
	t-test	-3.682***	6.238***	-11.112***	.322
학년	1학년	12.15(2.76)	4.60(1.49)	5.56(1.83)	1.98(0.93)
	2학년	12.28(2.86)	4.64(1.47)	5.75(1.86)	1.89(0.93)
	3학년	12.67(3.01)	4.84(1.61)	5.93(1.92)	1.90(0.91)
	GLM-test	9.198***	7.192**	10.010***	3.150*
거주 지역 규모	특별/광역시	12.67(2.84)	4.86(1.44)	5.83(1.91)	1.97(0.92)
	중소도시	12.18(2.90)	4.61(1.59)	5.68(1.84)	1.89(0.93)
	읍/면/도서 지역	12.11(2.97)	4.46(1.56)	5.78(1.89)	1.88(0.88)
	GLM-test	11.056***	13.465***	2.418	3.008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	매우 못하는 수준	10.85(3.23)	4.07(1.67)	5.16(2.10)	1.62(0.97)
	못하는 수준	11.35(2.92)	4.16(1.57)	5.45(1.94)	1.74(0.89)
	중간	12.19(2.81)	4.54(1.52)	5.75(1.87)	1.90(0.89)

구분		금융이해력	금융이해력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전체		12.39(2.89)	4.69(1.53)	5.77(1.87)	1.93(0.92)
	잘하는 수준	13.24(2.53)	5.18(1.27)	6.01(1.76)	2.05(0.91)
	매우 잘하는 수준	13.47(2.73)	5.38(1.43)	5.92(1.81)	2.17(0.96)
	GLM-test	64.755***	68.721***	12.674***	19.915***
가족유형	양부모	12.45(2.87)	4.72(1.53)	5.79(1.86)	1.94(0.92)
	한부모	11.74(2.93)	4.58(1.47)	5.35(2.02)	1.82(0.95)
	조손 및 그 외	10.06(2.76)	3.34(1.74)	5.10(1.86)	1.61(0.92)
	GLM-test	15.815***	12.440***	7.634***	2.949*
부모 경제활동 유형	맞벌이	12.39(2.90)	4.70(1.57)	5.80(1.86)	1.88(0.92)
	홀벌이	12.41(2.81)	4.73(1.43)	5.67(1.86)	2.01(0.91)
	비경제활동	10.56(4.20)	4.00(2.04)	4.81(2.53)	1.76(0.91)
	GLM-test	5.206**	2.862	4.981**	6.587**
부모 금융업 종사 여부	예	11.96(3.12)	4.56(1.60)	5.59(2.09)	1.80(0.96)
	아니오	12.42(2.86)	4.71(1.52)	5.79(1.85)	1.93(0.92)
	t-test	-2.002*	-1.249	-1.236	-1.837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12.36(3.00)	4.64(1.51)	5.91(1.97)	1.81(0.91)
	대학졸업	12.66(2.70)	4.81(1.45)	5.92(1.77)	1.93(0.90)
	대학원졸업	12.89(2.94)	4.94(1.58)	5.88(1.83)	2.06(1.04)
	잘모름/무응답	11.49(3.02)	4.35(1.63)	5.21(1.98)	1.93(0.90)
	GLM-test	31.498***	18.494***	25.524***	4.902**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12.40(2.80)	4.59(1.44)	5.98(1.86)	1.83(0.93)
	대학졸업	12.72(2.73)	4.87(1.46)	5.91(1.80)	1.94(0.91)
	대학원졸업	12.78(3.07)	4.73(1.68)	6.02(1.69)	2.04(1.03)
	잘모름/무응답	11.34(3.03)	4.33(1.65)	5.10(2.00)	1.91(0.89)
	GLM-test	39.427***	21.016***	35.524***	3.041*

(3)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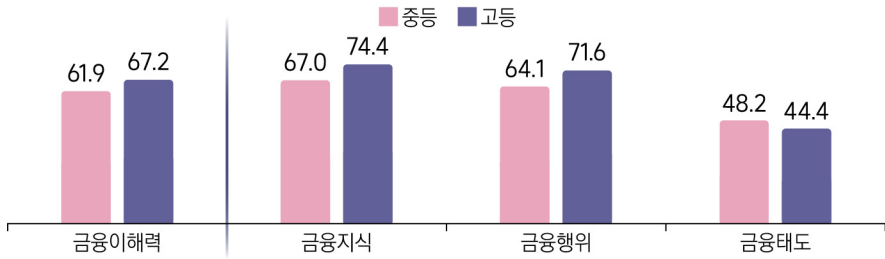
① 금융이해력 및 구성 3요소 평균 점수

앞서 살펴본 중학생과 동일한 문항과 척도로 측정한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100점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67.2점이다.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인 61.9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의 점수도 중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고등학생의 금융지식 점수는 74.4점(중학생 67.0점), 금융행위 71.6점(중학생 64.1점), 금융태도 44.4점(중학생 48.2점)이다.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금융지식과 금융행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고, 금융태도는 현재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중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를 성별과 학년별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중학생 집단에서와 같이 여학생(67.4점)이 남학생(66.9점)에 비해 다소 높고, 금융지식 점수는 남학생(76.5점)이 여학생(72.2점), 금융행위 점수는 여학생(74.1점)이 남학생(69.2점)에 비해 높다. 금융태도 점수는 큰 차이는 없으나 여학생(43.9점)이 남학생(44.9점)에 비해 점수가 낮아, 여학생이 현재 소비에 동의하는 경향이 남학생보다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금융이해력 점수는 높아지고, 금융지식 점수와 금융행위 점수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인 점수를 살펴보면 금융이해력 점수는 고등학교 1학년(66.5점)보다는 2학년(67.2점)이, 2학년보다는 3학년(67.8점)의 점수가 더 높다. 금융지식 점수의 경우도 1학년(73.4점)보다는 2학년(74.7점)이, 2학년보다는 3학년(75.2점)의 점수가 더 높고, 금융행위 점수도 1학년(70.4점)보다는 2학년(71.7점)이, 2학년보다는 3학년(72.7점)의 점수가 더 높다. 그러나 금융태도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45.5점)과 2학년(43.9점) 간의 차이는 있으나, 2학년과 3학년(43.9점)의 점수 차이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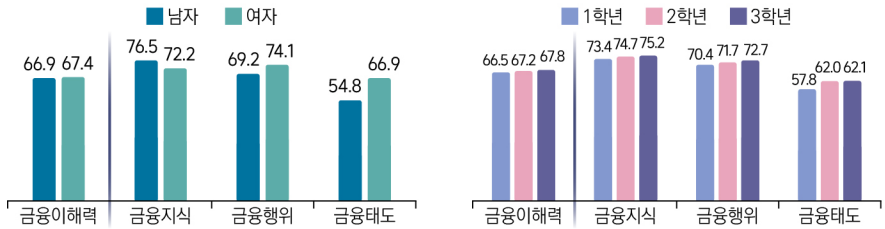
(단위: 점)



주) 금융이해력 총 20점(금융지식 7점, 금융행위 9점, 금융태도 4점)을 100점 환산

그림 IV-15.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수준: 중학생과 비교

(단위: 점)



주) 금융이해력 총 20점(금융지식 7점, 금융행위 9점, 금융태도 4점)을 100점 환산

금융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저축보다 소비 선호, 미래보다 현재 선호,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임.

그림 IV-16. 고등학생 성별 및 학년별 금융이해력 수준

이와 같은 경향성은 중학생 집단에서 나타나는 경향성과 동일하다. 앞서 <표 IV-8>에 제시된 중학생의 금융태도 점수와 고등학생의 금융태도 점수를 비교해보면, 중학교 1학년 이후 고등학교 2학년까지 현재 소비 성향이 강화되고,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IV-10. 중·고등학생 학년별 금융태도 점수 : 성인 및 20대 점수와 비교

(단위: 점)

학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22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성인	20대 (18세~29세)
금융태도 점수	49.7	47.4	47.5	45.5	43.9	43.9	52.4	48.9

주) 금융이해력 총 20점(금융지식 7점, 금융행위 9점, 금융태도 4점)을 100점 환산
 금융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저축보다 소비 선호, 미래보다 현 재선호, 돈을 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임.
 *출처: 한국은행·금융감독원(2023.03.30.),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p.14.

이러 금융이해력 3요소의 측정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중학생과 같이 금융지식 측정 문항에서는 '복리 개념의 이해' 문항의 점수가 44.3점(중학생 36.6점)으로 가장 낮으나, 성인 대상 조사 결과(성인 평균 41.4점, 20대 평균 39.1점; 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3.03.30., p.14)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고등학생의 복리 개념의 이해 수준이 높다. 다시 말해, 복리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분명하나,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이해수준이 높고, 20대 청년층에 비해 현재 고등학생들의 이해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금융행위 문항에서는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이 45.6점(중학생 33.1점)점으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는 낮은 항목은 '적자해소'가 60.6점(중학생 41.3점)이나, 앞서 살펴본 중학생의 금융행위 해당 항목 점수보다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다. 이는 기본적인 인지발달에 따른 금융지식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경험에서 비롯되는 금융행위 또한 고등학생의 경험의 폭이 넓고 중학생 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수준이 높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금융태도 측정 3개 문항의 점수를 각각 살펴보면, '미래보다 현재 선호' 점수가 60.5점(초등학생 67.7점, 중학생 61.9점)으로 높고, '저축보다 소비 선호'의 점수가 이보다 낮은 47.5점(초등학생 60.2점, 중학생 53.6점)이다. 또 '돈은 쓰기위해 존재'에 25.2점(초등학생 41.4점, 중학생 29.1점)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동의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현재 소비 성향은 완화되고, 돈에 대한 도구적 인식이 강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V-11.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별 점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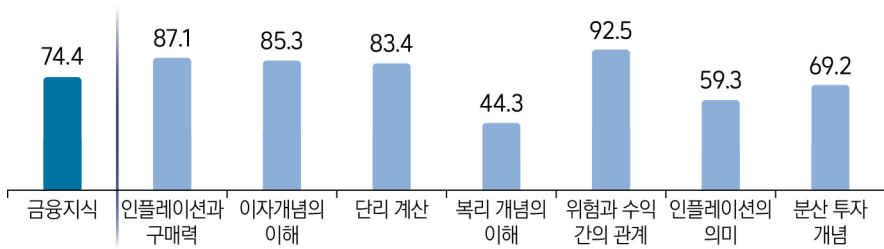
구분	배점	전체		성별 ^{주2)}		학년 ^{주3)}		
		평균 획득 점수	100점 환산 점수 ^{주1)}	남학생	여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금융이해력	20점	13.4	67.2	66.9	67.4	66.5	67.2	67.8
금융지식	7점	5.2	74.4	76.5	72.2	73.4	74.7	75.2
①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1	0.9	87.1	87.4	86.8	88.7	87.6	85.0
② 이자 개념의 이해	1	0.9	85.3	84.4	86.2	84.5	86.2	85.2
③ 단리 계산	1	0.8	83.4	84.9	81.7	81.7	84.4	84.1
④ 복리 개념의 이해	1	0.4	44.3	49.0	39.1	41.2	43.7	47.9
⑤ 위험과 수익 간의 관계	1	0.9	92.5	92.9	92.1	93.3	91.2	93.0
⑥ 인플레이션의 의미	1	0.6	59.3	64.4	53.9	58.5	60.6	58.9
⑦ 분산 투자 개념	1	0.7	69.2	72.4	65.8	66.2	68.8	72.5
금융행위	9점	6.4	71.6	69.2	74.1	70.4	71.7	72.7
① 예산(용돈) 관리	1	0.8	80.9	78.9	83.1	79.2	80.3	83.1
② 적극적인 저축 활동	1	1.0	96.1	95.4	96.9	97.6	94.3	96.2
③ 신중한 구매	1	0.8	84.1	82.1	86.3	82.9	83.6	85.9
④ 청구대금 적기 지급	1	0.7	71.8	67.5	76.3	71.5	71.9	71.9
⑤ 평소 재무상황 점검	1	0.9	91.2	89.3	93.3	90.7	91.8	91.2
⑥ 장기 재무목표 설정	1	0.7	68.6	69.6	67.5	67.3	68.8	69.6
⑦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2	0.9	45.6	42.8	48.5	43.4	46.2	47.1
⑧ 적자 해소	1	0.6	60.6	54.8	66.9	57.8	62.0	62.1
금융태도 ^{주4)}	4점	1.8	44.4	44.9	43.9	45.5	43.9	43.9
① 저축보다 소비 선호	1.333	0.6	47.5	49.1	45.9	49.8	46.7	46.1
② 미래보다 현재 선호	1.333	0.8	60.5	60.9	60.1	60.4	59.5	61.5
③ 돈은 쓰기 위해 존재	1.333	0.3	25.2	24.7	25.7	26.3	25.4	24.0

주 : 1) 총 20점(금융지식 7점+금융행위 9점+금융태도 4점) 중 획득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

2) 와 3) 100점 환산 점수

4) 금융태도 ①~③ 각 항목 평균 점수 동일할수록 점수가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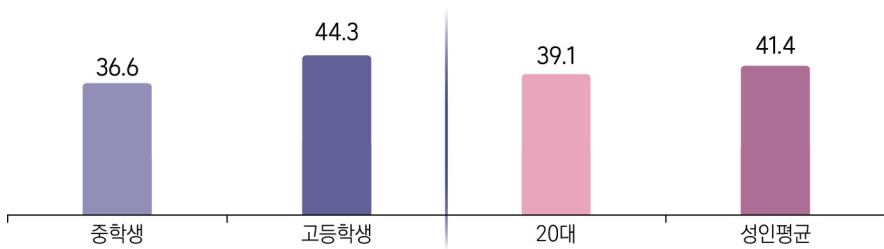
(단위: 점)



주) 금융지식 총 7점(각 문항 1점)을 100점 환산

그림 IV-17. 고등학생 금융지식 수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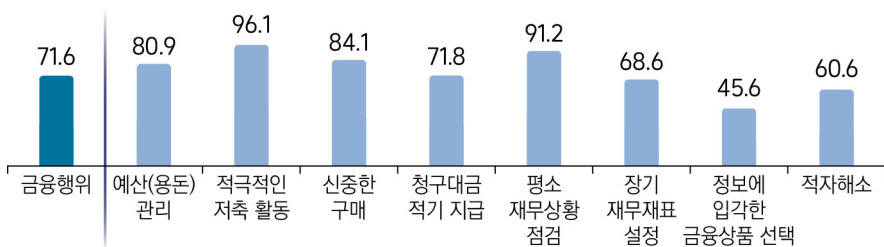


주) 금융지식 총 7점(각 문항 1점)을 100점 환산

* 20대 및 성인 평균 점수 출처: 한국은행·금융감독원(2023.03.30.),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p.14.

그림 IV-18. 금융지식 측정 문항 '복리개념의 이해' 점수: 중학생 및 성인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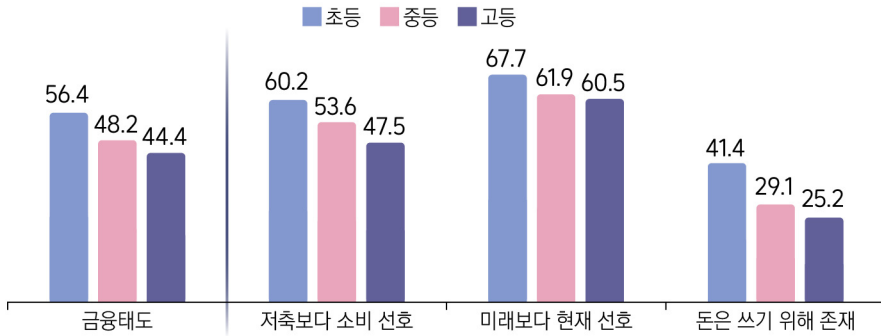
(단위: 점)



주) 금융행위 총 9점(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문항 2점, 나머지 문항 1점)을 100점 환산

그림 IV-19. 고등학생 금융행위 수준

(단위: 점)



주) 금융태도 총 4점(각 문항 1.333점)을 100점 환산, 동의할수록 점수가 낮음, 초·중·고 같은 문항 및 척도로 측정
 금융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저축보다 소비 선호, 미래보다 현재 선호, 돈을 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임.

그림 IV-20. 고등학생 금융태도 수준 : 초·중·고 비교

② 특성별 금융이해력 차이 검증

앞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차이 검증에서와 같이, 총 점수 20점으로 측정된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획득 점수 값에 대한 특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총 20점 중 13.43점(중학생 12.39점)이고, 금융지식은 총 7점 중 5.21점(중학생 4.69점), 금융행위는 총 9점 중 6.44점(중학생 5.77점), 금융태도는 총 4점 중 1.78점(중학생 1.93점)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중학생에 비해 점수가 높다. 이어 특성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였고, 결과는 <표 IV-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금융이해력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학년과 주관적 학업 성취, 고교 유형, 그리고 가족유형 및 부모의 경제활동유형과 학력이다. 이들 특성 중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과 부모의 학력은 금융이해력 3요소의 점수에도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은 금융지식과 금융행위에만 차이가 있고, 학년은 금융태도를 제외하고 차이가 있으며, 거주지역의 규모는 금융행위에만, 고교유형과 부모의 경제활동 유형은 금융지식에만, 가족유형은 금융행위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고등학생 개인 및 부모 특성별 금융이해력 차이

(단위: 점)

구분		금융이해력	금융이해력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전체		13.43(2.75)	5.21(1.53)	6.44(1.77)	1.78(0.88)
성별	남자	13.38(2.80)	5.35(1.53)	6.23(1.87)	1.80(0.89)
	여자	13.49(2.70)	5.06(1.51)	6.67(1.64)	1.76(0.87)
	t-test	-1.017	5.221***	-6.717***	1.173
학년	1학년	13.27(2.69)	5.13(1.47)	6.34(1.75)	1.80(0.90)
	2학년	13.39(2.84)	5.17(1.61)	6.46(1.73)	1.75(0.86)
	3학년	13.64(2.68)	5.31(1.51)	6.58(1.77)	1.76(0.86)
	GLM-test	4.619*	3.595*	4.238*	.742
거주 지역 규모	특별/광역시	13.46(2.74)	5.17(1.54)	6.53(1.75)	1.75(0.87)
	중소도시	13.39(2.79)	5.22(1.55)	6.38(1.81)	1.80(0.89)
	읍/면/도서 지역	13.56(2.55)	5.24(1.45)	6.59(1.52)	1.73(0.84)
	GLM-test	.544	.404	3.355*	1.297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	매우 못하는 수준	12.20(2.72)	4.83(1.73)	5.87(1.98)	1.50(0.95)
	못하는 수준	12.97(2.65)	4.91(1.49)	6.37(1.74)	1.69(0.87)
	중간	13.52(2.76)	5.15(1.54)	6.60(1.70)	1.77(0.83)
	잘하는 수준	14.11(2.61)	5.57(1.42)	6.64(1.67)	1.90(0.88)
	매우 잘하는 수준	14.04(2.59)	5.97(1.20)	6.19(1.87)	1.87(0.98)
	GLM-test	26.742***	30.299***	10.919***	9.558***
고교 유형	특성화고교	12.77(2.84)	4.72(1.62)	6.34(1.82)	1.71(0.94)
	일반/자율/특목고	13.59(2.71)	5.33(1.48)	6.47(1.76)	1.79(0.87)
	t-test	6.084***	7.932***	1.585	1.931
가족유형	양부모	13.50(2.71)	5.23(1.51)	6.49(1.72)	1.78(0.87)
	한부모	13.09(2.86)	5.14(1.58)	6.33(1.91)	1.62(0.90)
	조손 및 그 외	12.50(3.18)	4.27(1.91)	6.18(2.09)	2.05(0.98)
	GLM-test	6.236**	11.215***	1.863	7.205**
부모 경제활동 유형	맞벌이	13.52(2.69)	5.25(1.49)	6.52(1.71)	1.76(0.85)
	홀벌이	13.29(2.83)	5.15(1.58)	6.35(1.86)	1.79(0.94)

구분		금융이해력	금융이해력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전체		13.43(2.75)	5.21(1.53)	6.44(1.77)	1.78(0.88)
	비경제활동	12.64(3.44)	4.28(1.99)	6.36(2.06)	2.00(0.94)
	GLM-test	3.092*	5.958**	2.580	1.391
부모 금융업 종사 여부	예	13.35(2.72)	5.08(1.59)	6.56(1.72)	1.70(0.89)
	아니오	13.44(2.76)	5.22(1.52)	6.44(1.78)	1.78(0.88)
	t-test	-.423	-1.152	.916	-1.173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13.52(2.57)	5.17(1.36)	6.61(1.75)	1.74(0.85)
	대학졸업	13.55(2.73)	5.29(1.54)	6.50(1.71)	1.75(0.87)
	대학원졸업	13.97(2.58)	5.49(1.48)	6.54(1.72)	1.94(0.93)
	잘모름/무응답	12.60(2.97)	4.79(1.70)	6.09(1.88)	1.73(0.87)
	GLM-test	18.805***	15.756***	8.559***	3.958**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13.44(2.59)	5.10(1.50)	6.62(1.66)	1.72(0.85)
	대학졸업	13.60(2.72)	5.35(1.46)	6.48(1.77)	1.77(0.86)
	대학원졸업	13.90(2.83)	5.38(1.57)	6.56(1.71)	1.96(0.97)
	잘모름/무응답	12.63(2.89)	4.76(1.72)	6.12(1.82)	1.75(0.89)
	GLM-test	15.349***	17.571***	7.212***	3.94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금융이해력 점수는 높고,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 점수도 높은 경향이 있지만,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된 주관적 학업성취 중 금융이해력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주관적 '매우 잘하는 수준'(14.04점)이 아닌, '잘하는 수준'(14.11)의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장의 FGI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 중 학업외의 금융정보나 생활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설문응답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금융관련 계열의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고 고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이르게 시작하는 특성화고교와 일반 및 자율/특목고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검증을 해본 결과, 일반고 및 자율/특목고 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13.59점)가 특성화고(12.77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 및 부모의 특성에 따라서도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차이가 나타났는데, 양부모(13.50점) 가정의 고등학생이 한부모(13.09점)나 조손 및 그 외 가족(12.50점)에 비해

점수가 높고,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13.52점)가 홀벌이(13.29점)나 비경제활동(12.64점)에 비해 점수가 높다. 또 학교급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차이를 보이는 부모의 학력수준도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다.

2) 금융생활 실태

(1) 용돈 및 수입활동

① 용돈

금융이해력 수준에 이어 여기에서는 앞서 <표 IV-2> 조사내용의 구성 및 <표 IV-3> 조사 문항 및 문항작성의 근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중·고생의 금융이해력 수준과 관련된 일상의 금융생활 실태에 대해 기술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앞서 본 장의 분석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모두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 값을 산출하였기에 빈도 값은 제시하지 않았다.

먼저 제3장의 FGI(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와 같이, 설문조사에서도 청소년의 금융생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첫 질문을 ‘용돈’으로 시작하였으며, 이 용돈과 관련하여 용돈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다면 어떠한 방식과 방법으로 받는지,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용돈의 일부를 저축하는지의 문항이 하나의 흐름으로 측정되었다.

우선 <표 IV-13>에 제시된 초·중·고생 용돈관련 문항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용돈을 받는 비율이 높다. 초등학생(74.7%)에 비해 중학생(81.5%)이 높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84.7%)의 비율이 더 높다. 용돈은 대체로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용돈을 ‘어떤 일을 했을 때 대가로’ 받는 비율(10.5%)이 중학생(3.2%)이나 고등학생(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3. 용돈 유무 및 관리

(단위: 명,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2,870(100.0)	3,041(100.0)	2,847(100.0)
받고 있지 않음		25.3	18.5	15.3
받고 있음		74.7	81.5	84.7
용돈 지급 받는 방식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66.8	71.9	74.4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18.4	21.4	21.8
	어떤 일을 했을 때 대가로	10.5	3.2	1.8
	매일 정해지지 않은 금액으로	3.2	3.0	1.6
	기타	1.1	0.5	0.4
한 달 기준 용돈 금액	(초등: 2만원 미만) 5만원 미만	29.5	34.9	6.8
	(초등: 2만원~3만원 미만) 5만원~10만원 미만	31.5	37.7	26.9
	(초등: 3만원~4만원 미만) 10만원~15만원 미만	10.6	15.8	28.9
	(초등: 4만원~5만원 미만) 15만원~20만원 미만	11.9	4.4	13.1
	(초등: 5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16.5	7.2	24.3
용돈 저축	일정 금액을 반드시 저축	27.5	23.0	21.3
	저축 할 때도 안 할 때도 있음	63.8	64.1	61.8
	저축 하지 않음	8.7	12.9	16.9
용돈 지급 형태	주로 현금으로	63.3	27.5	11.8
	계좌 입금으로	15.3	44.5	67.6
	현금과 계좌 모두	21.4	28.0	20.6

한 달을 기준으로 받는 용돈의 규모는 초등학생의 경우, 월 2만원에서 3만원(31.5%) 또는 2만원 미만(29.5%)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5만원 이상(16.5%)이 되는 비율도 낮지 않다. 중학생은 5만원에서 10만원(37.7%)이 가장 높고, 고등학생은 10만원에서

15만원(2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나, 이보다 적은 5만원~10만원(26.9%)과 20만원 이상(24.3%)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만원 이상의 비율은 중학생(7.2%)의 3배를 상회한다.

용돈 수입 및 지출관리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반드시 저축'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해당 비율은 낮아져 초등학생(27.5%)에 비해 중학생(23.0%)이 낮고,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21.3%)이 더 낮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용돈을 저축하지 않는 비율은 고등학생(16.9%)이 초등학생(8.7%)의 두 배에 달한다.

한편, 초등학생은 대체로 현금(63.3%)으로 용돈을 받는 비율이 높고, 중학생은 계좌로 입금(44.5%) 받는 비율이 초등학생(15.3%)에 비해 높는데, 고등학생(67.6%)은 중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14세 이상 되어야 가능한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② 수입활동: 중·고생

용돈에 이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용돈 이외 수입을 얻는 활동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았다. 수입활동의 경험 또한 경험 유무에 이어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수입의 일정 금액을 반드시 저축하는지에 대해 하나의 흐름으로 문항을 구성하고 측정하였다.

〈표 IV-14〉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42.4%와 고등학생의 47.2%가 용돈 이외 수입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주로 중학생은 부모님의 일을 돕는 형태의 활동(44.4%)이나 중고거래 등(28.6%)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판매하는 형태의 수입활동을 한 비율이 높으며, 고등학생은 아르바이트(22.9%)를 통해 수입을 갖는 비율이 중학생(4.2%)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수입의 '일정 금액을 반드시 저축'하는 비율은 중학생(27.0%)이 고등학생(22.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의 소비지출 범위와 금액이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지출관리가 더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V-14. 용돈 외 수입활동 경험

(단위: 명, %)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3,041(100.0)	2,847(100.0)
경험 없음		57.6	51.9
경험 있음		42.4	47.2
수입 활동 유형 ^{주)}	아르바이트	4.2	22.9
	부모님 일 도움	44.4	26.9
	가지고 있는 상품의 판매(리서일, 중고거래)	28.6	29.1
	가지고 있는 티켓 등 판매	2.9	4.0
	가지고 있는 주식, 가상화폐 매도	5.0	6.5
	내 시간과 노력으로 만든 것을 판매	9.1	7.7
	기타	5.8	2.9
수입 저축 경험	일정 금액을 반드시 저축	27.0	22.9
	저축 할 때도 안 할 때도 있음	62.2	63.3
	저축 하지 않음	10.9	13.8

주) 경험 있는 경우에 한하며, 복수 응답 비율임.

(2)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

① 직접 가입한 금융상품

용돈 및 용돈 외 수입활동경험에 이어 다음에서는 초·중·고생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을 금융상품 보유와 체크카드 및 청소년전용 선불충전식카드의 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표 IV-15>에 제시된 자신명의로 직접 가입한 금융상품의 보유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금융계좌의 보유율이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보통예금계좌'의 경우, 고등학생의 51.6%가 계좌가 있으며, 중학생 29.3%, 초등학생의 8.0%만이 직접 가입한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정기적금 또는 예금계좌'의 경우 학교급 간 두 배 가량의 차이를 보이는데, 초등학생(3.5%)에 비해 중학생(6.7%)이 높고, 중학생보다 고등학생(12.8%)이 높은 비율을 보인다.

또한 주식계좌나 비트 코인 등 가상화폐, 그리고 음원 등의 저작권 투자 계좌를 직접 가입한 비율은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2%~5%대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직접 주식계좌에 가입한 초등학생의 비율이 2.1%이고, 저작권 투자 계좌에 직접 가입한 비율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비율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표 IV-15. 직접 가입한 금융상품 보유율

(단위: 명,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2,870(100.0)	3,041(100.0)	2,847(100.0)
금융상품 종류	입출금 자유로운 보통예금 계좌	8.0	29.3	51.6
	정기 적금 또는 예금 계좌	3.5	6.7	12.8
	주식 계좌	2.1	3.3	5.5
	비트 코인 등 가상화폐	0.5	1.0	2.2
	저작권 투자(뮤직카우 음원 등)	0.9	2.1	2.8
	기타	0.0	0.3	0.6

② 체크카드 사용 경험

직접 가입한 금융상품에 이어 여기에서는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의 사용 여부 및 유형을 살펴보면, 체크카드의 사용 또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표 IV-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36.4%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중학생의 절반을 상회하는 67.2%, 그리고 대다수 고등학생이라 할 수 있는 85.9%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카드사용 유형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내 명의의 카드만 사용'하는 비율(65.4%)도 높지만, 상대적으로 '내 카드와 부모님 카드 모두 사용'하는 비율(13.0%)도 낮지 않다. 상대적으로 자신명의 계좌 보유율이 낮은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님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비율(16.3%)이 중학생(13.7%)이나 고등학생(7.4%)에 비해 높다.

표 IV-16. 체크카드 사용 여부 및 유형

(단위: 명,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2,870(100.0)	3,041(100.0)	2,847(100.0)
사용안함	63.6	32.8	14.1
사용하고 있음	36.4	67.2	85.9
내 명의 카드만 사용	14.5	45.6	65.4
부모님 체크카드만 사용	16.3	13.7	7.4
내 카드와 부모님 카드 모두 사용	5.6	7.9	13.0

그렇다면 초·중·고생들은 언제부터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는가? 이에 <표 IV-17>에 제시된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 명의 체크카드의 첫 사용 시기가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2.6%)에서 중학교 1학년(16.9%) 시기에 대폭 비율이 높아졌고, 중학생은 이보다 빠른 초등학교 5학년(2.4%)에서 초등학교 6학년(18.4%) 사이, 초등학생은 2학년(3.1%)에서 3학년(16.9%) 사이에 사용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7. 자신 명의 체크카드 첫 사용 시기

(단위: %)

시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100.0	100.0	100.0
초1	2.0	0.1	0.1
초2	3.1	0.2	0.1
초3	16.9	0.2	0.0
초4	31.0	1.0	0.1
초5	29.9	2.4	0.8
초6	17.1	18.4	2.6
중1		39.8	16.9
중2		31.6	30.7

시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3		6.3	26.1
고1			17.9
고2			3.2
고3			1.5

이들 시기 이후 초등학생은 4학년(31.0%)과 5학년(29.9%)때 집중적으로 체크카드 사용이 시작되고, 중학생은 1학년(39.8%)과 2학년(31.6%), 고등학생은 중학교 2학년(30.7%)과 3학년(26.1%) 시기에 집중된다. 이는 현금 대신 카드사용이 보편화되고,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발전되면서 초·중·고생들이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도 급속하게 빨라진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③ 선불충전방식 청소년 전용카드 사용 경험

체크카드에 이어 다음에서는 청소년전용 선불충전방식의 카드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제2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2020년 10월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에서 14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발급대상으로 하는 ‘미니’카드를 출시한 이래 같은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에서 7세에서 16세를 대상으로 2021년 12월 ‘토스유스카드’, 케이뱅크에서 14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2022년 12월에 ‘하이틴’카드를 출시하였고, 일반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에서도 같은 시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불충전방식의 카드를 연이어 출시하였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고, 디지털기기 사용과 각종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맞춤형으로 개발된 카드인 만큼 중·고생들의 경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제3장의 FGI(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로 선불충전방식 카드 사용의 실태를 설문문항으로 구성하고 측정하였다.

〈표 IV-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선불충전방식 카드를 사용하는 비율은 중학생의 절반이 넘는 54.3%이고, 고등학생은 이보다 높은 63.5%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사용비율이 높은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급대상 연령대가 대체로 14세~18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토스유스카드’와 연령제한이 없는 하나은행의 ‘아이부자’카드의 경우, 초등학교도 사용가능하기에 초등학교 사용 비율도 15.6%로 낮지 않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선불충전방식의 카드가 불과 1~2년 사이에 초·중·고생 집단에서 높은 사용률을 보이는 것일까? 이에 ‘선불충전방식을 사용하게 된 주된 사유’를 연계된 문항의 복수응답 형태로 측정한 결과, a)주위 친구들의 영향과 b)편리한 기능, 가입이 쉬운 c)접근 편의성이라는 세 가지 사유로 요약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80.8%가 ‘주위 친구들이 사용해서’로 응답되었는데, 친구들의 영향은 중학생(23.1%)이나 고등학생(17.5%)에게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주위 친구들 영향보다는 ‘편리한 기능이 많아서’(중학생 43.7%, 고등학생 42.2%)의 응답률이 높았는데, 이는 휴대폰을 비롯한 디지털기기 사용의 일상화에 따른 응답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접근 편의성, 즉 ‘쉽게 가입하여 만들 수 있어서’라는 응답은 고등학생(27.8%)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님이 가입을 권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포착되기는 하였으나, 초등학교생(16.3%) 이후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그 비율은 낮아지고, 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캐시백)이나 송금수수료 무료 등의 혜택으로 인해 선불충전방식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응답률은 5~6% 내외로 높지 않다.

표 IV-18. 선불충전방식 청소년 전용카드 사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2,870(100.0)	3,041(100.0)	2,847(100.0)
사용 안함		84.4	45.7	36.5
사용 하고 있음		15.6	54.3	63.5
사용 하게 된 주된 사유 ^{주)}	주위 친구들이 사용해서	80.8	23.1	17.5
	쉽게 가입하여 만들 수 있어서	11.1	18.1	27.8
	혜택이 좋아서(캐시백, 수수료 무료 등)	5.5	4.9	6.4
	편리한 기능이 많아서	40.9	43.7	42.2
	부모님이 가입을 권해서	16.3	7.7	3.9
	기타	5.4	2.4	2.2

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복수 응답 비율임.

(3) 금융교육 및 금융정보 활동, 금융피해 경험

① 부모의 금융교육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에 이어 여기에서는 금융교육 및 금융정보활동, 그리고 금융생활 속에서 발생한 금융피해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교육은 a)가정에서 부모를 통한 교육과 b)학교에서의 교육, 그리고 c)학교 이외에서의 교육으로 나누어 제3장의 FGI(초점집단면접조사) 및 교사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이 문항을 작성하였다. 우선 부모의 금융교육에 대해서는 작성된 7가지 항목에 대해 4점 리커트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해당 항목에 응답한 비율을 <표 IV-19>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IV-19. 부모의 금융교육 경험

(단위: 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내가 용돈을 어디에 쓰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용돈 사용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신다	13.3	26.2	44.4	16.1	10.7	27.1	47.0	15.2	12.0	31.3	44.1	12.6
② 나에게 용돈 관리방법과 야근 써야하는 이유나 방법을 알려 주신다	11.3	25.5	39.6	23.6	10.6	28.8	43.1	17.5	10.5	29.5	45.8	14.2
③ 나에게 저축방법을 설명하거나 은행에 데려가 계좌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다	30.0	27.8	25.4	16.8	19.3	28.9	34.3	17.5	13.8	24.8	40.9	20.5
④ 나에게 주식투자에 대해 설명하거나 증권사에 데려가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다	59.9	24.2	10.6	5.3	52.1	30.1	12.4	5.4	47.8	30.3	15.6	6.2
⑤ 나와 함께 주식계좌를 관리하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61.5	23.4	10.9	4.2	55.2	28.2	12.3	4.3	50.3	28.5	16.1	5.0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⑥ 금융기관이나 지역센터에서 주최하는 금융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함께 참여한 적이 있다	62.3	29.8	5.3	2.6	60.5	31.3	6.1	2.0	60.4	30.2	7.5	1.9
⑦ 나에게 경제뉴스나 금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설명해주신다	40.0	29.2	21.9	9.0	33.7	32.3	25.9	8.1	29.6	29.5	31.1	9.8

먼저 부모님이 용돈 사용처를 물어보거나 사용에 관한 의견 제시한다는 측정항목 '①' 항목에 대한 응답률을 살펴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매우 그렇다'는 비율이 낮아진다(초등학생 16.1% → 중학생 15.2% → 고등학생 12.6%). 이러한 경향성은 용돈 관리방법과 아껴서 써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는 항목 '②'와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초등학생 23.6% → 중학생 17.5% → 고등학생 14.2%).

이처럼 용돈 사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교육의 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은행 계좌나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는 적극적인 교육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다. 예컨대 은행계좌를 만들어주는 '③'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이에 해당한다(초등학생 16.8% → 중학생 17.5% → 고등학생 20.5%).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는 '④'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서 절반 이상을 상회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절반 아래로 낮아진다(초등학생 59.9% → 중학생 52.1% → 고등학생 47.8%). 주식계좌를 함께 관리하는 경우는 초·중·고생 모두에서 절반 이상이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초등학생 61.5% → 중학생 55.2% → 고등학생 50.3%).

한편, 학교 외 금융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⑥'의 경우 '매우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그런 편이다'와 함께 긍정 응답으로 묶어서 살펴보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긍정 응답의 비율도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초등학생 7.9% → 중학생 8.1% → 고등학생 9.4%). 또한 금융관련 이슈에 대해 설명해주는 '⑦' 또한 '매우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높지 않으나, '그런 편이다'와 함께 묶어 살펴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긍정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초등학생 30.9% → 중학생 34.0% → 고등학생 40.9%). 이는 가정에서의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금융교육이 연령 및 인지발달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학교 금융교육 경험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금융교육에 이어 다음에서는 학교 금융교육의 경험을 경험 유무와 교육형태 및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IV-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초등학생 37.5%, 중학생 33.9%, 고등학생 38.9%로 학교급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경험한 금융교육의 형태 및 방식 각각에 대해 경험여부를 복수응답으로 측정한 결과, 중·고생 모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은 '사회나 실과(가정) 등 관련 교과목에서의 활동 수업'(중학생 67.3%, 고등학생 70.8%)이었다. 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비율로 외부강사 강의(중학생 64.5%, 고등학생 63.3%)와 동영상 강의(중학생 64.6%, 고등학생 65.1%)의 경험 비율도 낮지 않았다. 경제·금융 교과목 이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교과목으로 개설된 비율이 낮은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V-20.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경험

(단위: 명,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2,870(100.0)	3,041(100.0)	2,847(100.0)
교육 받은 적 없음		62.5	66.1	61.1
교육 받은 적 있음		37.5	33.9	38.9
교육 형태 및 방식 ^{주)}	경제·금융 교과목 이수	-	35.3	38.4
	사회, 실과(가정) 등 관련 교과목에서의 활동 수업	-	67.3	70.8
	외부강사 강의	-	64.5	63.3
	동영상 강의 시청	-	64.6	65.1
	기타	-	5.0	5.7

주) 교육 유형험자에 한하며, 복수 응답 비율임.

③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

학교 금융교육에 이어 다음에서는 학교 이외에서 금융교육의 경험을 학교 금융교육 경험과 같은 방식으로 경험 유무와 교육형태 및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IV-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 이외의 곳에서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초등학생 22.5%, 중학생 5.5%, 고등학생 6.0%로 초등학생과 중·고생 사이에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학교 이외, 금융회사나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제공되었거나, 제3장의 학부모 FGI(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 청취된 바와 같이, 이들 기관에서의 교육이 대체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표 IV-21. 가정이나 학교 이외에서의 금융교육 경험

		(단위: 명,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2,870(100.0)	3,041(100.0)	2,847(100.0)
교육 받은 적 없음		77.5	94.5	94.0
교육 받은 적 있음		22.5	5.5	6.0
교육 형태 및 방식 ^{주)}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등) 주최 금융교육 또는 캠프	-	35.8	54.9
	경제신문사 주최 금융교육 또는 캠프		20.8	24.2
	지역 센터 주최 금융교육 또는 캠프		34.3	31.3
	기타		45.1	42.4

주) 교육 유형별자에 한하며, 복수 응답 비율임.

④ 금융정보 활동 경험: 중·고생

앞서 살펴본 가정에서의 부모의 교육과 학교 또는 학교 이외의 곳에서 금융교육을 경험한 것과 더불어, 스스로 금융정보를 탐색하거나 학습을 위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표 IV-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고생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스스로 금융정보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중학생 24.9%이고, 고등학생은 이보다

높은 37.6%이다. 복수응답으로 측정한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경제 뉴스를 찾아봄'(중학생 84.0%, 고등학생 88.9%) 항목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관련 동영상 찾아봄'(중학생 67.6%, 고등학생 73.7%) 비율이 높다.

활동내용에 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항목은 '관심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함'(중학생 28.7%, 고등학생 43.2%)이다. 이는 주위 친구들과 금융이슈나 정보를 나누고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등학생들이 인지된 지식(perceived knowledge)이나 금융생활기술(financial skill)을 얻을 수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의미한다.

표 IV-22. 스스로의 금융정보 활동 경험

(단위: 명, %)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3,041(100.0)	2,847(100.0)
활동 경험 없음		75.1	62.4
활동 경험 있음		24.9	37.6
활동 내용 ^{주)}	경제 뉴스를 찾아봄	84.0	88.9
	관련 앱에서 정보를 찾아봄	31.0	37.8
	관련 동영상을 찾아봄	67.6	73.7
	관련 책을 찾아봄	31.8	32.7
	관심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함	28.7	43.2
	기타	4.7	4.5

주) 활동 유경험자에 한하며, 복수 응답 비율임.

⑤ 금융피해 경험: 중·고생

금융교육과 스스로의 금융정보 탐색 및 학습활동 실태에 이어 여기에서는 금융생활, 특히 휴대폰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기기 및 매체 이용이 일상화에서 비롯되는 금융피해 경험을 중·고생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표 IV-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금융피해 경험은 불법금융행위라 할 수 있는 일명 '휴대폰 결제깡', '개인정보거래', '내구제 대출'과 '소액대출' 경험 유무와 해당 유형 각각의 경험률이다. 먼저 '휴대폰 결제깡'은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을 사서 상대방에게 넘겨주면, 상대방이 결제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불법대출(다음 국어사전, 2023.10.13. 검색)인데, 이를 경험한 중학생은 5.8%, 고등학생은 6.3%로 결코 낮지 않다.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험률을 보이는 것이 일명 '폰테크'라고도 불리는 '내구제 대출'인데, 이것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기기를 다시 업체에 주고 업체로부터 기기 값의 일부를 받는 형태의 불법사금융이다. 중학생의 4.8% 그리고 고등학생의 7.6%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 외 대출을 받으려고 가족이나 아는 사람의 개인 정보를 거래자에게 넘기는 '개인정보 거래'라는 불법행위 경험 비율도 중학생 1.3%, 고등학생 1.5% 수준에서 존재하며, 일명 '대리입금'으로 불리는 불법사금융 형태의 하나인 소액 대출 경험도 무시할 수 없는 비율로 중학생(10만원 미만: 3.5%, 10만원 이상: 2.0%)과 고등학생(10만원 미만: 3.0%, 10만원 이상: 2.4%)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금융피해 경험

		(단위: 명, %)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3,041(100.0)	2,847(100.0)
피해 경험 없음		87.9	86.4
피해 경험 있음		12.1	13.6
피해 유형	휴대폰 결제깡(상품권 깡 등) (내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을 사서 상대방에게 넘겨주면 결제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경험)	5.8	6.3
	개인정보 거래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가족이나 아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대리입금 모집인에게 보낸 경험)	1.3	1.5
	내구제 대출(폰테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기기를 다시 업체에 주고, 업체로부터 기기 값의 일부를 받은 경험)	4.8	7.6
	소액대출1 (SNS등 온라인에서 1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대출한 경험)	3.5	3.0
	소액대출2 (SNS등 온라인에서 1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한 경험)	2.0	2.4

(4) 돈에 대한 인식·태도 및 금융 웰빙

① 돈에 대한 인식

앞서 살펴본 금융교육 및 금융정보 활동, 그리고 금융피해 경험에 이어 여기에서는 인식 및 태도 측면을 세 가지, 즉 a) 돈에 대한 인식, b) 부정적 돈 사용에 대한 태도, c)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장의 <표 IV-3> 조사문항 및 문항 작성의 근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a) 돈에 대한 인식과 c)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은 기존에 개발된 문항과 척도로 측정하였고, b) 부정적 돈 사용에 대한 태도는 제3장의 FGI(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 청취되었던 내용과 설문문항 작성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진이 문항을 작성하여 측정하였다.

우선 <표 IV-24>에 제시된 '돈'에 대한 인식을 세 가지(인지적 측면, 감정적 측면, 행동적 차원)를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돈에 대한 인지적 측면에서 측정한 2개 항목(돈은 매우 가치 있는 것, 돈은 일상생활에서 중요)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학교급에 상관없이 압도적이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감정적 측면에서 측정한 2개 항목(돈은 사악한 것, 돈은 나쁜 일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대체로 높다. 그러나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만을 볼 때,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응답률이 높은 경향이 나타나기는 한다. 이와는 달리, 행동적 차원에서 측정한 2개 항목(돈 관리 잘함, 돈 신중하게 사용)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IV-24. '돈'에 대한 3가지 차원의 인식

(단위: 명,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인지적 측면	나에게 돈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2.0	11.3	41.6	45.1	1.0	4.4	39.1	55.5	1.1	2.8	34.3	61.8
	돈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하다	1.6	8.0	41.8	48.5	0.8	1.6	32.2	65.4	0.5	1.2	26.4	71.9
감정적 측면	돈은 사악한 것이다	28.2	48.7	17.7	5.4	22.3	41.0	28.6	8.0	23.5	39.2	27.4	9.9
	돈은 나쁜 일들이 생기는 원인이다	21.8	41.4	29.8	7.0	19.0	37.5	34.2	9.3	21.3	35.6	33.6	9.5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행동적 차원	나는 돈 관리를 잘 한다	3.5	19.2	52.8	24.5	4.7	27.5	51.6	16.2	4.8	32.8	47.8	14.6
	나는 돈을 매우 신중하게 사용한다	4.3	22.4	41.0	32.3	6.0	30.1	41.4	22.4	5.1	34.2	41.8	18.9

② 부정적 돈 사용 태도

돈에 대한 인식에 이어 여기에서는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부정적 돈 사용 태도’를 앞서와 동일하게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표 IV-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정적 돈 사용태도를 측정하는 6가지 항목 중 초등학생은 3가지 항목, 즉 돈을 빌리는 것과 관련된 태도만을 측정하고 부모님의 돈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중·고생만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돈을 자주 빌리고 갚는 것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①~②’의 응답 결과를 보면, 학교급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돈 빌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인식과 태도를 측정한 ‘③’의 내용에 대한 응답 또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부모님의 돈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한 ‘④~⑥’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 유사한 응답률을 보이며, 부정적인 태도의 응답률은 10%~15% 내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IV-25. 부정적 ‘돈’ 사용 태도

(단위: 명,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친구들에게 자주 돈을 빌린다	71.6	24.0	3.9	0.5	66.2	27.8	5.5	0.5	67.5	26.8	5.0	0.7
② 나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도 있다	82.4	13.2	3.8	0.6	77.0	18.4	4.2	0.4	79.3	16.1	4.1	0.5
③ 돈 빌리는 것은 나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	51.3	27.5	16.0	5.1	43.7	30.2	22.4	3.7	42.1	28.1	25.9	3.9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④ 부모님의 돈은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내 돈이다		55.9	32.1	10.5	1.4	50.7	35.5	11.4	2.4
⑤ 부모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돈을 관리해주시는 것이 편하다	-	39.9	36.1	20.0	4.0	43.4	36.1	17.3	3.2
⑥ 부모님은 언제나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신다		6.0	10.6	52.7	30.7	4.3	10.6	53.3	31.8

③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 수준

부정적 돈 사용 태도에 이어 5가지 항목으로 측정된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 수준을 같은 방식의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부정적으로 기술된 5가지 항목에 대해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높을수록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 수준이 낮은 데, 전반적으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금융웰빙 인식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다.

예컨대 앞으로의 가족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전망을 측정한 ‘①’ 항목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묶어보면, 중학생의 10.8%, 고등학생의 16.2%가 해당된다. 또한 ‘그런 편이다’의 응답률이 비교적 높은 ‘③’ 항목과 ‘④’ 항목을 보더라도 고등학생의 경우가 중학생보다 ‘돈이 금방 없어질 것 같아 불안하다’는 응답률(중학생 21.2%, 고등학생 25.2%)이 높고, ‘매달 쓰고 남는 돈이 없다’는 응답률(중학생 22.4%, 고등학생 29.6%)도 높다.

표 IV-26.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 수준

(단위: 명, %)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지금 나와 우리가족의 경제여건으로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거나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44.5	44.6	9.5	1.3	41.6	42.2	14.0	2.2
② 나는 평소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생활이 바듯하다	49.5	40.1	9.3	1.1	46.6	41.5	10.4	1.5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③ 지금 가지고 있거나 모아 둔 돈이 금방 없어질 것 같아 불안하다	46.3	32.5	17.5	3.7	42.6	32.2	21.4	3.8
④ 매달 쓰고 남은 돈이 없다	46.7	30.9	17.5	4.9	37.8	32.5	22.8	6.8
⑤ 나의 금전적인 문제가 내 삶을 지배한다	55.6	34.9	7.7	1.8	52.6	33.9	10.7	2.8

3)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 비교

(1) 초등학생

앞서 살펴본 금융생활 실태에 이어 여기에서는 금융생활 실태에 따라 초·중·고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즉 어떠한 금융생활 실태가 초·중·고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의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차이 검정 통계(t-test, GLM-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급별 금융생활 실태 각 측정 문항별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에 대한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고, 지면 할애를 고려하여 검증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만을 추려내어 [그림 IV-21]이하와 같이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먼저 초등학생의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용돈과 관련해서는 a)용돈의 지급형태와 b)용돈의 일부를 저축하는지에 따라 금융이해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명목 점수만 본다면 부모가 정기적으로 용돈을 지급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불과 0.4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나,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test=2.959, $p < 0.01$)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저축과 같은 자녀의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 및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용돈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부모가 수시보다는 정기적인 주기와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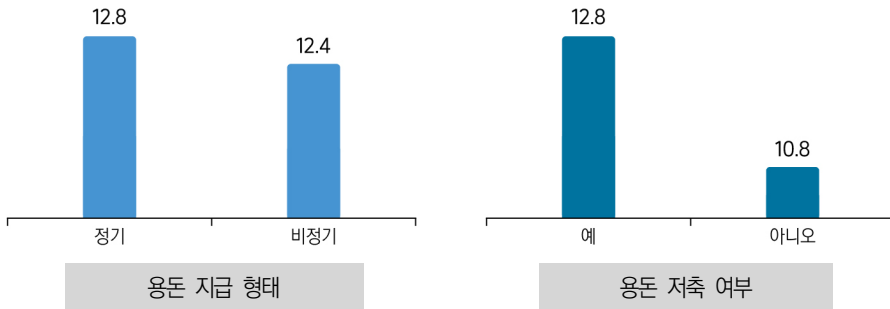


그림 IV-21. 초등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1) : 용돈

다음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는 a) 예/적금의 유무와 b) 주식, 가상화폐, 저작권 투자계좌의 유무에 따라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 [그림 IV-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금융 예/적금 계좌의 유무나 주식 등 투자계좌의 유무가 금융이해력 점수의 명목 점수의 차이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접 금융상품의 가입과 금융서비스의 이용이 금융이해력 점수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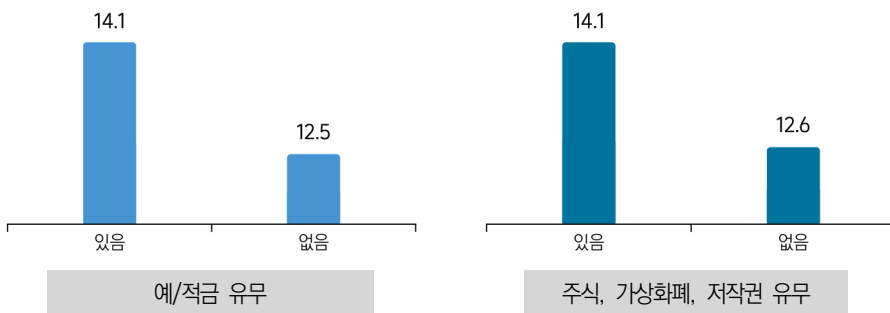


그림 IV-22. 초등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2) : 직접가입 금융상품

이러 금융교육 경험, 즉 가정에서의 부모금 용교육의 수준과 학교 및 학교 외에서 받은

금융교육의 경험 유무에 따라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총 7개 항목 4점의 리커트척도로 측정된 값을 총합한 부모의 금융교육 점수 수준(7점~28점; 이하 동일)에 따라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그리고 학교 이외의 곳에서의 금융교육을 받은 이들이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금융교육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해야 하기는 하나, 일차적으로 금융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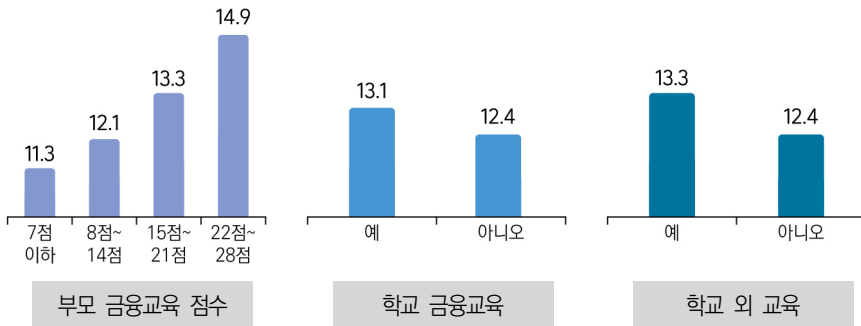


그림 IV-23. 초등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3) : 금융교육

다음으로 돈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해서는 a) 돈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인식과 b) 돈에 대한 행동적 차원의 인식, 그리고 c) 부정적 돈 사용태도에 따른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돈에 대한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차원의 인식 수준이 2점을 초과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다. 특히 돈에 대한 행동적 차원의 인식 수준이 2점 초과한 집단과 2점 이하 집단의 금융이해력 명목 점수의 차이가 각각 13.1점과 10.5점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초등학생의 경우 3개의 항목으로 측정된 부정적 돈 사용태도는 총점(6점~24점; 이하 동일)으로 합산되어 분석되었는데, 부정적 돈 사용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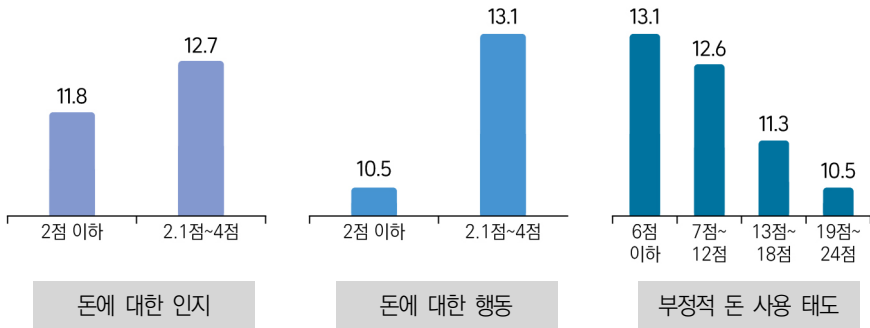


그림 IV-24. 초등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4) : 돈 인식 및 태도

(2) 중학생

앞서 초등학생에 이어 여기에서는 중학생의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를 검증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만을 추려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우선 용돈과 관련해서는 a)용돈 지급 유무, b) 용돈 지급 형태, c)용돈 저축 여부, d) 용돈 외 수입활동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초등학생 차이 검증 결과에서와 같이 용돈의 일부를 저축하느냐의 여부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저축을 하는 집단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12.7점인데 반해, 저축하지 않는 집단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10.5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시기에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사용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과 더불어 저축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저축의 습관형성이 금융이해력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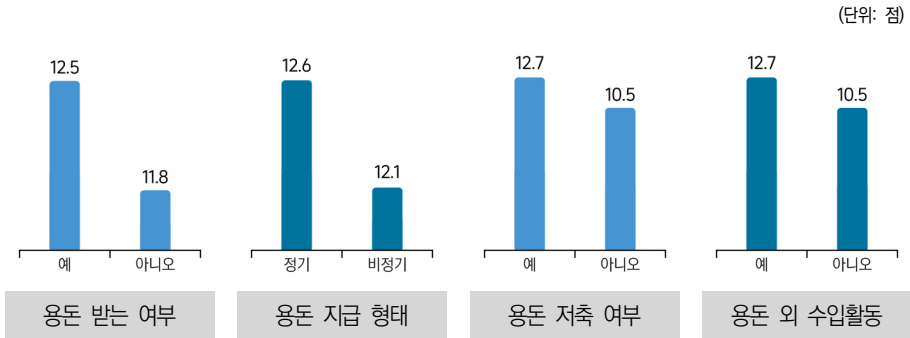


그림 IV-25. 중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1) : 용돈

다음으로 직접 가입한 금융상품 보유와 관련해서는 초등학생 차이 검증에서와 같이, a) 예/적금의 유무와 b) 주식, 가상화폐, 저작권 투자계좌의 유무에 따라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점수의 차이는 예/적금 유무에 따른 차이(1.8점)가 주식 등 유무(1.1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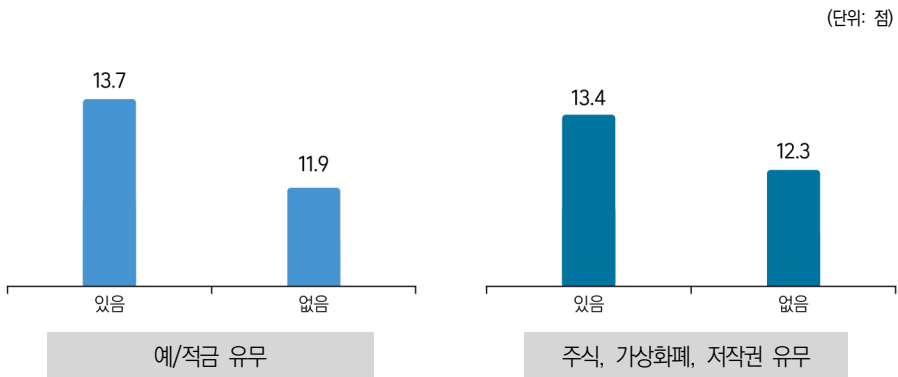


그림 IV-26. 중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2) : 직접가입 금융상품

이어 체크카드 사용 유형과 선불충전방식 청소년전용 카드 사용 여부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체크카드 사용 유형부터 살펴보면, 내 카드만 사용하는 경우의 금융이해력 점수(12.8점)가 가장 높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의 금융이해력 점수(11.7점)가 가장 낮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불충전방식의 청소년 전용카드 사용 여부에 따라서는 사용하는 경우(12.9점)가 사용하지 않는 이들(11.8점)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체크카드 또는 선불충전방식 카드의 사용이 경험 지식으로서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는 일상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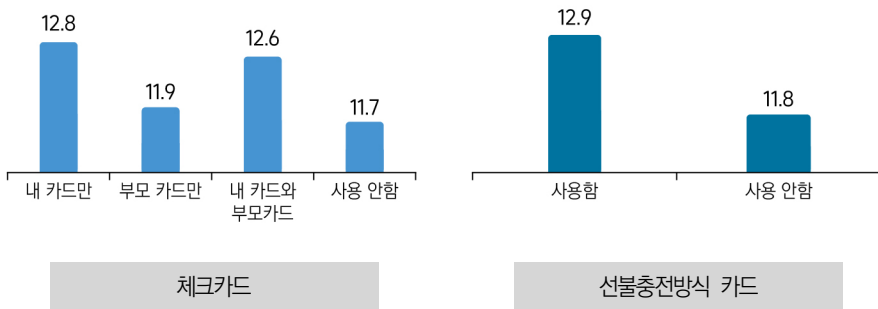


그림 IV-27. 중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3) : 카드 사용

이러 금융교육 경험과 금융정보 활동 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등학생의 차이 검증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금융교육 점수 수준에 따라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 또한 큰 차이가 있으며, 학교 금융교육이나 학교 이외의 곳에서 금융교육을 받은 중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거나 탐색하고 학습하는, 즉 금융정보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에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이며, 그 점수 차이(2.2점)는 학교나 학교 이외의 곳에서 금융교육 받은 경험의 유무가 갖는 점수 차이(학교 금융교육: 1.1점, 학교 외 금융교육: 1.1점)보다도 더 크다는 점이다. 이는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단순히 학교나 학교 이외의 금융교육 이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스스로의 학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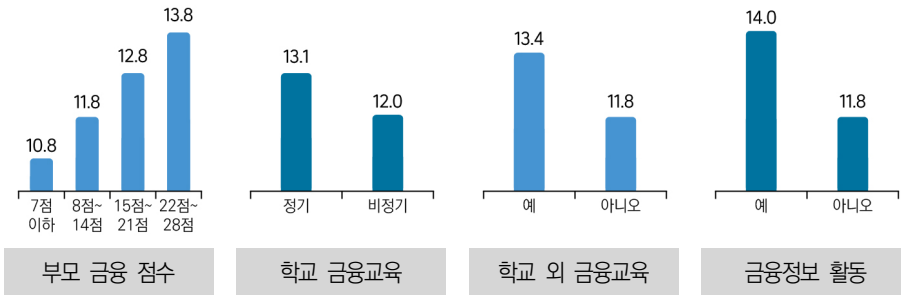


그림 IV-28. 중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4) : 금융교육 및 금융정보 활동

다음으로 돈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해서는 돈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의 인식, 즉 a) 인지적 측면, b) 감정적 측면, c) 행동적 차원의 인식에 있어 2점 이하 집단과 2점 초과 집단의 금융이해력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앞서 분석된 초등학교생 차이 검증에서는 유의한 차이로 발견되지 않았던 b) 돈에 대한 감정적 측면의 2점 기준 이하 및 초과에 따른 점수 차이는 0.3점에 불과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이며(t -test=-2.569, p <0.05), c)행동적 차원의 인식 점수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의 점수 차이는 아래 [그림 IV-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큰 점수 차이를 보인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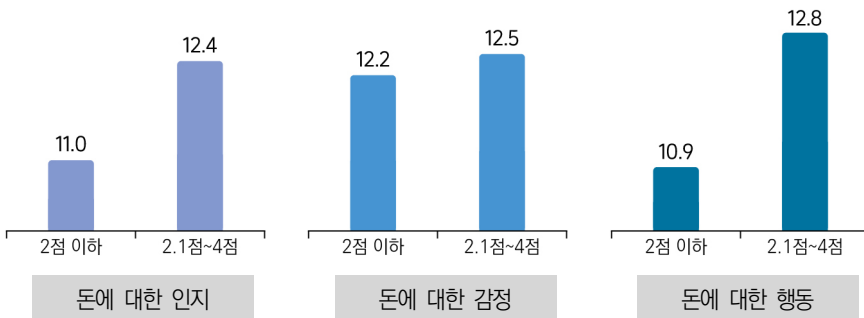


그림 IV-29. 중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5) : 돈 인식·태도

이어 부정적 돈 사용태도와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에 따라서도 금융이해력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가지 항목을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여 합산한 부정적 돈 사용 태도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된다. 합산 점수가 7점~12점인 집단에서 금융이해력 점수가 12.6점으로 가장 높고, 6점 이하의 집단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10.8점으로 가장 낮다는 결과이다. 이는 중학생의 경우 부정적 돈 사용태도 점수가 매우 낮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높은 금융이해력으로 이어지지는 않다는 것으로 나타내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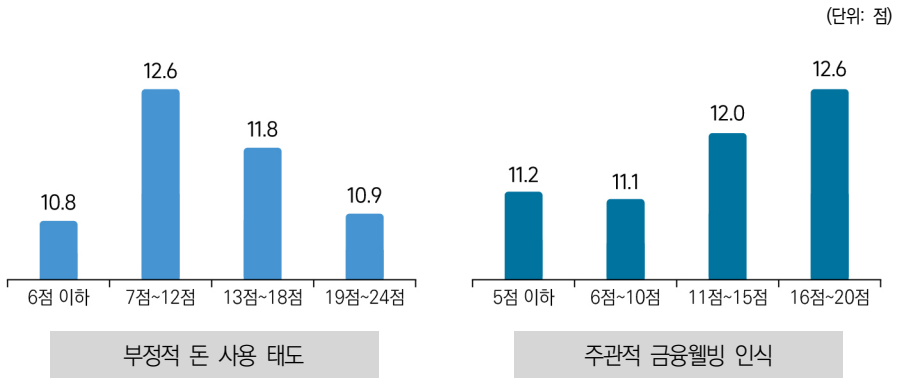


그림 IV-30. 중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6) :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

한편, 5가지 항목을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의 값을 합산(5점~20점)하고, 합산한 점수의 범주를 4개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집단의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점수 12점을 기점으로 볼 때,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 점수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고등학생

앞서 중학생에 이어 여기에서는 고등학생의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를 검증하고, 같은 방식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만을 추려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우선 용돈과 관련해서는 중학생 집단의 차이 검증에서 나타난 4가지, 즉 a)용돈 지급 유무, b) 용돈 지급 형태, c)용돈 저축 여부, d) 용돈 외 수입활동 여부 이의

e) 한 달 용돈 금액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용돈 금액이 많은 집단이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은 것이 아니고, 월 10만원~15만원을 받는 집단(14.0점)과 5만원~10만원을 받는 집단(13.9점)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5만원 미만(13.3점) 또는 20만원 이상(13.3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다른 결과는 중학생 차이 검증 결과와 유사하므로 별도로 해석내용을 기술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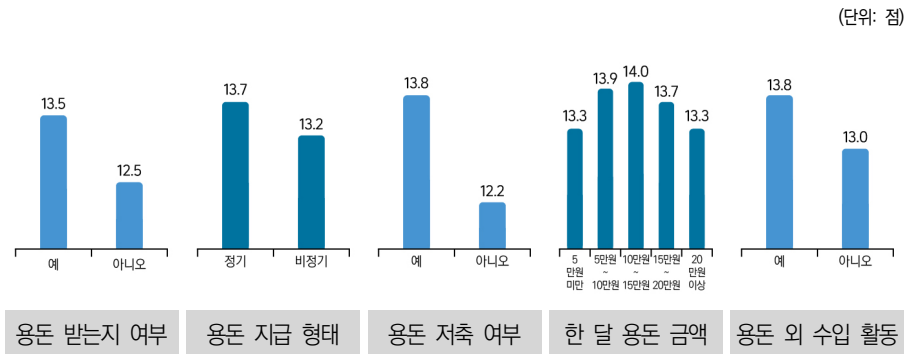


그림 IV-31. 고등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1): 용돈

다음으로 직접 가입한 금융상품 보유와 관련해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차이 검증에 서와 같이, a) 예/적금의 유무와 b) 주식, 가상화폐, 저작권 투자계좌의 유무에 따라 금융이해력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점수의 차이는 예/적금 유무에 따른 차이 (1.5점)가 주식 등 유무(0.7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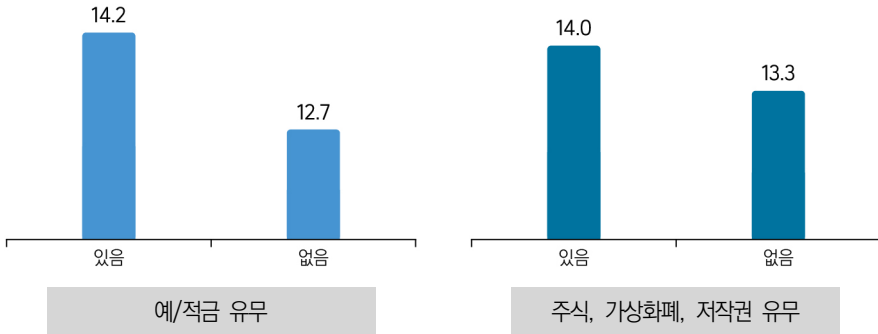


그림 IV-32. 고등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2) : 직접가입 금융상품

이러 중학생 차이 검증의 결과와 같이, 체크카드 사용 유형과 선불충전방식 청소년전용 카드 사용 여부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가지 중학생 차이 검증의 결과와 다른 것이 있다면, 고등학생의 경우 내 카드와 부모카드를 모두 사용하는 집단의 금융이해력 점수(13.7점)가 내 카드만 사용하는 집단(13.6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높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반드시 같지 않음을 시사한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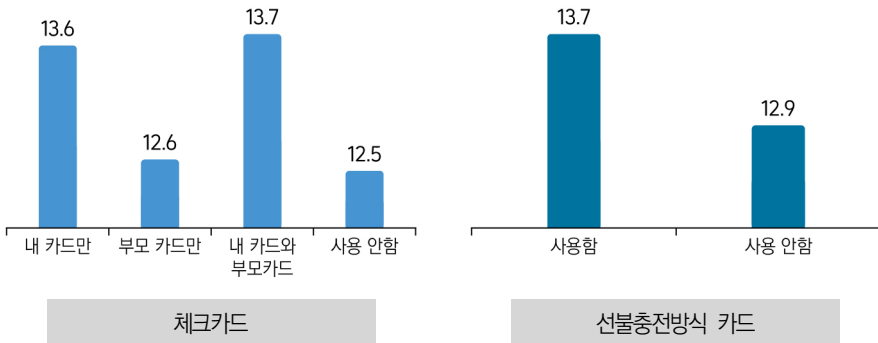


그림 IV-33. 고등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3) : 카드 사용

이러 중학생 차이 검증에서와 같이, 금융교육 경험과 금융정보 활동 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의 경향도 중학생 차이 검증에서와 같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학교 이외의 곳에서 금융교육을 받는 경험의 유무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그 외 부모의 금융교육 점수에 따른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차이나 학교 금융교육 경험 유무, 그리고 금융정보 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의 결과는 중학생 차이 검증의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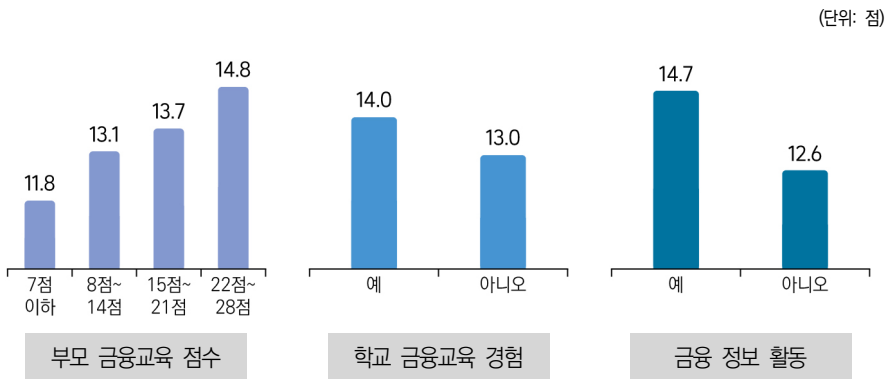


그림 IV-34. 고등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4) : 금융교육 및 금융 정보 활동

다음으로 돈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해서도 중학생의 차이 검증 결과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다시 말해, 돈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의 인식, 즉 a) 인지적 측면, b) 감정적 측면, c) 행동적 차원의 인식에 있어 2점 이하 집단과 2점 초과 집단의 금융이해력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은 돈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인식 점수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2.5점)가 돈에 대한 행동차원 점수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1.5점)보다 크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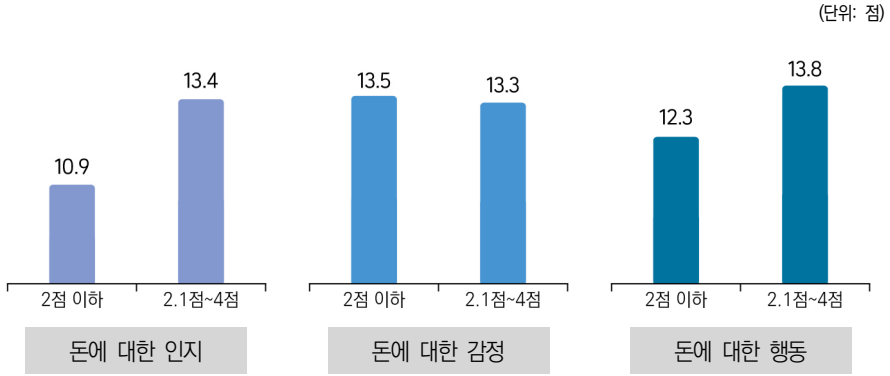


그림 IV-35. 고등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5) : 돈 인식·태도

이러 부정적 돈 사용태도와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도 중학생 검증 결과와 같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부정적 돈 사용태도의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의 금융이해력 점수(9.2점)가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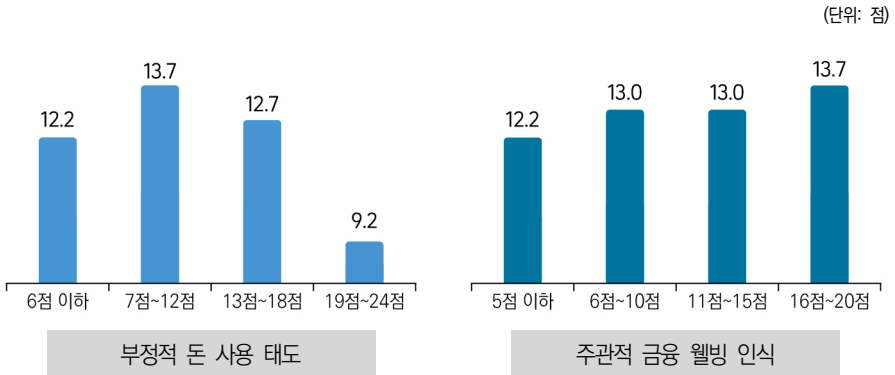


그림 IV-36. 고등학생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6) :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

3. 소결: 결과의 함의 및 실증모델 분석의 방향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본 장에서는 앞서 제2장에서 고찰된 이론 및 정책과 이슈 동향, 그리고 제3장에서 검토된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 및 FGI(초점집단면접조사)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생을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수집된 자료는 가중치를 반영하여 분석되었고, 총 8,758명(초등 2,870명, 중등 3,041명, 고등 2,847명)이 응답한 금융이해력 점수와 금융생활실태는 각 학교급별로 나누어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특히 금융이해력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특성 또한 학교급별로 나누어 차이 검증(t-test, GLM-test)을 실시하였음.
- 기술통계 분석과 차이검증을 통해 파악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전반적으로 학교급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금융이해력 점수는 높아지며,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금융지식점수, 여학생은 금융행위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현재 소비에 대한 선호가 학교급 및 학년이 올라갈수록 강해지는 특성을 보임.
 - ② 100점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3.5점, 중학생 61.9점, 고등학생 67.2점으로, 2022년 성인(18세-79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성인 전체 평균(66.5점)과 20대(65.8점)보다 높고, 경제활동률이 높은 연령대인 30대(69.0점)나 40대(68.9점)보다 낮은 수준임.
 - ③ 금융지식 측정 내용 중 초등학생은 금융회사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이해 점수가 가장 낮고, 중·고등학생은 성인 조사와 다르지 않게 복리에 대한 이해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④ 금융이해력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특성은 학교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비교해보면 학년과 부모의 학력이 공통적인 특성이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보면, 주관적 학업성취와 부모의 학력이 공통적인 특성으로 발견됨.
 - ⑤ 금융생활실태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특성들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다수 발견되나, 공통적인 것은 용돈 저축여부, 저축예좌 유무, 부모의 금융교육 수준, 금융정보활동 경험 유무, 돈에 대한 행동적 차원의 인식, 부정적 돈 사용 태도임.
 - ⑥ 금융이해력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특성과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는 특성은 같지 않음.
- 이상과 같은 기초통계분석은 수집된 자료 및 응답자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다음 제5장의 실증분석 모델의 선정과 투입변수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었음.

본 장에서는 초·중·고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체계적인 표본 설계 및 내용 설계, 그리고 조사방법을 통해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 자료를 초·중·고 학교급별로 나누어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특성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어떠한 특성과 생활실태가 금융이해력 수준에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단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우선 본 장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이 갖는 주요 결과이자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본 장에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실태조사, 즉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는 이제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표성 있는 금융이해력을 측정자료뿐만 아니라

금융생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전국의 초·중·고 재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된 첫 번째 대규모 표본조사이자 학령기 금융교육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확보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실태조사 자료는 초등학교 금융이해력의 일부 측정내용(금융태도)과 중·고생의 금융이해력 측정 내용은 기본적으로 성인 대상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와 기본적인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측정함으로써 10대 학령기의 금융이해력과 성인의 금융이해력조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었다.

예컨대 설문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 응답한 금융태도의 점수를 통해, 학교급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현재 소비 선호가 강해지는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낸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고,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61.9점)는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66.5점)보다 낮지만,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67.2점)는 성인보다 높으며, 특히 20대 청년(65.8점)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성인 대상 금융이해력조사의 연령 범위를 중·고생을 포함하여 측정한다면, 10대 학령기의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전략 및 정책도구나 수단으로서의 정책 사업이 성인기에 어떠한 효과를 갖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초·중·고생의 전반적인 금융이해력 수준은 학교급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이론 중 인지발달이나 생애과정 이론에 대한 타당성이 지지된다. 그러나 각 학교급별로 나누어 개인 및 부모 특성이나 금융생활실태에 따른 기초통계 분석과 차이 검증의 결과에 따르면 인지발달이론이나 생애과정이론뿐만 아니라, 계획된 행동이론과 사회학습이론, 자기결정이론과 함께 설명될 수 있는 사항이 적지 않다. 이는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이해하고 파악함에 있어 하나의 이론적 시각이나 틀(frame)로 작성된 조사도구나 그것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로 금융이해력 점수와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특성이 같지 않다는 차이 검증의 결과는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해 어떠한 요소와 요인에 우선적으로 또는 중점적으로 개입해야 하는가를 선택하는데 있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에 있어, 금융이해력 총 점수뿐만 아니라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 각각에 대한 실증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 제5장에서 분석될 실증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금융이해력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덧붙여 금융지식 점수, 금융행위 점수, 금융태도 점수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실증모형을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네 번째로 본 장에서 검증된 각 학교급별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분석된 특성에 따라 점수 차이가 작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동일한 학교급 내에서 금융이해력 수준의 차이가 있고, 특성에 따라서는 그 점수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금융이해력 점수의 크기를 추정하는 실증모형 뿐만 아니라, 점수가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 그리고 낮은 집단 각각에 어떠한 요인들이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 제5장에서 분석될 실증모형을 선정함에 있어 금융이해력 점수 수준에 따른 분석이 가능한 모형을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실증분석을 추진하고자 한다.



제5장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요인 실증 모델 분석

- 1. 실증분석 모델의 구성
- 2.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요인
분석 : Robust OLS 모델
- 3. 분위별 영향요인 분석:
Quantile Regression 모델
- 4. 소결 : 주요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실증분석 모델의 구성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본 연구의 학교급별 초·중·고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 모델로 두 가지, 즉 ①오차항의 이분산성의 문제를 보정할 수 있는 Robust OLS 모델과 ②금융이해력 수준에 따른 분위별 영향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Quantile Regression 모델을 선정하였음.
- 실증분석 모델의 종속변수가 되는 금융이해력 수준의 점수 산정 기준은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의 점수산정 방식을 준용하였고, 설명변수는 실태조사 응답자의 개인 및 부모특성과 금융생활실태 문항으로 측정된 문항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을 참조하여 연속변수 또는 가변수 형태로 투입하였으며, 투입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제시하였음.

1) 실증분석 모델의 선정

(1) 모델 선정을 위한 검토

실증분석에서는 금융이해력과 이를 구성하는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금융이해력 수준에 따른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각 영향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분석하는 데 가장 적절한 분석 모형을 검토한 후 최종 분석 모델을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될 금융이해력과 구성 3요소의 경우, 금융지식은 응답의 정답수에 따라 0~7점, 금융행위는 응답에 따라 0~9점, 금융태도는 응답에 따라 0~4점으로 산정되며, 이를 합산한 금융이해력은 0~20점까지 산정된다. 이를 고려할 때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 모형으로 최소제곱법(OLS: Ordinary Least Square, 이하 OLS)을 이용한 모수 추정 방식의 회귀모형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였다. OLS를 적용한 추정량이 최우수 선형불편추정량(BLUE: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이 되기 위

* 이 장의 김지경 선임연구위원과 송현주박사가 함께 분석하고,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해서는 선형 모형일 것, 오차항의 기댓값은 0일 것, 오차항은 동분산일 것, 오차항은 서로 독립적일 것, 오차항은 정규분포를 이룰 것과 같은 다섯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민인식, 최필선, 2009, pp. 124, 139).

본 연구에서 이러한 다섯 가지 가정을 검토한 결과, 오차항이 동분산이 아닌 이분산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이러한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자료를 분석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분산성을 제대로 포착하는 모형이나 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분산성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선책으로 최소제곱(OLS) 방법으로 추정하되, 왜곡이 발생하는 추정계수 표준오차를 수정하여 적절한 값을 갖도록 하는 방법(민인식, 최필선, 2009, p.211)을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함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y_i = \beta_0 + \beta_1 x_{1i} + \beta_2 x_{2i} + \dots + \beta_k x_{ki} + e_i \quad (i = 1, 2, 3, \dots, n)$$

여기서 y_i 는 종속변수, x_k 는 설명변수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금융이해력의 수준에 따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이해력 수준에 따른 영향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검토하였다. 우선 금융이해력의 특정 수준에서의 계수 추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표본을 분위별로 나누어 개별 집단별 OLS를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추정 계수가 왜곡되므로 OLS를 적용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최종 선정하였다.

분위회귀분석은 Koenker & Bassett(1978)에 의해 소개된 분석 방법으로, 원래 오차의 정규성이 충족되지 않아 OLS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적용할 수 없을 때의 대안으로 제안되었으나, 최근에는 종속변수의 조건부 분포에 따른 효과를 추정할 때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OLS를 이용한 회귀분석은 조건부 평균값을 중심으로 하는 선형모형을 이용하지만, 분위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조건부 분위기를 중심으로 하는 선형모형을 사용하기

12) 본 연구의 모든 모형분석에는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가중치 부여 시 동분산 검정이 불가능하여 가중치를 제외한 회귀모형의 동분산 검정 결과(Breusch-Pagan/ Cook-Weisberg test for heteroskedasticity : Ho=constant variance 기각), 이분산으로 나타남(제4장의 각주 8)의 내용 참조.

때문에 분위별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적합했다. 분위회귀분석에서는 임의로 표본을 선택하지 않고 모든 표본을 사용하면서 분위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주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택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분위회귀분석은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잔차의 절대치의 합을 최소화하는 값이기 때문에 잔차의 이분산성이나 표본의 이상값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분위회귀분석 함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y_i = \beta_\tau x_i + u_{\tau i}, \quad Q_\tau(y_i | x_i) = \beta_\tau x_i \quad (i = 1, 2, 3, \dots, n)$$

여기서 y_i 와 x_i 는 각각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를 나타내며, β_τ 는 τ -분위 계수값, $u_{\tau i}$ 는 오차항을 의미하며 특정한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다. 또한 $Q_\tau(y_i | x_i)$ 는 설명변수 x_i 가 주어졌을 때 종속변수 y_i 의 τ 번째 조건부 분위(conditional quantile)이며, 모든 i 에 대해 $Q_\tau(u_{\tau i} | x_i) = 0$ 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분위회귀계수인 β_τ 의 추정치를 산출할 때는 해당 τ -분위에서 오차항의 가중치를 최소화함으로써 얻는다. 분위회귀계수를 구하는 아래의 식에서 τ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양(+)의 오차에는 τ 의 가중치를, 음(-)의 오차에는 $1 - \tau$ 의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즉 50% 분위라면 위아래로 동일한 관측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차의 반은 양(+)의 값을 갖고, 반은 음(-)의 값을 갖도록 제약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하게 된다. 같은 논리로 10%분위의 경우 90% 잔차에는 양(+)의 값을 갖고 10%는 음(-)의 값을 갖도록 제약한 후 계수 추정이 이루어진다.

$$\text{Min} \left[\sum_{y_i > \beta x_i} \tau | y_i - \beta x_i | + \sum_{y_i < \beta x_i} (1 - \tau) | y_i - \beta x_i | \right]$$

분위회귀분석 시 금융이해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조건부 분위기를 어느 지점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우선 금융이해력을 4분위로 나누어 25%, 50%, 75%로 설정해보았으나 각 지점에서의 금융이해력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4분위는 금융이해력 수준의 이질성을 나타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종으로는 금융이해력을 10분위로 나누어 10%(하위 10%), 50%, 90%(상위 10%) 분위로 설정한 후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은

학생, 중간인 학생, 높은 학생의 분위회귀계수를 추정하였다.

이상의 Robust OLS 회귀분석과 분위회귀분석에는 모두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2) 분석 변수의 선정 및 구성

실증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금융이해력으로, 이는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의 3요인으로 구성된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측정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급별로 <표 IV-3>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다르게 산출된 금융지식 점수(총 7점 만점), 금융행위 점수(총 9점 만점), 금융태도 점수(총 4점 만점), 그리고 이들의 총합인 금융이해력 점수(총 20점 만점)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는 크게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부모와 가족 특성, 용돈 및 수입활동 경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 금융교육 경험, 금융정보 및 금융피해 경험, '돈' 및 금융웰빙에 대한 인식의 7가지 특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금융정보 및 금융피해 경험은 중·고등학생만 측정된 특성이다.

우선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남, 여¹³⁾), 거주지역(특별/광역시, 중소도시, 읍/면/도서지역)은 가변수 형태로, 학년은 연속변수로 하여 초·중·고 분석모형에 모두 투입하였다. 주관적 학업성취수준(1. 매우 못함~5. 매우 잘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형에 연속변수 형태로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고교 유형(특성화 고교, 그 외 일반/자율/특목)은 가변수 형태로 고등학생 모형에만 추가되었다.

부모 및 가족 특성으로 가족유형(양부모 가족, 그 외 한부모, 조손 등), 부모 맞벌이 여부(해당, 비해당), 금융업 종사 부모 유무(있음, 없음), 아버지 최종학력(고졸 이하, 대졸 이상), 어머니 최종학력(고졸 이하, 대졸 이상)을 모두 가변수 형태로 포함되었다.

용돈 및 수입활동 경험으로 용돈 받는 형태(안 받음, 정기적으로 받음, 비정기적으로 받음)와 용돈 저축 여부(일정 금액 반드시 저축, 그 외)는 가변수 형태로, 월 용돈 금액은 로그값을 취해 연속변수로 포함되었다. 그 밖에 용돈 외 수입활동의 3가지 경험(아르바이트, 부모 일 도움, 가지고 있는 것 판매/거래)은 모두 유무(있음, 없음)를 나타내는 가변수로 형태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형에 추가되었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으로 내가 직접 가입한 4가지 금융상품(예/적금, 주식, 가

13) 아래 바 '로 표기된 항목은 가변수의 준거집단을 나타내며(이하 동일), 가변수로 측정되는 범주형 측정값은 모델분석에 앞서 기술통계를 통해 사전에 해당 관측치 수를 파악하고 재범주화 하였음.

상화폐, 저작권)은 모두 유무(있음, 없음)로 측정된 가변수 형태이고, 체크카드 사용유형(사용 안함, 내 카드만 사용, 내 카드와 부모카드 사용)과 선불충전방식 카드 사용여부(사용 함, 사용 안함)도 가변수로 하여 모형에 투입되었다. 내 명의 체크카드 첫 사용시기와 선불충전방식 카드 첫 가입 시기는 초등학생(저학년, 고학년), 중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에 해당하는 가변수로 포함되었다.

금융교육 경험으로 부모의 금융교육 수준(연속)은 초·중·고 모형에 모두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경험과 학교 이외 곳에서 금융교육 경험(있음, 없음)은 모두 가변수 형태로 투입되었다. 학교에서 금융교육 받은 시기와 학교 이외 곳에서 금융교육 받은 시기는 초등학생(저학년, 고학년), 중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에 해당하는 가변수로 포함되었다. 학교에서의 금융교육경험 4종류(경제·금융교과목 이수 경험, 사회/실과(가정) 과목에서 활동수업 경험, 외부강사 강의 경험, 동영상 강의 시청 경험)는 유무(있음, 없음)를 나타내는 가변수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분석모형에 포함되었다.

금융정보 활동 및 금융피해 경험은 중학생과 고등학생만 측정하였다.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 경험 유무(있음, 없음), 금융정보활동 계기(주식, 비트코인 붐이 일어났을 때, 관련 수업으로 관심/흥미가 생겨서, 부모님이 알아야 한다고 해서 등)는 가변수 형태로 분석 모형에 투입하였고, 금융피해경험과 금융피해 경험의 3가지 종류(상품권/아이템깡, 폰테크, 소액대출 대리입금)는 유무(있음, 없음)를 나타내는 가변수로 투입되었다.

‘돈’ 및 금융웰빙에 대한 인식에서는 돈에 대한 3가지 차원의 인식(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각각의 평균 점수를 연속변수로, 부정적 돈 사용태도 및 인식 문항들의 합산 점수 역시 연속변수로 포함되었다.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 수준의 경우 측정문항들의 총점을 역산하여 연속변수 형태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분석모델에 추가되었다.

이러한 분석변수들을 투입한 회귀모형의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남에 따라 분석모형에서 설명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종속변수의 변수 생성 기준은 <표 V-1>에 제시하였으며, 분석에 투입된 모든 변수들의 구성에 대한 정보는 <표 V-2>에 제시하였다.

표 V-1. 금융이해력 변수 생성 기준

구분	영역	문항	측정내용	배점	정답	정답률 ^{주1)}	점수 산정 ^{주2)}
초등 학생	금융 지식	1번	신용관리	1	1	95.0	정답=1점, 그 외=0점
		2번	금융회사의 성격	1	2	43.2	
		3번	소득 종류	1	4	77.3	
		4번	저축 습관	1	3	78.0	
		5번	적절한 금융회사	1	3	38.6	
		6번	지출 우선순위	1	2	94.2	
		7번	미래 위험 대비 방법	1	4	93.2	
		8번	개인정보 보호 방법	0	4	88.6	
		계	금융지식 총 점수	7점			정답 수 총합
	금융 행위	9번	예산(용돈)관리	2			1)의 응답이 '①예'=1점, 그 외 =0점 2)의 응답이 '①예'=1점, 그 외 =0점
		10번	적극적인 저축활동	1			1)~5) 중 하나라도 '①예' 응답=1점, 그 외 =0점
		11번	신중한 구매	2			①~② 응답= 0점, ③=1점, ④=2점
		12번	청구대금 적기 지급	2			①~② 응답= 0점, ③=1점, ④=2점
		13번	평소 재무상황 점검	1			①~② 응답= 0점, ③~④ 응답=1점
		14번	장기 재무목표 설정	1			①~② 응답= 0점, ③~④ 응답=1점
		계	금융행위 총 점수	9점			점수 총합
	금융 태도	17번	저축보다 소비 선호	1.33333			①전혀 동의안함=1.33333점 ②별로 동의안함=1.0점 ③대체로 동의=0.33333점 ④매우동의=0점
		18번	미래보다 현재 선호	1.33333			
		19번	돈을 쓰기 위해 존재	1.33333			
		계	금융태도 총 점수	4점			
중·고등 학생	금융 지식	2번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1	3	83.9 87.1	정답=1점, 그 외=0점
		3번	이자개념의 이해	1	1	78.0 85.3	
		4번	단리 계산	1	2	79.0 83.4	
		5번	복리개념의 이해	1	2	36.6 44.3	

구분	영역	문항	측정내용	배점	정답	정답률 ^{주1)}	점수 산정 ^{주2)}
		6번	위험과 수익 간 관계	1	1	91.2 92.5	
		7번	인플레이션 의미	1	1	45.1 59.3	
		8번	분산투자 개념	1	1	55.5 69.2	
		계	금융지식 총 점수	7점			정답 수 총합
금융 행위		9번	예산(용돈)관리	1			1) 또는 2)의 응답이 '①예'=1점, 그 외 =0점
		10번	적극적인 저축활동	1			1)~7) 중 하나라도 '①예' 응답=1점, 그 외 =0점
		11번	신중한 구매	1			①~② 응답= 0점, ③~④ 응답=1점
		12번	청구대금 적기 지급	1			①~② 응답= 0점, ③~④ 응답=1점
		13번	평소 재무상황 점검	1			①~② 응답= 0점, ③~④ 응답=1점
		14번	장기 재무목표 설정	1			①~② 응답= 0점, ③~④ 응답=1점
		15번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번의 1) 또는 6)에 '①활용했음'에 응답이 있으면=2점 • 2점 받지 않은 응답자 중 2)~5), 7)에 '①활용했음'에 응답이 있으면=1점 • 15번의 '②없다' 응답=0점
		16번	적자 해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번-1의 1)~4)에 '①활용했음'에 응답이 있으면=1점 • 1점 받지 않은 응답자 중 16번-1의 5)~8)에 '①활용했음'에 응답이 있으면=0점 • 16번의 '②없다' 응답=0점
계	금융행위 총 점수	9점			점수 총합		
금융 태도		17번	저축보다 소비 선호	1.33333			①전혀 동의안함=1.33333점
		18번	미래보다 현재 선호	1.33333			②별로 동의안함=1.0점
		19번	돈은 쓰기 위해 존재	1.33333			③대체로 동의=0.33333점
		계	금융태도 총 점수	4점			④매우동의=0점 점수 총합

주1) 정답률은 '모름/무응답'까지 포함한 정답자/전체응답자의 비율이며, 중학생, 고등학생 순임.

주2) 「2022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 점수 산정 방식 준용

표 V-2. 분석 변수 구성

구분	변수	측정 척도 및 준거집단	변수 유형	비고	
종속 변수	금융이해력 점수	금융지식+금융행위+금융태도 점수 총합	연속	공통	
	- 금융지식 점수	총 7점	연속	공통	
	- 금융행위 점수	총 9점			
	- 금융태도 점수	총 4점			
① 사회·인구학적 특성					
설명 변수	성별	1= 남학생, (0=여학생)	더미	공통	
	학년	[초등] 1=4학년, 2=5학년, 3=6학년 [중·고등] 1=1학년, 2=2학년, 3=3학년	연속		
	거주 지역	1= 특별/광역시, (0=중소도시), 2= 읍/면/도서지역	2개 더미		
	고교 유형	1=특성화고교, (0= 그 외 일반/자율/특목)	더미	고교생만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	1.매우 못함 ~ 5. 매우 잘함	연속	중·고생만	
	② 부모 및 가족 특성				
	가족유형	1=양부모가족, (0= 그 외 한부모, 조손 등)	더미	공통	
	부모 맞벌이 여부	1=해당, (0=비해당)	더미		
	금융업 종사 부모 유무	1=있음, (0=없음)	더미		
	아버지 최종학력	1=대졸이상, (0=고졸이하)	더미		
어머니 최종학력		더미			
③ 용돈 및 수입활동 경험					
용돈 받는 형태	1=정기적으로 받음, (0=안받음) 2=비정기적으로 받음	2개 더미	공통		
월 용돈 금액	만원 단위 금액의 로그값	연속			
용돈 저축여부	1=일정금액 반드시 저축, (0= 그 외)	더미			
용돈 외 수입활동_아르바이트	1= 있음, (0=없음)	더미	중·고생만		
용돈 외 수입활동_부모 일 도움					
용돈 외 수입활동_가지고 있는 것 판매/거래 (21-1)③~⑥)					
용돈 외 수입 저축여부	1=일정금액 반드시 저축, (0= 그 외)	더미			

구분	변수	측정 척도 및 준거집단	변수 유형	비고
④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	내가 직접 가입한 예/적금	1= 있음, (0=없음)	더미	공통
	내가 직접 가입한 주식			
	내가 직접 가입한 가상			
	내가 직접 가입한 저작권			
	체크카드 사용 유형	1=내 카드만 사용, (0=사용안함) 2=내 카드와 부모카드 모두 사용	2개 더미	
	내 명의 체크카드 첫 사용 시기	1=저학년, (0=고학년) / 1=초등학생, (0=중학생) 2=고등학생	2개 더미	
	선불충전방식 카드 사용 여부	1=사용함, (0=사용안함)	더미	
	선불충전방식 카드 첫 가입 시기	1=저학년, (0=고학년) / 1=초등학생, (0=중학생) 2=고등학생	2개 더미	
⑤ 금융교육 경험	부모의 금융교육 수준	4점 척도로 측정된 7개 항목 총점	연속변수	공통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경험 유무	1= 있음, (0=없음)	더미	공통
	학교에서 경제·금융과목 이수 경험	1= 있음, (0=없음)	더미	중·고생만
	학교에서 사회·실과(가정) 과목에서 활동수업 경험			
	학교에서 외부강사 강의 경험			
	학교에서 동영상 강의 시청 경험			
	학교에서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1=저학년, (0=고학년) / 1=초등학생, (0=중학생) 2=고등학생	2개 더미	공통
	학교 이외 곳에서 금융교육 경험 유무	1= 있음, (0=없음)	더미	
학교 이외 곳에서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1=저학년, (0=고학년) / 1=초등학생, (0=중학생) 2=고등학생	2개 더미		
⑥ 금융정보 활동 및 금융피해 경험	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 경험 유무	1= 있음, (0=없음)	더미	중·고생만
	금융정보 활동 계기	1= 주식, 비트코인 붐이 일어났을 때 (0= 부모님이 알아야 한다고 해서 등) 2= 관련 수업으로 관심/흥미가 생겨서	2개 더미	

구분	변수	측정 척도 및 준거집단	변수 유형	비고
	금융피해경험 유무	1= 있음, (0=없음)		
	금융피해경험_상품권, 아이템강			
	금융피해경험_폰테크	1= 있음, (0=없음)	더미	
	금융피해경험_소액대출 대리입금			
	⑦ '돈' 및 금융웰빙에 대한 인식			
	인자적 차원의 돈에 대한 인식			
	감정적 차원의 돈에 대한 인식	4점 척도로 측정된 각 2개 항목 평균	연속	공통
	행동적 차원의 돈에 대한 인식			
	부정적 돈 사용 태도 및 인식	4점 척도로 측정된 6개 항목 총점 (초등 3개 항목)	연속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 수준	4점 척도로 측정된 5개 항목 총점 역산	연속	

주) 분석 사례수 확보를 위하여 금융이해력 산정 시 개별문항의 모름/무응답은 0으로 처리하여 합산하였음.
그 외 개별 연속변수들의 모름/무응답의 경우는 평균대체 하고, 명목변수들의 모름/무응답은 더미변수 처리 시 '0' 으로 처리함.

2) 분석 변수의 기초 통계량

(1) Robust OLS Model의 기초통계량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모델 분석에 앞서, 모델에 투입되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표 V-3>과 같이 분석하였다. 분석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실증분석 결과에 앞서 살펴보는 것은 분석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변수 투입과정에서의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종속변수로 투입되는 금융이해력 점수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총 20점 중 평균 12.70점, 중학생 12.39점, 고등학생 13.43점 수준이다.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3요소를 살펴보면, 금융지식은 총 7점 중 초등학생 5.2점, 중학생 4.69점, 고등학생 5.21점이고, 금융행위는 총 9점 중 초등학생 5.25점, 중학생 5.77점, 고등학생 6.44점이며, 금융태도는 총 4점 중 초등학생 2.26, 중학생 1.93, 고등학생 1.78점 수준이다.

이어 설명변수는 크게 7가지(①사회인구학적 특성, ②부모 및 가족 특성, ③용돈 및 수입활동 경험, ④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 ⑤금융교육 경험, ⑥금융정보 활동 및 금융 피해, ⑦'돈' 및 금융웰빙에 대한 인식)로 구성되었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를 살펴보면, 더미변수로 투입되는 성별은 남학생이 51%, 여학생이 48% 내외를 차지한다. 연속변수로 투입되는 학년은 표본설계의 영향으로 대략 33% 내외로 유사한 비중이다. 중소도시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두 개의 더미변수로 투입되는 거주지역 규모 또한 확률표집이라는 표본설계의 영향으로 서울이 39% 내외, 중소도시가 49% 내외, 읍/면/도서지역이 12% 내외로 구성되었다. 고등학생 분석모델에 추가되는 고교유형을 살펴보면, 특성화고등학교의 비율이 19.1%, 그 외 일반/자율/특목고의 비율이 80.9%를 차지한다. 또 중학생과 고등학생 분석모델에 5점 척도(1. 매우 못함~5. 매우 잘함)로 측정되어 연속변수로 투입되는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의 경우, 중학생이 3.18점, 고등학생이 2.95점 수준이다.

다음으로 부모 및 가족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더미변수로 분석되는 양부모가족의 비율이 초등학생은 94.0%, 중학생 91.5%, 고등학생 88.1%로 학교급에 따라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차이가 있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 또한 초등학생 62.6%, 중학생 67.6%, 고등학생 68.8%로 차이를 보이고, 부모의 금융업 조사여부도 초등학생 8.6%, 중학생 6.3%, 고등학생 5.9%로 다소 차이가 있다. 부모 학력의 경우, 중학생 부모의 대졸 이상의 비중(부: 37.2%, 모: 37.7%)이 초등학생(부: 56.1%, 모: 55.8%)이나 고등학생(부: 60.4%, 모: 60.9%)의 부모의 경우보다 낮은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이어 용돈 및 수입활동 경험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비율은 초등학생 48.8%, 중학생 57.3%, 고등학생 61.7% 이고, 월평균 용돈 금액은 초등학생 3.83만원, 중학생 4.2만원, 고등학생 8.23만원의 수준이며, 용돈의 일정금액을 반드시 저축하는 비율은 초등학생 18.7%, 중학생 16.6%, 고등학생 15.3% 이다. 용돈 외 수입활동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은 중학생 2.5%, 고등학생 17.5%이고, 부모님 일을 돕는 경우는 중학생 26.7%, 고등학생 20.6%, 가지고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는 중학생 21.8%, 고등학생 28.3%가 경험이 있다. 또 용돈 외 수입의 일정 금액을 반드시 저축하는 비율은 중학생 11.2%, 고등학생 10.7% 수준이다.

또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과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직접 가입한 예/적금 보유율은 초등학생 3.2%, 중학생 6.5%, 고등학생 12.5%이고, 주식계좌는 초등학생 1.9%, 중학생 3.2%, 고등학생 5.4%, 가상화폐는 초등학생 0.5%, 중학생 0.9%, 고등학생 2.1%, 저작권의 경우 초등학생 0.8%, 중학생 2.0%, 고등학생 2.7% 정도이다. 이어 본인 명의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은 초등학생 13.7%, 중학생 44.0%, 고등학생 63.1%로 학교급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선불충전방식 카드의 사용 비율도 같은 경향을 보이는데, 초등학생 15.4%, 중학생 53.6%, 고등학생 62.8% 이다.

다음으로 금융교육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먼저 7개 항목을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점수의 합을 산출(7점~28점)하여 반영한 부모의 금융교육 점수의 경우, 초등학생 14.17점, 중학생 14.65점, 고등학생 15.03점으로 학교급에 따라 점수가 다소 높아진다. 또한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유경험률의 경우 초등학생 37.1%, 중학생 33.2%, 고등학생 38.3%수준이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첫 시기는 초등학생의 경우 저학년때가 10.3%, 중학생은 초등학교 시기 17.5%, 중학생 시기 15.0%, 고등학생은 초등학생 시기 8.6%, 중학생 시기 20.8%, 고등학생 시기 7.5%이다. 학교 이외의 곳에서 금융교육을 받은 유경험률은 초등학생 21.8%, 중학생 5.4%, 고등학생 5.9%이고, 학교 이외의 곳에서 금융교육을 받은 첫 시기는 초등학생의 경우 저학년 시기 10.0%, 고학년 시기 11.2%,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 시기가 3.5%, 중학생 시기가 1.3%, 고등학생은 초등학생 시기가 1.7%, 중학생 시기 2.3%, 고등학생 시기 1.0%이다.

이러 금융정보활동 및 금융피해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의 유경험률은 중학생 24.6%, 고등학생 37.0%이고, 활동의 계기가 주식 및 비트코인 붐 때문인 것에 해당하는 비율은 중학생 7.0%, 고등학생 11.9%이고, 수업으로 관심이나 흥미가 생긴 것이 계기가 된 비율은 중학생 4.7%, 고등학생 8.9% 수준이다. 한편, 금융피해와 관련해서는 휴대폰 결제강 경험률이 중학생 5.8%, 고등학생 6.2%, 폰테크 경험률은 중학생 4.8%, 고등학생 7.5%, 소액대출 경험률은 중학생 4.0%, 고등학생 3.4% 수준이다.

다음으로 돈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금융웰빙에 대한 인식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돈에 대한 3가지(인지적 측면, 감정적 측면, 행동적 차원)요소는 각 2개 항목을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것을 합산(각 2점~8점)한 점수를 반영하였다. 먼저 돈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점수는 초등학생 3.31점, 중학생 3.55점, 고등학생 3.61점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다. 감정적 측면의 인식은 초등학생 2.09점, 중학생 2.27점, 고등학생 2.26점이다. 또 행동적 차원의 인식은 초등학생 2.97점, 중학생 2.79점, 고등학생 2.72점으로 초등학생의 점수가 가장 높다.

한편, 부정적 돈 사용태도 및 인식은 초등학생의 경우, 돈 빌리는 것과 관련한 3가지 항목을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여 합산(3점~12점)하였고, 평균 4.2점이다. 중·고생의 경우 여기에 부모 돈 사용에 대한 인식 3가지 항목을 추가하여

같은 방식으로 합산(6점~24점)한 점수로, 중학생 11.03점, 고등학생 11.10점이다. 끝으로 5가지 항목을 동일한 4점 척도로 중·고생에게 측정한 주관적 금융웰빙에 대한 인식의 합산 점수(5점~20점)는 중학생 16.48점, 고등학생은 이보다 다소 낮은 16.01점이다.

이상과 같은 기초통계량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이들 변수들의 실증모델, 즉 Robust OLS 모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표 V-3. 분석 변수의 기초통계량

구분	변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종속 변수	금융이해력(전체)	2,870	12.70	2.79	100.0	3,041	12.39	2.89	100.0	2,847	13.43	2.75	100.0				
	금융지식(전체)	2,870	5.20	1.25	100.0	3,041	4.69	1.53	100.0	2,847	5.21	1.53	100.0				
	금융행위(전체)	2,870	5.25	1.97	100.0	3,041	5.77	1.87	100.0	2,847	6.44	1.77	100.0				
	금융태도(전체)	2,870	2.26	0.91	100.0	3,041	1.93	0.92	100.0	2,847	1.78	0.88	100.0				
사회 인구학적 특성	성별(전체)	2,870	0.51	0.50	100.0	3,041	0.52	0.50	100.0	2,847	0.52	0.50	100.0				
	남학생	1,474			51.4	1,566			51.5	1,476			51.9				
	여학생	1,396			48.6	1,475			48.5	1,371			48.1				
	학년(전체)	2,870	1.99	0.82	100.0	3,041	2.03	0.82	100.0	2,847	2.00	0.82	100.0				
	4학년	976			34.0												
	5학년	950			33.1												
	6학년	945			32.9												
	1학년					970				964							33.9
	2학년					1,009				911							32.0
	3학년					1,062				972							34.2
지역규모	2,870	0.63	0.69	100.0	3,041	0.61	0.67	100.0	2,847	0.66	0.70	100.0					
서울/광역시	1,112			38.7	1,205				1,130								39.7
중소도시	1,415			49.3	1,510				1,349								47.4
읍/면/도서지역	343			12.0	327				369								12.9

구분	변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부모 및 가족특성	고교 유형																
	특성화 고교																
	그 외(일반/자율/특목)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																
	가족유형(전체)	2,870	0.94	0.24	100.0	3,041	3.18	1.04	100.0	2,847	0.88	0.32	100.0	2,847	0.19	0.39	100.0
	양부모	2,698			94.0	2,784			91.5	2,508			88.1				19.1
	그 외(한부모, 조손 등)	172			6.0	257			8.5	339			11.9				11.9
	부모 맞벌이 여부(전체)	2,870	0.63	0.48	100.0	3,041	0.68	0.47	100.0	2,847	0.69	0.46	100.0				
	해당	1,795			62.6	2,057			67.6	1,959			68.8				
	비해당	1,075			37.4	984			32.4	888			31.2				
금융업 종사 부모 여부(전체)	2,870	0.09	0.28	100.0	3,041	0.06	0.24	100.0	2,847	0.06	0.24	100.0					
있음	247			8.6	191			6.3	168			5.9					
없음	2,623			91.4	2,850			93.7	2,679			94.1					
아버지 최종 학력(전체)	2,870	0.56	0.50	100.0	3,041	0.63	0.48	100.0	2,847	0.60	0.49	100.0					
고졸 이하	1,260			43.9	1,909			62.8	1,129			39.6					
대졸 이상	1,610			56.1	1,132			37.2	1,718			60.4					
어머니 최종 학력(전체)	2,870	0.56	0.50	100.0	3,041	0.62	0.48	100.0	2,847	0.61	0.49	100.0					
고졸 이하	1,269			44.2	1,894			62.3	1,113			39.1					
대졸 이상	1,601			55.8	1,147			37.7	1,734			60.9					

구분	변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용돈 및 수입활동 경험	용돈 받는 형태(전체)	2,870	0.97	0.71	100.0	3,041	1.02	0.65	100.0	2,847	1.04	0.62	100.0
	인 빚음	772			26.9	616			20.3	485			17.0
	정기	1,402			48.8	1,744			57.3	1,757			61.7
	비정기	696			24.3	681			22.4	605			21.2
	월 용돈 금액(전체)	2,870	1.57	3.83	100.0	3,041	4.20	9.83	100.0	2,847	8.23	11.58	100.0
	용돈 지출 여부(전체)	2,870	1.05	0.90	100.0	3,041	1.09	0.91	100.0	2,847	1.04	0.92	100.0
	일정 금액 반드시 지출	537			18.7	504			16.6	437			15.3
	지출할 때도 안 할 때도 있음	1,244			43.3	1,406			46.2	1,265			44.4
	지출 안함	1,089			38.0	1,130			37.2	1,146			40.2
	용돈 외 수입활동_아르바이트(전체)					3,041	0.03	0.16	100.0	2,847	0.18	0.38	100.0
있음					76			2.5	499			17.5	
없음					2,965			97.5	2,348			82.5	
용돈 외 수입활동_부모 일 도움(전체)					3,041	0.27	0.44	100.0	2,847	0.21	0.40	100.0	
있음					812			26.7	586			20.6	
없음					2,229			73.3	2,261			79.4	
용돈 외 수입활동_가지고 있는 것 판매/거래(전체)					3,041	0.22	0.41	100.0	2,847	0.28	0.45	100.0	
있음					664			21.8	805			28.3	
없음					2,377			78.2	2,042			71.7	
용돈 외 수입 지출 여부(전체)					3,041	0.63	0.87	100.0	2,847	0.70	0.90	100.0	

구분	변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경험	일정 금액 반드시 저축					340							11.2	306				10.7		
	저축할 때도 안 할 때도 있음					783							25.7	843				29.6		
	저축 안함					1,918							63.1	1,698				59.6		
	내가 직접 가입한 예/적금 유무(전체)																			
	있음	2,870	0.03	0.18	100.0	3,041	0.07	0.25	100.0	2,847	0.12	0.33	100.0	2,847	0.05	0.23	100.0	2,847	0.12	0.33
	없음	93			3.2	198			6.5	355			12.5	355			12.5	355		
	없음	2,777			96.8	2,843			93.5	2,492			87.5	2,492			87.5	2,492		
	내가 직접 가입한 주식 유무(전체)																			
	있음	2,870	0.02	0.14	100.0	3,041	0.03	0.18	100.0	2,847	0.05	0.23	100.0	2,847	0.05	0.23	100.0	2,847	0.05	0.23
	없음	55			1.9	97			3.2	153			5.4	153			5.4	153		
	없음	2,815			98.1	2,944			96.8	2,694			94.5	2,694			94.5	2,694		
	내가 직접 가입한 가상화폐 유무(전체)																			
있음	2,870	0.00	0.07	100.0	3,041	0.01	0.10	100.0	2,847	0.02	0.14	100.0	2,847	0.02	0.14	100.0	2,847	0.02	0.14	
없음	13			0.5	28			0.9	61			2.1	61			2.1	61			
없음	2,857			99.5	3,013			99.1	2,786			97.9	2,786			97.9	2,786			
내가 직접 가입한 저작권 유무(전체)																				
있음	2,870	0.01	0.09	100.0	3,041	0.02	0.14	100.0	2,847	0.03	0.16	100.0	2,847	0.03	0.16	100.0	2,847	0.03	0.16	
없음	24			0.8	61			2.0	77			2.7	77			2.7	77			
없음	2,846			99.2	2,980			98.0	2,770			97.3	2,770			97.3	2,770			
체크카드 사용 유형(전체)																				
사용 안함	2,870	0.24	0.54	100.0	3,041	0.59	0.63	100.0	2,847	0.88	0.60	100.0	2,847	0.88	0.60	100.0	2,847	0.88	0.60	
내 카드만 사용	2,322			80.9	1,469			48.3	692			24.3	692			24.3	692			
내 카드와 부모카드 모두 사용	394			13.7	1,339			44.0	1,797			63.1	1,797			63.1	1,797			
내 카드와 부모카드 모두 사용	154			5.4	232			7.6	357			12.6	357			12.6	357			

구분	변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내 명의 카드 첫 사용 시기(전체)	2,870	0.36	0.74	100.0	3,041	0.94	0.93	100.0	2,847	1.71	1.00	100.0				
	저학년(1,2,3학년)	126			4.4												3.0
	고학년(4,5,6학년)	447			15.6												57.5
	초등학생					422			13.9	85			17.7				17.7
	중학생					1,209			39.8	1,636			57.5				57.5
	고등학생									503							17.7
	카드 사용 안함	2,296			80.0	1,411			46.3	624			21.9				21.9
	신불충전방식 카드 사용 여부(전체)	2,870	0.15	0.36	100.0	3,041	0.54	0.50	100.0	2,847	0.63	0.48	100.0				
	사용함	442			15.4	1,629			53.6	1,787			62.8				62.8
	사용안함	2,428			84.6	1,412			46.4	1,060			37.2				37.2
금융교육 경험	신불충전방식 카드 첫 사용시기(전체)	2,870	0.28	0.68	100.0	3,041	0.95	0.94	100.0	2,847	1.41	1.16	100.0				
	저학년(1,2,3학년)	76			2.6												
	고학년(4,5,6학년)	365			12.7												
	초등학생					372			12.2	58			2.0				2.0
	중학생					1,255			41.3	1,213			42.6				42.6
	고등학생									508			17.8				17.8
	카드 사용 안함	2,429			84.7	1,414			46.5	1,069			37.5				37.5
	부모의 금융교육 수준(전체)	2,870	14.17	4.30	100.0	3,041	14.65	4.19	100.0	2,847	15.03	4.28	100.0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경험 유무(전체)	2,870	0.37	0.48	100.0	3,041	0.33	0.47	100.0	2,847	0.38	0.49	100.0				

구분	변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있음	1,064			37.1	1,010			33.2	1,091			38.3				
	없음	1,806			62.9	2,031			66.8	1,756			61.7				
	학교에서 경제·금융과목 이수 경험(전체)					3,041	0.11	0.32	100.0	2,847	0.14	0.35	100.0				
	있음					340			11.2	401			14.1				
	없음					2,701			88.8	2,446			85.9				
	학교에서 사회, 실과(가정) 과목에서 활동수업 경험(전체)					3,041	0.22	0.41	100.0	2,847	0.26	0.44	100.0				
	있음					662			21.8	737			25.9				
	없음					2,379			78.2	2,110			74.1				
	학교에서 외부강사 강의 경험(전체)					3,041	0.21	0.41	100.0	2,847	0.23	0.42	100.0				
	있음					635			20.9	665			23.3				
	없음					2,406			79.1	2,182			76.7				
	학교에서 동영상 강의 시청 경험(전체)					3,041	0.21	0.41	100.0	2,847	0.24	0.43	100.0				
	있음					630			20.7	683			24.0				
	없음					2,411			79.3	2,164			76.0				
	학교에서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전체)	2,870	0.10	0.30	100.0	3,041	0.47	0.74	100.0	2,847	0.73	1.03	100.0				
	저학년(1,2,3학년)	294			10.3												
	고학년(4,5,6학년)																
	초등학생					532			17.5	244			8.6				
	중학생					455			15.0	593			20.8				

구분	변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고등학생																
	학교 금융교육 경험 없음	2,576			89.7	2,054			67.5	1,796			215				7.5
	학교 이외 곳에서 금융교육 경험 유무(전체)	2,870	0.22	0.41	100.0	3,041	0.05	0.23	100.0	2,847	0.06	0.24	100.0				
	있음	627			21.8	165			5.4	169			5.9				
	없음	2,243			78.2	2,877			94.6	2,678			94.1				
	학교 이외 곳에서 금융교육 받은 첫 시점(전체)	2,870	0.32	0.66	100.0	3,041	0.06	0.29	100.0	2,847	0.09	0.44	100.0				
	저학년(1,2,3학년)	286			10.0												
	고학년(4,5,6학년)	320			11.2												
	초등학생					107			3.5	50			1.7				
	중학생					39			1.3	65			2.3				
	고등학생					30			1.0	30			1.0				
	학교 이외 곳에서 금융교육 경험 없음	2,264			78.9	2,894			95.2	2,702			94.9				
	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 경험 유무(전체)					3,041	0.25	0.43	100.0	2,847	0.37	0.48	100.0				
	있음					747			24.6	1,054			37.0				
	없음					2,294			75.4	1,793			63.0				
금융정보 활용 및 금융피해	금융정보 활용 계기 주시, 비트코인 폼(전체)					3,041	0.07	0.26	100.0	2,847	0.12	0.32	100.0				
	예					213			7.0	339			11.9				
	아니오					2,828			93.0	2,508			88.1				
	금융정보 활용 계기 관련 수업으로 관심/흥미 생겨서(전체)					3,041	0.05	0.21	100.0	2,847	0.09	0.29	100.0				

구분	변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예					144			4.7	254			8.9
	아니오					2,897			95.3	2,593			91.1
	금융피해 경험_휴대폰 결제강(진제)					3,041	0.06	0.23	100.0	2,847	0.06	0.24	100.0
	있음					177			5.8	176			6.2
	없음					2,865			94.2	2,671			93.8
	금융피해 경험_포터크(진제)					3,041	0.05	0.21	100.0	2,847	0.08	0.26	100.0
	있음					146			4.8	215			7.5
	없음					2,895			95.2	2,632			92.5
	금융피해 경험_소액대출 대리인금					3,041	0.04	0.20	100.0	2,847	0.03	0.18	100.0
	있음					122			4.0	96			3.4
	없음					2,920			96.0	2,751			96.6
'돈' 및 금융 행위에 대한 인식	인저적 차원의 돈에 대한 인식(진제)	2,870	3.31	0.70	100.0	3,041	3.55	0.56	100.0	2,847	3.61	0.58	100.0
	강경적 차원의 돈에 대한 인식(진제)	2,870	2.09	0.77	100.0	3,041	2.27	0.80	100.0	2,847	2.26	0.84	100.0
	행동적 차원의 돈에 대한 인식(진제)	2,870	2.97	0.75	100.0	3,041	2.79	0.74	100.0	2,847	2.72	0.75	100.0
	부정적 돈 사용 태도 및 인식(진제)	2,870	4.20	1.60	100.0	3,041	11.03	2.52	100.0	2,847	11.10	2.66	100.0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수준					3,041	16.48	3.17	100.0	2,847	16.01	3.37	100.0

(2) 분위회귀모델(Quantile Regression Model)의 기초통계량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Robust OLS 모델 분석에 이어, 금융이해력 점수에 격차가 있기에 점수대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위회귀모델(Quantile Regression Model)의 실증분석에 앞서, 투입되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표 V-4>와 같이 분석하였다. 앞서 기술한 Robust OLS 모델에 투입되는 변수들과 동일하기에 여기에서는 특이하거나, 실증분석에 앞서 주목해야 하는 차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3가지 분위(하위 10%, 50%, 상위 10%)의 종속변수인 금융이해력과 구성의 3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의 점수를 살펴보면, 하위 10%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초등학교 20점 중 7.62점, 중학생 6.85점, 고등학생 7.78점 수준이고, 중위 50%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초등학교 12.49점, 중학생 12.21점, 고등학생 13.48점으로 하위 10% 분위와의 상당한 점수 차이를 보인다. 상위 10%의 경우 초등학교 15.61점, 중학생 15.36점, 고등학생 16.19점 수준이다.

이어 구성 3요소인 금융지식 점수를 살펴보면, 하위 10%의 경우 7점 중 초등학교 3.85점, 중학생 2.58점, 고등학생 2.84점이고, 중위 50%의 경우 초등학교 5.20점, 중학생 4.60점, 고등학생 5.32점, 상위 10%의 경우 초등학교 5.84점, 중학생 5.64점, 고등학생 6.05점으로 하위 10%와 큰 격차를 보인다. 또 금융행위 점수를 살펴보면, 하위 10% 분위의 초등학교는 9점 중 2.44점, 중학생 3.09점, 고등학생 3.76점이고, 중위 50%의 경우 초등학교 5.09점, 중학생 5.75점, 고등학생 6.43점이며, 상위 10%의 경우 초등학교 7.07점, 중학생 7.38점, 고등학생 7.82점으로 이 또한 상·하위 10%의 격차가 상당하다. 한편, 총 4점으로 측정된 금융태도를 살펴보면, 하위 10%의 경우 초등학교 1.33점, 중학생 1.18점, 고등학생 1.18점으로 낮고, 중위 50%의 경우 초등학교 2.20점, 중학생 1.86점, 고등학생 1.73점이며, 상위 10%의 경우 초등학교 2.71점, 중학생 2.34점, 고등학생 2.32점으로 점수 배점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큰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7가지로 구분한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위에 따른 특이사항과 주목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성별과 관련해서는 하위 10%와 중위 50% 분위에 남학생의 비중이 초·중·고 모두 상대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상위 10%에는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초등학교와 중학생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다. 부모의 학력과 관련하여 대졸 이상의 비율이 하위 10% 분위에

서 가장 낮고 금융이해력 점수 분위가 높아질수록 대출이상 부모의 구성비율도 높아진다. 이러한 경향성은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비율이나 용돈의 일부를 저축하는 비율, 용돈 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는 비율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입한 예/적금 보유와 주식계좌 보유 비율, 내 명의 체크카드 사용과 선불충전식 카드 사용 비율, 부모의 금융교육 점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은 상위 10% 분위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처음 받았다는 비율이 저학년 13.7%, 고학년 31.9%로 중위 50%(저학년 시기 12.8%, 고학년 시기 23.4%)나 하위 10%(저학년 시기 6.9%, 고학년 시기 19.0%)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적절한 금융교육에 노출되는 시기가 금융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이외의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 이외의 곳에서 금융교육을 경험한 비율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상위10%가 중위 50%나 하위 10%에 비해 초·중·고생 모두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상위 10% 분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 유경험인데, 상위 10%에서 중학생 41.2%, 고등학생 58.8%인데 반해, 중위 50%의 경우 중학생 14.7%, 고등학생 31.7%, 하위 10%의 경우 중학생 4.8%, 고등학생 8.4% 수준의 격차를 보인다. 이는 높은 수준의 금융이해력을 갖는데 자기 주도적 정보 탐색 및 학습이 중요한 역할 기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실증모델 분석을 통해 그 영향력 정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상위 10%와 하위 10%에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 있는데, 휴대폰 결제강과 같은 불법금융행위 경험의 경우, 중학생은 하위 10% 분위에서 7.7%로 고등학생은 상위 10%에서 11.1%로 경험률을 보인다. 이러한 금융피해 또는 불법금융행위 위외의 경험은 금융이해력이 높은 집단에서 악용하거나 금융이해력이 낮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실증모델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한 필요가 있다.

끝으로 돈에 대한 인식 및 부정적 돈사용 태도, 그리고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은 금융이해력이 높은 분위일수록 저수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그 점수의 격차가 그다지 크지는 않다.

표 V-4. 학교급별 금융이해력 3개 분위 기초통계량 비교

변수	T = -10												T = -90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표준 편차	구상치	평균 편차	표준 편차	구상치	평균 편차	표준 편차	구상치	평균 편차	표준 편차	구상치	평균 편차	표준 편차	구상치	평균 편차	표준 편차	구상치	평균 편차	표준 편차	구상치	평균 편차	표준 편차	구상치				
금융이해력(진체)	7.62	1.37	100.0	6.85	1.47	100.0	7.78	1.59	100.0	12.49	0.17	100.0	22.21	0.16	100.0	13.48	0.22	100.0	15.61	0.26	100.0	15.36	0.26	100.0	16.19	0.16	100.0	
금융지식(진체)	3.85	1.41	100.0	2.58	1.66	100.0	2.84	1.98	100.0	5.20	1.09	100.0	4.60	1.18	100.0	5.32	1.03	100.0	5.84	0.87	100.0	5.64	0.85	100.0	6.05	0.78	100.0	
금융행위(진체)	2.44	1.24	100.0	3.09	1.47	100.0	3.76	1.74	100.0	5.09	1.13	100.0	5.75	1.16	100.0	6.43	1.14	100.0	7.07	0.93	100.0	7.38	0.94	100.0	7.82	0.82	100.0	
금융태도(진체)	1.33	0.82	100.0	1.18	0.90	100.0	1.18	0.89	100.0	2.20	0.75	100.0	1.86	0.82	100.0	1.73	0.75	100.0	2.71	0.64	100.0	2.34	0.71	100.0	2.32	0.76	100.0	
성별(진체)	0.54	0.50	100.0	0.59	0.49	100.0	0.56	0.50	100.0	0.53	0.50	100.0	0.53	0.50	100.0	0.52	0.50	100.0	0.48	0.50	100.0	0.48	0.50	100.0	0.53	0.50	100.0	
남학생	54.5			59.3			56.0			53.0			53.1			52.2			52.2			47.8			48.1			52.9
여학생	45.5			40.7			44.0			47.0			46.9			47.8			47.8			52.2			51.9			47.1
학년(진체)	1.91	0.81	100.0	2.03	0.79	100.0	1.98	0.82	100.0	2.06	0.82	100.0	2.01	0.85	100.0	2.02	0.82	100.0	2.10	0.79	100.0	2.15	0.78	100.0	2.11	0.83	100.0	
4학년/1학년	37.1			29.6			34.8			30.5			35.7			32.8			32.8			26.8			23.9			29.7
5학년/2학년	34.5			37.7			32.2			33.2			27.2			32.7			32.7			36.9			36.7			30.0
6학년/3학년	28.4			32.6			33.0			36.3			37.1			34.5			34.5			36.3			39.4			40.4
지역구분	0.60	0.71	100.0	0.62	0.71	100.0	0.64	0.70	100.0	0.63	0.69	100.0	0.63	0.68	100.0	0.67	0.71	100.0	0.67	0.67	100.0	0.66	0.64	100.0	0.69	0.68	100.0	
서울/광역시	33.5			35.5			38.1			39.2			39.7			39.1			39.1			44.2			47.2			44.7
중소도시	53.3			51.3			48.8			48.7			48.9			46.8			46.8			44.3			43.5			44.7
읍/면/도지역	13.2			13.1			13.1			12.1			11.4			14.1			14.1			11.4			9.3			12.0

번호	T = 10						T = 50						T = 90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고교 유형							0.27	0.45	100.0				0.16	0.36	100.0				0.15	0.36	100.0			
특성화 고교							27.5						15.7						15.3					
그 외(일반/자율/특목)							72.5						84.3						84.7					
추관적 학업성취 수준							2.64	1.03	100.0	2.73	1.03	100.0							3.45	1.04	100.0	3.18	0.93	100.0
가족유형(전체)	0.91	0.29	100.0	0.88	0.33	100.0	0.81	0.40	100.0	0.94	0.23	100.0	0.93	0.26	100.0	0.96	0.19	100.0	0.88	0.32	100.0			
양부모			90.7				87.9		80.7		94.5		91.0		90.4		92.9		96.3		88.4			
그 외(한부모 조순 등)			9.3				12.1		19.3		5.5		9.0		9.6		7.1		3.7		11.6			
부모 맞벌이 여부(전체)	0.65	0.48	100.0	0.69	0.46	100.0	0.63	0.48	100.0	0.65	0.48	100.0	0.72	0.45	100.0	0.68	0.47	100.0	0.74	0.44	100.0	0.71	0.45	100.0
해당			64.7				69.1		63.0		64.8		69.6		72.3		68.1		74.5		71.1			
비해당			35.3				30.9		37.0		35.2		30.4		27.7		31.9		25.5		28.9			
부모 및 가족특성																								
금융업 종사 부모 여부(전체)	0.08	0.27	100.0	0.08	0.27	100.0	0.07	0.25	100.0	0.10	0.30	100.0	0.06	0.24	100.0	0.10	0.30	100.0	0.05	0.22	100.0	0.09	0.28	100.0
있음			7.7				8.1		6.7		10.3		3.7		5.9		9.9		4.8		8.8			
없음			92.3				91.9		93.3		89.7		96.3		94.1		90.1		95.2		91.2			
아버지 최종 학력(전체)	0.47	0.50	100.0	0.47	0.50	100.0	0.55	0.50	100.0	0.62	0.49	100.0	0.60	0.49	100.0	0.68	0.47	100.0	0.67	0.47	100.0	0.67	0.47	100.0
고졸 이하			52.9				52.6		45.0		38.3		38.7		40.0		32.1		32.7		33.3			
대졸 이상			47.1				47.4		55.0		61.7		61.3		60.0		67.9		67.3		66.7			

응답 및 수입활동 경험	T = .10						T = .50						T = .90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반수	어머니 최종 학력(진제)	0.49	0.50	100.0	0.46	0.50	100.0	0.55	0.50	100.0	0.60	0.49	100.0	0.58	0.49	100.0	0.64	0.48	100.0	0.67	0.47	100.0	0.68	0.47	100.0	0.66	0.48	100.0	
	고졸 이하	50.6	54.4	45.2	45.2	40.2	45.2	42.2	42.2	36.5	36.5	42.2	42.2	36.5	36.5	42.2	42.2	36.5	36.5	36.5	33.3	33.3	32.0	32.0	32.0	32.0	34.3	34.3	
	대졸 이상	49.4	45.6	54.8	54.8	59.8	59.8	57.8	57.8	63.5	63.5	57.8	57.8	63.5	63.5	57.8	57.8	63.5	63.5	63.5	66.7	66.7	68.0	68.0	68.0	68.0	65.7	65.7	
응답 받은 형태(진제)	응답 받은 형태(진제)	1.06	0.74	100.0	0.97	0.75	100.0	0.87	0.70	100.0	0.90	0.69	100.0	1.05	0.68	100.0	1.04	0.59	100.0	0.93	0.67	100.0	1.01	0.60	100.0	1.03	0.65	100.0	
	안 받음	24.9	29.4	31.5	29.4	28.8	28.8	20.7	20.7	15.2	15.2	20.7	20.7	15.2	15.2	20.7	20.7	15.2	15.2	26.4	26.4	17.4	17.4	17.4	17.4	19.7	19.7		
	장기	44.6	44.0	50.0	44.0	51.9	51.9	53.9	53.9	65.3	65.3	53.9	53.9	65.3	65.3	53.9	53.9	65.3	65.3	54.3	54.3	64.7	64.7	64.7	64.7	58.0	58.0		
월 용돈 금액(진제)	비정기	30.5	26.6	18.4	26.6	19.3	19.3	25.3	25.3	19.5	19.5	25.3	25.3	19.5	19.5	25.3	25.3	19.5	19.5	19.3	19.3	17.9	17.9	17.9	17.9	22.3	22.3		
	월 용돈 3,34	100.0	3.52	6.22	100.0	7.72	11.91	100.0	1.64	3.17	100.0	1.64	3.17	100.0	5.18	28.06	100.0	8.41	10.99	100.0	1.96	3.41	100.0	4.78	6.83	100.0	7.98	10.40	100.0
	월 용돈 0.25	100.0	0.06	0.24	100.0	0.04	0.21	100.0	0.16	0.36	100.0	0.12	0.33	100.0	0.15	0.36	100.0	0.28	0.45	100.0	0.28	0.45	100.0	0.25	0.43	100.0	0.21	0.41	100.0
응답 지속 여부(진제)	응답 지속 여부(진제)	0.07	0.25	6.8	6.8	6.2	6.2	4.5	4.5	15.5	15.5	12.5	12.5	15.4	15.4	12.5	12.5	15.4	15.4	27.6	27.6	24.7	24.7	24.7	24.7	21.4	21.4		
	일정 금액 반드시 지출	93.2	93.8	95.5	93.8	84.5	84.5	87.5	87.5	84.6	84.6	87.5	87.5	84.6	84.6	87.5	87.5	84.6	84.6	72.4	72.4	75.3	75.3	75.3	75.3	78.6	78.6		
	그 외	0.02	0.13	100.0	0.13	0.34	100.0	0.02	0.14	100.0	0.18	0.39	100.0	0.02	0.14	100.0	0.18	0.39	100.0	0.04	0.20	100.0	0.19	0.39	100.0	0.21	0.41	100.0	
응답 외 수입활동_아르바이트(진제)	응답 외 수입활동_아르바이트(진제)	0.02	1.8	13.4	1.8	13.4	13.4	2.0	2.0	18.4	18.4	2.0	2.0	18.4	18.4	2.0	2.0	18.4	18.4	95.8	95.8	95.8	95.8	95.8	95.8	81.0	81.0		
	있음	0.16	0.36	100.0	0.14	0.35	100.0	0.24	0.43	100.0	0.17	0.38	100.0	0.24	0.43	100.0	0.17	0.38	100.0	0.33	0.47	100.0	0.26	0.44	100.0	0.26	0.44	100.0	
	없음	15.6	15.6	14.1	15.6	14.1	14.1	23.6	23.6	17.2	17.2	23.6	23.6	17.2	17.2	23.6	23.6	17.2	17.2	33.1	33.1	33.1	33.1	33.1	33.1	26.0	26.0		

번호	T = 10						T = 50						T = 90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없음		84.4		85.9		76.4		82.8							66.9		84.0							
운동 외 수인활동 가지고 있는 것 판매/거래(전체)		0.10	0.30	100.0	0.19	0.39	100.0		0.20	0.40	100.0	0.26	0.44	100.0	0.35	0.48	100.0	0.38	0.49	100.0				
있음			10.2		19.0		19.7			19.7		25.9			34.9		37.6							
없음			89.8		81.0		80.3			80.3		74.1			65.1		62.4							
운동 외 수인 활동 여부(전체)		0.29	0.70	100.0	0.48	0.84	100.0		0.54	0.85	100.0	0.68	0.90	100.0	0.91	0.89	100.0	0.90	0.91	100.0				
일정 금액 반드시 저축			1.9		3.2		6.8			6.8		8.5			20.9		15.9							
저축 할 때도 인할 때도 있음			13.7		22.5		23.7			23.7		29.9			35.2		36.9							
저축 안함			84.4		74.3		69.5			69.5		61.6			44.0		47.2							
내가 직접 가입한 예/적금 유무(전체)	0.02	0.14	100.0	0.02	0.14	100.0	0.02	0.14	100.0	0.05	0.23	100.0	0.07	0.26	100.0	0.06	0.24	100.0	0.11	0.31	100.0	0.17	0.38	100.0
있음		2.1		2.0		11.5		2.1		5.3		7.4			6.2		10.7				10.7		16.9	
없음		97.9		98.0		88.5		97.9		94.7		92.6			93.8		89.3				89.3		83.1	
내가 직접 가입한 주식 유무(전체)	0.00	0.07	100.0	0.01	0.10	100.0	0.01	0.10	100.0	0.04	0.21	100.0	0.04	0.19	100.0	0.04	0.19	100.0	0.05	0.22	100.0	0.09	0.29	100.0
있음		0.4		1.0		3.6		1.0		4.4		3.9			3.7		4.9				4.9		9.0	
없음		99.6		99.0		96.4		99.0		95.6		96.1			96.3		95.1				95.1		91.0	
내가 직접 가입한 가상화폐 유무 (전체)	0.00	0.00	100.0	0.01	0.09	100.0	0.01	0.11	100.0	0.00	0.00	100.0	0.01	0.11	100.0	0.00	0.05	100.0	0.02	0.15	100.0	0.01	0.08	100.0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경험

변수	T = .10						T = .50						T = .90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있음	0.0	0.8	1.1	0.0	0.7	1.3	0.3	0.0	0.7	1.3	0.3	0.0	0.7	1.3	0.3	0.0	0.7	1.3	0.7
없음	100.0	99.2	98.9	100.0	99.3	98.7	100.0	99.7	99.3	98.7	99.7	100.0	99.7	99.3	99.7	100.0	99.7	98.7	99.3
내가 직접 기업한 자판기(전체)	0.01	0.08	0.03	0.17	0.01	0.03	0.07	0.01	0.08	0.03	0.16	0.01	0.09	0.01	0.04	0.21	0.02	0.14	0.04
있음	1.3	0.6	3.1	0.6	0.7	2.8	0.7	0.7	0.7	2.8	0.7	0.7	0.7	0.7	4.4	0.4	4.4	2.1	2.1
없음	98.7	99.4	96.9	99.4	99.3	97.2	99.3	99.3	99.3	97.2	99.3	99.3	99.3	99.3	95.6	0.6	95.6	97.9	97.9
체크카드 사용 유형(전체)	0.27	0.65	0.68	0.62	0.50	0.26	0.54	0.50	0.60	0.87	0.59	0.25	0.53	0.25	0.76	0.62	1.00	0.62	1.00
사용 안함	79.9	58.6	40.1	79.1	55.4	25.1	79.1	55.4	55.4	25.1	79.9	79.9	79.9	79.9	34.4	0.6	34.4	18.9	18.9
내 카드만 사용	13.4	32.9	51.5	16.1	39.1	63.0	16.1	39.1	39.1	63.0	15.4	15.4	15.4	15.4	55.5	0.6	55.5	62.2	62.2
내 카드와 부모카드 모두 사용	6.7	8.5	8.4	4.8	5.5	11.9	4.8	5.5	5.5	11.9	4.7	4.7	4.7	4.7	10.1	0.6	10.1	18.9	18.9
내 명의 카드 첫 사용 시기(전체)	0.36	0.75	1.35	0.93	0.76	0.93	0.75	1.00	0.85	0.92	1.16	0.38	0.76	0.38	1.17	0.88	1.00	1.88	1.88
저학년	5.1			4.7			4.7								3.5				
고학년	15.5			16.5			16.5								17.3				
초등학생		8.3	3.6		13.8	4.9		13.8							20.9				1.0
중학생		33.9	44.7		35.6	56.0		35.6							47.8				56.9
고등학생			14.1		80.7	16.8		80.7							31.2				24.4
내 명의 카드 사용 안함	79.5	57.8	37.6	78.9	80.7	22.4	78.9	80.7	80.7	22.4	79.2	79.2	79.2	79.2	31.2				17.7

번호	T = 10										T = 90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신불충전방식 카드 사용 여부(전체)	0.18	0.38	100.0	0.37	0.48	100.0	0.45	0.50	100.0	0.13	0.33	100.0	0.49	0.50	100.0	0.63	0.48	100.0	0.21	0.41	100.0	0.68	0.47	100.0	0.71	0.45	100.0		
사용함			17.6		37.5		44.7		48.9		63.0		21.5		67.6		71.0		21.5		67.6		71.0		21.5		67.6		
사용안함			82.4		62.5		55.3		51.1		37.0		78.5		32.4		29.0		78.5		32.4		29.0		78.5		32.4		
신불충전방식 카드 첫 사용시기 (전체)	0.31	0.70	100.0	0.71	0.95	100.0	0.94	1.11	100.0	0.23	0.63	100.0	0.87	0.94	100.0	1.43	1.18	100.0	0.38	0.76	100.0	1.17	0.89	100.0	1.64	1.13	100.0		
저학년			3.7								1.8										4.8								
초등학생			13.9		4.0		3.1		11.2		10.7										16.7						18.4		
중학생					33.1		32.3		37.7		41.4											49.2						46.2	
고등학생							8.6		19.6		19.6																23.6		
신불충전방식 카드 사용 안함			82.4		62.8		56.0		51.1		37.2										78.5						32.4		29.0
부모의 금융교육 수준(전체)	12.36	3.74	100.0	13.30	4.18	100.0	14.13	4.62	100.0	13.80	3.93	100.0	14.25	3.85	100.0	14.46	3.69	100.0	16.11	4.16	100.0	15.60	4.21	100.0	16.13	4.24	100.0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경험 유무 (전체)	0.27	0.44	100.0	0.17	0.37	100.0	0.27	0.44	100.0	0.36	0.48	100.0	0.29	0.45	100.0	0.36	0.48	100.0	0.47	0.50	100.0	0.47	0.50	100.0	0.41	0.49	100.0		
있음			26.8		16.6		27.0		28.7		36.1										46.9						47.1		41.4
없음			73.2		83.4		73.0		71.3		63.9										53.1						52.9		58.6
학교에서 경제·금융교육 이수 경험 (전체)			0.05	0.22	100.0	0.11	0.31	100.0	0.09	0.28	100.0	0.10	0.30	100.0	0.17	0.37	100.0	0.14	0.35	100.0	0.17	0.37	100.0	0.14	0.35	100.0			

번호	T = 10						T = 50						T = 90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있음		5.2		11.1				8.8		10.3					16.5		13.9				
없음		94.8		88.9				91.2		89.7				83.5		86.1					
학교에서 사회, 실과(가정) 과목에서 활동수업 경험(전체)		0.09	0.29	100.0	0.15	0.36	100.0	0.18	0.39	100.0	0.23	0.42	100.0	0.34	0.47	100.0	0.30	0.46	100.0		
있음		9.0		15.3				18.1		23.4				33.9		30.2					
없음		91.0		84.7				81.9		76.6				66.1		69.8					
학교에서 외부강사 강의 경험(전체)		0.10	0.31	100.0	0.19	0.39	100.0	0.16	0.37	100.0	0.20	0.40	100.0	0.29	0.45	100.0	0.26	0.44	100.0		
있음		10.5		19.2				16.5		20.0				28.8		26.1					
없음		89.5		80.8				83.5		80.0				71.2		73.9					
학교에서 동영상 강의 시청 경험 (전체)		0.09	0.29	100.0	0.18	0.39	100.0	0.16	0.37	100.0	0.22	0.42	100.0	0.30	0.46	100.0	0.29	0.46	100.0		
있음		9.0		18.2				15.8		22.1				30.3		29.4					
없음		91.0		81.8				84.2		77.9				69.7		70.6					
학교에서 금융교육 첫 시기(전체)	0.45	0.79	100.0	0.25	0.60	100.0	0.54	0.98	100.0	0.60	0.84	100.0	0.43	0.74	100.0	0.73	1.07	100.0	0.78	1.04	100.0
저학년		6.9						12.8						13.7							
고학년		19.0						23.4						31.9							
초등학생		7.1		4.9				12.9		4.2				28.4		10.7					

번호	T = 10						T = 90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중학생		8.8		14.4		15.0		21.3		18.4		22.2												
고등학생				6.7		8.7		8.7				7.7												
학교 금융교육 경험 없음	74.0		84.1		74.1		63.8		72.1		54.4		59.4											
학교 이외 곳에서 금융교육 경험 유무(전체)	0.14	0.34	100.0	0.03	0.18	100.0	0.08	0.26	100.0	0.21	0.41	100.0	0.32	0.47	100.0	0.13	0.34	100.0						
있음	13.6		3.3		7.5		21.3		3.0		4.5		32.1		8.3		12.8							
없음	86.4		96.7		92.5		78.7		97.0		95.5		67.9		91.7		87.2							
학교 이외 곳에서 금융교육 받은 최 시기(전체)	0.22	0.58	100.0	0.39	0.24	100.0	0.15	0.58	100.0	0.31	0.66	100.0	0.34	0.25	100.0	0.07	0.39	100.0	0.08	0.31	100.0	0.13	0.53	100.0
저학년	4.6						9.8						16.2											
고학년	8.6						10.7						15.2											
초등학생		1.9		0.9		1.3		1.8		1.3		2.1		1.8		6.2		1.2						
중학생		1.0		3.7		1.3		2.1		1.3		0.6		2.1		1.0		3.8						
고등학생				2.2		97.1		93.2		97.4		95.5		95.5		92.9		1.5						
학교 이외 금융교육 경험 없음	86.8		97.1		93.2		79.5		97.4		95.5		68.7		92.9		93.5							
금융정보 활용 및 경험 유무(전체)		0.05	0.21	100.0	0.08	0.28	100.0				0.15	0.35	100.0	0.32	0.47	100.0		0.41	0.49	100.0	0.59	0.49	100.0	

번호	T = 10						T = 50						T = 90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있음		4.8		8.4		14.7		31.7		41.2		58.8		88.8		93.4		100.0
없음		95.2		91.6		85.3		68.3		58.8		41.2		11.2		6.6		20.0
금융정보 활동 개근주식, 비트코인 본(전제)	0.02	0.14	100.0	0.02	0.15	100.0	0.04	0.21	100.0	0.13	0.34	100.0	0.11	0.32	100.0	0.19	0.40	100.0
예		2.0		2.2		4.5		13.3		11.2		8.8		19.5		80.5		80.5
아니오		98.0		97.8		95.5		86.7		88.8		80.5		0.07		0.25		100.0
금융정보 활동 개근 관련 수업으로 관심/흥미 생겨서(전제)	0.01	0.11	100.0	0.02	0.15	100.0	0.03	0.17	100.0	0.08	0.27	100.0	0.07	0.25	100.0	0.20	0.40	100.0
예		1.2		2.4		2.8		8.1		6.6		20.0		93.4		80.0		80.0
아니오		98.8		97.6		97.2		91.9		93.4		80.0		0.05		0.22		100.0
금융피해 경험_휴대폰 결제장(전제)	0.08	0.27	100.0	0.05	0.23	100.0	0.06	0.24	100.0	0.05	0.22	100.0	0.05	0.22	100.0	0.11	0.32	100.0
있음		7.7		5.3		6.0		4.9		4.9		11.1		95.1		88.9		88.9
없음		92.3		94.7		94.0		95.1		95.1		88.9		0.08		0.27		100.0
금융피해 경험_포터코(전제)	0.03	0.16	100.0	0.05	0.21	100.0	0.02	0.15	100.0	0.08	0.26	100.0	0.08	0.27	100.0	0.07	0.25	100.0
있음		2.6		4.8		2.2		7.5		7.6		6.8		92.4		93.2		93.2
없음		97.4		95.2		97.8		92.5		92.4		93.2		0.04		0.20		100.0
금융피해 경험_소액대출 대리인금	0.03	0.18	100.0	0.07	0.26	100.0	0.05	0.21	100.0	0.03	0.16	100.0	0.04	0.20	100.0	0.01	0.12	100.0

번호	T = 10						T = 50						T = 90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있음		3.4	7.0		4.5	2.7													
		96.6	93.0		95.5	97.3													
없음		3.19	0.77	3.38	0.67	3.40	0.76	3.33	0.67	3.56	0.56	3.62	0.57	3.39	0.72	3.60	0.58	3.76	0.4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돈' 및 금융 행동에 대한 인식		1.97	0.79	2.25	0.84	2.31	0.97	2.05	0.73	2.24	0.82	2.24	0.82	2.17	0.74	2.31	0.80	2.24	0.8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안 인식		2.32	0.74	2.31	0.82	2.39	0.86	2.94	0.72	2.84	0.73	2.71	0.71	3.27	0.62	3.02	0.68	2.96	0.6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관저 금융행위 인식수준(전체)		4.66	1.81	11.38	3.05	12.06	3.54	4.22	1.58	11.12	2.46	11.08	2.25	3.96	1.54	10.75	2.28	10.74	2.3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75	3.44	15.29	3.49	16.31	3.26	16.25	3.16	16.84	3.02	16.37	3.24	16.84	3.02	16.37	3.24	16.84	3.02

2.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요인 분석 : Robust OLS 모델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여기에서는 초·중·고생 각각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금융이해력 점수뿐만 아니라,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Robust OLS 모델로 분석하고 분석된 주요 요인을 비교하였음.
- 실증모델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과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 모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①학년과 ②부모의 금융교육 점수이고,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은 '돈에 대한 행동차원의 인식'으로 분석되었음.
-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과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 모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①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 경험과 ②부모의 금융교육 점수, 그리고 ③용돈 외 수입활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판매/거래 경험이며,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은 초등학생과 같이 '돈에 대한 행동차원의 인식'으로 분석되었음.
-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과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 모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①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 경험과 ②돈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인식 점수이며,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은 '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 경험'으로 분석되었음.

1)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1) 금융이해력 및 구성 3요소 수준의 영향 요인

〈표 V-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4개의 부(-)의 요인과 7개의 정(+)의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즉 ①성별과 ②비정기적 용돈, ③내 체크카드와 부모의 체크카드 모두를 사용하는 유형과 ④부정적 돈 사용태도 및 인식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①학년과 ②용돈의 일정금액 저축, ③부모의 금융교육 총 점수, ④학교 금융교육과 ⑤학교 외 금융교육의 유경험, ⑦돈에 대한 행동차원의 인식 수준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영향을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낮은데, 이는 금융행위와 금융태도 점수에 있어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학년은 금융이해력과 구성의 3요소 중 금융지식과 금융행위 점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금융태도 점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금융이해력의 점수가 높아지는데 반해, 현재 소비에 대한 선호 또한 높아지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용돈 및 수입활동 경험과 관련한 변수들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용돈을 받지 않는 이들에 비해 더 낮으며, 금융태도 점수에도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비정기적으로 용돈을 지급하는 일상의 형태가 초등학생 자녀의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데에는 용돈을 주지 않는 것에 비해 더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오히려 현재의 소비 선호를 강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용돈의 일부를 저축하는 생활습관은 초등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은 물론 금융행위와 금융태도의 점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돈을 통해 지출 및 관리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금융행위 능력을 높이는데 있어 용돈의 일부를 저축하는 습관이 핵심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경험과 관련한 변수들에서는 체크카드 사용 유형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앞서 제4장의 기초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직접 가입한 금융상품을 보유한다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한 경험률이 체크카드 사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증분석을 통해 나타난 체크카드 사용유형, 즉 내 카드와 부모 카드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낮으며, 금융지식 점수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논의한 비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초등학생들이 용돈을 받지 않는 이들에 비해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정기적 용돈 지급이나 내 카드와 부모 카드를 모두 사용하는 일상의 생활방식이 용돈 관리 또는 소비지출 관리 필요성의 이해나 바람직한 습관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 금융교육경험과 관련한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부모의 금융교육 총점수가 높을수록 금융이해력 점수를 비롯한 구성의 3요소 점수가 모두 높다. 이는 초등학생의 금융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가 금융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노력이 핵심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받는 경험과 학교 외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초등학교 시기의 학교교육이 필요하며, 동시에 학교 이외 교육이 있다면 이른 저학년 시기에 적절한 생활습관 형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5.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변수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여성)_남성	-0.072(-4.45)***	-0.025(-1.36)	-0.070(-4.30)***	-0.034(11.99)*
학년	0.051(2.84)**	0.146(7.01)***	0.036(1.99)*	-0.121(16.15)***
지역(중소도시)_서울/광역시	0.031(1.81)	0.046(2.38)*	0.002(0.13)	0.027(1.50)
지역(중소도시)_읍/면/도서	0.002(0.12)	-0.023(-1.09)	0.004(0.22)	0.029(1.56)
<부모 및 가족 특성>				
가족유형(그 외)_양부모	0.002(0.09)	0.044(2.20)*	-0.029(-1.78)	0.005(0.32)
부모 경제활동 유형(그 외)_맞벌이	-0.006(-0.38)	-0.005(-0.26)	-0.007(-0.45)	0.003(0.19)
부모 금융업 종사여부_종사	0.001(0.04)	-0.006(-0.30)	-0.001(-0.06)	0.012(0.73)
아버지 학력(고졸 이하)_대졸 이상	0.035(1.39)	0.021(0.78)	0.044(1.86)	-0.019(-0.81)
어머니 학력(고졸 이하)_대졸 이상	0.029(1.17)	0.059(2.17)*	-0.010(-0.41)	0.028(1.19)
<용돈 및 수입활동 경험>				
용돈받는 형태(인반음)_정기	0.000(-2.56)	-0.030(-1.08)	0.049(2.00)*	-0.065(-2.62)**
용돈받는 형태(인반음)_비정기	-0.053(-2.56)*	-0.027(-1.20)	-0.020(-0.97)	-0.082(-3.76)***
로그월용돈금액	-0.006(-0.29)	-0.030(-1.14)	0.021(0.96)	-0.023(-0.94)
용돈 저축여부_일정금액 반드시 저축	0.102(6.14)***	0.013(0.66)	0.084(4.96)***	0.112(6.02)***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				
내가 직접 가입한 예적금_있음	0.027(1.47)	0.005(0.21)	0.028(1.61)	0.017(0.94)
내가 직접 가입한 주식_있음	0.008(0.55)	-0.001(-0.07)	0.011(0.62)	0.004(0.26)
내가 직접 가입한 가상화폐_있음	0.008(0.48)	0.015(0.66)	0.012(0.69)	-0.023(-1.12)
내가 직접 가입한 저작권_있음	0.002(0.06)	-0.018(-0.61)	0.014(0.71)	-0.001(-0.05)
체크카드 사용유형(사용 안함)_내카드만 사용	-0.032(-1.80)	-0.045(-2.21)*	-0.007(-0.39)	-0.022(-1.14)
체크카드 사용유형(사용 안함)_내카드와 부모카드 모두 사용	-0.085(-4.65)***	-0.118(-4.90)***	-0.026(-1.51)	-0.043(-1.95)
체크카드 첫사용시기(고학년)_저학년	0.018(0.96)	0.022(1.08)	0.021(1.18)	-0.022(-1.17)
선불충전방식카드 사용여부_사용	0.030(1.46)	-0.013(-0.56)	0.047(2.38)*	0.009(0.40)

변수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선불충전방식카드 첫사용시기(고학년)_저학년	-0.003(-0.14)	0.007(0.35)	-0.016(-0.88)	0.015(0.78)
<금융교육 경험>				
부모 금융교육 총점수	0.202(10.70)***	0.076(3.57)***	0.214(11.23)***	0.054(2.73)**
(학교) 금융교육 경험	0.060(3.26)**	0.101(4.92)***	0.026(1.38)	-0.010(-0.51)
(학교)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_저학년	-0.028(-1.64)	-0.041(-2.00)*	-0.013(-0.77)**	-0.001(-0.07)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	0.012(0.56)	0.006(0.24)	0.013(0.63)	0.000(0.01)
(학교 이외)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_저학년	0.043(2.08)*	0.001(0.06)	0.061(3.05)	-0.002(-0.10)
<‘돈’ 및 금융웰빙에 대한 인식>				
돈에 대한 인지측면 인식 점수	-0.020(-1.00)	0.067(3.04)**	0.019(0.92)	-0.194(-9.64)***
돈에 대한 감정측면 인식 점수	0.024(1.34)	0.012(0.58)	0.013(0.75)	0.028(1.53)
돈에 대한 행동차원 인식점수	0.363(18.50)***	0.031(1.42)	0.353(17.93)***	0.309(15.70)***
부정적 돈 사용태도 및 인식	-0.121(-6.75)***	-0.029(-1.31)	-0.085(-5.08)***	-0.147(-8.01)***
N	2,870	2,870	2,870	2,870
F	38.78***	8.80***	35.56***	27.36***
R ²	0.3079	0.0947	0.2970	0.2358

주1) 내 명의 체크카드 첫 사용시기, 선불충전방식 카드 첫 사용시기, 학교에서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학교 이외 곳에서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변수의 ‘그 외’는 고학년(4,5,6학년)과 카드 미사용 또는 금융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비해당)를 의미함.
주2) 변수의 ()는 준거집단, _뒤는 더미항목을 의미함.
주3) *** p<.001, ** p<.01, * p<.05

다음으로 돈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금융웰빙에 대한 인식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돈에 대한 인식 중 행동차원의 점수가 금융이해력 점수도 높고, 금융행위 및 금융태도의 점수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는 달리, 부정적 돈 사용 태도 및 인식 점수가 높으면 금융이해력 점수를 비롯하여 금융행위, 금융태도 점수에도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는 달리, 금융이해력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금융이해력 구성의 3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발견되었다. 특히 금융이해력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지만, 금융지식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6개로 가장 많다.

이에 금융지식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먼저 살펴보면, 금융지식 점수에는 지역의 가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제4장의 특성별 차이 검증 결과에서도 주목해야할 사항으로 설명된 바 있다. 중소도시를 준거집단으로 했을 때, 서울/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의 금융지식 점수가 더 높다는 결과는 지역에 따른 격차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모 및 가족특성 변수와 관련하여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의 금융지식 점수가 그 외 가족유형의 초등학교생에 비해 높다는 결과와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에 고졸이하 학력에 비해 초등학교생 자녀의 금융지식 점수가 높다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초등학교생의 금융지식 점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부모의 금융교육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다는 결과와 연계해 본다면, 부모가 부재하거나 존재하더라도 취약한 상태에 있는 초등학교생이 금융이해력, 특히 금융지식 측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경험 변수와 관련하여 내 체크카드만을 사용하는 초등학교생이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에 비해 금융지식 점수가 낮다. 이는 초등학교생의 이른 체크카드의 사용이 경험이 금융이해력을 높이는데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융지식 점수는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내 체크카드와 부모 카드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도 금융지식 점수가 낮다는 결과와 연계해 본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초등학교생들이 카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지출 관리 등 금융생활에 대한 지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사용편의성만을 고려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금융교육 변수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저학년 시기에 금융교육을 받은 경우 고학년 시기에 교육 받은 이들에 비해 금융지식 점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과 관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돈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인지차원이 점수가 높을수록 금융지식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지식에 이어 금융이해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금융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총 3개인데, 먼저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초등학교생이 용돈을 받지 않는 이들에 비해 금융행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기적으로 용돈을 지급 받는 것이 계획된

지출 및 관리 등 올바른 금융행위 습관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결과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불충전방식 청소년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초등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들에 비해 금융행위 점수가 높다는 결과는 선불충전방식 카드의 사용 경험이 인지된 지식과 올바른 습관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학교 금융교육을 받은 첫 시기가 저학년인 경우 고학년에 비해 금융행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앞서 금융지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학년 시기 학교 금융교육에서 전달되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금융이해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금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개인데,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것과 돈에 대한 인지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금융태도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4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금융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현재의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초등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현재 소비 선호 경향이 높지 않고, 돈에 대한 인지차원의 점수가 높은 초등학생들 또한 현재 소비 선호 경향이 높지 않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①학년과 ②부모의 금융교육 총점수라 할 수 있다. 또 금융지식 등 구성의 3요소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융이해력 수준과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단이나 도구, 또는 접근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초점을 두고 향상시키기 위함인지 그 내용 및 목적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사항의 범위가 달라야 하며, 차별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앞서 <표 V-5>에 제시된 실증분석 결과에 이어 여기에서는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을 추려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먼저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돈에 대한 행동차원 점수’가 가장 큰 영향력(0.363)을 가지며, 그다음으로는 ‘부모 금융교육 총 점수’(0.202)이다.

같은 방식으로 구성의 3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금융지식의 경우 ‘학년’(0.146)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며, 그다음으로는 체크카드를 ‘내 카드와 부모카드 모두 사용’하는 유형(-0.118) 순이다. 금융행위의 경우 ‘부모 금융교육 총 점

수'(0.214)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다음으로는 '부정적 돈 사용 태도 및 인식'(-0.085)과 '용돈의 일정금액 저축'(0.084) 순이다. 금융태도의 경우 '돈에 대한 행동차원 점수'(0.309)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며, '돈에 대한 인지차원의 점수'(-0.194)가 그다음 순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변수의 영향력은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어떠한 측면의 개입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정책 안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스스로 "돈에 대한 관리를 잘 한다"고 인식하여 '돈에 대한 행동차원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생활습관형성 중심의 지도와 교육이 일차적으로 필요한데, 그에 따른 정책적 수단을 설정함에 있어 가정에서 부모의 금융교육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금융지식의 내용을 교육함에 있어 인지발달의 수준, 즉 학년을 고려한 교육내용의 구성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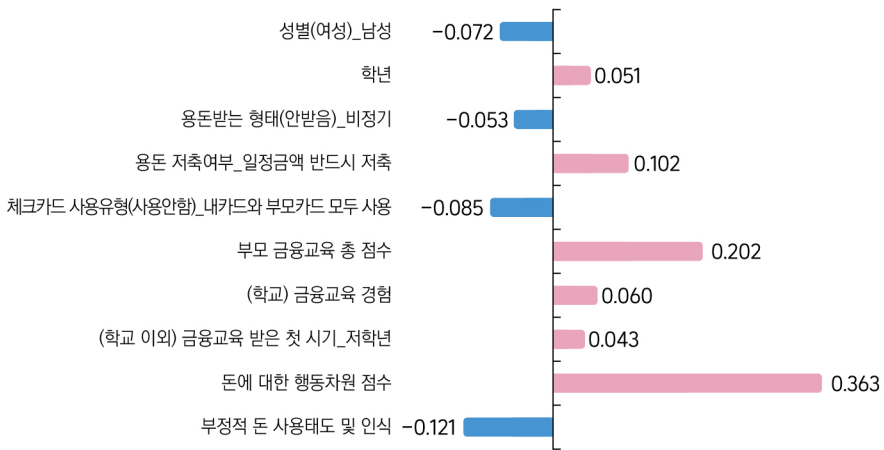


그림 V-1.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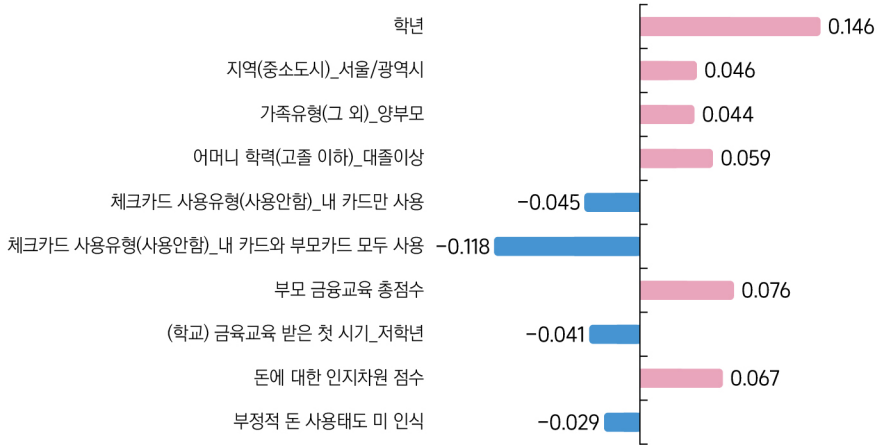


그림 V-2.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금융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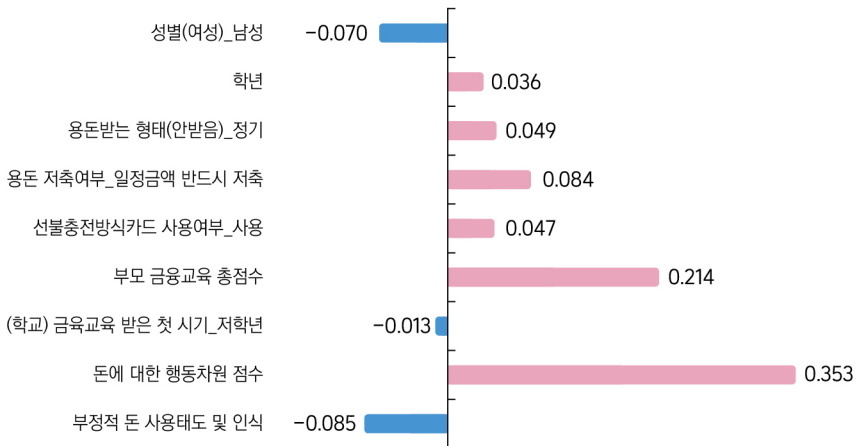


그림 V-3.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금융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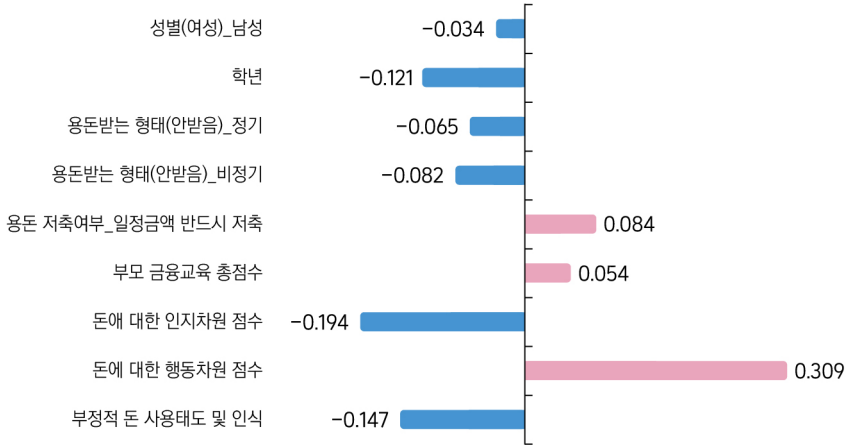


그림 V-4.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금융태도

2) 중학생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1) 금융이해력 및 구성 3요소 수준의 영향 요인

초등학생에 이어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V-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설명변수로 포함된 7가지의 특성 범주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우선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의 영향부터 살펴보면, 학년과 거주지역의 서울/광역시, 그리고 주관적 학업 성취수준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변수 이외 성별은 금융지식에 정(+)의 영향, 금융행위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금융이해력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금융이해력과 금융지식 점수가 높고, 서울/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와 금융지식 점수가 중소도시 거주 중학생에 비해 높다. 또한 주관적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과 금융지식, 그리고 금융태도 점수가 높다. 이는 주관적 학업성취가 비단 금융지식 점수 간의 정(+)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소비 선호보다 미래의 저축을 고려하는 태도를 갖는데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어 부모 및 가족 특성에서는 부모가 금융업에 종사하는 경우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고, 이는 금융행위 점수에도 동일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부모가 금융업에 종사하는 경우 중학생 자녀의 금융행위 점수가 낮고, 그 영향으로 결과적으로 금융이해력 점수가 낮다는 것은 부모가 금융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때, 자녀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직접 가입 등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지기보다 오히려 부모가 대신함으로써 기회의 폭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용돈 및 수입활동 경험관련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중학생이 용돈을 받지 않는 이들에 비해 금융이해력은 물론, 금융지식과 금융행위 점수도 높으며, 용돈의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중학생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서 금융이해력 수준과 금융태도 점수가 높다. 또한 용돈 외 수입활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판매/거래 경험이 있는 중학생들은 금융이해력 및 구성의 3요소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는데, 금융이해력과 금융지식, 금융행위 점수에는 정(+)의 영향을 금융태도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 중고거래 등을 해보는 경험이 중학생 시기의 금융이해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용돈 외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는 경험이 있는 중학생들의 금융이해력과 금융행위 점수는 경험이 없는 이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설명되지 않는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는 직접 가입한 예/적금을 보유한 중학생들이 금융이해력 및 금융태도 점수가 높다. 주식이나 저작권을 보유하는 중학생들의 경우, 금융이해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으나, 금융행위 점수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크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내 카드만 사용하는 중학생들이 금융이해력과 금융행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생과는 달리 중학생의 경우 자신 명의 체크카드 사용으로 용돈을 지출하고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선불충전방식카드 사용 중학생의 경우도 사용하지 않는 이들에 비해 금융이해력과 금융행위 점수가 높고, 카드를 처음 사용한 시기가 초등학생 시기였던 중학생들이 금융이해력과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디지털세대의 일상생활방식에 맞춤형으로 등장한 선불충전방식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인지적 금융지식(perceived knowledge)이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교육과 관련한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모 금융교육 총 점수가 금융

이해력을 비롯하여 구성의 3요소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 금융교육 경험이 금융이해력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결과는 초등학생 실증 분석 결과와는 달리, 부모의 금융교육 총 점수가 금융지식 점수에 부(-)²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다. 이는 초등학생 시기에는 부모의 금융교육이 금융이해력 전반에 핵심적인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중학생 시기에 부모의 금융교육이 금융지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 시기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발달특성을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부모의 금융교육과 더불어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및 구성의 3요소에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영향요인은 바로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경험이다. 즉, 경험이 있는 중학생들이 없는 이들에 비해 금융이해력 및 구성의 3요소 점수가 모두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학생 시기의 금융교육의 방향이 부모로부터 전달되는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이해와 생활습관 형성에서 점차 자기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경험하고 학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임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돈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살펴보면, 돈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인식 점수는 중학생의 금융지식과 금융태도에만 영향을 미치고 금융이해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정적 측면의 인식과 행동차원의 인식 점수가 높을수록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고, 특히 행동차원의 인식 점수는 금융행위와 금융태도 점수에도 정(+)³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돈 사용태도 및 인식의 점수는 금융이해력과 금융행위 및 금융태도 점수에 부(-)⁴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①부모의 금융교육 총점수와 ②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 경험, ③용돈 외 수입활동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 판매/거래 경험이라 할 수 있으며, 중학생 시기는 부모주도의 금융교육에서 자기 주도적 금융정보 활동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표 V-6. 중학생 금융이해력 영향요인

변수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여성)_남성	-0.033(-1.92)	0.129(6.70)***	-0.143(-8.53)***	-0.026(-1.43)
학년	0.056(3.01)**	0.078(3.71)***	0.023(1.21)	-0.001(-0.05)
지역(중소도시)_서울/광역시	0.039(2.32)*	0.063(3.34)**	0.004(0.26)	0.011(0.59)
지역(중소도시)_읍/면/도서	-0.018(-1.03)	-0.025(-1.23)	-0.001(-0.06)	-0.014(-0.82)
주관적 학업 성취수준	0.158(8.70)***	0.232(11.55)***	0.033(1.80)	0.043(2.19)*
<부모 및 가족 특성>				
가족유형(그 외)_양부모	0.008(0.45)	0.003(0.13)	0.013(0.69)	-0.005(-0.26)
부모 경제활동 유형(그 외)_맞벌이	-0.004(-0.22)	-0.001(-0.08)	0.013(0.80)	-0.035(-2.05)*
부모 금융업 종사여부_종사	-0.049(-2.94)**	-0.025(-1.40)	-0.042(-2.37)*	-0.027(-1.71)
아버지 학력(고졸 이하)_대졸 이상	0.005(0.26)	0.017(0.71)	0.007(0.36)	-0.026(-1.22)
어머니 학력(고졸 이하)_대졸 이상	0.031(1.50)	0.043(1.87)	0.020(0.94)	-0.015(-0.72)
<용돈 및 수입활동 경험>				
용돈받는 형태(안받음)_정기	0.084(2.74)**	0.089(2.61)**	0.089(2.85)**	-0.065(-1.88)
용돈받는 형태(안받음)_비정기	0.013(0.57)	-0.007(-0.28)	0.064(2.97)***	-0.079(-3.39)**
로그월용돈금액	-0.042(-1.40)	-0.050(-1.60)	0.007(0.25)	-0.062(-1.93)
용돈 저축여부_일정금액 반드시 저축	0.062(3.69)***	0.028(1.52)	0.006(0.37)	0.134(7.50)***
용돈외 수입활동_아르바이트	-0.001(-0.04)	0.012(0.69)	0.009(0.45)	-0.041(-2.31)*
용돈외 수입활동_부모 일 도움	0.019(1.13)	-0.007(-0.40)	0.029(1.75)	0.012(0.70)
용돈외 수입활동_가진 것 판매/거래	0.099(5.63)***	0.072(3.85)***	0.122(6.90)***	-0.056(-3.18)**
용돈외 수입저축여부_저축	-0.032(-2.07)*	-0.016(-1.11)	-0.035(-2.13)*	-0.003(-0.15)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				
내가 직접 가입한 예/적금_있음	0.032(2.09)*	0.006(0.34)	0.022(1.45)	0.046(2.58)*
내가 직접 가입한 주식_있음	0.026(1.66)	0.011(0.62)	0.042(2.43)*	-0.021(-1.12)
내가 직접 가입한 가상화폐_있음	-0.006(-0.38)	0.005(0.33)	-0.017(-0.84)	0.004(0.22)
내가 직접 가입한 저작권_있음	0.007(0.46)	-0.013(-0.71)	0.034(2.16)*	-0.025(-1.69)

변수	구성 3요소			
	금융이해력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체크카드 사용유형(사용안함)_ 내카드만 사용	0.080(3.97)***	0.011(0.50)	0.101(4.96)***	0.026(1.25)
체크카드 사용유형(사용 안함)_ 내카드와 부모카드 모두 사용	0.005(0.23)	-0.017(-0.82)	0.020(1.03)	0.002(0.09)
체크카드 첫사용시기(중학생)_ 초등학생	0.004(0.20)	-0.023(-1.00)	0.016(0.78)	0.019(0.85)
선불충전방식카드 사용여부_사용	0.116(5.85)***	-0.033(-1.51)	0.219(11.11)***	-0.026(-1.25)
선불충전방식카드 첫사용시기(중학생)_초등학생	0.051(2.64)**	0.060(2.74)**	0.029(1.45)	0.001(0.05)
<금융교육 경험>				
부모 금융교육 총점수	0.077(4.05)***	-0.046(-2.25)*	0.116(6.18)***	0.082(3.87)***
(학교) 금융교육 경험	0.073(2.15)*	0.072(1.93)	0.045(1.28)	0.018(0.46)
(학교) 경제금융 교과목 이수	-0.004(-0.23)	-0.026(-1.28)	0.014(0.71)	0.002(0.09)
(학교) 관련 교과목 활동수업	0.017(0.71)	0.010(0.38)	0.008(0.34)	0.021(0.74)
(학교) 외부강사 강의	-0.033(-1.41)	-0.028(-1.08)	-0.020(-0.79)	-0.017(-0.60)
(학교) 동영상 강의 시청	0.013(0.56)	0.009(0.33)	0.027(1.08)	-0.028(-1.01)
(학교)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중학생)_초등학생	0.006(0.29)	0.012(0.50)	-0.009(-0.43)	0.019(0.79)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	0.018(0.67)	0.033(1.10)	0.020(0.65)	-0.038(-1.19)
(학교 이외)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중학생)_초등학생	0.025(0.92)	-0.005(-0.17)	0.023(0.80)	0.039(1.29)
<금융정보 활동 및 금융피해>				
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 경험_있음	0.171(8.83)***	0.129(5.96)***	0.104(4.94)***	0.110(4.94)***
금융정보 탐색 계기_주식, 비트코인 붐이 일었을때	0.007(0.44)	-0.007(-0.42)	0.015(0.80)	0.005(0.28)
금융정보 탐색 계기_관련 수업을 관심/흥미 생겨서	0.011(0.71)	0.004(0.21)	0.010(0.66)	0.009(0.45)
(금융피해) 휴대폰 결제강_있음	-0.027(-1.50)	-0.031(-1.55)	0.007(0.40)	-0.047(-2.63)**
(금융피해) 폰테크_있음	0.028(1.68)	0.015(0.85)	0.043(2.47)*	-0.024(-1.24)
(금융피해)소액대출_있음	-0.007(-0.40)	-0.025(-1.27)	0.006(0.32)	0.008(0.48)

변수	구성 3요소			
	금융이해력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돈 및 금융웰빙에 대한 인식〉				
돈에 대한 인지측면 인식 점수	0.012(0.68)	0.107(5.16)***	0.015(0.78)	-0.169(-9.33)***
돈에 대한 감정측면 인식 점수	0.043(2.54)*	0.034(1.82)	0.031(1.81)	0.016(0.87)
돈에 대한 행동차원 인식 점수	0.232(12.31)***	-0.020(-0.96)	0.226(11.71)***	0.300(15.14)***
부정적 돈 사용태도 및 인식	-0.078(-4.04)***	-0.021(-1.03)	-0.069(-3.63)***	-0.068(-3.43)**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수준	0.033(1.71)	0.038(1.84)	-0.027(-1.39)	0.094(4.59)***
N	3,041	3,041	3,041	3,041
F	29.06***	12.37***	32.34***	23.33***
R ²	0.3372	0.1686	0.3432	0.2612

주1) 네 명의 체크카드 첫 사용시기, 선불충전방식 카드 첫 사용시기, 학교에서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학교 이외 곳에서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변수의 '그 외'는 중학생과 카드 미사용자 또는 금융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주2) 변수의 ()는 준거집단, _뒤는 더미항목을 의미함.
주3) *** p<.001, ** p<.01, * p<.05

(2)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앞서 논의한 <표 V-6>의 실증분석 결과에 이어 여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요인들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였다. 먼저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들의 영향력 크기를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같이 중학생에서도 '돈에 대한 행동차원 점수'가 가장 큰 영향력(0.232)을 가지며, 그다음으로는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 경험'(0.171),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0.158) 순이다.

같은 방식으로 구성의 3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금융지식의 경우 '주관적 학업 성취수준'(0.232)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며, 그다음으로는 '성별'(0.129)과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 경험'(0.129)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갖는다. 금융행위의 경우 '돈에 대한 행동차원 점수'(0.226)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는 '선불충전식 카드 사용 여부'(0.219)와 '성별'(-0.143) 순이다. 금융태도의 경우 '돈에 대한 행동차원 점수'(0.300)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며, '돈에 대한 인지차원의 점수'(-0.169)가 그다음 순이다.

이와 같은 변수의 영향력을 종합해보면,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초등학교 대상 정책과 다르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 경험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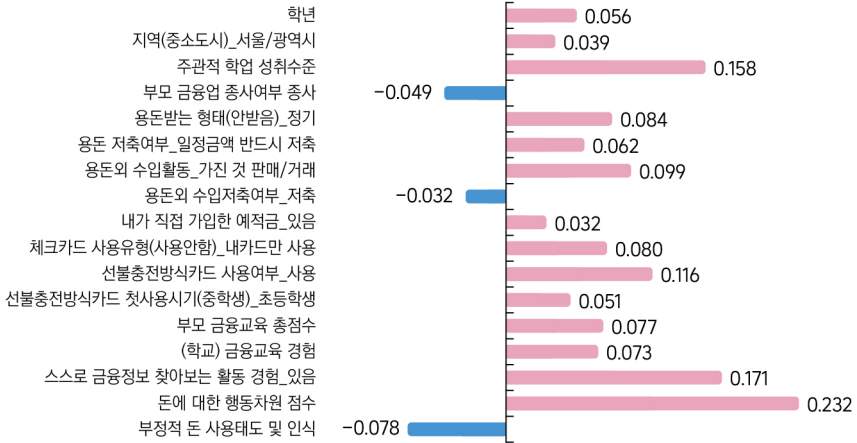


그림 V-5. 중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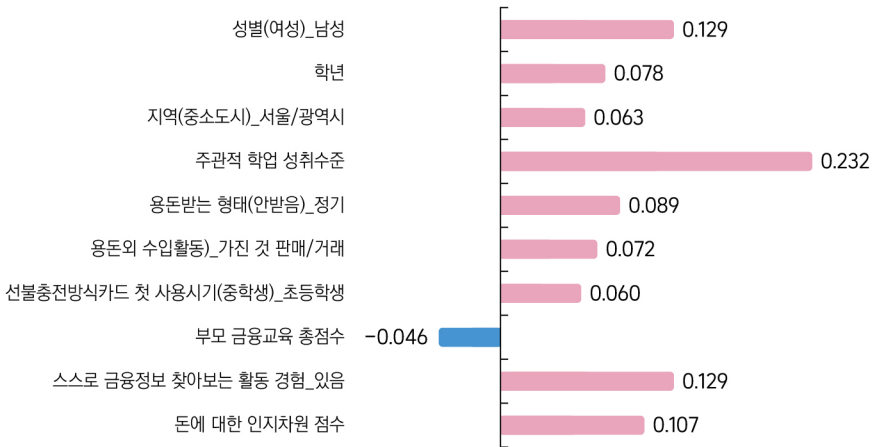


그림 V-6. 중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금융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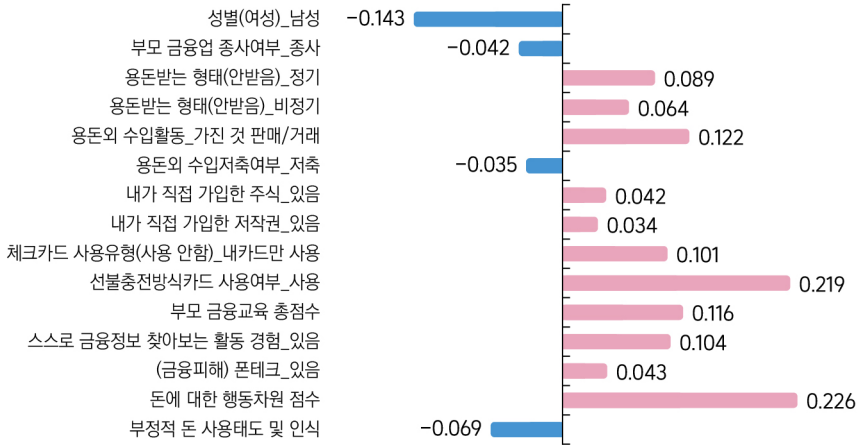


그림 V-7. 중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금융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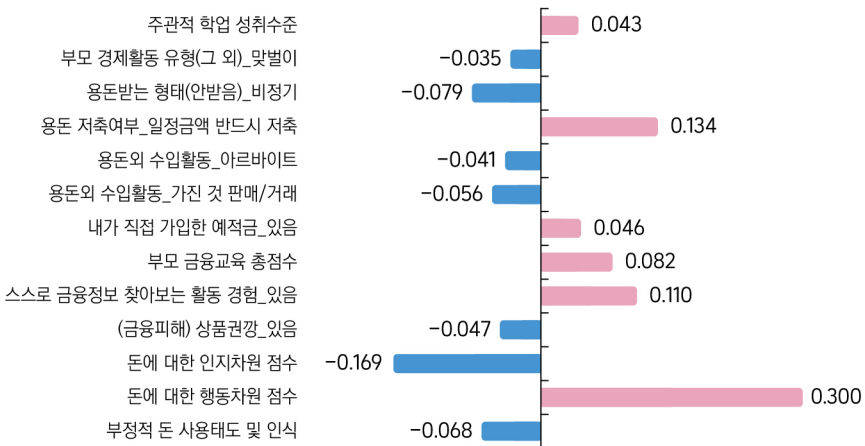


그림 V-8. 중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금융태도

3)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1) 금융이해력 및 구성 3요소 수준의 영향 요인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V-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금융이해력 분석의 결과와 차이가 나는 점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나 부모 및 가족특성 변수보다는 금융생활실태, 그중에서도 경험 변수들이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다수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들 중에는 고등학생 분석모델에만 추가된 고교유형과 주관적 학업 성취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이다. 즉,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일반/자율/특목고 학생들에 비해 낮고, 금융지식 점수 또한 낮다. 중학생 금융이해력 영향요인 분석에서와 같이,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 수준과 금융지식 수준이 높다. 이들 변수 외, 성별은 금융지식과 금융행위 점수에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학년은 금융태도 점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융이해력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어머니의 대졸이상 학력의 경우도 고등학생의 금융지식 점수에만 정(+)의 영향을 미칠 뿐, 그 외 분석에 포함된 부모 및 가족 특성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용돈 및 수입활동 경험 특성변수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들을 보인 것은 용돈 외 수입활동 경험 내용의 영향이다. 용돈 형태나 용돈 지출여부의 영향은 중학생과 같은 결과이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월 용돈 금액이 금융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러나 월 용돈 금액의 영향은 금융이해력 수준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보다 중학생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용돈 외 수입활동인데, 아르바이트나 부모 일 도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판매/거래하는 경험이 금융이해력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금융행위와 금융태도 점수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서 제4장의 기초통계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돈 외 수입활동을 하는 비율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 비율이 높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참여율 또한 낮지 않은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 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가진 것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경험을 넘어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어보는 경험이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경험과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체크카드 사용유형과 선불충전방식 카드 사용이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는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중학생의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직접 가입한 저작권이 있는 고등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금융지식 점수가 낮다는 결과이다. 이는 음원 등을 중심으로 저작권 투자 계좌를 갖는 고등학생들이 하나의 금융투자의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투자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교육과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금융교육 총 점수와 학교에서의 금융관련 교과목에서의 활동 수업 유경험이 금융이해력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의 금융교육 총 점수는 초·중·고 모두 학교급에 상관없이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 금융이해력 영향요인 분석과는 달리,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금융교육 총 점수가 금융이해력과 구성 3요소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행위 점수에만 정(+)의 영향 요인이 된다. 한편, 관련 교과목 활동수업의 영향은 중학생 금융이해력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금융행위와 금융태도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중학생 금융이해력 영향요인 분석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결과인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 경험은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금융이해력을 비롯하여 구성 3요소 점수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생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에 있어 자기 주도적 정보 탐색 및 학습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돈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돈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인식 점수와 행동적 차원의 인식 점수가 금융이해력뿐만 아니라 구성 3요소 모두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돈 사용태도 및 인식은 금융지식 점수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돈에 대한 행동적 차원의 인식 점수가 높은 이들이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지만, 금융지식 점수는 낮다는 결과이다. 이는 고등학생의 돈에 대한 행동차원의 인식 점수가 전반적인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기는 하나, 객관적 금융지식을 바탕으로 한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경험을 통해 인지된 지식을 높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V-7.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영향요인

변수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여성)_남성	-0.019(-0.99)	0.110(5.36)***	-0.110(-5.44)***	-0.029(-1.51)
학년	0.013(0.65)	0.011(0.50)	0.036(1.69)	-0.052(-2.33)*
지역(중소도시)_서울/광역시	-0.005(-0.24)	-0.021(-0.99)	0.025(1.27)	-0.029(-1.42)
지역(중소도시)_읍/면/도서	0.023(1.23)	0.001(0.04)	0.037(1.93)	-0.004(-0.16)
고교유형(그 외)_특성화고	-0.091(-4.31)***	-0.112(-4.95)***	-0.038(-1.70)	-0.013(-0.55)
주관적 학업 성취수준	0.112(5.80)***	0.167(7.83)***	0.017(0.78)	0.025(1.11)
<부모 및 가족 특성>				
가족유형(그 외)_양부모	0.017(0.82)	0.010(0.45)	0.018(0.80)	-0.001(-0.03)
부모 경제활동 유형(그 외)_맞벌이	0.017(0.93)	0.026(1.30)	0.005(0.28)	-0.003(-0.15)
부모 금융업 종사여부_종사	-0.012(-0.69)	-0.027(-1.33)	0.008(0.45)	-0.010(-0.52)
아버지 학력(고졸 이하)_대졸 이상	0.006(0.25)	-0.009(-0.33)	0.030(1.21)	-0.025(-1.08)
어머니 학력(고졸 이하)_대졸 이상	0.013(0.52)	0.061(2.28)*	-0.034(-1.46)	0.003(0.11)
<용돈 및 수입활동 경험>				
용돈받는 형태(안받음)_정기	0.169(3.92)***	0.142(3.05)**	0.135(3.23)**	0.010(0.23)
용돈받는 형태(안받음)_비정기	0.047(1.73)	0.054(1.85)	0.064(2.32)*	-0.077(-2.75)**
로그월용돈금액	-0.067(-1.71)	-0.012(-0.29)	-0.040(-1.09)	-0.107(-2.75)**
용돈 저축여부_일정금액 반드시 저축	0.040(2.27)*	-0.003(-0.17)	0.019(1.02)	0.092(4.70)***
용돈외 수입활동_아르바이트	0.042(2.18)*	0.022(0.97)	0.072(3.68)***	-0.051(-2.35)*
용돈외 수입활동_부모 일 도움	0.070(3.74)***	0.025(1.20)	0.073(3.89)***	0.030(1.48)
용돈외 수입활동_가진 것 판매/거래	0.063(3.34)**	0.023(1.14)	0.105(5.57)***	-0.054(-2.74)*
용돈외 수입저축여부_저축	-0.014(-0.89)	-0.005(-0.32)	-0.007(-0.37)	-0.021(-1.34)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				
내가 직접 가입한 예적금_있음	0.018(1.03)	-0.024(-1.11)	0.049(2.67)**	0.001(0.04)
내가 직접 가입한 주식_있음	0.031(1.54)	0.037(1.64)	-0.004(-0.23)	0.043(2.23)*
내가 직접 가입한 가상화폐_있음	0.022(1.04)	-0.013(-0.46)	0.045(1.89)	0.002(0.11)

변수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내가 직접 가입한 저작권_있음	-0.046(-1.69)	-0.079(-2.89)*	0.004(0.17)	-0.015(-0.63)
체크카드 사용유형(사용 안함)_ 내카드만 사용	0.068(2.87)**	0.011(0.43)	0.117(4.78)***	-0.041(-1.69)
체크카드 사용유형(사용 안함)_ 내카드와 부모카드 모두 사용	0.059(2.53)*	-0.001(-0.03)	0.100(4.00)***	-0.015(-0.63)
체크카드 첫사용시기(그 외)_초등학생	-0.029(-1.35)	-0.010(-0.46)	-0.031(-1.38)	-0.010(-0.50)
체크카드 첫사용시기(그 외)_고등학생	0.018(0.84)	-0.018(-0.78)	-0.008(-0.37)	0.103(4.28)***
선불충전방식카드 사용여부_사용	0.094(4.37)***	-0.008(-0.35)	0.156(7.04)***	-0.008(-0.36)
선불충전방식카드 첫사용시기 (그 외)_초등학생	-0.031(-1.58)	-0.017(-0.69)	-0.030(-1.65)	-0.008(-0.46)
선불충전방식카드 첫사용시기 (그 외)_고등학생	0.013(0.62)	0.034(1.48)	-0.014(-0.64)	0.011(0.47)
<금융교육 경험>				
부모 금융교육 총접수	0.059(2.92)**	-0.018(-0.85)	0.106(5.41)***	0.003(0.16)
(학교) 금융교육 경험	0.061(1.49)	0.083(1.93)	0.024(0.60)	-0.002(-0.05)
(학교) 경제금융 교과목 이수	-0.024(-1.15)	-0.022(-1.00)	-0.004(-0.20)	-0.029(-1.29)
(학교) 관련 교과목 활동수업	0.082(3.07)**	0.010(0.37)	0.075(2.80)**	0.087(3.06)**
(학교) 외부강사 강의	-0.010(-0.38)	-0.017(-0.60)	-0.010(-0.41)	0.019(0.67)
(학교) 동영상 강의 시청	-0.016(-0.62)	-0.010(-0.36)	-0.008(-0.29)	-0.018(-0.64)
(학교)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그 외)_초등학생	0.012(0.63)	0.017(0.89)	0.008(0.41)	-0.009(-0.42)
(학교)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그 외)_고등학생	-0.020(-0.89)	-0.026(-1.11)	-0.009(-0.39)	0.000(0.01)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	-0.011(-0.37)	-0.026(-1.07)	-0.016(-0.54)	0.044(1.28)
(학교 이외)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그 외)_초등학생	0.007(0.28)	0.020(0.75)	0.013(0.54)	-0.039(-1.48)
학교 이외)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그 외)_고등학생	-0.013(-0.41)	-0.049(-1.36)	0.027(1.24)	-0.010(-0.33)
<금융정보 활동 및 금융피해>				
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 경험_있음	0.231(10.37)***	0.182(8.08)***	0.147(6.13)***	0.110(4.03)***

변수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표준화계수β (t)	표준화계수β (t)	표준화계수β (t)	표준화계수β (t)
금융정보 탐색 계기_주식, 비트코인 붐이 일어났을때	-0.020(-1.09)	-0.017(-0.94)	-0.010(-0.50)	-0.015(-0.57)
금융정보 탐색 계기_관련 수업을 관심/흥미 생겨서	0.019(1.06)	-0.001(-0.05)	0.023(1.13)	0.015(0.64)
(금융피해) 휴대폰 결제강_있음	0.032(1.67)	0.015(0.73)	0.027(1.33)	0.019(0.76)
(금융피해) 폰테크_있음	0.013(0.77)	-0.018(-0.99)	0.020(1.11)	0.030(1.60)
(금융피해)소액대출_있음	-0.015(-0.71)	-0.055(-2.31)*	0.011(0.60)	0.024(0.98)
〈돈 및 금융웰빙에 대한 인식〉				
돈에 대한 인지측면 인식 점수	0.059(2.77)**	0.126(5.38)***	0.051(2.36)*	-0.136(-5.82)***
돈에 대한 감정측면 인식 점수	-0.016(-0.83)	-0.040(-1.89)	-0.004(-0.21)	0.027(1.16)
돈에 대한 행동차원 인식점수	0.166(7.73)***	-0.064(-2.58)*	0.169(7.72)***	0.288(12.86)***
부정적 돈 사용태도 및 인식	-0.129(-5.97)***	-0.026(-1.10)	-0.108(-5.22)***	-0.140(-6.43)***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수준	0.035(1.84)	0.074(3.36)**	-0.052(-2.71)**	0.085(3.88)***
N	2,847	2,847	2,847	2,847
F	21.42***	10.92***	15.83***	13.68***
R ²	0.3130	0.1947	0.2771	0.2272

주1) 내 명의 체크카드 첫 사용 시기, 선물충전방식 카드 첫 사용 시기, 학교에서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학교 이외 곳에서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변수의 '그 외'는 중학생과 카드 미사용자 또는 금융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주2) 변수의 ()는 준거집단, _뒤는 더미항목을 의미함.

주3) *** p<.001, ** p<.01, * p<.05

(2)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앞서 논의한 <표 V-7>의 실증분석 결과에 이어 여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요인들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였다. 먼저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들의 영향력 크기를 살펴보면,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 경험'(0.231)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며, 그 다음으로는 '용돈 받는 형태_정기'(0.169), '돈에 대한 행동차원 점수'(0.166) 순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실증분석에서 '돈에 대한 행동차원 점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에 비해 고등학생에서는 자기 주도적 금융정보 활동 경험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결과는 중학생시기를 거쳐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증진의 방향이 단순히 금융지식의 전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스스로 탐색하여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면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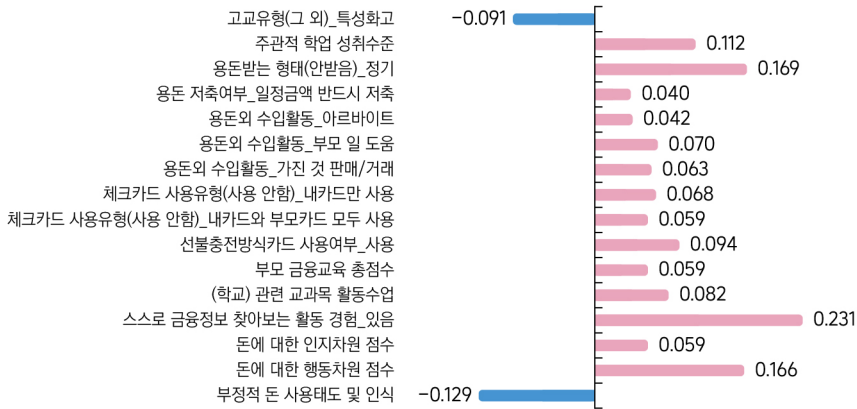


그림 V-9.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전체

같은 방식으로 구성의 3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금융지식의 경우에도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 경험’(0.182)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며, 그 다음으로는 ‘주관적 학업 성취수준’(0.167), ‘용돈 받는 형태_정기’(0.142)의 순이다. 이는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요인의 영향력과 같은 요인들이 금융지식 점수에도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금융행위의 경우 ‘돈에 대한 행동차원 점수’(0.169)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는 ‘선불충전식 카드 사용 여부’(0.156)와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 경험’(0.147)순이다. 금융태도의 경우 ‘돈에 대한 행동차원 점수’(0.288)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며, ‘돈에 대한 인지차원의 점수’(-0.136)가 그다음 순으로 중학생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변수의 영향력을 종합해보면, 중학생보다도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자기 주도적” 금융정보의 탐색 및 학습활동이 중심에 위치할 수 있는 정책전략이 필요하며, 그 과정을 통해 형성된 “나는 돈을 잘 관리 한다” 등과 같은 행동차원에 대한 내용을 고등학생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을 때, 금융이해력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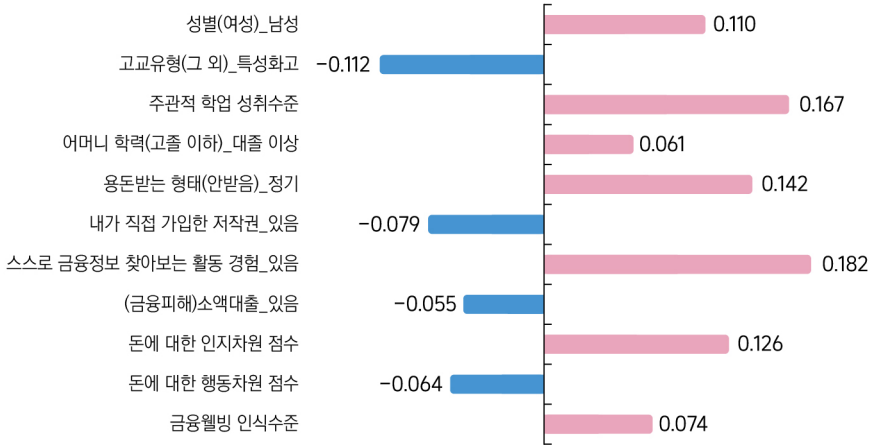


그림 V-10.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금융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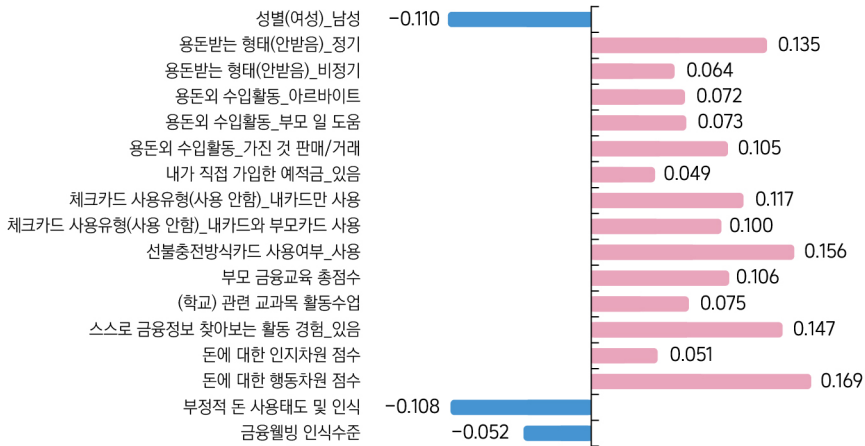


그림 V-11.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금융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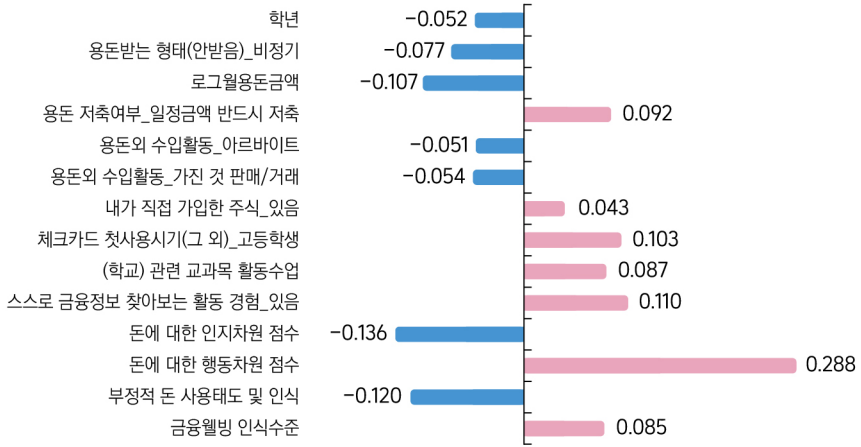


그림 V-12.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금융태도

3. 분위별 영향요인 분석: Quantile Regression 모델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여기에서는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금융이해력 점수를 기준으로 3개 분위(하위 10%, 50%, 상위10%)로 나누고 각 분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위회귀모델(Quantile Regression Model)로 분석하였음.
- 비교의 편의를 위해 100점으로 환산한 금융이해력 점수의 3개 분위의 점수를 비교해보면, 하위 10%와 상위 10%의 점수 격차는 물론, 하위 10%와 중위 50% 간의 점수 격차도 적지 않으며, 특히 금융행위 점수의 점수 격차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초·중·고 각각의 금융이해력 분위회귀모델 분석 결과, Robust OLS Model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일부 변수들이 선별적으로 분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Robust OLS Model분석에서 도출된 영향요인 중 모든 분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수도 있지만, 일부 분위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있음을 확인하였음.

1) 금융이해력 3개 분위 점수 비교

앞의 Robust OLS 모델분석에 이어 여기에서는 금융이해력 수준의 높고 낮음, 즉 금융이해력 점수 분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지 또는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등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면밀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 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이 필요한 것은 앞선 장들에서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제4장의 기초통계 분석에서 특성에 따라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가 상당하며, 명목 점수의 차이가 작을지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검정 통계를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에, 평균 중심의 추정 모델분석만으로는 초·중·고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밀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정통계량을 살펴보기는 하였으나 분위회귀모델 분석에 앞서, 3개 분위(하위 10%, 50%, 상위10%)의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를 간략히 비교해 보았다. <표 V-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중·고생 집단 모두에서 점수 격차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의 경우 하위 10% 분위의 평균점수가 38.0점인데 반해, 상위 10% 분위의 경우 78.0점으로 대략 상·하위 점수의 격차가 40.0점에 이른다. 중학생의 경우 상·하위 10%의 격차가 이보다 더 큰 42.5점이다. 고등학생의 경우도 유사한 점수 차이(42점)를 보인다.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3요소별로 격차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금융행위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그 격차는 초등학생(51.1점), 중학생(47.8점), 고등학생(45.8점)으로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금융지식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초등학생(28.6점), 중학생(44.3점), 고등학생(46.4점)으로 올라가면서 그 점수의 격차가 더욱 커진다. 한편, 금융태도는 공통적으로 낮은 분위에서 높은 분위로 올라갈수록 현재 소비에 대한 선호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표 V-8. 초·중·고생 금융이해력 3개 분위 점수

	변수	전체	$\tau=.10$	$\tau=.50$	$\tau=.90$
			(하위 10%)	중위	(상위10%)
		100점 환산 점수	100점 환산 점수	100점 환산 점수	100점 환산 점수
초등	금융이해력	63.5	38.0	62.0	78.0
	금융지식	74.2	54.3	74.3	82.9
	금융행위	58.3	26.7	55.6	77.8
	금융태도	56.4	32.5	55.0	67.5
중등	금융이해력	61.9	34.0	60.5	76.5
	금융지식	67.0	35.7	65.7	80.0
	금융행위	64.1	33.3	63.3	81.1
	금융태도	48.2	27.5	45.0	57.5
고등	금융이해력	67.2	38.5	67.0	80.5
	금융지식	74.4	40.0	75.7	86.4
	금융행위	71.6	41.1	71.1	86.9
	금융태도	44.4	27.5	42.5	58.0

주) 금융이해력 총 20점(금융지식 7점+금융행위 9점+금융태도 4점) 중 획득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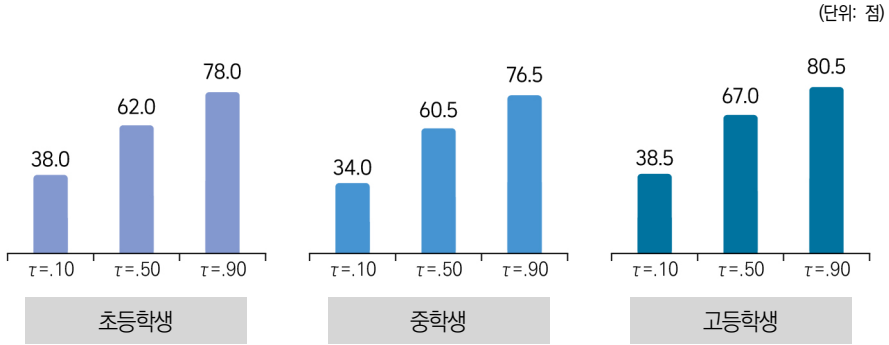


그림 V-13. 초·중·고생 금융이해력 3개 분위 평균 점수(100점 환산)

2) 학교급별 금융이해력 3개 분위별 영향 요인

(1) 초등학생 3개 분위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본 장의 서두에서 살펴본 실증모델 투입되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과 앞서 살펴본 금융이해력 점수의 3개 분위에 따른 격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학교급별로 분위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Robust OLS 모델분석의 결과와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초등학생의 3개 분위별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요인의 분석 결과는 <표 V-9>와 같다.

초등학생 분석결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부터 살펴보면, 성별 변수가 모든 분위에서 부(-)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생 중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금융이해력이 낮은 것은 금융이해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고 공통적이라는 의미이다. 학년의 경우 상위 10% 분위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Robust OLS 모델 결과만으로 초등학생의 학력이 올라갈수록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아진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초등학생에게서 학년의 영향은 단지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은 상위 10%에서만 유효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Robust OLS 모델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변수들이 일부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상위 10%에는 지역과 아버지의 학력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하위 10%에서는 가족 유형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은 상위 10%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서울/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고,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에 비해 대졸 이상인 이들이 금융이해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은 하위 10%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양부모와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결과이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의 변수들에서도 Robust OLS 모델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직접 가입한 예/적금 보유나 저작권 보유가 분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먼저 직접 가입한 예/적금의 경우 중위 50% 분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초등학생 중 금융이해력 수준이 중간정도 되는 집단에서는 직접 예/적금 가입한 초등학생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직접 가입한 저작권 보유의 경우, 3개 분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기는 하였으나, 그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하위 10% 분위에서는 직접 가입한 저작권이 있는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저작권이 없는 이들에 비해 더 낮다. 그러나 중위 50%와 상위 10% 분위에서는 정(+)의 영향으로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 금융이해력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분위회귀모델 분석이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을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체크카드 사용 유형 중 내 카드와 부모카드를 모두 사용하는 유형은 Robust OLS 모델분석의 결과가 3개 분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체크카드의 첫 사용시기가 저학년인 것은 상위 10% 분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은 초등학생 집단에 한하여 저학년 시기에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금융교육관련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금융교육 총 점수는 Robust OLS 모델 분석의 결과와 같이, 3개 분위 모두에서 동일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경험은 하위 10%와 중위 50% 분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교 금융교육의 경험이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은 상위 10% 분위에는 그다지 유의미한 영향은 없으나 중간 점수 이하의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금융이해력 점수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학교 이외 금융교육을 받은 첫 시기가 저학년인 경우는 하위 10% 분위에서만 정(+)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돈에 대한 인식관련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Robust OLS 모델분석에서 영향력의 크기가 큰 정(+)의 영향을 갖는 돈에 대한 행동차원의 인식 점수는 3개 분위 모두에서 같은 영향으로 나타났고, 부(-)의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돈 사용태도 및 인식 또한 3개 분위 모두에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Robust OLS 모델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던 돈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인식 점수는 상위 10% 분위에서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돈에 대한 감정적 측면의 인식 점수는 분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상위 10% 분위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중위 50%와 하위 10% 분위에서는 정(+)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9. 초등학생 3개 분위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요인

변수	Robust OLS	Quantile Regression		
		$\tau=.10$	$\tau=.50$	$\tau=.90$
		(하위 10%)	중위	(상위10%)
	Coeff(S.E)	Coeff(S.E)	Coeff(S.E)	Coeff(S.E)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여성)_남성	-0.400(0.09)***	-0.324(0.15)*	-0.471(0.11)***	-0.318(0.08)***
학년	0.174(0.06)**	0.165(0.10)	0.111(0.07)	0.271(0.05)***
지역(중소도시)_서울/광역시	0.176(0.10)	0.185(0.15)	0.117(0.12)	0.296(0.10)**
지역(중소도시)_읍/면/도서	0.018(0.15)	0.184(0.30)	-0.049(0.15)	-0.051(0.09)
<부모 및 가족 특성>				
가족유형(그 외)_양부모	0.018(0.20)	0.665(0.24)**	-0.095(0.23)	-0.072(0.11)
부모 경제활동 유형(그 외)_맞벌이	-0.036(0.10)	0.095(0.16)	-0.088(0.11)	-0.115(0.08)
부모 금융업 종사여부_종사	0.007(0.16)	-0.099(0.38)	0.059(0.19)	-0.006(0.10)
아버지 학력(고졸 이하)_대졸 이상	0.194(0.14)	0.139(0.21)	0.181(0.15)	0.373(0.11)**
어머니 학력(고졸 이하)_대졸 이상	0.160(0.14)	0.065(0.20)	0.276(0.15)	-0.171(0.11)
<용돈 및 수입활동 경험>				
용돈받는 형태(안받음)_정기	-0.001(0.14)	0.059(0.24)	0.112(0.16)	-0.009(0.11)

변수	Robust OLS	Quantile Regression		
		$\tau=.10$	$\tau=.50$	$\tau=.90$
		(하위 10%)	중위	(상위10%)
	Coeff(S.E)	Coeff(S.E)	Coeff(S.E)	Coeff(S.E)
용돈받는 형태(안받음)_비정기	-0.346(0.13)*	-0.325(0.21)	-0.339(0.16)*	-0.270(0.12)*
로그월용돈금액	-0.025(0.09)	-0.102(0.10)	-0.109(0.10)	0.037(0.07)
용돈 저축여부_일정금액 반드시 저축	0.730(0.12)***	1.024(0.17)***	0.855(0.14)***	0.562(0.09)***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				
내가 직접 가입한 예적금_있음	0.425(0.29)	-0.006(0.76)	0.656(0.19)**	0.423(0.25)
내가 직접 가입한 주식_있음	0.168(0.31)	0.128(0.59)	-0.244(0.34)	-0.288(0.22)
내가 직접 가입한 가상화폐_있음	0.314(0.66)	1.013(1.37)	0.825(1.72)	-0.053(0.31)
내가 직접 가입한 저작권_있음	0.051(0.82)	-3.269(0.90)***	0.982(0.46)*	0.917(0.23)***
체크카드 사용유형(사용 안함)_내카드만 사용	-0.260(0.14)	-0.106(0.19)	-0.329(0.17)	-0.213(0.15)
체크카드 사용유형(사용 안함)_내카드와 부모카드 모두 사용	-1.055(0.23)***	-1.142(0.48)*	-1.013(0.27)***	-0.910(0.16)***
체크카드 첫사용시기(그 외)_저학년	0.196(0.20)	-0.032(0.54)	0.247(0.25)	0.430(0.15)**
선불충전방식카드 사용여부_사용	0.234(0.16)	0.063(0.29)	0.333(0.17)	0.298(0.18)
선불충전방식카드 첫사용시기(그 외)_저학년	-0.051(0.36)	-0.714(0.42)	0.445(0.40)	0.097(0.23)
<금융교육 경험>				
부모 금융교육 총점수	0.131(0.01)***	0.121(0.02)***	0.152(0.01)***	0.119(0.01)***
(학교) 금융교육 경험	0.348(0.11)**	0.642(0.18)***	0.426(0.13)**	0.119(0.11)
(학교)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_저학년	-0.258(0.16)	-0.349(0.26)	-0.316(0.16)	-0.167(0.14)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	0.081(0.14)	-0.029(0.20)	0.038(0.15)	0.196(0.12)
(학교 이외)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그 외)_저학년	0.397(0.19)*	0.759(0.30)*	0.377(0.23)	0.286(0.15)
<'돈' 및 금융행동에 대한 인식>				
돈에 대한 인지측면 인식 점수	-0.080(0.08)	0.029(0.11)	-0.038(0.09)	-0.211(0.06)**
돈에 대한 감정측면 인식 점수	0.086(0.06)	0.275(0.09)**	0.187(0.07)**	-0.101(0.05)*
돈에 대한 행동차원 인식점수	1.343(0.07)***	1.371(0.11)***	1.307(0.08)***	1.298(0.07)***
부정적 돈 사용태도 및 인식	-0.210(0.03)***	-0.165(0.04)***	-0.242(0.03)***	-0.210(0.03)***
N	2,870	2,870	2,870	2,870

변수	Robust OLS	Quantile Regression		
		$\tau=.10$	$\tau=.50$	$\tau=.90$
		(하위 10%)	중위	(상위10%)
	Coeff(S.E)	Coeff(S.E)	Coeff(S.E)	Coeff(S.E)
R ²	0.3079		-	
Pseudo R ²		0.1703	0.1852	0.1790

주1) 내 명의 체크카드 첫 사용 시기, 선물충전방식 카드 첫 사용 시기, 학교에서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학교 이외 곳에서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변수의 '그 외'는 고학년(4,5,6학년)과 카드 미사용 또는 금융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비해당)를 의미함.
주2) 변수의 ()는 준거집단, _뒤는 더미항목을 의미함.
주3) *** p<.001, ** p<.01, * p<.05

(2) 중학생 3개 분위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초등학생에 이어 중학생의 3개 분위별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V-10>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부터 살펴보면, Robust OLS 모델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성별 변수가 중위 50%와 하위 10%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부(-)의 영향이 있고, 지역_읍/면/도서지역은 상위 10% 분위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금융이해력 수준이 중간 이하인 중학생 집단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낮고,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은 10% 분위의 학생들 중 읍/면/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다는 결과이다.

그 외 Robust OLS 모델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요인인 학년은 중위 50%와 상위 10% 분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서울/광역시 거주는 중위 50% 분위에서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은 모든 분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금융업 종사 변수는 중위 50% 분위에서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융이해력이 중간정도 되는 중학생 집단에서 부모가 금융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용돈 및 수입활동 경험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중위 50% 분위에서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용돈의 일부 금액을 저축하는 것은 중위 50%와 상위 10% 분위에서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용돈 외 수입활동

중 부모님의 일을 돕는 것은 중위 50% 분위에서만 정(+)의 영향을 미치고, 가진 것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경험은 모든 분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obust OLS 모델분석에서 부(-)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던 용돈 외 수입의 저축은 분위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직접 가입한 예/적금 보유가 3개 분위 모두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 가입한 주식보유는 중위 50% 분위에만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인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과 선불충전방식 사용하는 것 또한 3개 분위 모두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앞선 Robust OLS 모델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은 결과 중 하나는 내 체크카드와 부모의 카드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은 상위 10% 분위에서 정(+)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제3장의 FGI(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적은 금액은 내 카드를 사용하고, 지출 금액이 큰 것은 부모님 카드를 사용한다는 계획된 지출 방식이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은 중학생 집단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교육 경험관련 변수들의 경우, Robust OLS 모델분석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 부모 금융교육 총 점수는 초등학생과는 달리, 하위 10% 분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학교 금융교육 경험의 경우는 상위 10%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Robust OLS 모델분석에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학교 금융교육의 외부강사 강의 경험은 하위 10% 분위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은 상위 10% 분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은 중학생들에게 외부강사 강의 방식의 금융교육이 효과적이지 않고,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은 중학생 집단에서는 학교 이외에서 받은 금융교육 경험이 있는 이들이 금융이해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금융정보 활동 및 금융피해 경험의 영향을 살펴보면, Robust OLS 모델분석에서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나타났던 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경험이 3분위 모두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스스로 금융정보를 탐색하는 계기와 관련한 변수들은 Robust OLS 모델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분위회귀분석에서는 일부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중위 50% 분위에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붐이 일어났을 때 금융정보 탐색의 계기가 되었다는 중학생, 그리고 수업을 통해 관심/흥미가 생긴 계기를 갖는 중학생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다.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금융피해를 경험의 영향도 Robust OLS 모델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분위회귀분석에서는 일부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휴대폰 결제깡의 경험은 하위 10%와 상위 10% 분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소액대출 경험은 상위 10% 분위에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이해력이 높은 수준에 있거나 낮은 수준에 있는 중학생 중, 휴대폰 결제를 통한 불법금융행위의 경험을 갖는 이들이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은 상위 10% 집단에 속하는 중학생 중 소액대출 경험이 있는 이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이해력 점수가 낮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돈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살펴보면, 돈에 대한 행동차원의 인식 점수(+)나 부정적 돈 사용태도 및 인식 점수(-)가 3개 분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돈에 대한 감정측면의 인식 점수는 하위 10%와 중위 50% 분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obust OLS 모델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던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 점수는 하위 10% 분위에서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0. 중학생 3개 분위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요인

변수	Robust OLS	Quantile Regression		
		$\tau=.10$	$\tau=.50$	$\tau=.90$
		(하위 10%)	중위	(상위10%)
	Coeff(S.E)	Coeff(S.E)	Coeff(S.E)	Coeff(S.E)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여성)_남성	-0.189(0.10)	-0.388(0.18)*	-0.218(0.10)*	-0.152(0.10)
학년	0.197(0.07)**	0.085(0.13)	0.274(0.07)***	0.221(0.07)**
지역(중소도시)_서울/광역시	0.232(0.10)*	0.149(0.17)	0.272(0.10)**	0.132(0.09)
지역(중소도시)_읍/면/도서	-0.168(0.16)	0.002(0.36)	-0.184(0.27)	-0.430(0.20)*

변수	Robust OLS	Quantile Regression		
		$\tau=.10$	$\tau=.50$	$\tau=.90$
		(하위 10%)	중위	(상위10%)
	Coeff(S.E)	Coeff(S.E)	Coeff(S.E)	Coeff(S.E)
주관적 학업 성취수준	0.440(0.05)***	0.492(0.09)***	0.480(0.05)***	0.216(0.05)***
<부모 및 가족 특성>				
가족유형(그 외)_양부모	0.083(0.19)	0.076(0.47)	0.128(0.23)	0.073(0.14)
부모 경제활동 유형(그 외)_맞벌이	-0.022(0.10)	0.085(0.19)	0.035(0.11)	0.067(0.09)
부모 금융업 종사여부_종사	-0.584(0.20)**	-0.203(0.27)	-0.781(0.18)***	-0.274(0.14)
아버지 학력(고졸 이하)_대졸 이상	0.032(0.12)	0.037(0.21)	0.016(0.13)	0.195(0.12)
어머니 학력(고졸 이하)_대졸 이상	0.183(0.12)	0.352(0.22)	0.171(0.14)	0.135(0.11)
<용돈 및 수입활동 경험>				
용돈받는 형태(안받음)_정기	0.491(0.18)**	0.500(0.27)	0.481(0.19)*	0.141(0.16)
용돈받는 형태(안받음)_비정기	0.088(0.15)	-0.240(0.26)	0.132(0.15)	0.183(0.15)
로그월용돈금액	-0.117(0.08)	-0.076(0.14)	-0.149(0.08)	0.041(0.08)
용돈 저축여부_일정금액 반드시 저축	0.481(0.13)***	0.371(0.23)	0.396(0.14)**	0.375(0.11)***
용돈외 수입활동_아르바이트	-0.015(0.36)	-0.414(0.40)	-0.264(0.57)	0.676(0.53)
용돈외 수입활동_부모 일 도움	0.124(0.11)	-0.051(0.20)	0.258(0.12)*	0.089(0.09)
용돈외 수입활동_가진 것 판매/거래	0.693(0.12)***	0.968(0.22)***	0.535(0.12)***	0.571(0.11)***
용돈외 수입저축여부_저축	-0.858(0.41)*	-0.527(0.46)	-1.388(0.86)	-0.198(1.37)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				
내가 직접 가입한 예적금_있음	0.371(0.18)*	0.667(0.27)*	0.229(0.11)*	0.366(0.13)*
내가 직접 가입한 주식_있음	0.430(0.26)	0.698(0.44)	0.476(0.20)*	-0.069(0.29)
내가 직접 가입한 가상화폐_있음	-0.194(0.52)	0.255(1.04)	-0.093(0.23)	-0.280(0.65)
내가 직접 가입한 저작권_있음	0.151(0.33)	0.307(0.71)	0.197(0.51)	0.508(0.37)
체크카드 사용유형(사용 안함)_ 내카드만 사용	0.463(0.12)***	0.621(0.19)**	0.424(0.13)**	0.418(0.12)**
체크카드 사용유형(사용 안함)_ 내카드와 부모카드 모두 사용	0.049(0.21)	-0.176(0.36)	0.052(0.30)	0.365(0.16)*
체크카드 첫사용시기(중학생)_초등학생	0.035(0.17)	-0.156(0.30)	0.094(0.15)	0.288(0.20)
선불충전방식카드 사용여부_사용	0.673(0.11)***	0.499(0.21)*	0.746(0.13)***	0.756(0.12)***

변수	Robust OLS	Quantile Regression		
		$\tau=.10$	$\tau=.50$	$\tau=.90$
		(하위 10%)	중위	(상위10%)
	Coeff(S.E)	Coeff(S.E)	Coeff(S.E)	Coeff(S.E)
선불충전방식카드 첫사용시기(중학생)_ 초등학생	0.447(0.17)**	0.826(0.30)**	0.220(0.17)	0.169(0.17)
<금융교육 경험>				
부모 금융교육 총점수	0.053(0.01)***	0.039(0.02)	0.066(0.01)***	0.069(0.01)***
(학교) 금융교육 경험	0.446(0.21)*	0.774(0.31)*	0.499(0.23)*	0.021(0.17)
(학교) 경제금융 교과목 이수	-0.041(0.17)	0.270(0.27)	-0.129(0.19)	0.067(0.13)
(학교) 관련 교과목 활동수업	0.120(0.17)	0.014(0.23)	-0.009(0.18)	0.213(0.14)
(학교) 외부강사 강의	-0.233(0.17)	-0.693(0.24)**	-0.099(0.18)	-0.029(0.13)
(학교) 동영상 강의 시청	0.096(0.17)	0.272(0.22)	-0.029(0.18)	0.001(0.14)
(학교)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중학생)_초등학생	0.047(0.16)	-0.114(0.26)	0.041(0.17)	-0.184(0.13)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	0.231(0.34)	-0.218(0.55)	0.423(0.39)	0.573(0.16)***
(학교 이외)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중학생)_ 초등학생	0.390(0.43)	0.906(0.82)	0.674(0.42)	-0.353(0.26)
<금융정보 활동 및 금융피해>				
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 경험_있음	1.145(0.13)***	1.693(0.23)***	0.837(0.13)***	0.699(0.13)***
금융정보 탐색 계기_주식, 비트코인 붐이 일었을때	0.085(0.19)	-0.068(0.34)	0.393(0.16)*	0.074(0.19)
금융정보 탐색 계기_관련 수업을 관심/흥미 생겨서	0.155(0.22)	0.307(0.36)	0.487(0.20)*	0.276(0.17)
(금융피해) 휴대폰 결제강_있음	-0.329(0.22)	-0.989(0.32)**	-0.296(0.22)	-0.417(0.18)*
(금융피해) 폰테크_있음	0.379(0.23)	0.017(0.57)	0.355(0.29)	0.031(0.16)
(금융피해)소액대출_있음	-0.100(0.25)	-0.521(0.62)	0.128(0.25)	-0.556(0.14)***
<'돈' 및 금융웰빙에 대한 인식>				
돈에 대한 인지측면 인식 점수	0.064(0.09)	0.120(0.15)	-0.023(0.09)	0.044(0.10)
돈에 대한 감정측면 인식 점수	0.155(0.06)*	0.217(0.11)*	0.139(0.06)*	0.025(0.05)
돈에 대한 행동차원 인식점수	0.901(0.07)***	0.962(0.11)***	1.053(0.07)***	0.725(0.07)***
부정적 돈 사용태도 및 인식	-0.089(0.02)***	-0.121(0.03)***	-0.061(0.02)**	-0.088(0.02)***

변수	Robust OLS	Quantile Regression		
		$\tau=.10$	$\tau=.50$	$\tau=.90$
		(하위 10%)	중위	(상위10%)
	Coeff(S.E)	Coeff(S.E)	Coeff(S.E)	Coeff(S.E)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수준	0.030(0.02)	0.055(0.03)*	0.022(0.02)	0.037(0.02)
N	3,041	3,041	3,041	3,041
R ²	0.3372		-	
Pseudo R ²		0.2022	0.2010	0.1848

주1) 내 명의 체크카드 첫 사용 시기, 선물충전방식 카드 첫 사용 시기, 학교에서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학교 이외 곳에서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변수의 '그 외'는 중학생과 카드 미사용자 또는 금융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주2) 변수의 ()는 준거집단, _뒤는 더미항목을 의미함.
주3) *** p<.001, ** p<.01, * p<.05

(3) 고등학생 3개 분위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앞서 분석된 중학생에 이어 여기에서는 고등학생의 3개 분위별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V-11>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부터 살펴보면, Robust OLS 모델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던 학년과 지역의 변수가 일부 분위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년의 경우 하위 10% 분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서울/광역시 지역의 경우 같은 분위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읍/면/도서 지역의 경우 상위 10% 분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 Robust OLS 모델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던 고교유형(-)이나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의 영향은 3개 분위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금융이해력 수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일반/자율/특목고 학생들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낮으며, 주관적 학업성취가 높은 고등학생들이 금융이해력 또한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부모 및 가족 특성과 관련해서는 Robust OLS 모델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된 변수가 없었으나, 분위회귀분석에서는 부모의 금융업 조사가 상위 10% 분위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대졸이상 학력이 하위 10% 분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은 고교생 집단에서 부모의 금융업 종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어머니가 대졸이상 학력을 갖는 고교생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용돈 및 수입활동 경험과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것과 용돈 외 부모의 일을 돕거나 가진 것을 판매/거래하는 경험이 3개 분위 모두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변수들은 일부 분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우선 Robust OLS 모델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던 비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것은 하위 10% 분위에서 용돈을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고, 월용돈 금액이 많을수록 중위 50%와 상위 10% 분위에서는 금융이해력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용돈의 사용과 금융이해력 점수는 중간 수준이상의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반비례함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용돈의 일부를 저축하는 것과 아르바이트 경험은 하위 10% 분위에서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경험과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과 선불충전방식 카드 사용이 3개 분위 모두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외 변수는 일부 분위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직접 가입한 주식계좌 보유는 중위 50% 분위에서만 정(+)의 영향을 미치고, 가상화폐 보유는 하위 10%와 상위 10% 분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저작권 보유는 상위 10% 분위에서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위 10%와 상위 10%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는 변수는 또 발견되는데 내 카드와 부모카드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와 선불충전방식 카드 첫 사용시기가 고등학생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선불충전방식 카드 첫 사용시기가 고등학생인 경우 영향력의 방향이 하위 10% 분위(+)와 상위 10%(-) 분위에서 서로 상반되게 나타났다.

금융교육 경험과 관련해서는 부모 금융교육 총 점수와 관련 교과목 활동수업 경험이 3개 분위 모두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상관없이 부모의 금융교육과 관련 교과목 활동수업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과 경험 시기가 고등학생 인지의 여부가 일부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의 경우, 하위 10% 분위에서는 금융이해력 점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상위 10% 분위에서는 금융이해력 점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외 금융교육을

받은 첫 시기가 고등학생 시기인 경우 상위 10% 분위에서는 금융이해력 점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교 금융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상위 10%의 금융이해력을 갖는 고등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그 교육을 받은 첫 시기가 고등학교 인 경우에는 적절치 않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어 금융정보 활동 및 금융피해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중학생 분석에서와 같이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 경험은 3개 분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외 변수들은 Robust OLS 모델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던 변수들이다. 먼저 주식이나 비트코인의 붐이 금융정보 탐색의 계기는 하위 10% 분위와 상위10% 분위에서 공통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붐에 편승하여 금융정보를 탐색한 경험이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을 돕는 활동이 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Robust OLS 모델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불법금융행위의 피해 경험은 일부 분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 영향의 방향은 일관되지 못하다. 가령 휴대폰 결제깡의 경험은 중위 50% 분위에서, 그리고 폰테크의 경험은 하위 10%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소액대출의 경험은 하위 10%분위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만 금융이해는 물론 불법사금융행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해당 불법금융행위에 가담하는 이들이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끝으로 돈에 대한 인식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Robust OLS 모델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즉 돈에 대한 인지측면의 인식 점수와 행동차원의 인식 점수, 그리고 부정적 돈 사용태도 및 인식 점수가 3개 분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는 것이 금융이해력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11. 고등학생 3개 분위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요인

변수	Robust OLS Coeff(S.E)	Quantile Regression		
		$\tau=.10$ (하위 10%)	$\tau=.50$ 중위	$\tau=.90$ (상위10%)
		Coeff(S.E)	Coeff(S.E)	Coeff(S.E)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여성)_남성	-0.106(0.11)	-0.008(0.14)	-0.145(0.10)	-0.025(0.06)
학년	0.044(0.07)	0.168(0.09)*	0.037(0.07)	-0.062(0.04)
지역(중소도시)_서울/광역시	-0.026(0.11)	-0.353(0.13)**	-0.105(0.11)	0.079(0.06)
지역(중소도시)_읍/면/도서	0.191(0.16)	-0.188(0.20)	0.054(0.17)	0.269(0.13)*
고교유형(그 외)_특성화고	-0.636(0.15)***	-0.887(0.16)***	-0.530(0.17)**	-0.608(0.07)***
주관적 학업 성취수준	0.308(0.05)***	0.427(0.06)***	0.262(0.05)***	0.311(0.03)***
<부모 및 가족 특성>				
가족유형(그 외)_양부모	0.144(0.18)	-0.465(0.36)	0.213(0.22)	0.081(0.15)
부모 경제활동 유형(그 외)_맞벌이	0.102(0.11)	0.141(0.15)	-0.027(0.13)	0.082(0.08)
부모 금융업 종사여부_종사	-0.145(0.21)	-0.226(0.18)	-0.069(0.30)	-0.222(0.11)*
아버지 학력(고졸 이하)_대졸 이상	0.034(0.14)	-0.078(0.14)	0.025(0.14)	-0.147(0.08)
어머니 학력(고졸 이하)_대졸 이상	0.071(0.14)	0.402(0.14)**	0.113(0.13)	0.122(0.08)
<용돈 및 수입활동 경험>				
용돈받는 형태(안받음)_정기	0.959(0.24)***	1.086(0.27)***	0.986(0.23)***	0.571(0.15)***
용돈받는 형태(안받음)_비정기	0.314(0.18)	0.546(0.20)**	0.193(0.20)	0.202(0.11)
로그월용돈금액	-0.142(0.08)	-0.077(0.09)	-0.141(0.07)*	-0.094(0.05)*
용돈 저축여부_일정금액 반드시 저축	0.307(0.14)*	0.315(0.15)*	0.114(0.13)	0.326(0.10)**
용돈외 수입활동_아르바이트	0.306(0.14)*	0.529(0.18)**	0.268(0.15)	-0.021(0.07)
용돈외 수입활동_부모 일 도움	0.479(0.13)***	0.696(0.17)***	0.310(0.14)*	0.516(0.07)***
용돈외 수입활동_가진 것 판매/거래	0.387(0.12)**	0.626(0.18)***	0.521(0.12)***	0.203(0.06)**
용돈외 수입저축여부_저축	-0.845(0.94)	1.448(2.20)	-1.252(1.28)	-0.450(2.64)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				
내가 직접 가입한 예적금_있음	0.154(0.15)	0.227(0.14)	0.252(0.14)	0.219(0.13)
내가 직접 가입한 주식_있음	0.385(0.25)	-0.286(0.48)	0.623(0.25)*	-0.019(0.13)

변수	Robust OLS	Quantile Regression		
		$\tau=.10$	$\tau=.50$	$\tau=.90$
		(하위 10%)	중위	(상위10%)
	Coeff(S.E)	Coeff(S.E)	Coeff(S.E)	Coeff(S.E)
내가 직접 가입한 가상화폐_있음	0.426(0.41)	1.350(0.62)*	-0.099(0.33)	0.815(0.23)***
내가 직접 가입한 저작권_있음	-0.778(0.46)	-0.787(0.52)	-0.699(0.73)	-0.509(0.16)**
체크카드 사용유형(사용 안함)_내카드만 사용	0.390(0.14)**	1.075(0.17)***	0.355(0.15)*	0.303(0.07)***
체크카드 사용유형(사용 안함)_내카드와 부모카드 모두 사용	0.490(0.19)*	0.827(0.26)**	0.407(0.21)	0.377(0.11)***
체크카드 첫사용시기(그 외)_초등학생	-0.463(0.34)	-1.415(0.32)***	-0.200(0.52)	0.042(0.47)
체크카드 첫사용시기(그 외)_고등학생	0.128(0.15)	0.105(0.17)	0.069(0.14)	0.409(0.10)***
선불충전방식카드 사용여부_사용	0.534(0.12)***	0.506(0.15)**	0.434(0.13)**	0.417(0.08)***
선불충전방식카드 첫사용시기 (그 외)_초등학생	-0.612(0.39)	-0.659(0.74)	-0.279(0.44)	-0.501(0.29)
선불충전방식카드 첫사용시기 (그 외)_고등학생	0.096(0.16)	0.571(0.18)**	0.172(0.14)	-0.351(0.09)***
<금융교육 경험>				
부모 금융교육 총점수	0.038(0.01)**	0.043(0.02)**	0.039(0.01)**	0.051(0.01)***
(학교) 금융교육 경험	0.343(0.23)	0.229(0.26)	0.458(0.25)	0.046(0.17)
(학교) 경제금융 교과목 이수	-0.191(0.17)	-0.173(0.21)	-0.083(0.15)	0.014(0.11)
(학교) 관련 교과목 활동수업	0.515(0.17)**	0.747(0.22)**	0.504(0.17)**	0.469(0.13)***
(학교) 외부강사 강의	-0.064(0.17)	0.191(0.22)	-0.085(0.19)	-0.091(0.13)
(학교) 동영상 강의 시청	-0.105(0.17)	-0.122(0.21)	-0.194(0.19)	0.118(0.13)
(학교)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그 외)_초등학생	0.119(0.19)	-0.182(0.24)	0.104(0.17)	-0.129(0.14)
(학교)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그 외)_고등학생	-0.211(0.24)	-0.140(0.40)	-0.419(0.22)	-0.037(0.13)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	-0.124(0.34)	-1.646(0.30)***	0.115(0.20)	0.432(0.19)*
(학교 이외)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그 외)_초등학생	0.148(0.53)	0.443(0.37)	0.016(0.31)	0.403(0.24)
학교 이외)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그 외)_고등학생	-0.365(0.88)	-0.965(1.55)	-0.894(1.43)	-0.643(0.24)**

변수	Robust OLS	Quantile Regression		
		$\tau=.10$	$\tau=.50$	$\tau=.90$
		(하위 10%)	중위	(상위10%)
	Coeff(S.E)	Coeff(S.E)	Coeff(S.E)	Coeff(S.E)
<금융정보 활동 및 금융피해>				
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 경험_있음	1.318(0.13)***	1.850(0.14)***	1.129(0.13)***	0.921(0.09)***
금융정보 탐색 계기_주식, 비트코인 붐이 일어났을때	-0.172(0.16)	-0.550(0.18)**	0.036(0.19)	-0.259(0.11)*
금융정보 탐색 계기_관련 수업을 관심/흥미 생겨서	0.185(0.17)	0.191(0.21)	0.022(0.19)	0.142(0.13)
(금융피해) 휴대폰 결제강_있음	0.365(0.22)	0.611(0.58)	0.437(0.18)*	0.409(0.48)
(금융피해) 폰테크_있음	0.132(0.17)	0.448(0.16)**	0.055(0.27)	-0.104(0.24)
(금융피해) 소액대출_있음	-0.235(0.33)	-1.654(0.29)***	-0.393(0.30)	0.262(0.57)
<돈 및 금융웰빙에 대한 인식>				
돈에 대한 인지측면 인식 점수	0.282(0.10)**	0.398(0.12)**	0.215(0.10)*	0.290(0.05)***
돈에 대한 감정측면 인식 점수	-0.054(0.06)	-0.154(0.09)	-0.059(0.06)	-0.055(0.04)
돈에 대한 행동차원 인식점수	0.608(0.08)***	0.757(0.09)***	0.665(0.08)***	0.438(0.05)***
부정적 돈 사용태도 및 인식	-0.133(0.02)***	-0.081(0.03)**	-0.127(0.02)***	-0.150(0.01)***
주관적 금융웰빙 인식수준	0.029(0.02)	0.029(0.02)	0.033(0.02)	0.001(0.01)
N	2,847	2,847	2,847	2,847
R ²	0.3130		-	
Pseudo R ²		0.2131	0.1784	0.1683
<p>주1) 내 명의 체크카드 첫 사용 시기, 선물충전방식 카드 첫 사용 시기, 학교에서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학교 이외 곳에서 금융교육 받은 첫 시기 변수의 '그 외'는 중학생과 카드 미사용자 또는 금융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p> <p>주2) 변수의 ()는 준거집단, _뒤는 더미항목을 의미함.</p> <p>주3) *** p<.001, ** p<.01, * p<.05</p>				

4. 소결 : 주요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본 장에서는 초·중·고 학교급별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Robust OLS 모델로 실증 분석하고, 동일 학교급 내에서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기초통계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융이해력 점수를 기준으로 3개의 분위(하위 10%, 50%, 상위 10%)로 구분하고, 각 분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모델 분석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실증 분석하였음.
- Robust OLS 모델분석에서는 초·중·고생의 금융이해력 수준 및 구성의 3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초·중·고생 모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총 47가지로, 세 가지의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운동 저축, 부모의 금융교육 총 점수, 돈에 대한 행동차원 인식 점수)과 한 가지의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부정적 돈 사용 태도 및 인식 점수)으로 도출됨.
 - ② 초·중생의 금융이해력 점수 수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a)학년과 b)학교 금융교육의 경험임.
 - ③ 중·고생의 금융이해력 점수 수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a)주관적 학업성취 수준, b)정기적으로 받는 운동, c) 내 명의 체크카드만 사용, d)선불충전방식 청소년전용카드 사용, e)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임.
 - ④ 고교생의 경우 추가적으로 특성화고교(-), 관련 교과목 활동수업 경험(+), 운동 외 아르바이트, 부모 일 도움, 가진 것 판매/거래 경험의 수입활동(+)이 동일 학교급 내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
 - ⑤ 초등학교 금융이해력 수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는 돈에 대한 행동차원의 인식 점수와 부모의 금융교육 총 점수 순이며, 중학생의 경우 돈에 대한 행동차원의 인식 점수와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는 활동, 고등학생은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는 활동과 돈에 대한 행동차원의 인식점수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모델 분석에서는 3개 분위별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Robust OLS 모델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보다 면밀한 변수들의 영향과 영향력이 나타나는 주된 대상층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초·중·고생 및 금융이해력 3개 분위 모두에서 공통된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은 2가지로, 돈에 대한 행동차원의 인식 점수가 정(+)의 영향, 부정적 돈 사용 태도 및 인식 점수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② 성별(-)과 학교 금융교육 경험(+), 초·중생의 50%와 하위 10% 분위에서만 영향력이 나타남.
 - ③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 운동 외 수입활동으로 가진 것 판매/거래, 내 체크카드만 사용, 선불충전방식 카드 사용, 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은 금융이해력 50% 및 상위 10% 분위 중·고생 집단에서 정(+)의 영향을 미침.
 - ④ 특성화고(-)와 돈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점수(+), 정기적인 운동(+), 관련 교과목 활동수업 형태의 학교 금융교육 경험(+), 고교생의 금융이해력 수준 모든 분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의 결과는 학교급 및 금융이해력 수준별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 다르고, 영향력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사항이 각기 다르다는 실증 근거를 제공하고, 기존에 수립된 청소년 금융교육에 대한 방향 및 금융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전략이 대폭 수정·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본 장에서는 앞선 제4장에서 분석된 초·중·고생의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검증에 이어 실증모델 분석을 통해 초·중·고생 각각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두 가지 실증모델을 활용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실증모델은 실태조사를 통해 측정된 초·중·고생 각각의 금융이해력 총 점수 및 이를 구성하는 3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Robust OLS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투입된 설명변수는 실태

조사에서 측정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크게는 두 가지, 즉 개인 및 부모 특성과 금융생활실태 특성, 구체적으로는 7가지(①사회인구학적 특성, ②부모 및 가족 특성, ③용돈 및 수입 활동 경험, ④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 ⑤금융교육 경험, ⑥금융정보 활동 및 금융피해 경험, ⑦돈 및 금융웰빙에 대한 인식)로 구성하였고, 이들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들이 발견되었다.

Robust OLS모델 분석을 통해 학교급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요인은 물론, 학교급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들이 발견되었고, 금융이해력 총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금융지식과 같이 구성의 3요소의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함께 분석되어 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의 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 전략의 설정에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을 중심으로 추정하는 Robust OLS모델 분석만으로는 이미 초·중·고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검증에서 나타난 사실을 충분히 반영한 실증모델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이해력 총 점수를 기준으로 3개 분위(하위 10%, 50%, 상위 10%)로 나누고 각 분위별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모델로 적절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의 결과를 Robust OLS모델 분석의 결과에 더하여 비교·해석함으로써 초·중·고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하였다.

두 가지의 실증분석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중·고생의 금융이해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돈에 대한 행동차원의 인식 점수, ②부모의 금융교육 점수, ③용돈의 일부 저축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정적인 돈 사용 태도 점수'이다. 이들 요인이 갖는 의미를 하나로 묶는다면, 스스로가 '나는 돈 관리를 잘하고, 돈을 매우 신중하게 사용 한다'고 인식할 만큼 용돈 생활에 있어 왜 지출관리와 저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생활습관형성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 금융이해력을 갖는데 기본이며, 그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금융교육이라는 맥락이 도출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용돈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쓸 돈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지도와 모니터링 조력과 함께 금융생활의 첫 발을 딛는 것이고 생애 금융웰빙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고 저축하는 경험이

금융이해력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정기적인 용돈은 초등학생의 경우 오히려 금융이해력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특히 초·중·고생 모두에게서 금융태도에 현재의 소비성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결과는 이를 뒷받침 하는 탄탄한 근거라 할 수 있다.

부모의 금융교육과 더불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학년과 학교 금융교육의 경험도 금융이해력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분위회귀모델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학년은 금융이해력 수준이 상위 10% 집단에서만, 그리고 학교 금융교육의 경험은 하위 10%와 중위 50% 집단에서만 그 영향력이 유효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지발달적인 측면에서 금융이해력 수준이 초·중·고생 간 차이는 분명하지만, 동일 학교급 내 학년에 따른 차이는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만 고려될 사항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장의 실증모델 분석을 결과를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보면, 한 가지 뚜렷하게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중·고 시기에 따라 부모의 금융교육이 중학교 초등생 시기를 지나 중학생 시기에는 부모의 금융교육 중심으로부터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으로의 전환이 시작되고, 고등학교 시기에는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는데 부모의 금융교육이 중심이 되고 학교 교육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면, 중학생은 초등학생과는 달리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고 학습하는 활동 경험이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고등학생 시기에는 이 자기 주도적 금융정보 활동 경험이 핵심 요인이 되는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 학교급을 고려한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하나의 틀(frame)로 활용될 수 있다.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 경험과 더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 공통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4가지(①주관적 학업성취 수준, ②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것, ③내 명의 체크카드만 사용, ④선불충전방식의 청소년전용 카드 사용)로 요약된다. 이들 요인도 하나로 묶어본다면, 기본적으로 중·고생용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 특히 금융지식 측정 내용의 경우 객관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외의 요인들은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아 내 명의 체크카드와 선불충전방식의 청소년카드 사용을 통해 관리하는 생활습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중·고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인식형성과 생활습관 형성이 필요한 초등학생

시기를 넘어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 주도적 생활습관 형성 및 실천을 통해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 디지털세대 특성에 맞게 개발된 체크카드 및 선불충전방식 카드의 사용이 경험을 통한 인지적 지식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모든 중·고생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분위회귀모델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이나 체크카드나 선불충전방식의 청소년 전용 카드 사용, 그리고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 경험의 영향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금융이해력 수준이 50% 수준 이상인 집단에서만 유효하다.

한편,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금융이해력 수준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일반/자율/특목고 학생들에 비해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다는 결과이다. 이는 상업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재학 중 및 졸업 후 경제활동을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실생활에 밀착된 금융교육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단 특성화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생의 경우 용돈 외 수입활동의 범위가 넓고, 불법금융행위 및 피해경험률 또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현실 밀착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이 때 고려되어야 하는 고등학생 분위회귀모델 분석의 결과 중 하나는 금융이해력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 활동수업으로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금융이해력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본 장의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이어지는 제6장에서 앞서 논의된 사항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고 청소년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책의 방향 및 전략의 수립 등을 도출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 제6장 종합논의 및 정책 제언

- 1. 주요 결과의 요약
- 2. 주요 결과의 함의 및
정책개입의 방향
- 3. 실증결과에 기초한 정책제언

1. 주요 결과의 요약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논의하기에 앞서, 어떠한 과정으로 연구가 추진되어 결과를 도출하였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고, 실증분석의 결과를 크게 세 단계(기초통계분석 → 실증분석 I : Robust OLS모델 → 실증분석 II : Quantile Regression모델)로 나누어 분석을 통해 발견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였음.

1) 연구 추진과정의 요약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금융교육이 하나의 사회안전망으로 인식될 만큼 그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금융교육을 비롯한 청소년 금융생활에 대한 지원정책이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정부는 그 간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금융이해력을 측정하는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의 금융교육 정책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해 왔다. 이는 금융교육 정책의 주요 대상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금융이해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성인의 금융이해력조사 결과에 비추어 청소년 금융교육정책 등을 수립·시행해 온 것이다. 그리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한 금융이해력 조사 자료가 부재했기 때문이며,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소년 대상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확보하고자 하였다.

보다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 통합방

* 이 장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법설계(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에 기초한 연구방법을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내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발전되어 온 금융이해력의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은 물론,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기존 연구들에서는 파악될 수 없었던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금융이슈를 함께 고찰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히 금융지식만이 아닌, 금융행위와 태도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금융생활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대한 정보는 정책 기초자료로서 의미 있게 활용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교육을 비롯한 청소년 금융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금융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와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금융생활실태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설계하고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금융이해력 측정도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과 OECD 중심으로 개발된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도구들의 발전 과정과 구성내용을 검토하였고, 우리나라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도구로서 OECD/INFE에서 개발한 측정도구를 준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년간 국내 성인대상 조사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의 기본 틀과 개념은 따르되, 학교급에 따라 청소년의 이해수준에 맞게 수정·보완된 측정도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금융생활실태의 측정은 문헌검토와 함께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청취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생생한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문항을 개발·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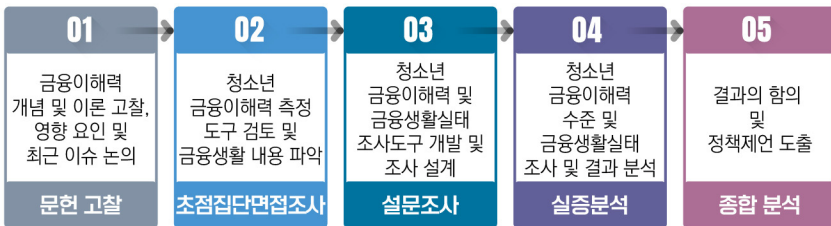


그림 VI-1. 연구 추진의 과정

측정도구의 마련과 더불어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을 대표하는 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층화집락추출방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선정하였고, 초·중·고 학교방문 집단면접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8,758명(초등학생 2,870명, 중학생 3,041명, 고등학생 2,847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인 청소년 금융교육 및 금융생활지원을 위한 체계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확보된 것이다.

본 연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청소년 금융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기초통계분석 및 두 가지의 실증모델분석(Robust OLS Model, Quantile Regression Model)을 실시하였다. 기초통계분석에서는 초·중·고 각 학교급별 금융이해력 점수의 수준을 산출하고, 이를 금융이해력 구성의 3가지 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의 점수와 함께 제시하였으며, 개인 및 부모의 특성에 따라 금융이해력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통계(t-test, GLM-test)로 검증하였다. 또한 용돈 및 용돈 외 수입,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 금융교육 경험과 금융정보활동 경험, 금융피해경험, 그리고 돈에 대한 인식 및 금융웰빙인식 등 금융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고, 이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를 같은 방식으로 통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차이가 다른 특성들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금융이해력 수준에 어떠한 요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증모델 분석 또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 가지 방식의 실증모델분석을 단계적으로 실시한 데에는 기초통계분석 단계에서 초·중·고 각각 동일한 학교급 내 금융이해력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금융생활특성에 따라 그 격차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차이는 비단 기초통계분석의 결과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연구의 시작단계에서 검토된 영상자료나 언론기사 자료에서도 어느 정도 동일세대 내 격차가 작지 않다는 사실이 포착되었고,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도 참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 속에서도 여과 없이 실상의 격차가 청취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평균을 중심으로 추정되는 Robust OLS모델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어 금융이해력을 기준으로 구분한 3개 분위(하위 10%, 50%, 상위 10%) 집단 각각에 대해 분위회귀모델(Quantile Regression) 분석을 하여, 금융이해력 최상위와 최하위, 그리고 중간 점수대에 있는 청소년

년들의 금융이해력에 각기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의 결과는 단순히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넘어 보다 면밀하고 정교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컨대 초등학교의 학년은 금융이해력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Robust OLS모델 분석의 결과에서 도출되었지만, 분위회귀모델로 추가 분석을 해보면, 학년의 영향은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은 상위 10%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금융교육 정책 수립 시 구체적이고 정교하며 대상자에 밀착된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에서 3단계(기초 분석 → 실증모델분석Ⅰ(Robust OLS Model) → 실증모델분석Ⅱ(Quantile Regression Model))로 나누어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2) 실증결과의 주요 발견

(1) 기초통계분석의 주요 발견

초·중·고생 각각의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실태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 결과와 개인 및 부모특성, 그리고 금융생활실태 특성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 단계에서 발견된 주요 사항 그 첫 번째는 학교급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다는 사실이다.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 인지발달을 고려하여 금융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을 초등학교와 중·고생이 다르게 구성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고생의 금융이해력 점수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측정된 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그러한 경향성은 분명하다.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측정한 중·고생을 비교해보면 중학생(61.9점)보다 고등학생(67.2점)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더 높고, 동일한 학교급 내에서는 점수 차이가 크지는 않을지라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높은 경향성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학교급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타나는 또 다른 경향성은 바로 금융태도의 점수가 낮아진다는 것인데, 점수가 낮다는 것은 세 가지 항목(①저축보다 소비를 선호하고, ②미래보다 현재를 선호하고, ③돈은 쓰기위해)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즉 연령이 높아지면서 현재의 소비에 대한 선호가 보다 더 강해지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OECD/INFE가 개발·보급한 측정도구를 우리나라에서도 성인 대상(18세~79세)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의 조사도구로 2012년부터 사용하고 있기에, 여기서

측정하는 내용의 기본 개념은 유지하고 표현을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의 중·고생 대상 금융이해력을 측정한 결과,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67.2점)가 성인 전체 평균(66.5 점) 보다 높고, 특히 20대 청년(65.8점)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금융지식점수 보다는 금융행위 점수에서 고등학생이 20대 청년이나 성인 전체 평균에 비해 높다. 어떠한 요인으로 인하여 성인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금융행위 점수가 더 높은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분명한 것은 금융지식의 차이는 크지 않고 금융행위에서 디지털 금융생활이 보편화된 오늘의 청소년들이 더 높은 점수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표 VI-1. 중·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점수 : 성인 및 20대 청년과 비교

(단위: 점)

구분	본 연구 결과		'22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	
	중학생	고등학생	20대 청년	성인 전체 평균 (18세~79세)
금융이해력	61.9	67.2	65.8	66.5
금융지식	67.0	74.4	74.9	75.5
금융행위	64.1	71.6	66.2	65.8
금융태도	44.4	48.2	48.9	52.4

주) 금융이해력 총 20점(금융지식 7점, 금융행위 9점, 금융태도 4점)을 100점 환산
 금융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저축보다 소비 선호, 미래보다 현재 선호, 돈을 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임.
 *출처: 한국은행·금융감독원(2023.03.30.),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p.14.

세 번째는 금융지식과 관련한 사항인데, 측정된 내용 중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이해를 보이는 내용이 초등학생의 경우 금융회사의 성격과 기능이고, 중·고등학생은 복리 이해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복리개념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은 성인 대상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이나 오히려 점수는 고등학생이 더 높다. <표 V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복리개념의 이해를 측정 문항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정답률이라 할 수 있는 점수는 44.3점으로 20대 청년(41.4점)이나 성인 전체 평균(39.1점)보다 높다. 이는 10대 청소년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금융지식과 관련하여 복리에 대한 이해가 가장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I-2. 금융지식 측정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 항목: 복리 개념의 이해

(단위: 점)

구분	본 연구 결과		'22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	
	중학생	고등학생	20대 청년	성인 전체 평균 (18세~79세)
복리개념의 이해	36.6	44.3	41.4	39.1

주) 제4장 [그림 IV-18] 재구성

*출처: 한국은행·금융감독원(2023.03.30.),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p.14

네 번째는 초·중·고생 금융이해력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공통된 특성은 부모의 학력이다. 초·중생의 차이검증 결과에서는 부모학력 이외 학년의 특성도 두 학교급의 공통된 특성으로 나타나고, 중·고생의 경우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이 부모의 학력과 더불어 차이를 갖는 공통된 특성이다. 한편, 금융생활실태에 따라서도 초·중·고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특성들(①용돈 저축여부, ②직접가입한 예/적금 유무, ③부모의 금융교육 점수, ④스스로 금융정보활동 경험 유무, ⑤돈에 대한 행동적 차원의 인식 점수, ⑥부정적 돈 사용 태도 점수)이 다수 발견되었다.

(2) Robust OLS모델 분석에서의 주요 발견

차이검증에 이어 실증모델 분석에서는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초등학 총 7개의 설명변수군(①사회인구학적 특성, ②부모 및 가족특성, ③용돈 및 수입활동 경험, ④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경험, ⑤금융교육 경험, ⑥금융정보 활동 및 금융피해 경험(초등 제외), ⑦돈 및 금융웰빙에 대한 인식)으로 추정하였다. 분석은 금융이해력 점수를 종속변수인 모델이외,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3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의 점수 각각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4개의 모델이 초·중·고 학교급별로 각각 실시되었고, 그 수는 총 12개이다.

분석된 결과들을 모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선 초·중·고생 모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총 4개가 도출되었다. 그 중 하나(부정적 돈 사용 태도)는 부(-)의 영향 요인이고, 다른 세 개의 요인(①용돈 저축, ②부모의 금융교육 총 점수, ③돈에 대한 행동차원 인식 점수)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즉 초·중·고생 모두에서 용돈의 일부를 저축하고, 부모가 지출의 관리 및 저축의 방법을 알려주는 등 측정항목의 응답점수

가 높을수록, 그리고 스스로가 '돈 관리를 잘하고, 돈을 매우 신중하게 사용 한다(돈에 대한 행동적 차원)'고 인식하는 점수가 높을수록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다는 결과이다. 이는 초·중·고 학령기 금융교육에 있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초·중생의 공통 영향요인과 중·고생의 공통 영향요인이 서로 다른데, 먼저 초·중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은 두 가지로, ①학년과 ②학교 금융교육 경험이고, 중·고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5개(①주 관적 학업성취 수준, ②정기적으로 받는 용돈, ③내 명의 체크카드만 사용, ④선불충전방식 청소년전용카드 사용, ⑤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가 도출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를 넘어 연령이 올라갈수록 금융생활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생활실태 요인도 함께 많아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며,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학교급이나 청소년 연령대, 그리고 생활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기에 더하여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과는 다른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된다. 예컨대 특성화고 재학생은 일반/자율/특목고 재학생에 비해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다. 이것 이외 다른 요인들(①관련 교과목 금융교육 활동수업 경험, ②아르바이트 경험, ③부모 일 도움 경험, ④가진 것 판매/거래 경험)은 금융이해력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 요인은 결과적으로 고등학생의 동일 학교급 내 금융이해력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영향요인들의 영향력 크기와 관련된 것인데, 초등학교생의 경우에는 돈에 대한 행동차원의 인식, 즉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스로가 '돈 관리를 잘하고, 돈을 매우 신중하게 사용한다'는 인식 점수가 가장 큰 영향력(363)을 보이고, 그다음으로는 부모의 금융교육 총 점수(202) 순이다. 돈에 대한 행동차원의 인식 점수는 중학생에게도 큰 영향력(232)을 갖는데 그 크기는 초등학교생의 영향력보다 작다. 한편, 중학생에게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은 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경험(171)인데, 이 요인은 고등학생에게서 가장 큰 영향력(23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에 자기 신념과 같은 돈에 대한 행동차원의 인식 요인이 영향이 가장 컸다가 중학교 시기에 이 영향은 다소 줄고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 경험이 또 다른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이 요인은 고등학교 시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이 되는 흐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VI-3. 초·중·고생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요인의 영향력 순위 비교

(단위: 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순위	돈에 대한 행동차원 인식	돈에 대한 행동차원 인식	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
2순위	부모 금융교육 총 점수	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	정기적인 용돈
3순위	부정적 돈 사용 태도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	돈에 대한 행동차원 인식
4순위	용돈 저축 여부	선불충전방식 청소년전용카드 사용	부정적 돈 사용 태도

주) 제5장 [그림 V-1], [그림 V-5], [그림 V-9] 재구성

(3) Quantile Regression모델 분석에서의 주요 발견

Robust OLS모델 분석에 이어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에서는 종속변수인 금융이해력 점수를 기준으로 3개의 분위(하위 10%, 50%, 상위10%)로 나누고, 각 분위의 금융이해력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초·중·고생 각각의 3개 분위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 번째로 모든 학교 급과 3개 분위 모두에 영향력을 갖는 공통 요인이 두 가지로 도출되는데, 하나는 돈에 대한 행동차원의 인식 점수(+)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 돈 사용 태도 점수(-)이다. 이는 금융이해력 수준과는 상관없이 모든 초·중·고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인식과 관련된 두 가지 요인이며, 돈에 대한 행동차원의 인식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돈 사용 태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요인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Robust OLS모델 분석에서 초·중생에게서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던 성별(-)과 학교 금융교육 경험(+)이 모든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해력 수준이 50%와 하위 10%에 해당하는 집단에만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obust OLS모델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이다. 또한 중·고생 Robust OLS모델 결과에서 금융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요인들(①주관적 학업성취 수준, ②용돈 외 수입활동 중 가진 것 판매/거래 경험, ③내 체크카드만 사용, ④선불충전방식 청소년전용카드 사용, ⑤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

보는 활동 경험)은 금융이해력수준이 중간 이상인 50%와 상위 10%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교육을 비롯한 금융생활지원 전략의 대상이 어느 정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갖는가에 따라 활용되고 작동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도구가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금융이해력이 낮은 하위 10% 중·고생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중고거래 판매/거래 경험을 권한다거나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게 하는 활동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고등학생 분위회귀 분석에서는 모든 분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수 발견되기도 하였다. 즉, 특성화고등학교(-)를 제외한 세 가지 요인(①돈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점수, 정기적인 용돈, 관련 교과목 활동수업 형태의 학교 금융교육 경험)은 금융이해력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고등학생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는 특성화고 재학생들이 금융이해력 수준에 상관없이 일반/자율/특목고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이해력 점수가 낮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돈은 매우 가치 있고, 돈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수록 금융이해력 점수가 공통적으로 높으며, 정기적으로 용돈 받는 고등학생과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의 활동수업으로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이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돈에 대한 인지된 인식과 활동수업과 같은 체험교육의 형태가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주요 실증분석		주요 발견
기초 통계 분석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 및 기존 측정도구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작성된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과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 개발된 청소년 금융실태 문항 개발하여 조사도구 마련.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 청소년을 대표하는 표본을 층화집락추출법을 활용하여 선정하고, 집단면접 조사 방식으로 최종 8,758명(초등학생 2,870명, 중학생 3,041명, 고등학생 2,847명)의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함.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된 금융이해력 수준과 금융생활실태조사 측정 문항 전반에 대해 초·중·고 각각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특성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의 차이를 검정통계(t-test, GLM-test)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함.
	주요 발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고, 현재 소비에 대한 선호 강함. 2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67.2점)는 전체 평균(66.5점) 및 20대 청년(65.8점)보다 높은 수준임. 3 금융지식 중 초등학생은 금융회사의 성격과 기능, 중·고등학생은 복리 이해 점수가 가장 낮음. 4 금융이해력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공통 특성은 학년과 부모학력(초등 및 중등),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과 부모의 학력(중·고생)임. 5 금융생활실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공통 특성은 용돈 저축여부, 직접 가입한 예/적금 유무, 부모의 금융교육 수준, 금융정보활동 경험 유무, 돈에 대한 행동적 차원의 인식, 부정적 돈 사용 태도임.

실증모델 분석 I Robust OLS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이해력 총 점수 및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3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점수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모델 분석을 실시함. 분석모형을 선정함에 있어 OLS모델의 기본 가정 중 하나인, 오차항의 이분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Robust OLS 모델을 선택함.
	주요 발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고생 모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총 4가지(+ 영향 : 용돈 저축, 부모의 금융교육 총 점수, 돈에 대한 행동차원 인식 점수, - 영향: 부정적 돈 사용 태도 및 인식 점수)임. 2 초·중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a)학년과 b)학교 금융교육 경험임. 3 중·고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a)주관적 학업성취 수준, b)정기적으로 받는 용돈, c) 내 명의 체크카드만 사용, d)선불충전방식 청소년전용카드 사용, e)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임. 4 고교생의 경우 특성화고교(-), 관련 교과목 금융교육 활동수업 경험(+), 용돈 외 아르바이트, 부모일 도움, 가진 것 판매/거래 경험의 수입활동(+))이 동일 학교급 내 금융이해력 수준의 격차 요인임. 5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는 초등학생은 a)돈에 대한 행동차원의 인식 점수와 b)부모의 금융교육 총 점수, 중학생의 경우 a)돈에 대한 행동차원의 인식 점수와 b)스스로 정보를 찾아보는 활동, 고등학생은 a)스스로 정보를 찾아보는 활동과 b)정기적인 용돈 점수의 순임.

실증모델 분석 II Quantile Regression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학교급 내,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기초통계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융이해력 점수를 기준으로 3개의 분위(하위 10%, 50%, 상위 10%)로 구분하고, 각 분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모델로 분석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함.
	주요 발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고생 금융이해력 3개 분위 모두에서 영향력을 갖는 공통 요인은 2가지로, 돈에 대한 행동차원 인식 점수(+)와 부정적 돈 사용 태도 점수(-)임. 2 성별(-)과 학교 금융교육 경험(+))은 초·중생의 50%와 하위 10% 분위에서만 영향력이 나타남. 3 중·고생의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 용돈 외 수입활동으로 가진 것 판매/거래, 내 체크카드만 사용, 선불충전방식 카드 사용, 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은 50%이상 영향(+)을 미침. 4 특성화고(-)와 돈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점수(+), 정기적인 용돈(+), 관련 교과목 활동수업 형태의 학교 금융교육 경험(+))은 고교생의 금융이해력 수준 모든 분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그림 VI-2. 주요 실증분석 및 주요 발견

2. 주요 결과의 함의 및 정책개입의 방향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여기에서는 앞서 도출된 주요 실증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두 가지 측면, 즉 ①이론적 측면과 ②정책적 측면에서의 함의를 논의하였음.
- 논의된 주요 함의를 토대로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도출하였음.
 - ① 국가 정책 기초자료로 공신력 있는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조사 추진
 - ② 학교급 및 금융이해력 수준, 금융생활의 경험을 고려한 금융교육 정책으로 개선
 - ③ 동일 학교급 내 금융이해력 격차를 고려한 금융교육 정책의 개선

1) 주요 결과의 함의

(1) 이론적 측면의 함의

여기에서는 앞서 요약 및 논의된 주요 연구결과들에 대한 함의를 크게 이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 함의를 도출하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본 연구가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실태를 측정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이론적 관점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가 기초자료 수집 및 기초통계를 생산해 내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정책 전략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증근거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함의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이론적 측면의 함의를 논의하기 위하여 본 연구 추진과정의 첫 출발점을 상기해보면, 그 지점은 청소년 금융이해력에 대한 개념 및 이론적 관점의 고찰이다. 즉, 제2장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6가지 이론들(①계획된 행동이론, ②자기결정이론, ③사회적 학습이론, ④생애단계(주기)이론, ⑤인지발달이론, ⑥행동경제학이론)은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를 측정하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 도구를 작성하는데 기본 토대가 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모델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주요 요인들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관점(viewpoint)이 필요하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가리킨다. 또한 실증분석의 결과에서 도출된 주요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파악하는데 어떤 하나의

이론이 절대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즉, 하나의 요인이 다수의 이론을 설명할 수 있기도 하고, 학교급 또는 연령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높은 이론도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이론들과 실증분석의 주요 요인을 연계하여 살펴보면, 어떠한 이론이 우리나라 초·중·고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데 우선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된 행동이론 : 돈에 대한 행동차원 점수, 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 경험

돈에 대한 행동차원의 점수나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 경험의 요인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금융행위나 행동이 태도나 주관적 규범 및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고, 가치가 있다고 느껴야 실행을 한다고 설명하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인식의 형성이 되어야 행동으로 이행될 수 있고, 개인의 태도와 신념 그리고 인식의 형성은 경험 등을 통해 갖추어지는 것이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돈에 대한 행동차원의 점수가 초·중생의 금융이해력 점수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이고, 중학생 시기에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경험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이라는 종합결과에 비추어본다면, 계획된 행동이론은 우리나라 초·중생, 그 중에서도 중학생의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한 이론이 될 수 있다.

② 자기결정이론 : 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 경험, 선불충전방식 청소년전용카드사용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경험은 그 활동의 가치인식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라면, 청소년들의 자율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또한 스스로 가입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선불충전방식의 청소년전용카드의 사용 또한 한도가 설정된 적은 금액일지라도 재무결정에 대한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선택 가능한 일이다. 이들 요인은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③ 사회적 학습이론 : 용돈 저축, 부모 금융교육 총 점수, 금융교육 경험, 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 경험 중 관심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경험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고, 그것의 일부를 저축하며 부모로부터 용돈 및 수입과 지출의 필요성과 저축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것, 그리고 학교와 학교 이외의 곳에서 금융교육을 받고, 친구들과 스스로 탐색한 금융정보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의 경험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금융이해력 수준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적 학습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부모의 금융교육 점수가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에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실증분석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부모와의 상호 작용을 통한 사회적 학습은 초등학생 시기에 집중적으로 작동되며, 부모의 금융교육이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증진에 중요한 기제 (mechanism)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청소년기 금융교육을 비롯한 가족, 또래, 교사와 함께하는 다양한 상호 작용의 경험이 금융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을 파악 함에 있어 그들이 어떠한 성장환경에 놓여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④ 생애과정 또는 생애주기이론 : 직접가입 상품 및 서비스 경험, 용돈 외 수입활동 중 가진 것 판매/거래 경험, 금융교육 경험, 자신명의 체크카드 및 선불충전방식 청소년 전용카드 사용

제4장의 금융생활실태에 관한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 시기를 지나면서 자신의 명의로 가입 및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성인의 금융생활 범위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 이르는 청소년들도 있다. 예컨대 단순히 저축계좌를 보유하는 것을 넘어, 주식 및 가상화폐와 저작권 투자를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소액이지만 대출의 범위까지 넘나드는 청소년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다.

체크카드나 선불충전방식의 청소년 전용카드의 사용은 물론, 청소년 시기 직접 가입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 중고거래 등의 경험, 금융교육 등 다양한 생애 경험과 관련된 요인들이 청소년 금융이해력, 특히 중·고생의 금융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험이 금융행위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생애과정 또는 생애주기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⑤ 인지 발달 이론 : 학교급, 학년,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

초·중생 집단의 경우 학교급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아지고, 중·고생공통으로 주관적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 개념을 이해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개인의 인지발달이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인지 발달 이론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물론, 동일 학교급 내 금융이해력 수준의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중학생의 상위 10%가 고등학생의 하위 10%의 금융이해력 수준보다 명목점수는 높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급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학교급과 학년이 인지발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특히 초·중생에게서 학년의 영향까지 인지 발달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⑥ 행동경제학 이론 : 부정적 돈 사용 태도, 금융피해 경험

제2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행동경제학 이론에서는 장기적인 재정 목표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우선시하는 현재 편향과 같은 인지 편향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고, 이 때 또래의 압력과 사회 비교나 규범이 고려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서 일관성 있게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낮추는 부정적 돈 사용 태도의 영향은 행동경제학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휴대폰강의 경험이 금융이해력 하위 10%와 상위 10% 양극단의 집단에서 금융이해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액대출 경험이 금융이해력 하위 10%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실증결과 또한 행동경제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기초한 이론적 함의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이론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고찰된 6가지의 이론들이 서로 교차되어 설명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다만, 전반적인 기저로 작용하는 인식의 형성이나 인지 편향과 관련된 요인들은 초·중·고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계획된 행동이론’이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 될 수 있다. 학교급을 나누어 본다면, 초·중생의 금융이해력은 계획된 행동이론과 사회적 학습이론, 인지 발달 이론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중·고생의 금융이해력은 생애과정이론, 자기결정이론, 행동경제학 이론의 관점으로 접근될 때 보다 적절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2) 정책적 측면의 함의

정책적 측면에서의 함의는 청소년 금융교육 및 금융생활 지원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이제까지 부재했던 청소년 당사자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고, 금융이해력 수준을 적절하게 파악하는데 필요한 금융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기초데이터를 생산·확보한 것, 그 자체가 정책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앞서 제4장의 소결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조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표성 있는 측정 자료가 없다는 사실에 문제제기로부터 측정도구의 마련과 자료의 수집이 실시된 것이다. 특히 전국의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된 대규모 표본조사로서 학령기 10대 청소년의 금융교육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책 자료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 자료가 갖는 더 큰 의의는 측정 도구의 설계가 성인 대상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의 틀과 주요 내용을 같이 함으로써, 조사결과를 기존의 성인의 금융이해력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라는 기존 조사를 확장한다면 기간 측정하지 못하였던 10대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말 그대로 ‘전 국민’ 조사가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기에 정책 확장에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도출될 수 있는 함의는 본 연구의 Robust OLS 모델 분석이 단지 금융이해력 점수라는 단일 종속변수의 모델만을 분석한 것이 아닌,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3개 요소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인데, 이는 청소년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금융교육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어떠한 요소에 어떠한 요인들을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요인들로 구성된 정책도구로 개입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 모델 분석을 통해 금융이해력 수준의 분위에 따라 요인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의 도출은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효과성 있게 동원되어야 하는 정책 수단에 차이가 있어야 하고, 기존에 개발 또는 적용되었던 정책도구들이 어떠한 집단을 표적화(targeting)하고, 어느 지점에 개입해야 효과적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정책 전략을 수립하는데 핵심 실증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세 번째로 도출될 수 있는 함의는 제5장의 소결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초·중·고생의 금융이해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 요인들을 종합하여 그 결과가 갖는 의미를 하나로 묶는다면, 청소년들이 실제 용돈의 지출관리 및 저축이 왜 필요한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활습관을 통해 스스로가 '나는 돈 관리를 잘하고, 돈을 매우 신중하게 사용한다고'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금융이해력을 갖는데 기본이며, 그러한 인식형성 및 생활습관 형성과정에 핵심 기제가 되는 것이 부모의 금융교육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용돈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부모세대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청소년들에게 용돈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쓸 돈을 부모로부터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지도와 조력과 함께 금융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며, 생애 금융웰빙의 시작점이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고 저축하는 경험이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 비정기적인 용돈은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오히려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비추어볼 때, 부모가 청소년 금융생활에 대해 갖는 기본 이해와 인식 및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자 수단으로서 초·중·고생 학부모가 금융교육의 범위 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도출될 수 있는 함의 또한 제5장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초·중·고생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요인을 종합해보면, 뚜렷하게 발견되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령 발달 시기에 따라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중학생 시기를 기 전환점으로 하여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는 제3장에서 논의된 초점집단면접조사의 학부모 참여자들이 중학교 시기에 금융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바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즉 중학교 시기에 용돈의 규모와 금융생활의 범위에 큰 변화가 있고 부모의 지도와 모니터링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

제5장의 실증분석에서도 초등학교 시기에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가졌던 부모의 금융교육은 중학교 시기에 영향력이 약화되고, 초등학교 시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이 중학생 시기 두 번째로 높은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가, 고등학생 시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이 된다. 이는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부모의 금융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중학생부터는 자기 주도적 금융정

보 탐색 및 학습이 부모의 금융교육 및 학교교육과 병행되어야 하고, 고등학생 시기에는 자기 주도적 정보탐색과 학습이 주도가 되는 방식으로 정책전략이 수립되어야 효과적인 것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따라서 청소년 금융정책 및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하나의 틀(frame)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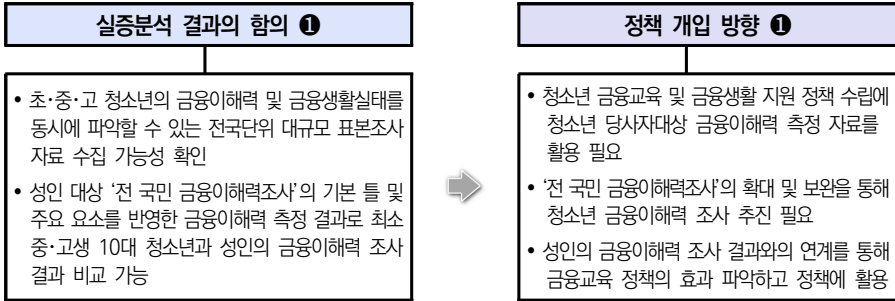
이와 같은 함의의 연장선에서 다섯 번째 함의가 도출될 수 있는데, 그것은 중·고생의 자기 주도적 금융정보의 탐색과 학습이 모든 중·고생에 적용될 수 없고, 금융이해력 수준이 중간 50% 이상인 집단에서만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학교급 뿐만 아니라, 동일 학교급 내에서의 격차를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모의 학력으로 대리될 수 있는 배경이 초·중·고생 금융이해력 수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가족의 형태 및 거주하는 지역이 중·소도시나 읍/면/도시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의 점수가 낮다는 결과, 그리고 같은 고등학생 중에서 특성화고 재학생들이 모든 분위에서 금융이해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가 갖는 함의이다. 즉,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우리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격차(disparity)'를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는 점이다.

2) 정책 개입의 방향

앞서 논의된 정책적 함의를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세 가지(①국가 정책 기초자료로 공신력 있는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조사 추진, ②학교급 및 금융이해력 수준, 금융생활의 경험을 고려한 금융교육 정책의 개선, ③동일 학교급 내 금융이해력 격차를 고려한 금융교육 정책의 개선)로 압축하고, 그에 대응하는 정책 개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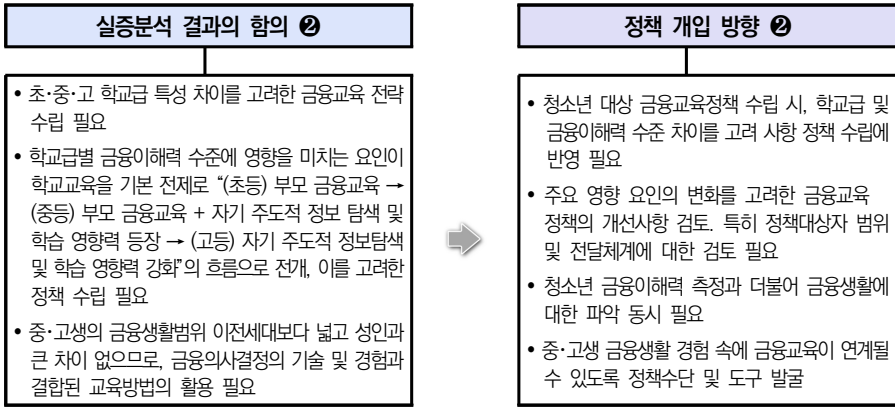
(1) 국가 정책 기초자료로 공신력 있는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조사 추진



첫 번째 정책 개입의 방향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통해 청소년 금융정책 및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실증근거를 확보하였고,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를 기본 틀로 하여 최소 중·고생 대상 금융이해력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수집·분석된 자료로 청소년 금융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측정과 금융생활실태와 함께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조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청소년 금융교육 등의 정책수립을 위한 국가정책 기초자료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성인과 연계된 정책효과성까지 도출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 920016호, 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3.03.30., p.16)인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의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2) 학교급 및 금융이해력 수준, 금융생활의 경험을 고려한 금융교육 정책으로 개선



두 번째 정책개입의 방향은 초·중·고생 학교급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금융교육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이해력 수준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교급 및 연령 발달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초등학교 시기 부모의 금융교육이 핵심 기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기 수립된 금융교육 정책(예: 2023년 금융교육 추진 방안 등)에는 청소년-부모를 연계한 정책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학교 시기부터 자기 주도적 금융정보의 탐색 및 학습의 욕구와 그에 따른 경험이 금융이해력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 정책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금융생활 범위가 확대되고 용돈 이외 또 다른 수입활동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자기 주도적 금융정보 탐색 및 학습이 더욱더 강화된다는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립 및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의 청소년들의 금융생활은 이전세대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3) 동일 학교급 내 금융이해력 격차를 고려한 금융교육정책 개선



세 번째 정책개입의 방향은 학교급 또는 연령 발달에 따른 차이에 더하여 금융이해력 수준의 격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주민, 신용유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융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금융위원회, 2022.12, pp.7-8). 그러나 국가 금융교육정책이 전 국민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수립되다 보니, 청소년 세대 내 격차가 반영된 정부의 금융교육 정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청소년 세대 내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그 간 부재하였기에 정책으로 반영되기도 어려웠던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추후 수립되는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에서는 동일 학교급 내 금융이해력 수준,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정, 특성학교, 대도시 이외 지역의 금융교육의 강화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금융교육 전략 수립 시, 정책 접근의 기본 원칙이 설정될 필요가 있고, 그 원칙 중 하나로 동일 세대 내 다양한 격차의 완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성학교 또는 중소도시 및 읍/면/도서지역에서의 금융교육 강화는 기존과 같은 방식의 찾아가는 학교 금융교육을 넘어 보다 다양한 금융교육 전달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취약가정의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또한 학교 금융교육 뿐만 아니라 청소년정책 전달 기관을 활용한 교육으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3. 실증결과에 기초한 정책제언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앞서 도출된 결과의 함의 및 정책개입의 방향에 기초하여 여기에서는 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을 통한 생애 금융웰빙 실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정책 목표의 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 가지 추진 방향, 그리고 추진 방향에 대응하는 세 가지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9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 목표는 '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을 통한 생애 금융웰빙 실현의 기본역량 강화', 이를 위한 정책 추진의 세 가지 방향은 ①정책추진의 기반 강화, ②초·중·고 발달 특성 및 생활밀착형·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③동일 학교급 내 금융이해력 격차 완화로 설정하였음.
-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각 정책추진 방향에 대응하는 세 가지 추진 전략(①근거 기반 정책수립의 강화 및 실행협력 체계 범위 확대, ② 교육대상 범위 확대 및 초·중·고 맞춤형 정책 수단·도구 연계 활용, ③취약가정, 지역, 특성학교 대상 금융교육 우선 지원 확대 및 강화)을 도출하고, 각 추진 전략의 실행을 통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총 9개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음.

1) 정책 목표 및 방향의 설정

(1) 정책 목표의 설정

정책 목표

-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증진을 통한 생애 금융웰빙 실현의 기본역량 강화

앞서 논의되고 도출된 정책적 함의와 세 가지 정책 개입의 방향에 기초하여 여기에서는 청소년 금융교육 및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연구의 시작점이자 결론은 청소년 금융교육의 필요가 금융이해력 증진에 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생애 금융웰빙을 실현하는 기초 역량이 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정책목표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증진을 통한 생애 금융웰빙 실현의 기본역량 강화**”로 설정하였다.

(2) 정책 추진의 세 가지 방향 및 추진 전략

설정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앞서 도출된 정책 개입의 방향을 토대로 정책 추진의 방향을 세 가지, 즉 ①정책 추진 기반의 강화, ②초·중·고 발달 특성 및 생활 밀착형, 맞춤형 정책 수단·도구의 연계 활용, ③동일 학교급 내 금융이해력 격차 완화로 설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정책추진의 이행 및 실행력을 갖추기 위하여

각 추진 방향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먼저, ①정책추진기반의 강화의 방향에 대응하는 전략은 a)근거 기반 정책수립 강화 및 실행협력 체계의 범위 확대이고, ②초·중·고 발달 특성 및 생활 밀착형, 맞춤형 정책 수단·도구의 연계 활용 방향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b)교육대상 범위 확대 및 초·중·고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이며, ③동일 학교급 내 금융이해력 격차 완화 방향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c) 취약가정, 지역, 특성화고 대상 금융교육 우선 지원 확대 및 강화가 설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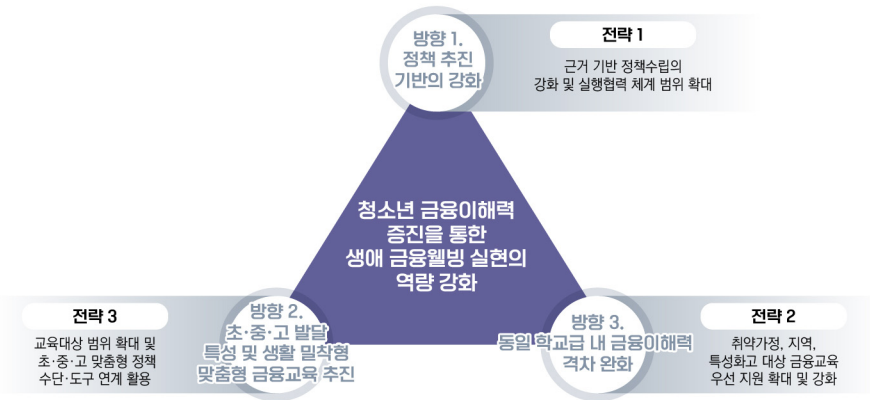


그림 VI-3. 정책 추진의 3가지 방향

2) 세 가지 정책전략과 추진과제의 구성

앞서 설정된 정책전략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각 정책전략 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성을 고려하여 발굴하였다. 발굴된 추진과제는 [그림 VI-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 가지 전략별 3가지로 총 9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추진과제가 단순히 연구보고서의 결과에 그치지 않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거하여 ‘금융교육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 차년도 「금융교육 정책 방안」에 본 연구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단기 또는 중기에 추진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금융교육 정책이 개선되는데 실제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법률 또는 관련 기 수립 정책에 연계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을 9개로 추려 제안하였다. 그 과정에서 짧지 않은 시간 검토와 숙고의 과정이 있었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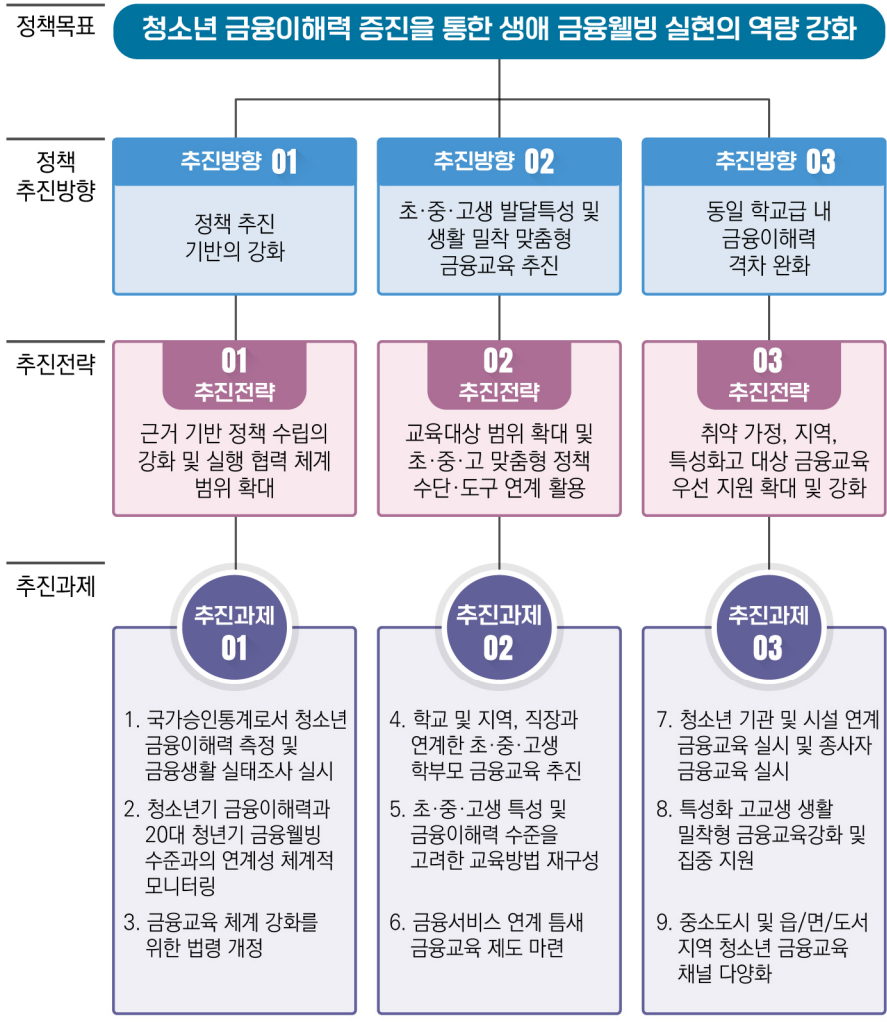



그림 VI-4. 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계획의 기본 체계(안)

3)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1) 전략1 : 근거기반 정책수립의 강화 및 실행협력 체계 범위 확대

① 과제1: 국가승인통계로서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및 금융생활실태조사 실시

추진 과제 1		국가승인통계로서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및 금융생활실태조사 실시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2년 실시하는 성인(18세~79세) 대상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청소년까지 조사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의 조사도구를 보완하여 청소년 대상 조사표 마련 - 조사대상 가구 2,400가구에서 최소 5천 가구로 확대 • 매 3년 실시하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조사 영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의 조사도구 축약 반영 - 조사대상 가구 5,000가구, 청소년 7천여 명에서 표본 확대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 「청소년기본법」 제15조의2제1항 	■ 과제 추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액 필요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 한국은행·금융감독원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 → 조사 영역 • 여성가족부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영역 			

• 주요 검토 및 제안 내용


청소년 금융교육 및 금융생활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면, 일회성 실태조사가 아닌 일정한 주기의 반복시계열 자료로의 구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국가승인통계로서 작성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새로운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조사의 설계부터 장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 요구되지만, 이미 국가승인통계로 작성되고 있는 성인 대상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나 청소년 대상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확대·보완한다면 단기간에 2년 또는 3년 주기의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에 대한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먼저,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위탁으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2년 주기로 전국 2,400가구의 18세 이상 79세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20016호)

조사이다(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3.03.30., p.17). 본 연구의 측정도구가 이 조사의 기본 틀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단기간 내로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가 가능하다. 다만, 이 조사의 표본수가 2,400가구로 대표성 있는 표본이 되기에는 다소 부족하여 표본수 확대가 필요하다.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 이외 고려될 수 있는 또 다른 국가승인통계 조사로는 「청소년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의거,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매 3년마다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태도를 조사하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승인번호: 제154013호, 국가통계포털사이트, 2023.10.27. 검색)가 있다. 이 조사는 전국 5천여 가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7천5백 여 명과 그들의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조사 내용 측면에서 폭넓은 내용이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금융이해력과 금융생활 실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측정 문항의 양적인 측면에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 측정 내용의 축약이 필요하다.

② 과제2: 청소년기 금융이해력과 20대 청년기 금융웰빙 수준과의 연계성 체계적 모니터링


추진 과제 2		청소년기 금융이해력과 20대 청년기 금융웰빙 수준과의 연계성 체계적 모니터링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의 조사대상 범위를 청소년까지 확대한 후, 생애단계 간 연계성(esp. 청소년기 금융이해력 수준과 20대 청년기 금융웰빙 수준, 청소년기 금융교육 효과성 분석)에 대한 체계적 실증 분석 추진 • 확보된 정책효과성 실증근거를 토대로 금융교육 정책 평가 및 차년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 추진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 [2023년 금융교육 추진 방안] - 6. 금융교육 추진 기반 강화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 금융교육실무협의체 : 금융연구원 및 협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 주요 검토 및 제안 내용

앞서 제안된 ‘추진 과제1’이 실행되면, 10대 청소년을 포함한 전 연령대 금융이해력 조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 및 본 장의 주요 결과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성인의 전체 평균 수준보다 높고, 특히 20대 청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에 비해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은 이유를 명확하게 살피고, 그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기의 금융교육이 연령 발달 및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청년기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실증근거에 기초하여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정책을 평가할 수 있고 성과관리도 가능하다. 또한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의 증진을 넘어 궁극적으로 생애 금융웰빙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교육 정책으로 발전 가능하다.

③ 과제3: 금융교육 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과제 3		금융교육 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의거,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과 연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정책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개정 • 금융교육의 실행기반 및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의 연석회의 참석 범위에 청소년정책, 경제교육, 조세교육 등 유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하도록 개정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 국회 • 금융위원회 → 금융교육협의회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 주요 검토 및 제안 내용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 목표, 즉 “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을 통해 생애 금융웰빙 달성의 기본역량을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의 실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금융교육을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만 연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정책과의 연계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동법 제30조제3항을 아래 <표 VI-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정책을 명시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표 VI-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제안

현행	개정 제안
제30조(금융교육)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금융교육)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 청소년정책과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2023.10.04. 검색 및 인출).	

또한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초자료 수집 및 실증분석 강화를 위하여 현재 ‘금융교육협의회 실무협의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유관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정책, 한국개발연구원-경제교육,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교육)을 추가하고,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연석회의의 참석 범위에 이들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운영 규정 개정을 제안한다.

표 VI-5.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제안

현행	개정 제안
제11조(연석회의)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연석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단체·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단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참석 할 수 있다. 1.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2.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한국소비자원, 기독교여자청년회, 한국금융교육학회, 한국금융연구원	제11조(연석회의)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연석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단체·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단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참석 할 수 있다. 1.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2.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한국소비자원, 기독교여자청년회, 한국금융교육학회,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출처: 금융위원회(2022.12), 「생애주기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금융교육 추진 방안」, pp10-13.	

추후 단계적으로 실행체계 기반이 보다 더 확대될 필요가 있기는 하나, 앞서 <표 VI-4>와 <표 VI-5>와 같이 제안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과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만 개정된다고 할지라도, 실행체계의 범위는 [그림 VI-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행 체계에 비해 대폭 확대될 수 있고 연계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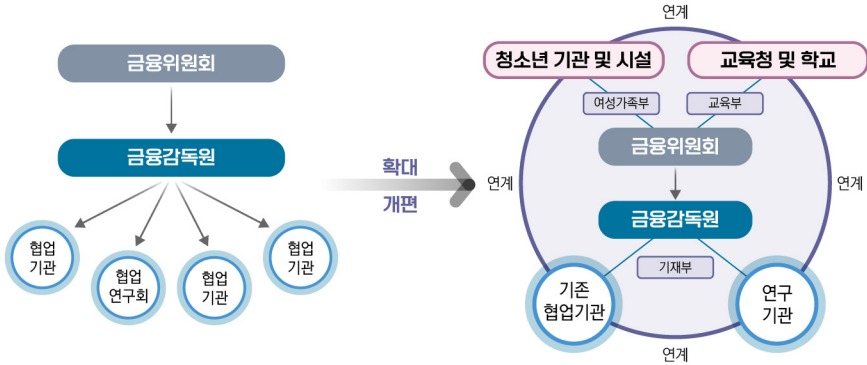



그림 VI-5. 법령 등 개정을 통한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 실행 체계 범위 확대 및 강화

(2) 전략2 : 교육대상 범위 확대 및 초·중·고 맞춤형 정책 수단·도구 연계 활용

④ 과제4: 학교 및 지역, 직장과 연계한 초·중·고 학부모 금융교육 추진

추진 과제 4		학교 및 지역, 직장과 연계한 초·중·고 학부모 금융교육 추진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생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특히 초·중생의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가장 기초적인 인식형성 및 습관형성이 부모의 금융교육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기존 청소년 금융교육의 범위를 청소년에 한정하지 않고, 부모세대로까지 확대 • 금융관계기관, 금융회사, 금융협회를 시작으로 초·중·고 학부모 직원 대상 금융교육 실시 • 금융교육협의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관계 행정기관(esp.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과의 연계협력으로 각 지역의 학부모교육 추진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 → 금융교육협의회 : 관계 행정기관 • 금융위 → 지역금융교육협의회 • 금융위-행안부 → 지자체, 교육청 : 학교-청소년수련관, 가족센터 등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 주요 검토 및 제안 내용

본 연구의 제5장의 실증분석과 앞서 논의된 주요 결과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청소년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부모의 금융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부모의 금융교육은 초·중학생에게 큰 영향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제까지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의 수립이 학교교육으로 집중되다 보니 중요한 영향요인인 부모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그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금융웰빙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성과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 대상을 [그림 VI-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부모(시설거주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관 및 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

미국에는 이미 청소년 금융교육에 대한 2세대 접근(Dual-generation approaches to financial education)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 즉 학교에서 학생의 가족을 초대하는 연례행사의 활용이나 미국의 특성이기는 하나 지역의 종교기관에서의

교육,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과 비영리단체와의 연계로 이루어지는 교육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Anita & Nicole, 2022, pp.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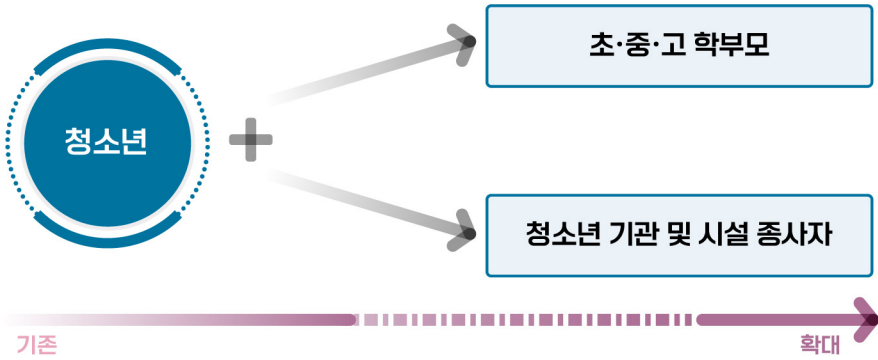



그림 VI-6.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 대상자의 확대

앞서 추진 과제3.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청소년 정책 실행체계의 범위가 확대되고 강화된다면 지역의 교육청-학교뿐만 아니라 지자체-청소년기관 및 가족센터 등 부모교육의 채널이 확대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3장의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학부모의 의견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학교만이 아닌 지역에서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은 청소년 금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청소년기관을 비롯한 지역의 센터 등 자원의 연계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미 지역금융교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협의회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

⑤ 과제5: 초·중·고생 특성 및 금융이해력 수준을 고려한 교육방법 재구성 : '자기도전포상제' 활용

추진 과제 5		초·중·고생 특성 및 금융이해력 수준을 고려한 교육방법 재구성 : 자기도전포상제 활용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생 시기에 금융이해력에 부모의 금융교육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중학생 시기부터 자기 주도적 금융정보의 탐색과 활동 경험이 영향 요인으로 등장하고, 고등학교 시기에 그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본 연구의 실증연구에 비추어 볼 때, 학교교육만이 아닌 중·고생의 자기 주도적 금융정보 탐색 및 활동 경험을 도울 수 있는 교육방법 필요 • 청소년활동지원정책의 하나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제7조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자기도전포상제'를 금융교육의 방법으로 연계 활용할 것을 제안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제6조, 제7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 금융교육협의회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진흥원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기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 주요 검토 및 제안 내용

본 연구의 제4장 및 제5장의 실증분석, 그리고 앞서 논의한 주요 결과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초·중학생 금융이해력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중학생에게는 영향력의 크기가 다소 작아지고, 새롭게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 경험이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한다. 또한 이 요인은 고등학생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림 VI-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기에서 학교교육은 기본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앞서 추진과제4.에서 제안한 부모 대상 금융교육이 학교, 지역, 부모의 직장과의 연계되어 추진된다면, 초·중생에 영향요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마련되지만, 중·고생의 자기 주도적 금융정보탐색 및 활동 경험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여전히 부족한 것이다. 이에 현 시점에서 중·고생의 금융교육 방법의 재구성을 고민해야한다. 기존의 금융교육의 틀 안에서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기 어렵고,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활동정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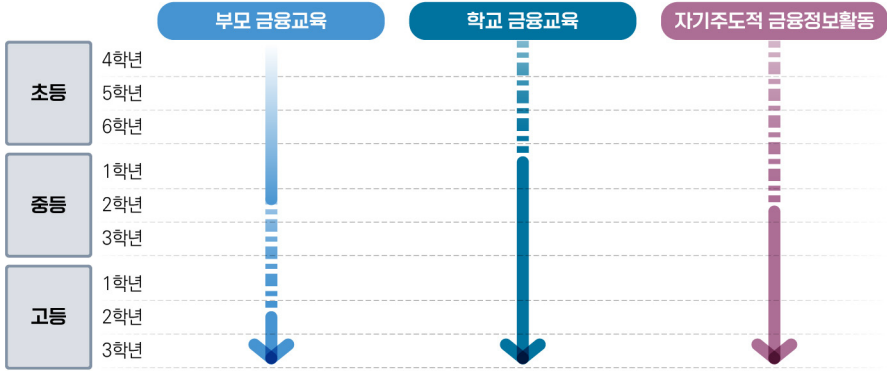



그림 VI-7. 초·중·고생 특성을 고려한 금융교육 정책수단의 배치

다양한 청소년활동정책이 있지만, 그 중 본 연구에서 금융교육과 연계·시행을 제안하는 것은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Korea Achievement Award)’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7세~15세) 청소년들이 활동영역(①자기개발, ②신체단련, ③봉사활동, ④탐험활동, ⑤진로개발활동) 중 선택한 4가지 활동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 가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제7조에 의거,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그리고 13개 포상운영 사무국과 함께 매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정한 목표를 달성해 나아가는 것이고, 달성한 결과에 대해 금장(24주~48주), 은장(16주~32주), 동장(16주)의 포상이 주어진다.

금융교육과 관련한 활동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협이가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으나, 중·고생 금융이해력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자기 주도적 금융정보의 탐색 및 활동 경험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이 프로그램 이상 좋은 것은 없다는 판단이다.

⑥ 과제6: 금융서비스 연계 틈새 금융교육 지원 제도 마련

추진 과제 6		금융서비스 연계 틈새 금융교육 지원 제도 마련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의 범위가 좁지 않으며, 디지털 금융상품의 개발·발전으로 금융서비스 이용률 또한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만큼,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과 연계된 금융교육 필요 •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체크카드 및 선불충전방식 청소년전용카드 가입·신청 단계와 이후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교육정보 제공 등을 각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5항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 금감원 → 각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 주요 검토 및 제안 내용

본 연구의 제4장의 기초통계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 범위가 성인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른 핀테크 기업 성장의 영향으로 디지털기 사용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의 범위는 오히려 이전 세대에 비해 더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의 연구에서는 실제 생활에서의 금융상품을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상의 체험과 금융교육이 적시(in-time)에 결합되어 이루어졌을 때, 금융교육의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보고된다(Fernandes, Lynch, & Netemeyer, 2014; Anita & Nicole, 2022, p.24에서 재인용).

토스 은행의 경우, 선불충전방식의 ‘Youth’카드를 7세~17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청소년 이용자들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 예컨대 ‘그냥 통장, 적금, 예금의 차이점은?’, ‘안심하고 중고거래하기’와 같은 내용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 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정책 사업으로 구조화한다면, 청소년 전용상품 및 서비스부터 사업자들이 청소년 소비자들에게 금융 교육 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는 방안들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전략3 : 취약가정, 지역, 특성화고 금융교육 우선 지원 및 확대·강화

⑦ 과제7: 청소년 기관 및 시설연계 금융교육 실시 및 종사자 금융교육 실시

추진 과제 7		청소년 기관 및 시설연계 금융교육 실시 및 종사자 금융교육 실시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부모의 금융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이 필요하며, 이것이 성인기 금융웰빙의 격차를 확대시키지 않는 방안으로 적극 고려되어야 함. • 전국 17개 시·도, 342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의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5일~6일 1일 4시간 이상, 학습과 활동,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실시 • 일상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종사자 연수 제도를 활용하여 추진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 • 「청소년 기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 금융교육협의회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도자 양성사업 → 전문연수과정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 주요 검토 및 제안 내용

본 연구의 제4장 및 제5장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부모의 학력이 초·중·고생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양부모 가족의 학생이 금융지식점수가 한 부모가족 등 그 외 가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가정환경의 취약성에 따른 청소년기 금융이해력의 격차가 성인기 금융웰빙 수준의 격차로 귀결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취약가정 청소년의 금융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전국의 취약가정 청소년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에 의거,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수련시설 342개소에서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생 중 취약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 두 자녀이상 가정·맞벌이가정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년)을 대상으로 주 5일~6일, 1일 4시간 이상 학습과 활동 및 생활지도를 제공하고 있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 2023.10.27., 검색; 여성가족부, 2023.01.).

이와 같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이들 청소년과 일상을 같이하는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또한 추진되어야 한다.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금융생활 지도가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는 가정에서 부모의 지도만큼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지도사의 교육은 「청소년 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운영되는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과정의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2023.10.24. 검색).

⑧ 과제8: 특성화고교생 생활밀착형 금융교육 강화 및 집중 지원

추진 과제 8		특성화고교생 생활밀착형 금융교육 강화 및 집중 지원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고교 재학생이 금융이해력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금융이해력 점수 분위에서 일반/지율/특목고 재학생에 비해 낮다는 사실이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음. 상대적으로 이르게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진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생활에 있어 의사결정기술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특성화고교 재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는데 대한 대응 필요 관련 교과외의 활동수업이 고교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는 요인인 만큼 특성화고교생의 생활 및 특성을 고려한 금융교육 집중 지원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2023년 금융교육 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아동·청소년: 정규 교과수업 외 교육활동 통한 교육 실시 	■ 과제 추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교육부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액 필요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 금감원 → 협업기관 • 금융위원회 → 금융교육협의회 : 교육부(교육청 협조) → 지역금융교육협의회 → 특성화고교 	

• 주요 검토 및 제안 내용

본 연구의 제5장의 실증분석의 결과와 앞서 주요 결과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특성화고

재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일관되게 도출되었다. 직업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성격에 비추어본다면 오히려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2022년 12월에 금융교육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수립된 [2023년 금융교육 추진 방안]의 추진과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정규 교과수업 외 교육활동을 통한 교육 실시'의 과제가 상시 운영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계획 내용을 근거로 하여, 특성화고 재학생에 대한 금융교육 및 금융교육 연계 활동을 집중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⑨ 과제9: 중소도시 및 읍/면/도서지역 청소년 금융교육 채널 다양화

추진 과제 9		중소도시 및 읍/면/도서지역 청소년 금융교육 채널 다양화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학교급 내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의 격차가 '지역'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을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포착 • 기 수립된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을 고려한 정책과제는 부재하였으나, 금융지식 측면에서 초·중생의 점수가 서울/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는 지역이라는 공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교육의 격차발생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임을 의미 • 지역 격차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지역 거주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교육 채널의 다양화를 제안함.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협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출판산업진흥원 → 인문정신 확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 주요 검토 및 제안 내용

취약계층, 특성화고교생에 이어 동일 학교급생들 중 상대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은 요인은 바로 지역이다. 본 연구의 제5장 실증분석 및 앞서 주요 결과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서울/광역시에 거주하는 초·중생들의 금융지식의 점수가 중소도시나 읍/면/도

서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높다.

이는 구조적으로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청소년들이 금융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육의 채널이 적거나 아니면 기존 채널의 접근성이 낮은 이유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본 연구의 제2장에서 논의되었던 경제관련 과목의 개설된 학교의 수가 서울지역 대비 전북지역이 가장 낮았다는 한국교육방송(EBS)의 보도(한국교육방송(EBS), '생존금융 심층기획 2편' 영상)에 비춰본다면, 학교교육의 측면도 구조적 제한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3장의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학부모 참여자들이 제안한 지역사회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센터 등을 금융교육의 채널로 활용함과 동시에 금융교육의 주제를 담고 있는 청소년교양도서를 활용한 초·중·고생의 금융교육 채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소규모 지역에서도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자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인문교육을 산하기관인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사업'인데, 지역의 생활문화시설과 인문 활동기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지역 친화적 모델로 구축이 목적이며, 지역의 생활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교육기관 및 센터, 청소년시설 등)에서 기관 및 단체가 사업을 신청하면 선발과정을 거쳐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금융교육과 관련된 적지 않은 교양도서 및 영상자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역 자체에서 인문프로그램을 활용한 금융교육도 가능한 것이다.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금융교육과 연계하여 활용하면 지역의 원인으로 금융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소도시 및 읍/면/도서지역 청소년들의 금융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채널을 큰 예산 들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일 교급내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이자 도구로서 이와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활용을 제안한다.

표 VI-6. 정책 추진 과제 요약

추진 과제	과제 추진 유형	근거 법령	추진 기간 ^{주)}	소관 및 관계 부처
		①법령 제·개정 ②기존 사업 보완·확대 ③신규 사업 도입 ④제도·추진업무정비	①있음 ②개정 필요 ③제정 필요 ④없음	①단기 ②중기 ③장기
① 정책 추진기반의 강화 → [전략⑩] 근거기반 정책수립의 강화 및 실행협력 체계 범위 확대				
1. 국가승인통계로서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및 금융생활실태조사 실시	②	①	①, ②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2. 청소년기 금융이해력과 20대 청년기 금융웰빙 수준과의 연계성 체계적 모니터링	②, ③	④	①, ③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3. 금융교육 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①, ④	①	①, ②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② 초·중·고생 발달 특성 및 생활 밀착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 [전략⑩] 교육대상 범위 확대 및 초·중·고 맞춤형 정책 수단·도구 연계 활용				
4. 학교 및 지역, 직장과 연계한 초·중·고 학부모 금융교육 추진	③	①	①, ②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5. 초·중·고생 특성 및 금융이해력 수준을 고려한 교육방법 재구성: '자기도전포상제' 활용	②	①	①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6. 금융서비스 연계 틈새 금융교육 지원 제도 마련	②, ③	④	②	금융위원회
③ 동일 학교급 내 금융이해력 격차 완화 → [전략⑩] 취약가정, 지역, 특성화고 대상 금융교육 우선지원 확대 및 강화				
7.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연계 금융교육 실시 및 종사자 금융교육 실시	②, ③	①	①, ②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지자체
8. 특성화 고교생 생활밀착형 금융교육 강화 및 집중 지원	②	①	①, ②	금융위원회 교육부 교육청
9. 중·소도시 및 읍/면/도서지역 청소년 금융교육 채널 다양화	②, ③	①	①, ②	금융위원회 교육부, 문체부 교육청, 지자체
* 주: 단기(1~2년 이내), 중기(3~5년 내), 장기(5년 이상)				

○———— **참고문헌**

참고문헌

[논문과 저서]

- 김정한 (2017). 정부의 금융교육 강화방안에 대한 제언. **금융브리프**, 26(8), 3-8.
- 김지경, 김윤희, 송현주, 변주영 (2022).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민인식, 최필선 (2009). **STATA 기초통계와 회귀분석**. 서울: 한국 STATA학회.
- 박상은 (2020).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및 특성 탐색. **중등교육연구**, 28(2), 495-518.
- 오영수 (2015). 금융감독원의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평가도구의 적정성 분석. **경제교육연구**, 22(2), 71-97.
- 정운영, 이진호, 이해림(2020). **금융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은행 국민계정리뷰, 1~45.
- 조지민, 임혜미, 천규승, 김경모 (2014). PISA 2012 금융이해력 평가와 한국의 금융관련 학교경제교육과정. **시민교육연구**, 469(4), 177-205.
- 천규승, 김솔 (2016).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 **금융교육연구**, 창간호, 83-115.
- 최병일 (2020). 국내 청소년의 화폐 태도와 금융 경제 지식에 관한 연구. **경제교육연구**, 27(1), 101-120.
- 한진수 (2013).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과 결정 요인. **경제교육연구**, 20(2), 39-63.
- 한진수 (2018). 측정도구 BFT로 분석한 한국 초등학생의 금융 이해력. **경제교육연구**, 25(1), 1-30.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2), 179-211.

- Anita E.D & Nicole M.E.(2022), Financial Literacy among children, The Routledge Handbook of Financial Literacy. The Routledge Handbook of Financial Literacy edited by Gianni Nicolini and Brenda J. Cude. New York: Routledge.
- Buccioli, A., & Zarri, L. (2019). Saving education received in early life and future orientation in adulthood.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0(1), 67–82.
- Caniglia, J., & Michali, Y. (2018). A Financial Literacy Course for Postsecondary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ractice Brief). *Journal of Postsecondary Education and Disability*, 31(3), 295-300.
- Collins, J. M., & Urban, C. (2018). Understanding financial well-being over the lifecycle: an exploration of measures. Montana State.
- Cude, B. J. (2022). 1. Defining Financial Literacy. The Routledge Handbook of Financial Literacy edited by Gianni Nicolini and Brenda J. Cude. New York: Routledge.
- Danes, S. M.(1994),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ren’s Financial Socializatio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127-149.
- Danes, S. M., Huddleston-Casas, C., & Boyce, L. (1999). Financial planning curriculum for teens: Impact evaluatio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0(1), 26-39.
- Faulkner, A. E. (2015). A systematic review of financial literacy as a termed concept: More questions than answers. *Journal of Business & Finance Librarianship*, 20(1-2), 7-26.
- Fernandes, D., Lynch, J. G., Jr., & Netemeyer, R. G. (2014). Financial literacy financial education, and downstream financial behaviors. *Management Science*, 60(8), 1861–1883.
- Haupt, M.(2022). 6.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The Routledge Handbook of Financial Literacy edited by Gianni Nicolini and Brenda J. Cude. New York: Routledge.
- Jorgensen, B. L., & Savla, J. (2010). Financial literacy of young adults: The

- importance of parental socialization. *Family relations*, 59(4), 465-478.
- Joyce Serido.(2022). 3. Financial Literacy among Young Adults. The Routledge Handbook of Financial Literacy edited by Gianni Nicolini and Brenda J. Cude. New York: Routledge.
- Kadoya, Y., & Khan, M. S. R. (2020). What determines financial literacy in Japan?.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 Finance*, 19(3), 353-371.
- Koenker, R., & Bassett, G. (1978). Regression Quantiles. *The Economic Society*, 46(1), 33-50.
- Kumar, V., & Nanda, P. (2020). Social media as a tool in higher education: A pedagogical perspective. In *Handbook of research on diverse teaching strategies for the technology-rich classroom* (pp.239-253). Hershey: IGI Global.
- Lee, C. B., Koh, N. K., Cai, X. L., & Quek, C. L. (2012). Children's use of meta-cognition in solving everyday problems: Children's monetary decision making.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 56(1), 22-39.
- Lusardi, A., & Mitchell, O. S. (2014). The economic importance of financial literacy: Theory and evidence. *American Economic Journal: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2(1), 5-44.
- Mielitz, K., MacDonald, M., Ratzlaff, B., Joseph, M., Smodic, S. (2021). Using Self-Determination Theory to Investigate Financial Well-Being. *Consumer Interests Annual*, 67. 1-5.
- Muñoz-Murillo, M., Álvarez-Franco, P. B., & Restrepo-Tobón, D. A. (2020). The role of cognitive abilities on financial literacy: New experimental evidence.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84, 101482.
- Nicolini, G. (2019). Financial literacy: Definition and measurement. In G. Nicolini (Ed.), *Financial literacy in Europe: Assessment methodologies and evidence from European countries*. New York: Routledge.
- Nicolini, G., & Cude, B. J. (Eds.). (2022). *The Routledge Handbook of Financial Literacy*. New York: Routledge.

- Odden, A. R., & Picus, L. (2008). *School finance: A policy perspective*. New York: McGraw-Hill.
- Orton, L. (2007). *Financial literacy: Lessons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 Ottawa: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Incorporated.
- Peng, T-C. M, Bartholomae, S., Fox, J. J., & Cravener, G. (2007). The impact of personal finance education delivered in high school and college cours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8(2), 265–284.
- Salignac, F., Hamilton, M., Noone, J., Marjolin, A., & Muir, K. (2020). Conceptualizing financial wellbeing: An ecological life-course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1, 1581-1602.
- Smetana, J. G., Robinson, J., & Rote, W M. (2015). Socialization in adolescence. In J. E. Grusec & P D. Hastings (Eds),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The Guilford.
- Tang, Tomas Li-Ping (1995). The Development of a short Money Ethnic Scale : Attitudes toward Money and Pay Satisfaction Revisit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6), 809-816.
- Tashakkori, A. & Teddie C. (2001). *통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ology)*. (염시창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1998)
- Urban, C., Schmeiser, M., Collins, J. M., & Brown, A. (2020). The effects of high school personal financial education policies on financial behavior.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78.
- Van Campenhout, G. (2015). Revaluing the role of parents as financial socialization agents in youth financial literacy program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49(1), 186-222.
- Walstad, W. B., & Rebeck, K. (2016). *Basic Finance Test: Examiner's Manual*. New York: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 Walstad, W B., Rebeck, K., & MacDonald, R. A. (2010). The effects of financial education on the financial knowledge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44(2), 336-357.

[국내 자료]

교육부 (2022.12.22.).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발표” 보도 자료.

국회 교육위원회 (2023.05). 금융교육진흥법안 검토보고서(홍성국의원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2021.11).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금융감독원 (2022.08.29.). 2022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실시 보도자료.

금융감독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10.23.).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 연구.

금융교육협의회 (2020.04.). 금융교육 개선 기본 방향 추진현황.

금융위원회 (2013.09.03.). 소비자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5.10.15.). 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7.01.23.).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으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0.05.01.). 금융교육협회,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의결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1.05.26.). 금소법과 함께 체계적·효율적인 금융교육이 건전하고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이끌어갑니다.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1.12.21.). 금융교육협의회 「2022 금융교육 강화 방안」 의결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2.12.). 생애주기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금융교육 추진 방안」, 2022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의결안건 자료.

금융위원회 (2022.12.22.). 금융소비자의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보도자료.

금융위원회·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2013.11.15.). 금융이해력 측정도구 개발 및 예비 조사 보고서.

기획재정부(2023.02.23.). 2022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보도자료.

대구미래교육원 (2019.05.14.). 청소년의 불법금융행위 긴급진단. Issue Telling 4.

변혜원 (2019.05.13.). 해외 금융포용 동향과 시사점. KIRI리포트, 발행지: 보험연구원.

여성가족부 (2022.12). 2022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여가부.

여성가족부 (2023.01). 2023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서울: 여가부
외교부(2018). PISA2015(제4권) 학생의 금융이해력 주요 내용. 서울: 외교부.
청년재단 (2022.12.30). 청년정책 설문조사 <금융·재테크편> 결과보고서. 발행지: 청년
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12.08.).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결과 보도자료.
한국은행·금융감독원(2023.03.30).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보도자료.

[해외 자료]

CEE(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 JumpStart(2021). National Standards
for Personal Financial Education.
<https://www.jumpstart.org/what-we-share/financial-education-principles/>
2023.10.23. 검색 및 인출.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15). Financial Well-being. The
Goal of Financial Education. Washington, D.C. CFPB.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17.9). Financial Well-being in
America.
<https://www.consumerfinance.gov/data-research/research-reports/financial-well-being-america/>
2023.11.14. 검색 및 인출.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2020). 2020 Survey of the States: Economic
and personal finance education in our nations' schools,
www.councilforeconed.org/wp-content/uploads/2020/02/2020-Survey-of-the-States.pdf
OECD (2017.10.). Financial Literacy Questionnaire for PISA 2018. https://www.oecd.org/pisa/data/2018database/CY7_201710_QST_MS_FLQ_NoNotes_final.pdf,
2023.02.14. 검색 및 인출.
OECD (2018). OECD/INFE Core competencies framework on financial literacy
for MSMEs.
<https://www.oecd.org/finance/financial-education/OECD-INFE-core-competencies-framework-on-financial-literacy-for-MSMEs.pdf>,
2023.02.17. 검색

및 인출.

OECD (2018.06a). PISA 2012 Financial Literacy Framework. <https://www.oecd.org/daf/fin/financial-education/PISA2012FrameworkLiteracy.pdf>, 2023.02.

17. 검색 및 인출.

OECD (2018.06b). PISA 2018 Released Financial Literacy items. <https://www.oecd.org/pisa/test/PISA2018-financial-literacy-items.pdf>, 2023.02.14. 검색

및 인출.

OECD (2020a), Advancing the Digital Financial Inclusion of Youth, www.oecd.org/daf/fin/financial-education/advancing-the-digital-financial-inclusion-of-youth.htm, 2023.06.09. 검색 및 인출.

OECD (2020b). OECD/INFE 2020 International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

<https://www.oecd.org/financial/education/launchoftheoecdinfeogloballiteracysurveyreport.htm>, 2023.02.17. 검색 및 인출.

[언론기사]

매일경제 (2022.02.28.). 청소년 주식 투자 늘면서... 잇따라 금융 자격증 응시생도 증가. <https://www.mk.co.kr/news/stock/10235968>, 2023.02.10. 검색 및 인출.

시사인 (2022.11.04.). '10대의 스마트폰 금융생활, 괜찮을까?'. <http://www.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67>, 2023.02.21. 검색 및 인출.

NGO저널 (2023.02.13.). [스토리시 “청소년 금융문맹 심각... 금융교육 선택 아닌 필수”.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821>, 2023.02.17. 검색 및 인출.

주간경향 (2023.05.22.). 한국 '금융문맹률' 낮출 방도 없나요.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2305191125141>, 2023.05.22. 검색 및 인출.

한국은행(2013.01.21.). 우리나라의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 보도자료, 2023.10.24. 검색 및 인출.

한국증권인재개발원 (2022.12.13.). 주식운용능력평가 7-2회 필기시험접수. <http://www.>

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087, 2023.02.10. 검색 및 인출.
헤럴드경제 (2023.01.21.). 자녀 첫 재테크, 세뱃돈 주식 투자 어때요?...의외의 청소년
반응.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20000546>, 2023.02.
10. 검색 및 인출.

[영상자료]

한국교육방송(EBS). [생존금융 심층기획] 1편~6편.
MBC뉴스(2021.03.12.). 10대 ‘주린이’ 늘었는데, 금융이해 선행되어야.
SBS뉴스(2021.02.23.). 10대로 변진 주식열풍... 갈길 먼 금융교육.

[참고사이트]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54013&inputYear=2020>, 2023.10.27. 검색.

국민은행 홈페이지. <https://omoney.kbstar.com/quics?page=C106299#loading>,
2023.03.10. 검색.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2023.05.22. 검색.

다음 국어사전. https://dic.daum.net/w_ord/view.do?wordid=kkw000034683&supid=kku000047615, 2023.10.13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3.05.18. 검색.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 「전라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신한은행 홈페이지. <https://www.shinhan.com/>, 2023.03.10. 검색.

위키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A%B8%88%EC%9C%B5>, 2023.1

0.23. 검색.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s://www.youth.go.kr/yaca/index.do>, 2023.1

0.27. 검색.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https://www.kakaobank.com/products/mini>, 2023.03.10.

검색.

케이뱅크 홈페이지. <https://www.kbanknow.com/ib20/mnu/PBKMAN000000>, 20

23.03.10. 검색.

토스 홈페이지. <https://toss.im/new-dimension/user-story>, 2023.03.10. 검색.

하나은행 홈페이지. <https://www.kebhana.com/>, 2023.03.10. 검색.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http://www.kfcpf.or.kr/front/evaluation/research2.do>,

2023.03.20. 검색 및 인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ywa.or.kr/business/business19.js>

p, 2023.10.24. 검색 및 인출.

Jump\$tart Coalition 홈페이지. <https://www.jumpstart.org/who-we-are/about/>,

2023.10.23. 검색.

OECD/INFE. [https://www.oecd.org/financial/education/oecd-international-n](https://www.oecd.org/financial/education/oecd-international-network-on-financial-education.htm)

etwork-on-financial-education.htm., 2023.05.22. 검색.

World bank 홈페이지. [https://www.worldbank.org/en/topic/financialinclusion/](https://www.worldbank.org/en/topic/financialinclusion/overview)

overview, 2023.10.24. 검색.

○ ————— 부록

- 1. 조사지(초등)
- 2. 조사지(중·고등)

부록1. 조사지(초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th> </tr> <tr> <td style="font-size: small;">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td> </tr> </table>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조사학교 ID (면접원이 작성합니다)</th> </tr> <tr> <td style="height: 20px;"> </td> </tr> </table>	조사학교 ID (면접원이 작성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학교 ID (면접원이 작성합니다)					

2023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 조사

초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을 위한 사회 환경 개선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고, 동시에 일상에서 금융생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국가정책으로서 청소년대상 금융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실증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학교나 선생님이 알 수 없으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 참여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등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행기관

* 담당자: 차민정 연구원
* 문의전화: 02-3434-3082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 금융교육 등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연령, 성별, 가족구성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함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 금융이해력

I-1. 금융 지식

1번 영이는 일주일전 친구에게 1,000원을 빌렸습니다. 영이는 친구에게 빌린 돈을 1주일 후 갚기로 했지만 곧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평소에도 영이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이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①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것이다
- ② 친구들에게 더 큰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다
- ③ 친구들이 앞장서서 돈을 빌려주려 할 것이다
- ④ 친구에게 아무 때나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다.

2번 다음은 우리의 돈을 맡아 보관하거나 돈이 필요한 경우 빌려주는 일을 하는 금융회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잘못 설명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한국은행은 돈을 만드는 일을 한다.
- ② 보험회사는 개인이 내는 세금을 받는 일을 하는 곳이다.
- ③ 증권회사는 주식을 사고파는 일을 도와주는 곳이다.
- ④ 우체국은 우편물을 배달도 하고 돈을 맡아주는 곳이기도 한다.

<용어참고>

- * 금융회사: 사람들의 돈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하기도 하고 돈이 필요한 곳에는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곳
- * 주식: 기업(회사)이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기업(회사)운영에 관한 권리를 잘게 쪼개어 증이에 표시한 것

3번 일상생활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음 글에서 밑줄 그은 부분과 돈 버는 방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인가요?

민영이는 지난 설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 어른들로부터 30,000원의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 농사를 지어 돈을 버십니다. 민영이네 부모님은 ㉢ 식당을 운영해서 돈을 버시고, 고모는 부모님이 하시는 ㉣ 식당에서 일하 시면서 매달 월급을 받습니다.

- ① ㉠ - 가게나 회사를 운영하여 번 돈
- ② ㉡ -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용하여 번 돈
- ③ ㉢ -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돈
- ④ ㉣ - 직장생활에서 일을 한 대가로 번 돈

4번 다음의 초등학생 중 바람직한 저축 습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 ① 지섭-매달 꾸준히 저축한다.
- ② 민주-자신에게 알맞은 예금통장을 만든다.
- ③ 정혁-돈만 생기면 쓰지 않고 모두 다 저축한다
- ④ 정운-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생각하여 저축할 금액을 정한다.

5번 다음에 제시된 보기 중 저축 통장을 만들 수 **없는** 곳은 어디인가?

- ① 은행
- ② 우체국
- ③ 세무서
- ④ 새마을금고

6번 다음은 현이가 용돈으로 물건을 사기 위한 기준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가?
- ②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비싼 물건인가?
- ③ 자신이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인가?
- ④ 즐거움이나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물건인가?

7번 경이네 가족은 경이 아버지의 병원비로 인해 큰돈을 빌려 쓰게 되었고, 이것은 경이네 집의 빛이 되었습니다. 경이네 부모님은 미리 이러한 일에 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음 중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 ①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 ② 친구나 친척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달라고 한다.
- ③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은행에서 빌려 해결한다.
- ④ 보험에 미리 가입하여 미래에 벌어질 불확실한 일(사고)에 대비한다.

8번 여러분의 이름과 생일, 주소,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가입한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가?

- ① 나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 ② 가입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준다
- ③ 잘 모르는 링크나 첨부 파일은 접속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는다
- ④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로그인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동 저장한다

1-2. 금융 행위

9번 용돈을 받거나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나는...	예	아니오
1) 수입(돈)이 생기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세운다	①	②
2) 돈 지출 내역을 기록 하거나 은행 앱 등을 활용하여 나의 지출 상황을 확인한다	①	②

10번 다음과 같은 항목의 방법으로 돈을 모은 적이 있나요?

내가 직접...	예	아니오
1) 돼지저금통 등에 현금 모으	①	②
2) 부모님에게 맡김	①	②
3) 은행에 저축	①	②
4) 주식에 투자	①	②
5) 기타 ()	①	②

11번 일상생활에서 상품(물건)을 사기 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비교한 후 구매하나요?

- ①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 ②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 ③ 대체로 그렇게 한다
- ④ 반드시 그렇게 한다

12번 내가 직접 돈을 내야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에 잊지 않고 돈을 낼 수 있도록 기록해두거나 표시해 두나요?

- ①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 ②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 ③ 대체로 그렇게 한다
- ④ 반드시 그렇게 한다

13번 일상생활 하면서 나에게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하나요?

- ①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 ② 별로 확인하지 않는다
- ③ 대체로 확인 한다
- ④ 반드시 확인 한다

14번 가지고 싶은 것을 사기위해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나요?

- ①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 ②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 ③ 대체로 그렇게 한다
- ④ 반드시 그렇게 한다

I-3. 금융 태도

15번 “나는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지금 돈을 쓰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나요?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③ 대체로 동의한다
- ④ 매우 동의한다

16번 “나는 오늘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일단 하고,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나요?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③ 대체로 동의한다
- ④ 매우 동의한다

17번 “돈은 쓰기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나요?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③ 대체로 동의한다
- ④ 매우 동의한다

22번 현재 선불충전방식의 토스 유스카드를 사용하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23번으로

22-1
번 언제 처음 가입하였나요?

초등학교 () 학년 때

22-2
번 토스 유스카드를 사용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주위 친구들이 사용해서
- ② 쉽게 가입하여 만들 수 있어서
- ③ 혜택이 좋아서(캐시백, 수수료 무료 등)
- ④ 편리한 기능이 많아서
- ⑤ 부모님이 가입을 권해서
- ⑥ 기타 ()

II-3. 금융교육경험 (가정, 학교, 그 외)

23번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의 부모님(또는 보호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용돈을 어디에 쓰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용돈 사용에 관한 의견을 말씀 하신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용돈 관리방법과 아껴 써야하는 이유나 방법을 알려 주신다	①	②	③	④
3) 나에게 저축방법을 설명하거나 은행에 데려가 계좌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에게 주식투자에 대해 설명하거나 증권사에 데려가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나와 함께 주식계좌를 관리하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6) 금융기관이나 지역 센터에서 주최하는 금융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함께 참여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나에게 경제 뉴스나 금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배문4 다음 중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① 부모님(또는 보호자) 모두 직업을 갖고 일 하신다
- ② 아버지만 직업을 갖고 일 하신다
- ③ 어머니만 직업을 갖고 일 하신다
- ④ 부모님(또는 보호자) 모두 일하지 않는다

배문5 부모님(또는 보호자) 중 금융업(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 ① 예
- ② 아니오 → 배문6으로

배문5-1 어느 분이 금융업에서 일하시나요?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부모님 모두
- ④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닌 보호자

배문6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최종 졸업하신 학교를 응답해 주세요.
 (→ 중간에 그만 두었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 부모님이 안계시면 "3)보호자" 란에 응답해 주세요.)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갈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2) 어머니	②	③	④	⑤	⑥	⑦
3) 보호자	②	③	④	⑤	⑥	⑦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2. 조사지(중·고등)

<p style="text-align: center;">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p> <p>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조사학교 ID (면접원이 작성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3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r> </table>				

2023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 조사

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을 위한 사회 환경 개선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고, 동시에 일상에서 금융생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국가정책으로서 청소년대상 금융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실증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학교나 선생님이 알 수 없으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연구 이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 참여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등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행기관		* 담당자: 차민정 연구원 * 문의전화: 02-3434-3082
------	--	--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table style="margin-left: 20px; border: non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ccc; width: 3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td> <td style="margin: 0 10px;">동의함</td> <td style="border: 1px solid #ccc; width: 3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td> <td style="margin: 0 10px;">동의하지 않음</td> </tr> </table>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 금융교육 등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연령, 성별, 가족구성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함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table style="margin-left: 20px; border: non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ccc; width: 3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td> <td style="margin: 0 10px;">동의함</td> <td style="border: 1px solid #ccc; width: 3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td> <td style="margin: 0 10px;">동의하지 않음</td> </tr> </table>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I 금융이해력

I-1. 금융 지식

1번 나의 금융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수준은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 ① 매우 낮은 수준이다
- ② 다소 낮은 수준이다
- ③ 평균 수준이다
- ④ 다소 높은 수준이다
- ⑤ 매우 높은 수준이다
- ⑥ 모르겠다

2번 올해 백만원을 내고 상품A를 10개 샀고, 내년에도 백만원으로 상품A를 사려고 합니다. 내년 물가상승률 5%일 때, 백만원을 모두 내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어떻게 되나요?

- ① 10개 보다 많다
- ② 10개로 동일하다
- ③ 10개 보다 적다
- ④ 모르겠다

3번 어느 날 저녁에 친구에게 1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다음날 10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친구가 돈을 빌려간 대가로 지불한 돈(이자)은 얼마인가요?

- ① 0원
- ② 10만원
- ③ 20만원
- ④ 모르겠다

4번 1년에 5%의 이자를 주는 계좌에 백만원을 저축하고 1년 동안 추가로 입금하거나 인출하지 않았다면, 1년 뒤 이자가 지급되었을 때 계좌에는 얼마가 들어 있을까요?

- ① 100만원
- ② 100만원 보다 많다
- ③ 100만원 보다 적다
- ④ 모르겠다

5번 1년에 2%의 이자를 주는 계좌에 백만원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5년 동안 둔다면, 5년 후에 계좌에는 얼마의 돈이 들어 있을까요?

- ① 110만원
- ② 110만원 보다 많다
- ③ 110만원 보다 적다
- ④ 모르겠다

6번 다음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응답해 주세요.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큰돈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 ① 참
- ② 거짓
- ③ 모르겠다

7번 다음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응답해 주세요.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생활비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 ① 참
- ② 거짓
- ③ 모르겠다

8번 다음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응답해 주세요.

“돈을 여러 곳에 투자하면 돈을 전부 잃어버릴 가능성이 낮아진다”

- ① 참
- ② 거짓
- ③ 모르겠다

1-2. 금융 행위

9번 용돈을 받거나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나는...	예	아니오
1) 수입(돈)이 생기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세운다	①	②
2) 돈 지출 내역을 기록 하거나 은행 앱 등을 활용하여 나의 지출 상황을 확인한다	①	②

10번 다음과 같은 항목의 방법으로 돈을 모은 적이 있나요?

내가 직접...	예	아니오
1) 돼지저금통 등에 현금 모음	①	②
2) 부모님에게 맡김	①	②
3) 언제든지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계좌(보통예금)에 저축	①	②
4) 정해진 날짜에만 돈을 찾을 수 있는 예금 및 적금계좌에 저축	①	②
5) 주식에 투자	①	②
6)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	①	②
7) 기타 (_____)	①	②

11번 일상생활에서 상품(물건)을 사기 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비교한 후 구매하나요?

- ①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 ②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 ③ 대체로 그렇게 한다
- ④ 반드시 그렇게 한다

12번 내가 직접 돈을 내야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에 잊지 않고 돈을 낼 수 있도록 기록해두거나 표시해 두나요?

- ①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 ②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 ③ 대체로 그렇게 한다
- ④ 반드시 그렇게 한다

13번 일상생활 하면서 나에게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하나요?

- ①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 ② 별로 확인하지 않는다
- ③ 대체로 확인 한다
- ④ 반드시 확인 한다

14번 가지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나요?

- ①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 ②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 ③ 대체로 그렇게 한다
- ④ 반드시 그렇게 한다

15번 금융상품(저축계좌, 주식계좌, 체크카드, 카카오톡, 토스카드 등)을 직접 선택한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 16번으로

15-1번 직접 가입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였을 때, 다음 각 항목의 정보를 활용하였나요? 각 항목의 활용 여부에 응답해주세요.

항목	활용 여부	
	활용했음	활용 안했음
1) 전문가의 금융상품비교 또는 구매 추천 안내 정보 (전문잡지, 금융상품 애플리케이션 등)	①	②
2) 가격비교웹사이트	①	②
3)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나 브로셔(팜플렛) 정보	①	②
4) 친구나 가족, 친척의 추천	①	②
5) 소셜 미디어 또는 "인플루언서" 등 귀하를 모르는 사람의 추천	①	②
6)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제공(대면, 온라인, 전화 등)한 정보	①	②
7) 기타(_____)	①	②

16번 쓸 돈이 부족했던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 17번으로

16-1번 쓸 돈이 부족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조달하였나요?
다음 각 항목의 활용 여부를 응답해주세요.

항목	활용 여부	
	활용했음	활용 안했음
1) 저축계좌에서 돈을 찾음	①	②
2) 지출을 줄이거나 계획된 지출을 나중으로 미룸	①	②
3) 갖고 있는 것을 팔아버림(리세일, 중고거래 등)	①	②
4) 아르바이트를 해서 마련	①	②
5) 부모님 등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달라고 함	①	②
6) 친구에게 돈을 빌림	①	②
7) 돈을 빌려주는 대출업체에서 빌림	①	②
8) 기타()	①	②

I -3. 금융 태도

17번 “나는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지금 돈을 쓰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나요?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③ 대체로 동의한다
- ④ 매우 동의한다

18번 “나는 오늘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일단 하고,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나요?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③ 대체로 동의한다
- ④ 매우 동의한다

19번 “돈은 쓰기 위해 있는 것이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나요?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③ 대체로 동의한다
- ④ 매우 동의한다

21번 용돈 이외, 수입(돈)이 생기는 일 또는 활동을 한 적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 22번으로

21-1 번 어떠한 일 또는 활동을 했나요? 모두 응답해 주세요.

- ① 아르바이트
- ② 부모님 일을 도움
- ③ 가지고 있는 상품의 판매(리세일, 중고거래)
- ④ 가지고 있는 티켓 등의 판매
- ⑤ 가지고 있는 주식, 가상화폐를 팔아넘김
- ⑥ 내 시간과 노력으로 만든 것을 판매
-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1-2 번 수입이 생기면 저축도 하나요?

- ① 일정 금액을 반드시 저축 한다
- ② 저축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 ③ 저축 하지 않는다

II-2. 금융상품/서비스 이용 경험 (금융계좌 및 카드)

22번 현재 '내 이름으로 가입된'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나요?
다음 각 항목의 금융상품 보유여부를 응답해 주세요.

금융상품	있음		없음	모름
	내가 직접 가입한 것 있음	부모가 내 이름으로 가입한 것 있음		
1) 입출금 자유로운 보통예금 계좌	①	②	②	③
2) 정기 적금 또는 예금 계좌	①	②	②	③
3) 주식계좌	①	②	②	③
4) 비트 코인 등 가상화폐	①	②	②	③
5) 저작권 투자(뮤직카우 음원 등)	①	②	②	③
6) 기타 (_____)	①	②	②	③

II-3. 금융교육경험 (가정, 학교, 그 외)

26번

다음은 부모님 또는 보호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의 부모님(또는 보호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용돈을 어디에 쓰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용돈 사용에 관한 의견을 말씀 하신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용돈 관리방법과 아껴 써야하는 이유나 방법을 알려 주신다	①	②	③	④
3) 나에게 저축방법을 설명하거나 은행에 데려가 계좌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에게 주식투자에 대해 설명하거나 증권사에 데려가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나와 함께 주식계좌를 관리하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6) 금융기관이나 지역 센터에서 주최하는 금융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함께 참여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나에게 경제 뉴스나 금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7번

이제까지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요 → 28번으로

27-1 번 학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금융교육을 받았나요? 다음 각 교육의 경험 유무 및 실생활에 도움 된 정도를 응답해 주세요.

금융교육 방식	경험 유무		도움 정도			매우 도움 된다
	있음	없음	전혀 도움 안된다	대체로 도움 안된다	대체로 도움 된다	
1) 경제금융 교과목 이수	①	②	①	②	③	④
2) 사회, 실과(가정) 등 관련 교과목에서의 활동수업	①	②	①	②	③	④
3) 외부강사 강의	①	②	①	②	③	④
4) 동영상 강의 시청	①	②	①	②	③	④
5) 기타()	①	②	①	②	③	④

27-2 번

언제 처음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받았나요?

① 초등학교 () 학년 때 ② 중학교 () 학년 때 ③ 고등학교 () 학년 때

31번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돈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2) 돈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3) 돈은 사악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4) 돈은 나쁜 일들이 생기는 원인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돈 관리를 잘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돈을 매우 신중하게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32번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들에게 자주 돈을 빌린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①	②	③	④
3) 돈 빌리는 것은 나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의 돈은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내 돈이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돈을 관리해주는 것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은 언제나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33번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럼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지금 나와 우리 가족의 경제여건으로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거나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평소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생활이 빠듯하다	①	②	③	④
3) 지금 가지고 있거나 모아 둔 돈이 금방 없어질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4) 매달 쓰고 남은 돈이 없다	①	②	③	④
5) 나의 금전적인 문제가 내 삶을 지배한다	①	②	③	④

배문6 다음 중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① 부모님(또는 보호자) 모두 직업을 갖고 일 하신다
- ② 아버지만 직업을 갖고 일 하신다
- ③ 어머니만 직업을 갖고 일 하신다
- ④ 부모님(또는 보호자) 모두 일하지 않는다

배문7 부모님(또는 보호자) 중 금융업(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 ① 예 ② 아니오 → 배문8으로

배문7-1 어느 분이 금융업에서 일하시나요?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 ③ 부모님 모두 ④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닌 보호자

배문8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최종 졸업하신 학교를 응답해 주세요.

- (→ 중간에 그만 두었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 (→ 부모님이 안계시면 "3)보호자" 란에 응답해 주세요.)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2) 어머니	②	③	④	⑤	⑥	⑦
3) 보호자	②	③	④	⑤	⑥	⑦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실증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순차적 통합방법설계(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를 기본 틀(frame)로 하여 초·중·고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고 동시에 일상의 금융생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마련하고, 대표성 있는 표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로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초·중·고생 공통적으로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식형성 및 생활습관 형성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 핵심 기제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금융교육 수준' 이라는 점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중학생을 기점으로 부모의 금융교육 수준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스스로 금융정보를 탐색하고 학습하는 활동'이 절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며, 동일 학교급 내에서 특성(부모의 학력, 가족의 형태, 거주 지역, 고교 유형)에 따라 '격차'가 상당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금융교육 및 정책지원의 목표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증진을 통한 생애 금융웰빙 실현의 기본역량 강화"로 설정하고, 3가지 정책추진 방향과 각 추진 방향에 따른 추진 전략, 그리고 총 9가지의 추진 과제를 정책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핵심어 : 청소년, 금융이해력, 생활 실태, 금융교육, 정책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llect fundamental data to comprehend the level of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conditions of youth. Additionally, it aimed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required for formulating youth financial education policies through systematic analysis.

In this study, the '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 was used as the basic framework to measure the financial literacy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youth and provide information on their daily financial life, aiming to create fundamental data for systematic policy establishment. A measurement tool was prepared to gauge the actual situation,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financial literacy were examined empirically by analyzing data collected through a representative sample survey.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 examination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financial literacy among youth resulted in the finding that promoting awareness and developing sound lifestyle habits are crucial for enhancing financial literacy acros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t was discovered that the key mechanism in the process was the parents' level of financial education.

Starting from middle school, the influence of parents' level of

financial education decreases. Instead, the activities of exploring and learning financial information on one's own have a highly significant influence. Meanwhile,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sparity within the same school level, depending on various factors such as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 family type, residential area, and type of high school.

This study aims to enhance youth financial literacy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basic capabilities for achieving lifelong financial well-being,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empirical analysis. In addition, policy suggestions were proposed, including three policy implementation directions, promotion strategies for each direction, and a total of nine implementation tasks.

Keywords: Teenager, Financial Literacy, Life Conditions, Financial Education, Policy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김지경·서정아·송현주
- 연구보고23-기본02 청소년활동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문호영·서고운·김진호
- 연구보고23-기본0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 이윤주·최용환·길정아·황현정
- 연구보고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 임희진·황여정
- 연구보고23-기본05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 / 배상률·김영한·황현정
- 연구보고23-기본06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 오해섭·최홍일·송원일
- 연구보고23-기본07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최정원·이인영·박지숙·이호준
- 연구보고23-기본08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인재·임지연·김민·강영배
- 연구보고23-기본09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 박지수·이지연·한윤선·김혁
- 연구보고23-기본10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조혜영·한지형
- 연구보고23-기본11 청소년 디지털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 이창호·모상현·최항섭
- 연구보고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유성렬·이수정
- 연구보고23-일반01-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
- 연구보고23-일반02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 양계민·권오영·이영신·장윤선·장인숙
- 연구보고23-일반07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황진구·김윤희·정윤미
- 연구보고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윤희·정윤미
- 연구보고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임선아·김지혜

- 연구보고23-일반08-01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 연구보고23-일반08-02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6-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Ⅲ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3) / 김형주·김정숙·김문길·변금선·배정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 참여-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임성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01) 참여-심층분석 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1 청년종합연구Ⅱ: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 / 백혜정·김지연·김승경·김이배·노혜진·김성아·박광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2 2023년 시설외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1) / 백혜정·김지연·김승경·노혜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3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2) / 김성아·김문길·나원희·한영섭·강예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4(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3)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 박광옥·김용득·이복실·이은영·이동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9-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6) / 김경준·김영지·윤철경·이은주·이은주·임성은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3-수시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내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 황진구·김윤희
- 연구보고23-수시02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 배상률
- 연구보고23-수시0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

- 연구보고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
- 연구보고23-수시05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김나영

수탁과제

< 일반 >

- 연구보고23-수탁01 디지털시대, 디지털 문해력 개념의 확장 / 황용석·이현주·황현정
- 연구보고23-수탁02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강진숙·김지연·류숙
- 연구보고23-수탁03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사업 성과 연구 / 이윤주·최정원·최홍일·이수진
- 연구보고23-수탁04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연구보고23-수탁05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3-수탁05-01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자료집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3-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플랫폼 개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 연구보고23-수탁07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교실 - 교사용 수업활동
안내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 연구보고23-수탁08 학교-지역사회-민간연계를 통한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이창호·주예찬·이슬기
- 연구보고23-수탁09 인성교육 프로그램 비인증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봉제·신현우·곽현석
- 연구보고23-수탁10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김영자·김지연·서고운·이정민·최홍일
- 연구보고23-수탁10-0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이미숙·양소현·고혜정·최진혁·한송아·문미혜·윤애영·김주아·조성운·박유정
- 연구보고23-수탁11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용역 / 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 연구보고23-수탁12-01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초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2-02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중고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3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최용환·김동일·박윤수·김보경·장혜윤·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4	2023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 서기희, 김성혜
연구보고23-수탁15	2022년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김보경·장혜윤·김수진, 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6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서기희·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박소영
연구보고23-수탁18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황진구·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3-수탁19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0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1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현황 연구 / 서정아·김정울·김치수
연구보고23-수탁22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체계 연구 / 양계민·권오영
연구보고23-수탁23	레인보우스쿨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양계민·이영신
연구보고23-수탁24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장근영·김기현·이상준·황성수·이규용·윤석천·최성은·조양진
연구보고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3-수탁26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 김윤희·황진구·이상현·김태성·정윤미
연구보고23-수탁27	2023년 청년정책 성과자료 제작 / 김기현·김형주·김지민
연구보고23-수탁28	청년문제 대응 자원 조성방안 연구 / 김기현·이윤주·조양진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학폭0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저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고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3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4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5	2022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발간 모음집 / 모상현·김예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모상현·김창겸·김예원

- 연구보고23-학폭07 202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이경상·남지영·송채원·장원빈
- 연구보고23-학폭08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보고서 / 모상현·남지영·장원빈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3-대안01 대안학교(각종학교) 운영실태조사 / 최홍일·김세광·오해섭
- 연구보고23-대안0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연구 / 최인재·송원일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3-01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23.7.19.)
- 세미나23-0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설명회 및 방법론 특강 (23.8.24.)
- 세미나23-03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역사와 전망」 (23.9.12.)

< 워 크 쉘 >

- 워크숍23-01 2022년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23.2.8.)
- 워크숍23-02 2022 하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23.1.16.)
- 워크숍23-03 2023 꿈지락 운영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23.5.2.)
- 워크숍23-04 2023년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23.5.3.)
- 워크숍23-05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기본과정 (23.7.27.~7.28.)
- 워크숍23-06 2023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23.7.19.)
- 워크숍23-07 2023년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집필진 워크숍 참고자료 (23.8.5.)
- 워크숍23-08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심화과정 (23.11.2.~23.11.3.)

< 포럼 >

- 포럼23-0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23.4.25.)
- 포럼23-02 챗GPT 알고리즘 이해와 청소년 시민성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23.7.4.)
- 포럼23-03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23.8.24.)
- 포럼23-04 보호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처분제도 개선 방향 모색 (23.8.25.)
- 포럼23-05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23.9.20.)
- 포럼23-0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23.9.21.)
- 포럼23-07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포럼 (23.10.25.)
- 포럼23-08 청년종합연구 포럼: 협동연구 연구성과 보고 (23.11.14.)
- 포럼23-09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대응 (23.11.21.)
- 포럼23-10 청소년정책포럼 '도시를 만드는 아이들' (23.12.7.)

< 콜로키움 >

- 콜로키움23-01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23.4.19.)
- 콜로키움23-02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1차 콜로키움 "SDGs 시대의 청소년정책" (23.6.19.)
- 콜로키움23-03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2차 콜로키움 "학습 회복(Learning Recovery)에서 교육 혁신(Education Transformation)으로:코로나 이후 해외 교육 사업의 변화" (23.7.20.)
- 콜로키움23-04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3차 콜로키움 "청소년 사이버범죄 양상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 ATLAS.ti 23을 이용한 주제 분석(원제: Using Thematic Review with ATLAS.ti 23 to Identify Patterns of Cybercrime among Youths from Literature)" (23.8.18.)
- 콜로키움23-05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4차 콜로키움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 월드비전의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23.8.28.)
- 콜로키움23-06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과 현황 (23.9.18.)
- 콜로키움23-07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5차 콜로키움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 도전과 기회를 중심으로" (23.11.13.)
- 콜로키움23-08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6차 콜로키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23.12.01.)

〈 기 타 자 료 집 〉

자료23-01	2022 공교육 안팎 대안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및 연수 보고서
자료23-0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자료23-03	인성교육 재정립 및 학교인성교육 추진방향
자료23-04	학교 시민교육과 시민성 개념의 재구조화
자료23-05	민주적 학교 운영 길잡이
자료23-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자료23-07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위촉식 및 연수
자료23-08	2023년 학생참여교육 실천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자료집
자료23-09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자료23-10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가이드북
자료23-11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3-12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 적용평가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0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0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1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1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14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46호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147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I
148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II
149호	다양한 가족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 연구
150호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 NYPI Bluenote 통계 〉

- 74호 후기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결과
- 75호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76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보고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실태**

인 쇄 2023년 12월 22일

발 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89-3 93330

연구보고 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89-3